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최창욱 · 좌동훈 · 성은모 · 남화성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저 자 최창욱, 좌동훈, 성은모, 남화성

연구진 연구책임자\_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좌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 성은모(국립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_ 남화성(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전략개발팀장)  
연구보조원\_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보고서를 펴내며

뉴딜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뉴딜정책을 새로운 기치로 내걸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딜(New Deal)’은 사전적 의미로는 새로운 약속, 또는 새로운 처방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공공정책의 명칭으로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정된 목적이 아니라 이를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존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사회 변화가 목적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2021년 중반 휴먼 뉴딜로 명칭 변경),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인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사업 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성과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접목하는 청소년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하여 고유연구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1년 한국판 뉴딜 4개 하위영역별로 세부정책과제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기존 청소년정책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며,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확장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구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정책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진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자들과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최 창 욱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뉴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청소년분야의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기존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며,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책과제를 추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함.
- 최종 설정된 한국판 뉴딜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함.

## 2. 연구방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콜로키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수행함.



### 3. 주요결과

#### 1) 청소년정책과 한국판 뉴딜 연관성 / 선행연구 분석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2+1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데이터 댐,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 포함 전체 28개 과제를 제시함.
-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분야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을 5영역(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분야,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 분야,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청소년 보호사업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함. 실제 한국판 뉴딜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으나, 향후 한국판 뉴딜과 청소년정책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였음.
-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정책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함.

#### 2) 국내·외 사례분석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국내사례 분석결과 일부 연계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 국내사례를 통하여 청소년기관별, 지자체별로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사업 분야 확대와 신규 재원 확보,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추진해야 하고, 보호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출(가정박), 학교박 청소년 등에 대한 위기 예방사업들을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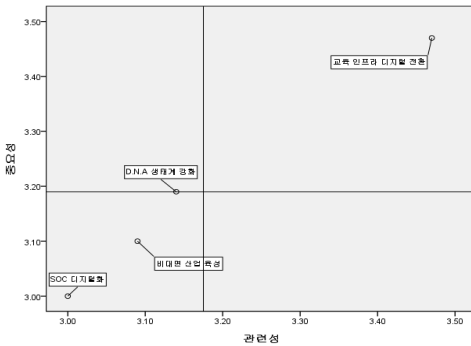
●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하여 뉴딜 종주국인 미국의 사례와 뉴딜을 활성화시킨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

-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다시 강력한 뉴딜정책을 추진 일자리, 교육, 주거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뉴딜의 주안점과 유사함.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의 방향과 목적, 성과 달성을 위한 최종 지향하는 바는 상이함. 한국이나 미국 모두 녹색산업의 활성화(Green New Deal) 필요성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청소년·청년세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향후 국가 재건 내지 국가 발전의 주력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매우 다름(미국: 기반산업·제조업·국내산업 중심, 한국: 디지털, 창업 기반 중심).
- 영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첫째,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영국의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은 18세에서 24세의 구직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25세 이후에도 여전히 구직활동이 필요한 경우 영국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25플러스 뉴딜 프로그램을 통하여 25세 이후 성인들이 이직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지원을 하고 있음. 둘째, 뉴딜의 대상을 모든 세대를 아우름과 동시에 개인별 특수한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있음. 셋째, 구직수당 청구의 조건으로 직업훈련,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복지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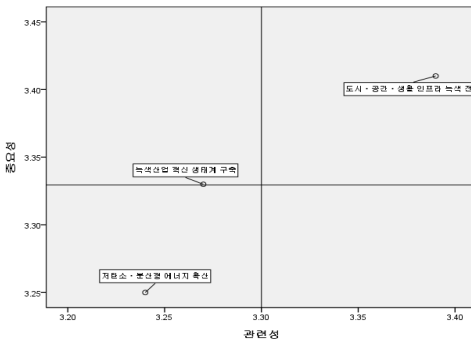
### 3)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과 필요성으로 청소년지도자의 82%정도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음. 특히 안전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 청소년지도자에게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분야에서도 ‘청소년 뉴딜 정책’과 같이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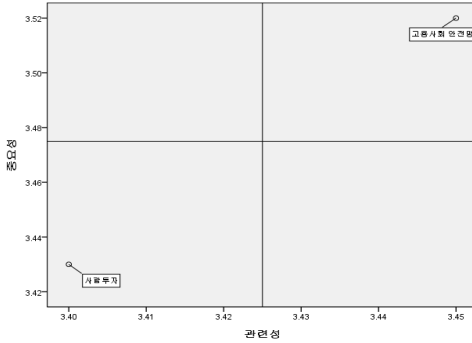
●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관련성과 중요성)은 아래와 같음.



- 디지털 뉴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의 관련성과 중요도가 가장 높음



-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관련성과 중요도가 가장 높음



- 안전망 강화: '고용사회 안전망'의 관련성과 중요도가 가장 높음

- '한국판 뉴딜' 각 분야 청소년 사업현장 대응전략 선호도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 뉴딜에 대한 대응전략 중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린 뉴딜에 대한 대응전략 중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도심·자연형 생활 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등 순으로 나타남.
  - 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응전략 중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등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대응전략 중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등 순으로 나타남.

#### 4)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필요성에서 청소년의 75% 정도가 모르고 있으나,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남. 특히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전망 뉴딜(휴먼뉴딜)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
-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뉴딜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순으로 관련성이 높음.
  -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순으로 관련성이 높음.
  - 안전망 강화에서는 ‘사람투자’와 ‘고용사회 안전망’ 모두가 관련성이 높음.
-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이 청소년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기는 하나, 청소년에게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을 표현한 것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과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청소년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청소년 정책임을 경험하도록 알려나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의 미래 선호 직업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미래 선호 직업군으로는 놀이 직업군(‘문화 콘텐츠 전문가’, ‘게임 기획자’,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여행 기획자’, ‘반려동물 훈련 및

- 상답사' 등), 2순위 미래 선호 직업군에는 연결(네트워크) 직업군('빅데이터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항공우주 공학자' 등), 3순위 미래 선호 직업군에는 의식주 직업군('도시 재상 전문가', '스마트 의류 개발자', '스마트 도시 전문가', '스마트 팜과 곤충 음식 개발자'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판 뉴딜'과 대응하여 '청소년 뉴딜'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직업군과 연계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5)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최종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추출을 위하여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1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합된 대응전략의 중요도 파악과 추가의견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고,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의 개인별 응답, 평균 및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3차 델파이 조사는 최종 추출된 대응전략들의 우선순위 최종점검 및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함.
-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한국판 뉴딜 분야별 중요도 분석결과, 디지털 뉴딜에서는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이, 그린 뉴딜에서는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 체계 구축',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ESD에 입각한 청소년활동 개발·운영'이, 안전망 강화에서는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가,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한국판 뉴딜 분야별 중요도가 높은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으로 조사됨.

-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한국판 뉴딜 분야별 대응전략의 중요도 합의 도출 결과 디지털 뉴딜은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그린 뉴딜은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안전망 강화는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일자리, 주거 등)',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중요도 순으로 19개 대응전략 과제를 추출함.
- 3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2차에서 추출된 19개 대응전략 과제별 검토의견 중 그린 뉴딜의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 운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균형 뉴딜의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와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가 각각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4개 분야의 17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음. 조사에서 제시된 각 대응전략 과제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뉴딜: 청소년의 소비나 생활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 금융 관련 빅데이터 확보·활용방안, 아동-청소년-청년 생애주기의 연결성 확보 및 유기적 체계 구축, 개인정보 등의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 메타버스 활용, 청소년시설 디지털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
  - 그린 뉴딜: 기후위거나 환경보호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지원 기반 마련, 신규 건립·노후 청소년시설 친환경 시설·공간 재구축

위한 법적·제도적·사업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등

- 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의 시스템 개선, 경제적 독립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의 주거 안전망 등 청년정책과 연결 고려, 디지털·그린 분야 직업훈련·진로 관련 청소년사업 영역 확대 필요성, 청소년사업 현장의 여건 개선 위한 전국 차원의 실태 파악 선행 필요성 지적
-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전문가 의견: 시·도별 집중 투자 분야 관련한 지원방안을 시·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지역의 청소년사업 현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 4. 정책제언

-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기존의 청소년정책·사업 현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실효성 있는 통합적·맞춤형 접근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대안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어야 함.
- 기존 청소년정책·사업의 구조와 틀을 넘어 청소년분야가 사회 발전과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자 사회적 인재 양성 및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청소년전문가 대상 설문,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대응전략은 한국판 뉴딜 4개 분야의 17개 대응전략 과제로 구성됨.

한국판 뉴딜 분야	대응전략
<p style="text-align: center;"><b>디지털 뉴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li> <li>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li> <li>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li> <li>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li> <li>5.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린 뉴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li> <li>2.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li> <li>3.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li> <li>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입각한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및 사회적 가치 확산</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안전망 강화</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li> <li>2.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li> <li>3.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li> <li>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li> <li>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지역균형 뉴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li> <li>2.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li> <li>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및 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li> </ol>

차 례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연구보고 21-R09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8
<b>II. 선행연구 고찰</b> .....	<b>11</b>
1.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 .....	13
2. 한국판 뉴딜 관련 대응현황 검토 .....	20
3. 선행연구 고찰 .....	30
<b>III.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b> .....	<b>37</b>
1. 국내 사례 .....	39
2. 해외 사례 .....	106

<b>IV.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b> .....	<b>147</b>
1.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	149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265
3. 시사점 .....	309
<b>V. 전문가 델파이 조사</b> .....	<b>317</b>
1. 조사개요 .....	319
2. 조사결과 .....	323
<b>VI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b> .....	<b>335</b>
1. 전략수립 과정 .....	337
2. 한국판 뉴딜 분야별 대응전략 .....	343
<b>참고문헌</b> .....	<b>387</b>
<b>부 록</b> .....	<b>399</b>
1. 청소년지도자용 설문지 .....	401
2. 청소년용 설문지 .....	410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1, 2, 3차) .....	419

## 표 목차

표 II-1.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	15
표 II-2.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 .....	16
표 II-3.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세부과제 .....	16
표 II-4. 기존 Korea(디지털+그린) 뉴딜과 새로운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 비교 분석 .....	28
표 II-5.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안) .....	35
표 III-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 개요 .....	57
표 III-2.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한국판 뉴딜 사업 개요 .....	58
표 III-3. 2021년 도시농부 프로그램 계획 .....	70
표 III-4. 바이든 정부의 ‘The American Jobs Plan’ 분야 및 주요 내용 .....	111
표 III-5. 바이든 정부의 가정/지역단위 돌봄산업 계획 주요 내용 ..	113
표 III-6.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개발 계획 주요 내용 .....	116
표 III-7. 바이든 정부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 주요 내용 ..	119
표 III-8. 바이든 정부의 ‘미국 가족 계획(the American Families Plan)’ 분야 및 주요 내용 .....	122
표 III-9. 신(new) 뉴딜 프로그램 .....	131
표 III-10. Build Back Better의 3대 중점과제 .....	140
표 III-11. Build Back Better의 3대 중점과제의 세부 성장 목표 및 내용 .....	141
표 IV-1. 한국판 뉴딜 관련 설문조사 개요: 청소년지도자 .....	150
표 IV-2. 설문조사 내용 .....	151
표 IV-3.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 결과분석 .....	152
표 IV-4.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 인식의 기초통계분석 .....	153
표 IV-5.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성 분석 .....	155
표 IV-6.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디지털 뉴딜 .....	156

표 IV-7.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그린 뉴딜 .....	158
표 IV-8.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안전망 강화 .....	160
표 IV-9.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지역균형 뉴딜 .....	162
표 IV-10.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	164
표 IV-11.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	165
표 IV-12.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167
표 IV-13.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비대면 산업 육성 .....	169
표 IV-14.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SOC 디지털화 .....	171
표 IV-15.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결과 .....	172
표 IV-16.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	174
표 IV-17.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176
표 IV-18.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비대면 산업 육성 .....	178
표 IV-19.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SOC디지털화 .....	180
표 IV-20. 디지털 뉴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차이 분석 .....	181
표 IV-21. 그린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	184
표 IV-22.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185
표 IV-23.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187
표 IV-24.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189
표 IV-25. 그린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결과 .....	190
표 IV-26.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192

표 IV-27.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194
표 IV-28.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196
표 IV-29.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분석 ...	197
표 IV-30.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	200
표 IV-31.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고용사회 안전망 .....	201
표 IV-32.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사람투자 .....	203
표 IV-33.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결과 .....	204
표 IV-34.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고용사회 안전망 .....	206
표 IV-35.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사람투자 .....	208
표 IV-36.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분석 .....	209
표 IV-37.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12
표 IV-38.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결과분석 .....	214
표 IV-39.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결과분석 .....	216
표 IV-40.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결과분석 .....	218
표 IV-41.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결과분석 .....	220
표 IV-4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결과분석 .....	221
표 IV-43.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결과분석 .....	223
표 IV-44.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결과분석 .....	224
표 IV-45.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26
표 IV-46.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결과분석 .....	227

표 IV-47.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결과분석 .....	229
표 IV-48.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결과분석 .....	230
표 IV-49.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결과분석 ...	232
표 IV-50.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결과분석 .....	234
표 IV-51.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결과분석 .....	236
표 IV-5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결과분석 .....	238
표 IV-53.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39
표 IV-5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결과분석 .....	241
표 IV-5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결과분석 .....	243
표 IV-56.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결과분석 ...	245
표 IV-57.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결과분석 .....	247
표 IV-58.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결과분석 .....	249
표 IV-59.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결과분석 .....	251
표 IV-60.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결과분석 .....	253
표 IV-61.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54
표 IV-62.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결과분석 .....	256
표 IV-63.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결과분석 ...	258
표 IV-64.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결과분석 .....	259
표 IV-65.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 결과분석 .....	261
표 IV-66.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결과분석 .....	262
표 IV-67.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결과분석 .....	264
표 IV-68. 한국판 뉴딜 관련 설문조사 개요: 청소년 .....	266
표 IV-69. 설문조사 내용 .....	266
표 IV-70.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	267
표 IV-71.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	269

표 IV-72.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필요성 분석 .....	270
표 IV-73.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 디지털 뉴딜 .....	272
표 IV-74.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 그린 뉴딜 .....	273
표 IV-75.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 안전망 강화 .....	275
표 IV-76.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 지역균형 뉴딜 .....	276
표 IV-77.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	277
표 IV-78.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	279
표 IV-79.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280
표 IV-80. 디지털 뉴딜 세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비대면 산업 육성 .....	282
표 IV-81.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SOC 디지털화 .....	283
표 IV-82. 그린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	284
표 IV-83.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286
표 IV-84.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287
표 IV-85.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289
표 IV-86.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	290
표 IV-87.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고용사회 안전망 .....	291
표 IV-88.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사람투자 .....	292
표 IV-89.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들 태도와 가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294

표 IV-90.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	295
표 IV-91.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에 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	298
표 IV-92. 로봇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299
표 IV-93. 에너지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0
표 IV-94. 바이오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1
표 IV-95.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2
표 IV-96. 안전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3
표 IV-97. 놀이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4
표 IV-98. 건강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6
표 IV-99. 의식주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7
표 IV-100. 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8
표 V-1. 델파이조사 참가 전문가 .....	319
표 V-2. 델파이 조사의 기간과 절차 .....	320
표 V-3.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별 청소년분야 관련성·중요성 인식 .....	324
표 V-4.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디지털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25
표 V-5.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그린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26
표 V-6.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안전망 강화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27
표 V-7.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28
표 V-8.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디지털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29
표 V-9.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그린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30
표 V-10.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안전망 강화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31
표 V-11.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	332

## 그림 목차

그림 Ⅱ-1.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정책방향, 추진과제 .....	14
그림 Ⅱ-2.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 및 3가지 유형 .....	17
그림 Ⅱ-3.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사례 .....	22
그림 Ⅱ-4. 청소년 '육성과 보호'와 청소년 '성장' 패러다임 비교 .....	31
그림 Ⅱ-5. 2005년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가치와 이념 전환의 사회적 배경 .....	31
그림 Ⅲ-1. 국가 통합데이터 지도 .....	40
그림 Ⅲ-2. 문화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 .....	41
그림 Ⅲ-3. KYWA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생태계 조성 .....	42
그림 Ⅲ-4. KYWA 빅데이터센터 주요 혁신서비스 .....	42
그림 Ⅲ-5.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 개방 예시 .....	46
그림 Ⅲ-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구조 .....	48
그림 Ⅲ-7. 성남시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	49
그림 Ⅲ-8.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포스터 .....	50
그림 Ⅲ-9. 성북 QR패스 사용 안내 .....	59
그림 Ⅲ-10. 성북 QR패스 등록 및 발행 방법 .....	59
그림 Ⅲ-11. 플틴 활동 모습 .....	63
그림 Ⅲ-12. 그린스마트 환경활동가 프로그램 .....	65
그림 Ⅲ-13. 옥상 생태 공간 및 프로그램 모습 .....	67
그림 Ⅲ-14. 에코그린디자인 프로그램 .....	71
그림 Ⅲ-15.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	74
그림 Ⅲ-16. K-로봇대회 및 특성화 프로그램 .....	76
그림 Ⅲ-17. 유스해커톤 대회 포스터 및 운영 .....	78
그림 Ⅲ-18. 정책단위별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 .....	81
그림 Ⅲ-19. 아동청소년 보호·복지 영역 .....	81
그림 Ⅲ-20. 청소년 가출 경험률 .....	82
그림 Ⅲ-21. 아동청소년 보호·복지 체계의 3단계 지원 .....	84

그림 III-22. 사이버 아웃리치 필요성 .....	85
그림 III-23. 기존 및 신규 사이버아웃리치 비교 .....	86
그림 III-24. 혼합형 서비스(예시) .....	88
그림 III-25. 랜덤 쪽지형 서비스(예시) .....	89
그림 III-26. 익명 채팅형 서비스(예시) .....	90
그림 III-27. PC 기반 익명 채팅 서비스(예시) .....	92
그림 III-28. 사이버아웃리치 활동: 너를위한작은별 .....	94
그림 III-29. 전국 스마트 치료 지원 체계 구축 .....	99
그림 III-30.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 .....	102
그림 III-31. 세대별 자가소유비율 추이 변화(1960~2017) .....	117
그림 III-32. 인종 간 자가소유 비율 추이 변화(2010~2017) .....	118
그림 III-33. 뉴딜 정책 개요 .....	129
그림 III-34. 뉴딜 사업 단계 .....	132
그림 III-35. 2001년 기준 뉴딜 참가자 유지 취업률 .....	136
그림 III-36.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 Build Back Better .....	139
그림 IV-1.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분포 .....	152
그림 IV-2.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성 인식 .....	155
그림 IV-3.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	164
그림 IV-4.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	173
그림 IV-5. 디지털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비교·분석 .....	182
그림 IV-6. 디지털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매트릭스 분석 .....	182
그림 IV-7.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	184
그림 IV-8. 그린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	191
그림 IV-9.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비교·분석 .....	198
그림 IV-10.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매트릭스 분석 .....	199
그림 IV-11.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200
그림 IV-12.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	205

그림 IV-13.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비교·분석 .....	210
그림 IV-14.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의 매트릭스 분석 .....	211
그림 IV-15.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13
그림 IV-16.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26
그림 IV-17.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40
그림 IV-18.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	255
그림 IV-19.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분포 .....	268
그림 IV-20.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필요성 인식 ..	271
그림 IV-21.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278
그림 IV-22. 그린 뉴딜과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	285
그림 IV-23.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	290
그림 IV-2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에 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	298
그림 IV-25. 로봇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299
그림 IV-26. 에너지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0
그림 IV-27. 바이오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1
그림 IV-28.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2
그림 IV-29. 안전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3
그림 IV-30. 놀이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5
그림 IV-31. 건강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6
그림 IV-32. 의식주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7
그림 IV-33. 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	308
그림 VI-1. 연구의 수행 절차 .....	338
그림 VI-2. 정책방안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	342
그림 VI-3.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 .....	346
그림 VI-4.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방향 .....	348
그림 VI-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서비스 구성도 .....	351
그림 VI-6.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상담복지포털 ‘채움’ 홈페이지 .....	352
그림 VI-7.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체계 및 목표 ..	359
그림 VI-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	365
그림 VI-9.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2021) ..	369
그림 VI-10. 경상남도 스마트 인재양성 로드맵 .....	381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초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며,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계획의 주요 골자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후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도입하였다. 즉,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sup>2)</sup>, 지역균형 뉴딜의 4대 뉴딜을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뉴딜(New Deal)’은 사전적 의미로는 새로운 약속, 또는 새로운 처방을 의미한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공공정책의 명칭으로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즉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정된 목적이 아니라 이를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기존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사회 변화가 목적이다.

1) 이 장은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좌동훈 연구위원이 함께 작성하였음.

2) 2021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는 안전망 뉴딜을 휴먼 뉴딜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안전망 뉴딜로 표현함.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15).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인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사업 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성과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현재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부 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그린 뉴딜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안전망 강화의 사람투자 분야, 지역 균형발전 분야 등 청소년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혁신을 통해 도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주체가 될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 발맞춘 청소년 분야의 디지털·비대면·저탄소 녹색 사업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주체적인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와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청소년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 관련 직접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 차정섭(2005),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외(2009)의 연구에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혁신 과정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광호(2008)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변화 흐름을 청소년을 문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각과 교육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향후 교육, 복지, 사회, 경제적 존재로서의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총체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혁신(선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경상, 박선영, 조남익(2014)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까지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기헌, 최정원, 변금선 외(2019)는 청소년정책의 혁신을 위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분야의 주요 인프라인 청소년지도자와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국내사례를 통하여 청소년기관별, 지자체별로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사업 분야 확대와 신규 채용 확보,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추진해야 하고, 보호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출(가정박),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위기예방 사업들을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뉴딜 중주국인 미국의 사례와 뉴딜을 활성화시킨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다시 강력한 뉴딜정책을 추진 일자리, 교육, 주거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뉴딜의 주안점과 유사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의 방향과 목적, 성과 달성을 위한 최종 지향하는 바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영국은 청소년 뉴딜이라는 명칭으로 뉴딜 정책을 추진했으며, 뉴딜 성공을 위한 지속성과 연계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구직수당을 활용한 전략 등이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분야의 혁신과 성과 창출은 단지 기존 인프라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실효성 있고 통합적인 접근방안을 마련에 달려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뉴딜 세부 분야와 관련한 투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분야의 정책과 사업, 서비스가 적정 수준의 투자를 통해 청소년 개개인에게 최적의 대안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뉴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기존 청소년정책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며,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연구 내용

### 1)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 탐색 및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 탐색을 위하여 한국판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하위 영역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내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기존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의 혁신 노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2) 청소년 분야 및 타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현황 검토

한국판 뉴딜 하위영역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분야 및 타 분야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5분야와 한국판 뉴딜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타 분야는 한국판 뉴딜에 따른 각 산업분야의 혁신과 성과창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 3) 국내·외 현황과 사례 분석

한국판 뉴딜의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청소년분야의 한국판 뉴딜 관련 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 국내 사례들을 파악하고, 뉴딜의 종주국인 미국의 뉴딜정책과 최근 바이든 정부의 뉴딜관련 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뉴딜을 적용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4)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안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 청소년분야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개발하였다. 청소년 분야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신규 과제들을 추출하여 현장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판 뉴딜 청소년분야 추진과제들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3.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 양적 연구, 델파이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1)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개념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청소년분야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타 분야의 추진현황을 검토하며,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청소년분야의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전문가, 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과 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방향, 연구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자문,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조사도구 개발,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개발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3) 델파이 조사

최종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추출을 위하여 1~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자문회의,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합된 대응전략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추가의 견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고,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개인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는 최종 추출된 대응전략들의 우선순위 최종점검 및 중점과제별 추진 방향과 전략,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청소년분야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타 분야 관련 전문가 각 5명씩 15명의 전문가를 델파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4) 양적 연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청소년 정책 현장 청소년지도자와 더불어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1)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청소년지도자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전문가 패널단을 활용하였다. 현재 전문가 패널단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자는 총 1,460명이며, 이 중 5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과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성과 중요도, 한국판 뉴딜 세부 정책사업에 대한 청소년사업 현장 대응전략 방안 등이다. 조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분석과 교육요구도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청소년 조사는 청소년 시설 및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과 한국판 뉴딜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총 348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과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성과 중요도, 한국판 뉴딜 세부정책사업에 대한 청소년사업 현장 대응전략 방안 등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분석과 교육요구도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 5) 기타 연구방법

###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의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결과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협력하여 사례 발굴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콜로키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가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떻게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 ○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
- 2. 한국판 뉴딜 관련 대응현황 검토
- 3.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

### 1)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뉴딜(New Deal)’, 즉 ‘새로운 처방’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공공정책, 경제개혁정책의 명칭이다(박진빈, 2004). 미국의 뉴딜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혁신주의(progressivism) 개혁의 역사 속에 위치하고 있다(박진빈, 2004).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은 저성장·양극화의 고착,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에 더불어 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새로운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15).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2+1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3) 이 장은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남화성 전략기획팀장이 함께 작성하였음.

데이터 댐,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과제 포함한 전체 28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그림 II-1.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정책방향, 추진과제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19쪽 내용을 편집하여 제시함.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시키기 위하여 D.N.A(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에 2025년까지 58.2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90.3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들은 청소년분야와 관련성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II-1.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분야		과제
디지털 뉴딜	1. D.N.A.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1·2·3차 쏠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19쪽 내용을 편집하여 제시함.

다음으로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 산업 육성 등의 사업에 73.4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5.9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 분야의 과제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과제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II-2.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

분야		과제
그린 뉴딜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0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19쪽 내용을 편집하여 제시함.

그리고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혁신에 따른 실업 불안, 소득격차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의 사업에 28.4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3.9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표 II-3.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세부과제

분야		과제
안전망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	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2. 사람 투자	26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19쪽 내용을 편집하여 제시함.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1 정책방향에 더불어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sup>4)</sup>.

## 지역균형 뉴딜 개념 및 3가지 유형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

➔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판 뉴딜 중 지역관련 디지털·그린 뉴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li> <li>•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li> <li>•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스마트 스쿨</li> <li>•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li> <li>•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p> <p>한국판 뉴딜의 충실한 구현</p> <p><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경기</span> 디지털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그린 전역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p> <p>지역 여건 반영, 특색있는 사업 발굴</p> <p><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강원</span> 디지털 중화향채 면역치료제 개발 센터 그린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p> <p><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전남</span> 디지털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그린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p>	<p>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추진하는 사업</p> <p>뉴딜 선도사업(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인천항만공사)</li> <li>•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li> <li>• 비대면·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암센터)</li> </ul> <p>혁신도시 뉴딜 거점화(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경북, 도로공사)</li> <li>• 에너지 벨리 조성(광주·전남, 한국전력)</li> <li>•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li> </ul>

그림 II-2.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 및 3가지 유형

\* 출처: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자료.  
<http://www.knewdeal.go.kr/front/cardnews/cardNewsDetail.do?cardno=101>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4)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자료.  
<http://www.knewdeal.go.kr/front/cardnews/cardNewsDetail.do?cardno=101>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 2)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인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사업 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성과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부 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의 분야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그린 뉴딜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안전망 강화의 사람투자 분야 등 청소년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과제인 D.N.A. 생태계 강화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의 일상이나 요구를 분석하여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 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세부 과제는 주로 초·중·고교,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초·중·고교, 대학, 직업훈련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시설·기관·단체의 사업방식(예: 온라인 기반 원격 활동·상담)과 내용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의 첫 번째 과제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이상 그린 리모델링), 학교(그린스마트 스쿨)와 같은 공공시설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사업 현장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들도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공 시설로서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안전망 강화 분야의 세부 과제에서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사업 분야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진로, 직업체험 등과 같은 사업의 기획이나 운영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청소년 노동자들의 사고, 산업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 2. 한국판 뉴딜 관련 대응현황 검토

### 1) 청소년정책과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발맞추는 우리나라 청소년 분야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청소년정책과 주요 사업들이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지역균형 뉴딜의 각 분야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이 한국판 뉴딜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주요 사업들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청소년 사업 안내’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2월 발간된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에서는 현재의 청소년정책 주요 분야별 사업과 정책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분야

먼저 첫 번째 분야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등 정부 청소년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과 성과 관리를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 중에서 한국판 뉴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사업 및 정책과제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예로 들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것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대한 격려와 포상 등을 진행하는 내용들은 청소년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펼쳐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현장의 투자와

효과, 효율성, 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간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청소년분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면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분야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분야는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과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는 청소년 참여 증진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참여기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청소년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도입하거나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같은 목표들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에서는 비대면·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청소년 참여와 관련한 디지털 인프라·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나 2020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개최한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자료 기반 정책제안대회 사례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참여 등 디지털 뉴딜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사례

\* 출처: 아시아경제(2021.2.15.). 성료된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온라인자료집 공개 예정.  
<https://cm.asiae.co.kr/article/202102151120166908>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 (3)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분야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분야는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 내용 중 한국판 뉴딜의 4개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체계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방과후 시간을 안전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로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내용에는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주당 6시수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지정하면서 청소년활동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청소년활동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sup>5)</sup>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지역 청소년활동 관련 지도자를 비롯한 자원들의 역량개발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뉴딜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점진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한 광역시·도 차원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안전의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활동 참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고도화 및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는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과 밀접

5) 디지털 뉴딜 소개 자료. <https://digital.go.kr/front/intro/introMain.do>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중 하나이며, 특히 청소년 복지사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위기청소년 집단은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의 내용들은 앞서 검토한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낮은 수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의 첫 번째 내용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17개 시·도와 시·군·구마다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뉴딜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내용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청소년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의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년 위기상황에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된 청소년 동반자는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을 통해 그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일상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또한 공통적으로 청소년 위기 유형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의 경우<sup>6)</sup>에는 대상 청소년 조사·선정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면서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선정·사용 단계에 행복e음,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의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 (5) 청소년 보호사업 분야

청소년 보호사업 분야는 청소년유해환경점검단 운영관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사 배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분야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해매체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등의 사업들은 디지털 뉴딜의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의 사람투자(디지털 역량)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

---

6) 복지로 청소년특별지원 소개 자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즉, 청소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인터넷·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거나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인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 보호사업 내용 중 청소년근로권의 보호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강화의 세부 내용인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 분야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근로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나 학교밖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의 직업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을 위한 지원 등은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의 중요한 과제로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타 분야 대응현황 검토

최근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과학, 금융, 경영, 방송, 문화관광, 건설, 전기, 해양, 교통 등 사회 산업 전 분야에 걸쳐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및 기후위기 대응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분야들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따른 산업분야의 혁신과 성과 창출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주(2020)는 건설 분야의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면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하고 건설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시티 사업의 확대 추진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 분야의 맥락에서 한국판 뉴딜의 두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혁신과 국토·도시 공간의 스마트화와 같은 중·장기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재학(2020)은 한국판 뉴딜이 우리나라 혁신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통부문이 가지는 과제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이 교통SOC의 디지털화와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과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 뉴딜에서는 환경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교통에너지 관리와 녹색기술 개발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휴먼 뉴딜의 측면에서 생활물류나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스타트업 양성, 교통물류 빅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일자리 창출 등 온라인 경제체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희찬(2020)은 관광 분야의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광산업의 전략적 연계 방향을 검토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수행 주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을 통한 관광산업 구조의 변화와 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 그 기반이 되는 인력양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와 사업들이 관광산업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으로써 관광벤처기업의 육성, 예산 지원방식의 변화, 인적 자본과 교육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 분야나 복지 분야 등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에 관련한 검토나 대응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정훈과 조덕호(2020)는 코로나 19(COVID-19) 시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전략으로서 교육뉴딜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다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창의적인 인재의 지속적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4. 기존 Korea(디지털+그린) 뉴딜과 새로운 Korea 삼각대(디지털+그린+교육) 뉴딜 비교 분석

구 분	Korea 두다리 (디지털+그린) 뉴딜	Korea 삼각대 (디지털+에듀+그린) 뉴딜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창의적 인재를 통한 신산업 및 성장 동력 사동 확충
고용 창출	효과 있음	효과 증대(교육 인력 추가 확충)
공동체 가치	방향성이 불분명 (분야별 이해관계의 상충 가능성)	도덕과 공동체 가치로 무장
사회적 갈등	빈부격차 및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	갈등 해소 및 공평한 사회로 발전
기술발전과 성장엔진	선진기술흡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어려움	도덕과 창의력으로 무장된 인재의 지속적인 제공
국제적인 공유 가능성	한국 사회 적용	발전단계에 따라 세계적인 공유 가능
교육방식 및 인프라	Teaching and Studying (가르치고 배우기)	Learning by Doing (Education 4.0)
수업 방법 혁신	효과적인 지식전달을 위한 치열한 경쟁 (온라인 활성화)	창의적 지혜를 가진 think 4.0형 인재육성(온라인, 대면 수업 공존)
교육내용전환	이론과 일반론 중심의 내용	산업과 연계된 실무교육 중심의 내용
교육성과평가	교과서 기반 교육 성과평가	실무적 응용과 창의력 중심 성과평가
발전방향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	선도국가(first mover)
공극적 삶의 방향	경제적인 성공	경제적 성공, 지혜롭고 행복한 삶

\* 출처: 이정훈, 조덕호(2020). COVID-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 교육뉴딜을 중심으로. 39쪽의 <표2>를 인용함.

두 연구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다리만으로 이루어진 뉴딜은 지속적인 공공 재정의 투자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한계를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및 성장동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건설, 교통, 관광 분야의 한국판 뉴딜 관련 문헌 사례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20)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례들은 한국판 뉴딜이 기존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의 기회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 사업에 관한 단순 예산투입 확대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녹색 기술이 각각의 분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무부처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희찬(2020)의 접근은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구축 방안을 다루는 이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무부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분야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한국판 뉴딜 2+1 정책방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 청소년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의 기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접근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청소년분야의 형성기는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제정,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을 거쳐 체육부에 청소년정책 전담부서로 청소년국이 설치된 1988년 6월 이전까지로 볼 수 있다(김광웅 외, 2009). 이 시기는 정부 부처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전담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김광웅 외, 2009).

이후 1990년대 초 청소년육성법의 폐지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청소년현장의 제정,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청소년분야가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청소년분야의 '성장기' 시기가 도래하였다(김광웅 외, 2009). 이 시기의 청소년분야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들은 주로 청소년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과 같은 물적 인프라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양성제도와 같은 인적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후 보다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흐름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당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을 표방하면서 광범위한 국정개혁을 천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김광웅 외, 2009).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에서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2003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정책 분야의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는 근대사회와 청소년 존재의 사회적 의미를 비롯하여 기존 발달이론적 관점이 전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초월하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소년 이해와 세대간 관계의 패러다임을 전제하고 있다(차정섭,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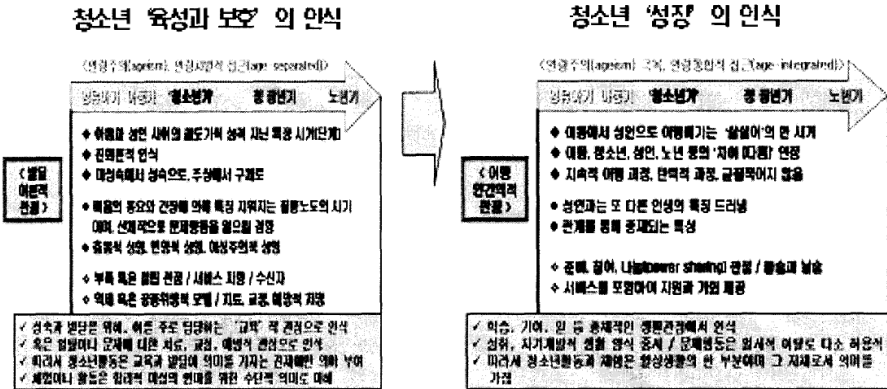


그림 II-4. 청소년 '육성과 보호'와 청소년 '성장' 패러다임 비교

\* 출처: 차정섭(2005).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청소년 육성과 보호 패러다임에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93쪽의 [그림 1]을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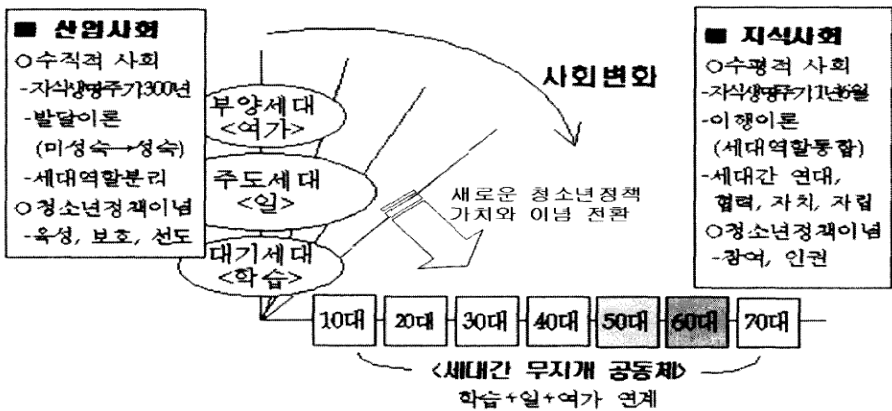


그림 II-5. 2005년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가치와 이념 전환의 사회적 배경

\* 출처: 차정섭(2005).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청소년 육성과 보호 패러다임에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94쪽의 [그림 2]를 인용함.

기존의 청소년육성과 보호로 이분화 되어 온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을

통합하고 지식사회의 변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배경으로 탄생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은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의 4대 정책목표로 이루어져 있다(차정섭, 2005). 이는 청소년 또한 국민주권과 참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된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악화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광호(2008)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변화 흐름을 청소년을 문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64년 체제'와 청소년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85년 체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시기에 발맞추어 교육, 복지, 사회, 경제적 존재로서의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총체적 관점의 청소년정책 혁신(선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적 연령 구분상 중복되어 있는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9세~24세)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출생(의존)에서 청년(자립)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청소년정책으로의 혁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부부처와 관계법령을 조정·통합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대상 범주 재정립,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포함하는 정책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의 전환(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일부 구현되었으나, 이후 청소년정책 전담부처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실제 청소년정책의 혁신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이광호(2011)는 2000년대 들어 디지털 기술의 급진전과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청년실업의 누적 등 사회 환경 변화가 기존의 청소년사업을 비롯한 공적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의 청소년 이행, 교육에서부터 고용, 가족형성

으로의 표준 경로는 점차 복잡해지고 비선형적이며, 예측할 수 없고 취약해지고 있지만, 주로 시설, 프로그램, 인적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왔던 기존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이광호, 2011). 따라서 새로운 청소년사업은 거시적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이행 개별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3.0 시대)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의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로 구성되어 있던 청소년사업 부문을 재부문화(remodeling)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보았다(이광호, 2011).

이경상 외(2014)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까지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소년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6가지 미래 환경 트렌드 변수를 추출하고, 전문가조사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전망을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을 검토·분석하여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비전을 ‘행복한 청소년, 선진미래 창조’로 제시하였다(이경상 외, 2014).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써 기회균등 강화, 공동체성 강화, 신뢰 강화, 소통합리성 증대 등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 시행, 신뢰, 좋은 친구관계,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 소통합리성 증진 등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이경상 외, 2014). 이러한 내용은 미래 사회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함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경상 외, 2014).

이광호와 송지은(2016)은 우리 사회의 지속된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방향,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청소년사업 재구조화의 배경과 핵심기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저성장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청소년에게 알맞은 새로운 청소년정책과 사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혁신이 필요함을 제시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연립정부에서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청소년을 위한 주요 정부 정책 기조로서 ‘큰 사회(Big Society)’를 제시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청소년들이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잠재역량을 성취하고 발휘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를 얻도록 하며, 더욱 많은 청소년이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이광호, 송지은, 2016).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서비스의 전반적인 축소와 아웃소싱, 보편적 서비스의 감소와 취약 청소년 대상 아웃리치 및 선별적 서비스에 초점을 둔 전환 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의 재구조화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는 등 청소년사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광호, 송지은, 2016). 이러한 맥락은 2020년대 우리나라가 직면한 장기적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청소년분야의 혁신방안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즉, 청소년분야의 혁신과 성과 창출은 청소년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며, 저성장 시대에 고통 받는 청소년세대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김기현 외(2019)는 청소년참여와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 청소년분야의 주요 인프라인 청소년지도자와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육성, 수련, 지도 등 현재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혼선과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의 정책 방향을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실효적 접근, 통합적 접근의 4가지로 구분하면서,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추진체계 분야의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5.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안)**

구 분	정책과제(안)
청소년 참여	1-1. 청소년 참여의 대표성 강화 1-2. 청소년 실질적 권한 부여 1-3. 청소년의회 활성화 1-4. 청소년특별회의 재구조화
청소년활동	2-1. 청소년육성, 수련, 지도 개념 재정립 2-2.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2-3. 청소년시설 유형 재구조화 2-4. 청소년시설 평가 및 인증·신고 개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3-1.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개편 3-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 출처: 김기현 외(2019).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연구. 417쪽의 <표 V-1>을 인용함.

앞서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 문헌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분야의 혁신과 성과 창출은 단지 기존 인프라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실효성 있는 통합적인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분야의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은 단순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분야의 정책과 사업, 서비스가 적정 수준의 투자를 통해 청소년 개개인에게 최적의 대안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 — 제3장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1. 국내 사례
- 2. 해외 사례



## 1. 국내 사례<sup>7)</sup>

### 1) 한국판 뉴딜 과제 및 기관별 사례

#### (1) 한국판 뉴딜 과제별 사례

##### 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참고1)

###### ○ 분야 및 과제: 1. 디지털 뉴딜, 1-1, D.N.A 생태계 강화

###### ○ 사업개요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육성을 통해 데이터 축적·유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
- '19년에 10개\*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25년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30개 구축(누적) 예정
-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sup>8)</sup>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빅데이터센터(미래문화시민양성센터) 운영('19~'2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KYWA)에서는 한국판뉴딜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에 2019년 선정되어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7) 이 절의 1) 한국판 뉴딜 과제 및 기관별 사례는 이진원 부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청소년 활동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사례는 조남익 관장(시립성북청소년센터), 3) 청소년보호·복지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사례 및 제안은 김기남 이사장(前 한국소년보호협회)이 작성하였음.

8) 디지털 뉴딜 자료. <https://digital.go.kr/front/main/main.do> 에서 9월 13일 인출.

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구축사업은 2019년 10개 플랫폼, 100개 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0개 플랫폼, 300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이다<sup>9)</sup>. KYWA는 청소년분야 최초로 구축사업에 선정되었고, 데이터 가공 및 품질관리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문화플랫폼의 10개 센터 중 ‘미래문화시민 양성센터’란 명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 약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청소년관련 데이터를 생산·가공·개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생태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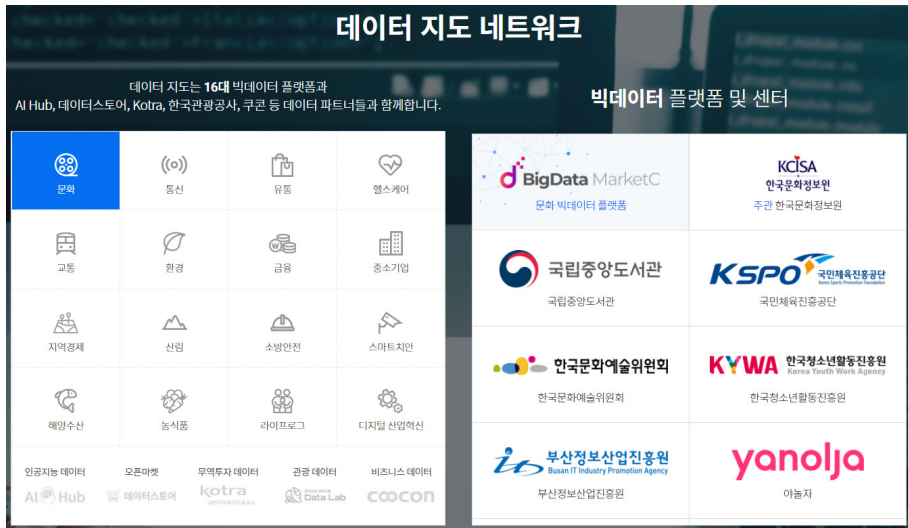


그림 III-1. 국가 통합데이터 지도

\* 출처: 통합 데이터 지도 구성 정보 자료. [www.bigdata-map.kr](http://www.bigdata-map.kr)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KYWA 빅데이터센터는 2019년부터 청소년 체험활동, 봉사활동, 활동안전, 돌봄,

9) 디지털 뉴딜 자료. <https://digital.go.kr/front/main/main.do> 에서 9월 13일 인출.

청소년지도자, 문화, 보호·복지, 국제교류, 다문화 등의 데이터셋 143종을 분야·지역·유형별로 가공하여 문화빅데이터 플랫폼(마켓-C, www.bigdata-culture.kr/)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청소년 관심·고민 키워드, 청소년시설과 교통·상권, 청소년 할인 가맹점, 청소년캠프 연관 키워드 등 융합데이터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고, 청소년시설·기관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97개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그림 III-2. 문화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체험정보 빅데이터센터 자료.  
www.bigdata-culture.kr/bigdata/user/data\_market/agency/detail.do?id=kywa\_org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36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1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oCt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현장 지도자와 함께 디지털 학습 콘텐츠 블로그 ‘Youth01lab’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I-3. KYWA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내부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청소년의 삶과 고민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체험이 줄어든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데이터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 허브 서비스 '나는(I) C(Culture)'를 비롯하여 여가를 즐길 장소가 없는 청소년을 위하여 무료로 자유롭고 편안한 청소년 전용 공간 데이터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 청소년 공간정보 서비스 '모이고 고르고', 청소년사업 종사자를 위하여 청소년의 고민과 관심을 파악하여 시각화 서비스화한 청소년 생각분석 서비스 '청소년 머릿속'이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이다.



그림 III-4. KYWA 빅데이터센터 주요 혁신서비스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내부자료.

2021년 하반기에는 KYWA 빅데이터센터가 개방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 데이터 체계도’ 및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KYWA 빅데이터센터는 청소년분야에서 최초로 국가 중요정책사업에 참여했다는 의의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기반 청소년사업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조성하며, 사업 다각화 및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1]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sup>10)</sup>

##### ○ 사업목적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육성을 통해 데이터 축적·유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
-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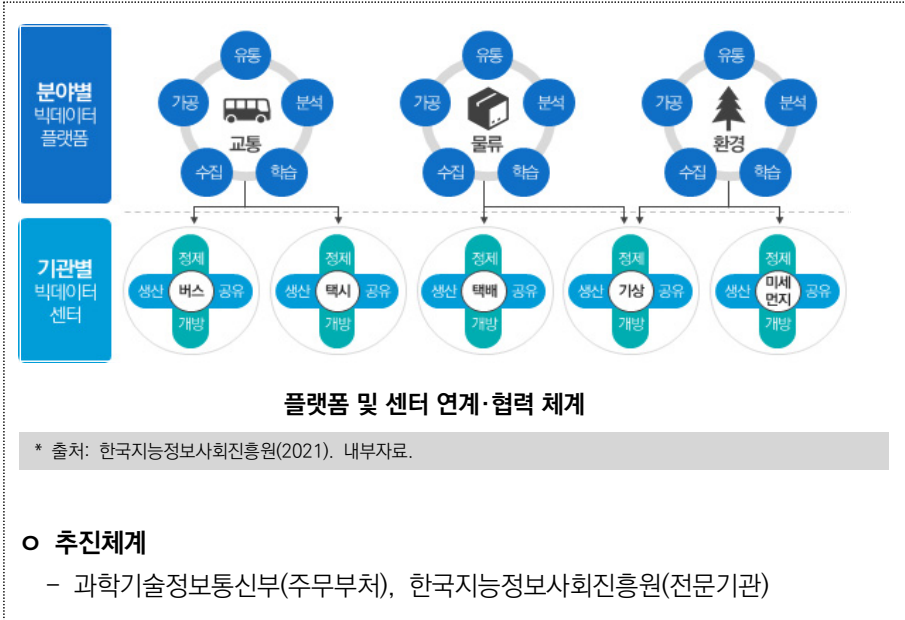
##### ○ 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
- 데이터 패권 경쟁 본격화로 전략적 대응 시급
- 국내는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등 데이터 인프라 부족

##### ○ 주요내용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요 분야별로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통 및 거래를 지원
  - ※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
- (빅데이터 센터 육성) 중소기업 등 주요 기관별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활용

10) 디지털 뉴딜 자료. <https://digital.go.kr/front/main/main.do> 에서 9월 13일 인출한 자료와 김선재 외(2020)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함.



②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참고2)

- 분야 및 과제: 1. 디지털 뉴딜, 1-1, D.N.A 생태계 강화
- 사업개요
  -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축·가공 서비스를 지원

가.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 구축·개발('20년)

KYWA에서는 한국판뉴딜의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 구축·개발하였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제공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 기업의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KYWA는 데이터 관련 전문기업(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였고, 약 2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였다.

KYWA는 2015년부터 수행해 온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등을 토대로 축적해 온 청소년체험활동 안전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차원의 체험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개방을 통해 청소년체험활동 현장 및 활용기업의 청소년 서비스 안전 품질을 제고하며,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생·안전관리 및 체험활동 안전관련 컨설팅 및 법률상담 데이터 등 총 66종의 데이터를 신규로 가공했으며, 데이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전체 CSV파일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안전관리기관에서는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안전 정책 및 제도수립·연구에 활용하고, 서비스 운영 기관 및 기업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품질 제고를 도모하며, 학교 등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는 첫 사례로 의의를 가지며, 청소년분야의 데이터가 국가 차원의 공공데이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파일데이터 상세



## CSV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_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세부 데이터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년주기로 진행되는 청소년종합안전점검의 세부 내용 데이터입니다. 세부 점검 항목은,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입니다.

👍 0 🗨️ 0 □ 관심

## 파일데이터 정보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파일데이터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_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세부 데이터_2019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리부서명	PBL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02-6959-7139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다운로드(바로그가기)	232
데이터 형제		키워드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물안전점검
등록	2021-04-19	수정	2021-04-19

## 그림 III-5.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 개방 예시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76411/fileData.do>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 나. 국가인증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전데이터 구축·개방(21년)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전데이터 구축을 위해 약 2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진행한다.

2006년부터 운영해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가인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요, 국가인증 청소년 프로그램 고위험 활동 점검 내용, 국가인증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장소 안전 데이터를 가공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5명의 청년인턴을 투입해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축할 데이터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전체 CSV파일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할 계획이다.

## [참고 2]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기업 매칭 지원사업

###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제3차('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19.12월) 수립
- 공공데이터 보유기관의 전문성과 예산 부족 등으로 데이터기반행정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한계점 존재
- 공공데이터법('13) 시행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초기기업, 도약기업(3~7년 이내 기업) 및 강소기업(7년 이상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원책 필요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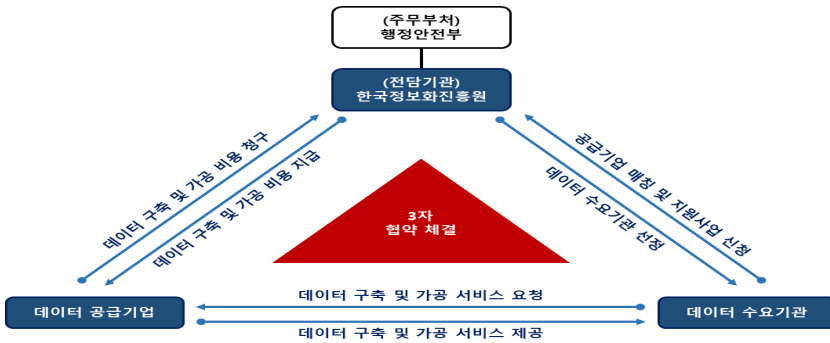
-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축·가공 서비스를 지원

### ○ 추진절차

- 행정·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 수요기관-공급기업 간 매칭 지원 →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과제선정 → 3자(NIA-수요기관-공급기업)협약 체결 → 사업추진 및 관리(이행점검 및 품질검사) → 결과 검토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확인

### ○ 추진체계 및 역할

- 행정안전부(주무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담기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내부자료.

③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참고3)

○ 분야 및 과제: 1. 디지털 뉴딜, 1-1, D.N.A 생태계 강화

○ 사업개요

-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축·가공 서비스를 지원

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성남재단)에서는 2020년 하반기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기술이 필요한 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축·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기존에는 기업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2020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에게도 별도 지원을 실시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림 III-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구조

\*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내부자료.

성남재단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현안 과제 부분에 선정되어 7,000만 원 상당의 성남시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 및 AI 가공 데이터를 공급기업인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성남재단은 공급받은 데이터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재단 청소년빅데이터플랫폼(BIGTA)을 통해 분석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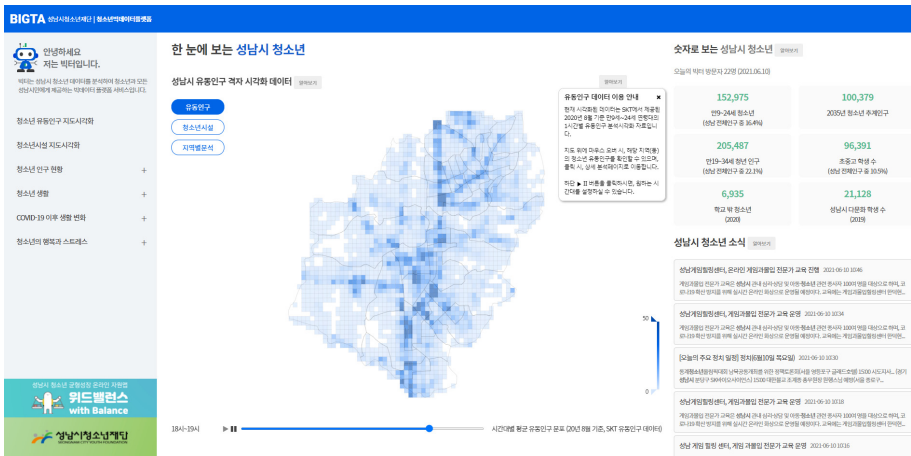


그림 III-7. 성남시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빅데이터 플랫폼 자료. <https://snyouthbigta.datadriven.kr/>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또한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하였다. 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빅데이터 활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사회문제 및 이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청소년의 빅데이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자료와 사례집을 제공해 청소년의 빅데이터 접근 장벽을 완화하였다.

이 사업은 청소년분야의 한정된 예산 및 부족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초로 빅데이터 확보 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에 벤치마킹 사례로서 의의가 있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정책 수립 활용에 그치지 않고 정책제안 대회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0회 빅데이터기반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

10월 26일 제안대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현재의 사회문제 및 이슈, Post. 코로나 시대 도래, 미래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해결방안을 사업이나 정책으로 제안

**10.26. 빅데이터 공개**  
2020. 10. 26. (월) 제안대회 홈페이지 참조

**11.09. 제안서 접수**  
 ■ 제출기간 : 2020. 11. 09. (월) ~ 11. 13.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안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www.snyouth.or.kr/hellomonya](http://www.snyouth.or.kr/hellomonya)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제안서 5매 이내),  
 ■ 제안내용 : 공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주제에 맞는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11.18. 예선 결과발표**  
 ■ 심사기간 : 2020. 11. 16. (월) ~ 11. 18. (수)  
 ■ 심사방법 : 심사위원 서류심사 100%(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 결과발표 : 2020. 11. 18. (수) 본선진출자 발표  
 ■ 심사기준 : 문제 인식, 빅데이터 활용, 창의성, 실현 가능성

**11.28. 본선대회**  
 ■ 일 시 : 2020. 11. 28. (토) 14:00~16:30  
 ■ 장 소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3층 공연장 및 온라인  
 ■ 대 상 : 본선진출팀 8팀  
 ■ 내 용 : 빅데이터기반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본선 운영  
 ■ 발표형식 : PPT, 판넬사용, 연극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시상내역**  
 - 성남시장상 2팀  
 - 성남교육장상 2팀  
 - 성남시의회 의장상 2팀  
 -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 2팀  
 ※ 세부 내용은 후원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지원실 031-729-9071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031-729-9835

주최 성남시청소년재단 주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협력 DATA DRIVEN

그림 III-8.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포스터

\*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자료. <https://www.snyouth.or.kr/main.do>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참고 3]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sup>11)</sup>**

**○ 추진배경**

- 중소기업·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창출하도록 '19년부터 데이터 구매 및 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20년 7월 정부의 「한국형 디지털 뉴딜」정책 발표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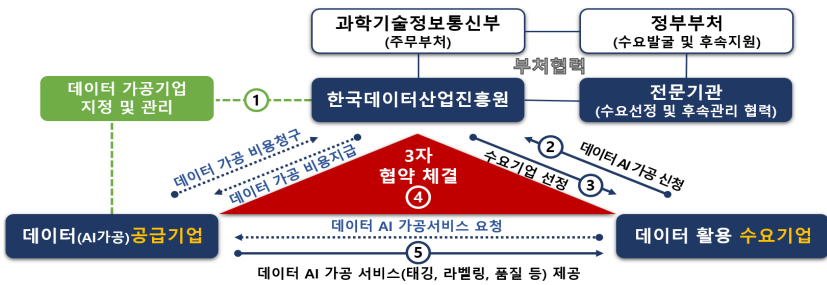
- AI학습용데이터 활용하여 AI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AI 가공서비스 지원

**○ 추진절차**

- ①공급(가공)기업 모집(상시) → ②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사전협의 후 신청 → ③수요기업 평가 및 선정 → ④수요기업-공급기업-K-DATA간 3자 협약체결 → ⑤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전문기관)



**AI 가공 바우처 지원 추진 체계**

\* 출처: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https://blog.naver.com/saltlux1979/222033512227> 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11)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https://blog.naver.com/saltlux1979/222033512227> 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함.

#### ④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참고4)

##### ○ 분야 및 과제: 1. 디지털 뉴딜, 1-1, D.N.A 생태계 강화

##### ○ 사업개요

-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추진

#### 가. 학생·청소년 핵심역량분석 교육데이터 구축('21년)

성남재단에서는 2021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지역특화분야에 선정되어 19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청소년 핵심역량분석 교육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로 AI 고도화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기관, 지자체, 협회, 개인사업자 등이 지원대상이며, 청소년분야에서 성남재단이 최초로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지원 조건은 인공지능 활용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역량을 갖춘 2개 이상 기업·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이며, 성남재단에서는 전문기업 2곳과 서울대학교 연구소, 성남시(지자체 필수)와 함께 지원했다.

성남재단은 성남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분야 교육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성남시청소년재단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데이터 구축 클러스터 조성하고, 성남시 1만명 이상의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120,000건 핵심역량 원천데이터를 수집·가공·구축할 예정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학습역량 분석 AI 개발에 활용되며 AI기반의 청소년 역량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교육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된 교육데이터는 교육 관련 인공지능 개발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해 AI 허브(<https://aihub.or.kr/>)에 원시 데이터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분야에서 최초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역량 중심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역량체계 구축에 AI 활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겠다.

#### [참고 4]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을 통해 전 산업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 ○ 지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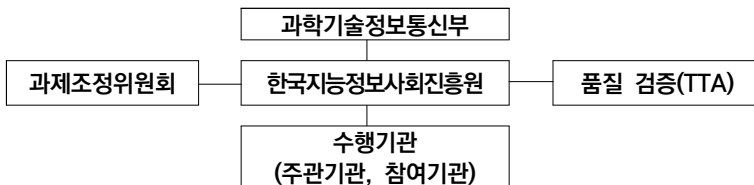
-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좌우할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지능화 서비스 개발에 핵심 기반인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필수
-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 어려움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에 애로
- 인공지능 기술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촉진을 위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이 중요

##### ○ 사업개요

-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추진

#####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추진 체계

\*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내부자료.

## ⑤ 청소년활동 전문인력 원격교육·연수 활성화

### ○ 분야 및 과제: 1. 디지털 뉴딜, 1-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 사업개요

-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가. 청소년활동 전문인력 원격교육·연수 활성화('20~'21년)

KYWA에서는 청소년 지도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격교육 운영 기반 마련하고 비대면 방식의 청소년 지도를 위한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자 교육의 온라인 전환 및 학습관리시스템(LMS)를 도입했다. 교육방식의 온라인 전환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 과정을 확대하고, 현장의 청소년 교육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촬영 및 편집 교육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이터닝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체계적 학습이력 관리와 자발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방식의 확대로 2020년 목표 대비 약 2배의 교육성과를 나타냈으며 향후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청소년활동 전문인력의 양성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사례와 함께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도입으로 향후 학습자 맞춤형 학습관리 및 추천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⑥ 공공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

### ○ 분야 및 과제: 3. 휴먼 뉴딜, 3-2, 고용·사회 안전망

#### ○ 사업개요

- 행정·공공기관의 필요 인력 및 데이터분석 업무를 조사하여 청년인턴 모집에 반영, 분석 교육 실시 후 기관 배치

### 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19~'21년)(참고 5)

KYWA에서는 20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 까지 총 14명의 청년인턴의 일경험 수련 기회를 제공했다. 공공분야에 데이터 전문인력 지원과 양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전문교육-현장 일수련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KYWA는 2019년 빅데이터센터 사업 선정을 계기로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지원·선정되어 1명의 청년인턴을 배정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 4명, 2021년에는 7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수료한 인턴을 활용하여 KYWA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3종('19년 1종, '20년 2종)을 개발하였으며,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20년)를 구축하였고, 국가인증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전데이터('21년) 및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일경험 수련을 마친 청년인턴 중 2019년 1명, 2020년 2명의 인턴이 데이터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한 실적이 있다.

이 사업은 데이터 기반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외부 자원으로부터 유치하고, 참여하는 청년에게 청소년분야의 일경험 수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성장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 5]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 ○ 사업목적

- 공공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전문인력 지원과 양성을 목적으로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행정기관에서 실무경험 기회 제공

### ○ 사업내용

- 행정·공공기관의 필요 인력 및 데이터분석 업무를 조사하여 청년인턴 모집에 반영, 분석 교육 실시 후 기관 배치
- (직무분야) 데이터 분석 및 운영
- (모집지역) 서울권, 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 (지원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선발방법)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 (운영체계) 선발 → 전문교육(3개월) → 일경험 수련(기관배치, 4~6개월)
- (수련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 (주요과업)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등 빅데이터 분석

###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주무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담기관)

#### 《'19~20년 추진내용》

- 2019년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 (인력지원) 75개 행정·공공기관에 100명 배치
  - (분석성과) 수료생 84명 기준 총 168개 과제 분석(평균 2개)
- 2020년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확대 운영)
  - (인력지원) 208개 행정·공공기관에 514명 배치
  - (분석성과) 일경험 수련 3개월간 총 407개 과제 분석(평균 0.86개)

## (2) 한국판 뉴딜 기관별 사례

### 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하여 빅데이터 센터 운영,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 구축·개방, 국가인증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전데이터 구축·개방, 청소년활동 전문인력 원격교육·연수 활성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한국판 뉴딜 사업 개요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예산	비고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센터 운영	- 청소년 빅데이터 생산·개방(143종) - 혁신서비스 제공	'19~21	9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과기부)
	청소년체험활동 안전 통합데이터 구축·개방	- 청소년활동 안전데이터 66종 구축	'20	2억	공공데이터 구축·가공 및 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행안부)
	국가인증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전데이터 구축·개방	- 국가인증 안전데이터 구축 중	'21	2억	
	청소년활동 전문인력 원격교육·연수 활성화	- 비대면교육 - LMS 구축	'20~21	1.6억	-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 청년인턴 14명	'19~21	인건비 지원	공공빅데이터 분석 청년인재 양성사업 (행안부)

### ②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과 학생·청소년 핵심역량분석 교육 데이터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2.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한국판 뉴딜 사업 개요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예산	비고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 성남시 청소년 유동인구 데이터 및 AI 가공 데이터 확보 - 청소년빅데이터 플랫폼 및 청소년정책제안 대회 활용	'20년	0.7억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 (과기부)
	학생·청소년 핵심역량 분석 교육데이터 구축 사업	- 학생·청소년 핵심역량 분석 교육데이터 구축	'21년	19억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과기부)

③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센터 성북 QR패스 ‘얍스(YOP Pass)’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센터(이하 성북센터)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 센터 운영모델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시간대(1318 Youth Only Project, Y.O.P)라는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3개 센터 중 하나로 선정되어 기존의 자립형 청소년센터의 수익형 사업 모델을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시부터 18시를 청소년 전용 시간대로 설정하고 학습지원 활동,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주도 진로활동 등 역량개발사업과 스포츠 및 문화지원 활동, 자유공간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형태이다.


1318 Y.O.P의 시행과 함께 이용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실적 관리, 이용 성향 분석,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패스를 도입하였다. 청소년아지트 등 자유이용공간 및 체험, 이벤트 등 프로그램 실시 공간에 QR패스 리더기(태블릿) 설치하고 공간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 시 방명록 대신 QR패스를 이용하여 입실, 퇴실 처리한다. QR패스는 센터 1층에서 입장 시 사용자 등록 후 발급되며, 스티커 형태로 발급된 패스를 휴대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청소년들의 센터 입·퇴장 및 자유 이용 공간,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현황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된다. 또한 코로나19 등 방역관리를 위한 QR전자명부, 방명록 작성을 대체하기도 한다.


우리는 **YOP**으로 편하게 출석한다!!

# 성북 QR 패스 YOP 압스

성북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QR패스** 를 운영합니다.

청소년야외 등 자유공간을 이용할 때도!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도 **방명록 작성 NO** 

방역 QR체크인(QR전자명부도) **《성북QR패스 "압(YOP)스》** 하나로 OK 

**QR등록&발급** 받고 편하게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를 이용하세요~

### 그림 III-9. 성북 QR패스 사용 안내

\* 출처: 서울성북청소년센터(2021). 내부자료.

#### 성북QR패스 "압(YOP)스" 등록&발행



성북청소년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화면에 표시된 안내에 따라 **화면 터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입력

① 처음이라면 → **신규 등록**  
②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바코드 발행**



입력된 정보 확인 후 **바코드 출력** 또는 **문자전송** 클릭  
입력이 잘못되었다면 **다시입력**



바코드 출력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QR 발행이 완료되었다면?**

1. QR 출력 시

-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
- 전용 명찰에 부착하여 사용 (명찰은 센터 퇴장 시 반납)

2. QR 휴대폰 전송 시

- 휴대폰으로 받은 QR 바로 사용

### 그림 III-10. 성북 QR패스 등록 및 발행 방법

\* 출처: 서울성북청소년센터(2021). 내부자료.

2021년 상반기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이용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이용자 기록) 되고, 신규 가입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공간별, 일별, 월별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 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이용 청소년의 편의성 증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청소년센터 운영과 디지털 전환의 주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 시사점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0년 7월 1.0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1년 7월에 2.0 추진계획으로 보완되었다. 2.0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면 5대 대표과제(①디지털 초혁신, ②탄소중립 인프라, ③청년정책, ④4대 교육향상 패키지, ⑤5대 돌봄격차 해소)에 22개 세부과제, 4분야 추진과제(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③휴먼 뉴딜, ④지역균형 뉴딜)에 3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관계 부처합동, 2021.7.14.).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2022년까지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한국판 뉴딜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특히 신규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여 기존의 재정범위 내에서 재원을 우선 조정 배분 할 경우 한국판 뉴딜 과제의 비유관 분야에 대한 긴축이 불가피하게 되고, 기존의 재원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비롯하여 각종 평가 및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분야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종합계획의 대표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각 조직 및 사업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유관사업을 개발 및 예산확보에 정책적·환경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부처별(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문화부 등) 사업 공모 시 적극 참여하여 사업분야의 확대 및 신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거나 선제적인 제안을 통해 각 조직 및 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 활동 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사례

### (1) 청소년활동 분야의 그린 뉴딜 사례

#### ①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네이처드림센터’<sup>12)</sup>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생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네이처드림센터는 북한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청소년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2019년부터 기존 자연환경의 수혜자로서 자연을 도구적으로 활용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청소년 주도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해에는 ‘플라스틱 줄이기’라는 핵심 주제로 시작하여 보편적인 환경문제로 프로그램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바다 건너의 그레타 툰베리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강사로 또래 청소년들과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플라스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첫걸음을 떼었다. ‘플틴 Plastic Teenager’ 사업은 청소년들이 플라스틱 환경

---

12) 시립강북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nanna.seoul.kr/main.kr>)를 참고하여 집필함.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발적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8팀 78명의 청소년이 ‘친환경 빨대 마을 카페 배포’, ‘교실 분리배출 캠페인’, ‘환경도서 나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거리 설문’, ‘포스터 및 카드뉴스 배포’ 등 팀별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기록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제해결 기반 활동(PBL)은 환경문제 자체에 대한 개선 효과뿐 아니라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통역량, 갈등 해결 및 협업 역량, 창의 역량, 진로 역량을 신장시켜주는 통합적 교육 효과를 가져왔다.

2020년 코로나19로 기존 운영 형태로 사업 진행이 불가해졌으나, 다양한 비대면 활동 방안 적용 노력으로 ‘찾아가는 워크숍’을 통한 사업 취지 및 활동 방법 교육, ZOOM을 통한 ‘중간공유회’로 활동 동기부여, ‘결과자료집’ 제작과 ZOOM과 유튜브를 통한 블렌디드 방식의 ‘결과공유회’ 운영으로 성과 확산과 성취감 고취 등의 기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21년 ‘플틴’은 10개 팀의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다.

#### 참가 청소년 소감

“플틴 활동을 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 가는 일이 새롭고 뿌듯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면서 다른 새로운 목표들이 생기고, 실천 가능한 선에서 그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일이 정말 뜻깊었다.” (주경야독 백세영)

“내년에 플틴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참여하려 시도할 것이다.” (주경야독 양준빈)

“작년에도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였었는데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쉬웠었다. 마침 플틴은 청소년이 직접 계획을 짜고,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찾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이플라스틱 정지영, 정승주)

“1년 동안 플틴 활동을 하며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플틴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보고 싶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플러스마이너스 이지은, 인은비, 최예진, 임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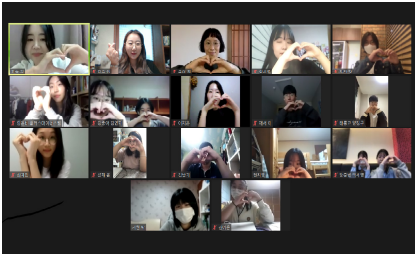
\* 출처: 시립강북청소년센터(2020). 2020 플틴 결과자료집의 내용을 정리함.



찾아가는 워크숍: 계획 수립



찾아가는 워크숍: 환경카드 활동



중간공유회: 줌 캡처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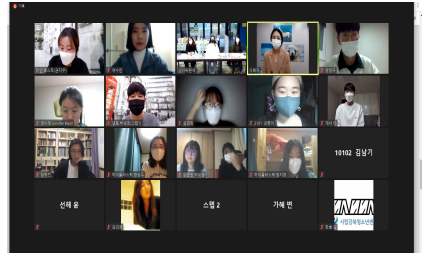
중간공유회: 환경활동가특강



실시간 채팅

구인

결과공유회: 유튜브 송출 화면



결과공유회: 줌 캡처화면



죽마고우팀: 거리 설문



주경야독팀: 미래를 위한 금요일

그림 III-11. 플틴 활동 모습

‘그린스마트 환경활동가 진로체험’은 2020년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환경활동가와의 비대면 만남과 제작 활동을 통해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하고 비영리 직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 탐색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기획되었다.

2020년 10월~12월 3개월 간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강북구 내 초·중등 12개 학교 2,000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 참가 청소년 전반적 만족도 긍정응답 90% ▲ 참가 청소년 전반적 만족도 긍정응답 90% ▲ 비대면 프로그램 적합성(운영, 강사 외 평균) 긍정응답 93% ▲ 환경 인식 변화(3문항 평균) 긍정응답 93% ▲ 창의적 진로탐색 역량 변화(3문항 평균) 긍정응답 92% ▲ 비대면 프로그램 적합성(운영, 강사 외 평균) 긍정응답 9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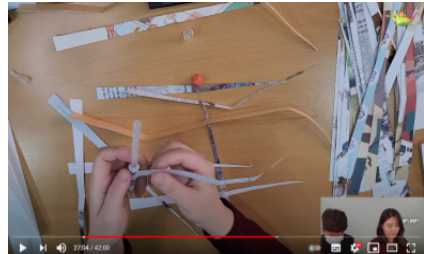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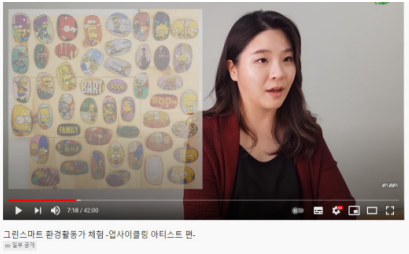
#### 연계학교 진로교사 소감

“기존 천편일률적인 진로 프로그램의 틀을 깨뜨린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점점 중요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 공유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이런 진로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강북중 진로교사 심종옥)

“같은 포맷의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 2021년 유료가 된다 해도 반드시 신청하겠다.” (수유중 진로교사 김재중)

\* 출처: 시립강북청소년센터(2020.11.24.). 2020년 강북구 진로교사 간담회 내용을 정리함.

2021년 이미 1,587명의 청소년이 친환경 공익적 진로 체험을 하였으며 신규 체험과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진로 탐색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업사이클링 아티스트와 ‘종이비즈 볼펜 만들기’



천연화장품 제작자와 인센스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모습

그림 III-12. 그린스마트 환경활동가 프로그램

2021년에는 담배꽂초 어택, 줍깅, 자원순환상회, 비건요리 워크숍 등의 새로운 환경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강북지역의 자발적 시민활동인 ‘강북구 기후 행동 실천 시민 모임’과의 연계를 통해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 및 챌린지,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및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아이스팩 재사용 인식조사에는 441명의 청소년이 응답하여 그 결과가 지자체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되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주도의 환경문제 개선에 관한 노력은 그린 뉴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먼 뉴딜에도 해당하는 사례라 하겠다.

②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서울시영등포환경교육센터’<sup>13)</sup>

기후변화는 현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요한 문제로 사회·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세대인 청소년에게 기후변화는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두려움과 공포로 연결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며 과학적 사고, 의사 결정,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과 환경감수성 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박동일, 2018).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더 발전되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행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박동일, 2018).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환경 의식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시립문래 청소년센터는 영등포구와 함께 서울시영등포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2020년 서울시영등포구환경교육센터 지정되었다. 서울시영등포구환경교육센터는 학교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현재 환경의 실태를 깨우치고, 청소년기후행동의 적극적인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3) 시립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www.mullaeyouth.or.kr>)를 참고하여 집필함.



달촌생태 텃밭 조성 모습



달촌생태 텃밭 체험



달촌 양봉장



서울청소년환경축제 운영

그림 Ⅲ-13. 옥상 생태 공간 및 프로그램 모습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배우는 참여 프로젝트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 내 구조화된 교육을 벗어나 외부활동을 통한 경험 중심의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이 중요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지향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도전 질문을 해결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 핵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ng)은 환경 프로그램에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프로젝트가 기존의 강의 형식의 일방적 전달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기후를 주제로 특강 및 워크숍 형식의 참여자 중심 문제 발굴, 실천 활동 및 해결 방법 모색 등을 통한 PBL 모델 구축하여

결국 청소년이 환경문제의 주체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문제 개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 관련 전문 강사가 주축이 되어 환경과 기후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보조강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및 기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워크숍 및 미션 활동을 통해 기후 문제에 새로운 관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민해봄으로써, 나아가 청소년 활동 핵심역량(비판적 사고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고, 강의 진행 중 워크숍 및 미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 간 생각과 질문 등을 공유하면서 소통과 경청 등의 민주시민적 요소들이 향상되면서, 나아가 청소년 활동 핵심역량(의사소통)을 키워나갈 수 있어 미래역량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학년제 연계 생태전환교육 실시 등 체험형 수업, PBL(Project Based Learning) 수업방식을 통해 환경감수성·자기주도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통해 환경 리더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프로그램 개발로 환경 교육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사회적 실천 유도 등 지역 청소년의 근거리 환경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환경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영등포 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환경 문제에 청소년이 먼저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다른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은 지역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개선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역량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③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에코그린디자인’<sup>14)</sup>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는 다양한 환경 및 생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복합적인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 위기 및 자원의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단체들과의 연계 협업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 태양광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및 미래에너지 분야의 체험을 대면과 비대면이 가능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환경 교육에서는 교육을 진행하여 만드는 제품이 단순 체험이거나 재료의 질이 낮아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활용한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제작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에 전문가의 디자인을 접목한 파우치 만들기 등은 리사이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환경프로그램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실생활에서 환경 의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응용한 융합형 환경 제품 만들기 등 다양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환경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업사이클링 및 미래에너지와 관련 활동을 통해 미래 환경 직업 그린잡(green job)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코그린디자인 프로그램은 미래 기술과 자원이 접목된 환경 교육 과정과 더불어 전통적인 도시농부 활동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텃밭교육과 절기에 맞춘 우리 전통문화체험을 접목하여 진행함으로써 기온변화에 따른 작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절기에 맞춰 고추장 만들기, 창포물 머리감기 등 우리 문화체험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고 생태 감수성 향상을 끌어내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을 늘리는 육류의 식생활을 줄이고 직접 키운 먹거리를 활용한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습득함으로써 편식을 줄이고 건강한

---

14) 시립성북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s://www.sbyouth.or.kr/web/home>)를 참고하여 집필함.

신체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3. 2021년 도시농부 프로그램 계획

회차	구분	세부 프로그램
1	설레임의 날(첫 만남)	- 나눈요~ (소개하기) - 텃밭 정원 디자인 - 쌈 채소 심기 - 파종(토종씨앗 관찰 후)
2	우리의 맛을 찾아서	- 고추장의 비밀(시중 고추장과 담금 고추장) - 고추장 담그기와 떡볶이
3	생활 속 화학물질	-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는? - 친환경 꿀 비누 만들기
4	심기는 계속되어요!	- 열매채소 심는 절기 - 가지, 토마토, 고추 등 식재
5	단오 명절에는 무엇을 할까?	- 단오 명절이란? - 수리취떡과 영두화채 만들기 - 창포물 머리 감고 건강 챙기기
6	색으로 맛으로 승부한다	- 의사의 얼굴이 파래지는 토마토가 익는 계절 -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기
7	우리들의 텃밭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	- 가을 작물 식재 - 씨앗(갓 등) 직파
8	우리 집 공기정화 지킴이	- 공기정화 식물이란? - 공기정화 식물 심기 - 식물관리 방법 알아보기
9	가을에 내리는 눈 팝콘!	- 옥수수는 무조건 팝콘이 될까? - 팝콘 튀기기
10	우리가 만드는 떡 케익	- 떡은 떡집에서만 만들까? - 옥수수 케익 만들기
11	멋쟁이 스카프를 두르고 가을 여행 갈까?	- 천연염색의 진실 - 치자 스카프 염색
12	미리 먹는 동지 팔죽 또는 양갱	- 동지에 먹는 팔죽의 의미 - 팔죽 또는 양갱 만들기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은 일상의 실천과 성과를 경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환경에 관한 좋은 습관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청소년도시농부 활동



태양광핸드폰충전기 제작



모스그래피티 체험



미세플라스틱 이해하기

그림 III-14. 에코그린디자인 프로그램

## (2) 청소년활동 분야의 디지털 뉴딜 사례

### ①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sup>15)</sup>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https://www.webzen.co.kr/>)(이하 ‘청소년코딩공작소’)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과 분당야탑청수련관에 구성되어 있다. 2016년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2019년부터 코딩교육이 의무화 된다는 것에 대비해 시작되었으며, 지역 게임기업인 웹젠(<https://www.webzen.co.kr/>)이 참여하여 더욱 좋은 사례로 보인다. 웹젠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단독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려 하였으나 인력과 시간 등의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확대된 것이다.

2017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시작된 청소년코딩공작소는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을 사고력 향상에 가장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원리-재발견-구현’ 중심의 교육 활동을 추진하였다(뉴시스, 2019.6.17.).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비트’ 활동은 코딩 학습 후 간단한 게임과 로봇을 실제 만들어 보는 과정이었으며, ‘메이커 프로젝트’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실행해보는 활동이었다(뉴시스, 2019.6.17.). 두 가지 활동 모두 원리를 학습하고 활용 가치를 재발견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생활 속에서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뉴시스, 2019.6.17.).

2020년에는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 2호점을 설치하고 성남재단과 웹젠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ZDNet Korea, 2021.4.7.). 코딩교육이라고는 하나 높은 수준의 코딩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AI(인공지능),

---

15)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www.snyouth.or.kr/tyouth/index.do>),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www.pgyouth.or.kr/>),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홈페이지(<https://www.webzen.co.kr/>) 자료를 참고하여 집필함.

IoT(사물인터넷) 등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술 관련 단어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왜 이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6)</sup>.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은 게임회사 웹젠과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함께 만든 훌륭한 사회공헌 사례이다<sup>17)</sup>.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코딩공작소는 자기주도 성장과 교육 여건 조성에 주력하면서 청소년 비대면 교육 확대와 성장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맞는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발도 추진 중이다<sup>18)</sup>. 성남재단과 웹젠은 2017년 판교청소년수련관과 2020년 야탑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을 조성해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연평균 2,500명의 성남시 청소년에 코딩교육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sup>19)</sup>.

지역의 기업과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사회적 필요를 채우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딜2.0에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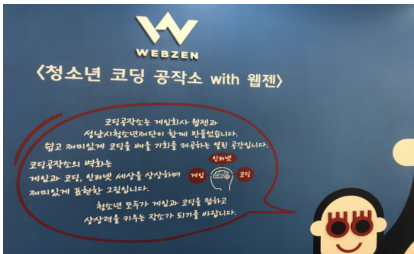
16)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 자료. <https://blog.naver.com/innosociallab/221851345526>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17) 성남시복지이음정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snbokjinet/222380393527>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18) 성남시복지이음정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snbokjinet/222380393527>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19) 성남시복지이음정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snbokjinet/222380393527>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코딩공작소 수업 모습



야탑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내부 모습

그림 III-15.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② 시립창동청소년센터 'K-로봇대회 with RO:BIT'<sup>20)</sup>

서울시와 광운대학교가 주최하는 'K-로봇대회 with RO:BIT'(이하 K-로봇대회)는 2021년 12회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청소년 대상 로봇대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휴머노이드(격투), 로봇슈팅, 미션형창작(초급, 고급), 라인트레이서, 블록코딩(초급, 고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회가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이 수여된다.

K-로봇대회는 전국 청소년들이 로봇에 대한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고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어 매년 인기가 높다(서울특별시, 2020.11.4.).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사전에 로봇 제작 등 준비과정을 통해 대회를 준비함으로써 대회 참가의 의미를 넘어 로봇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20) 시립창동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www.cdyouth.or.kr/>)를 참고하여 집필함.

창동청소년센터와 광운대학교 로봇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로빗단(RO:BIT)이 함께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동기 부여의 장을 제공하였다.

대회 분야 중 휴머노이드 부문에서는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 간의 격투기 경기가 펼쳐졌고, 미션 부문에서는 로봇들이 테니스공 옮기거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며 임무를 완수해내는 로봇 게임을 볼 수 있었다(서울특별시, 2020.11.4.). 대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팀별로 로봇을 직접 제작하여 프로그래밍 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여 협력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20.11.4.), 로봇 제작부터 운행까지 경기 전반의 모든 것을 직접 함으로써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서울특별시, 2020.11.4.).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K-로봇대회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관련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로봇 교육 프로그램 로하우'는 로봇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로봇 관련 교육과 실습 프로젝트 제공 및 로봇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줌으로써, 로봇 관련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플랫폼 클래스'는 지역 청소년 대상 4차 산업혁명에서 대두되는 과학 분야 중 소프트웨어 코딩, 3D프린터, 로봇 및 IoT전문교육으로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ICT진로체험클래스'는 자유학기제 또는 학급단위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기초 로봇 코딩, 게임 활용 코딩교육, 3D 프린팅 교육 및 실습, 로봇공학자 진로교육 등 4차산업 관련 진로교육을 제공한다. 'ICT메이커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형 솔루션 로봇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K-로봇대회와 로봇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로봇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뉴딜과 휴먼 뉴딜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020 K-로봇대회 포스터



블록 코딩 대회 모습



청소년 로봇 프로그램 로하우



플랫폼 클래스



ICT 진로체험클래스



ICT 메이커톤

그림 III-16. K-로봇대회 및 특성화 프로그램

③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유스해커톤’<sup>21)</sup>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스해커톤은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청소년 만남의 장이다. 유스해커톤은 청소년(Youth), 해킹(Hacking),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청소년이 팀을 구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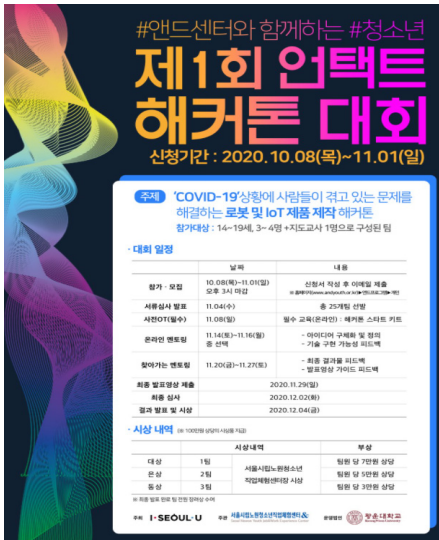
21) 시립노원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http://www.andyouth.or.kr/kr/index.php>)를 참고하여 집필함.

고 협업해 아이디어 기획에서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회이다(NewsWire, 2021.7.2.).

2020년 11월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1회 유스해커톤 대회는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관련한 With Corona 시대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IoT(사물인터넷) 기술 구현 해커톤으로 23팀의 청소년 팀이 참가하였다. 아이디어 독창성, 문제인식 명확성, 실현 가능성, 완성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5가지 영역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멘토링 및 교육을 포함하여 한 달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참가팀들은 자동 출입방역 시스템, 코로나 위험지역 알림이, 격리 대상자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문 통제 기술 구현 등 다양한 아이디어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유스해커톤 대회는 청소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공동 협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창의력,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향상시켜 미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창의·융합 핵심 기술 교육의 활성화를 선도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2021년 10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2회 유스해커톤 대회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팀 OT를 시작으로 83차례에 걸쳐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여 그린 스마트 아이디어 멘토링, 아두노이 실습,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제품 기획서 작성 등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시립노원미래진로체험센터 및 미래산업고등학교 내 공간을 예약제로 운영하여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멘토단의 멘토링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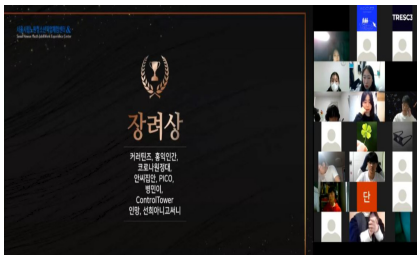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미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해커톤 대회는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이 디지털 그린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휴먼 뉴딜에도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 제1회 유스 해커톤 대회 포스터



2021년 제2회 유스 해커톤 대회 포스터



2020년 제1회 유스해커톤 시상식 사진



2020년 제1회 유스해커톤 시상식 사진

그림 III-17. 유스해커톤 대회 포스터 및 운영

(3) 시사점

청소년 활동 분야의 뉴딜 관련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은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뉴딜 사업의 주요 대상자이자 ‘청소년 활동 분야’는 뉴딜 콘텐츠에 부합하는 사업을 이미 여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운영되는 방식이 기관이나 시설 단위의 작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큰 영역의 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 단위의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행의 과정과 내용은 결국 지금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운영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통해 청소년 활동 분야와 뉴딜 사업의 연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뉴딜 사업은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개발에 관한 대부분의 사업은 ‘휴먼 뉴딜’ 핵심 영역으로 볼 수 있고 환경문제에 많은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본다면 ‘그린 뉴딜’ 또한 다른 세대보다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세대가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세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청소년들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기대하는 뉴딜 사업에 있어 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뉴딜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개선하는데 뉴딜 사업이 함께 기여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뉴딜 사업에서도 청년들의 일과 자립의 관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년의 문제를 청년시기의 문제로 보는 것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과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의 개선 관점에서 청소년분야와 뉴딜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넘어 ‘세대 균형 발전 뉴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뉴딜 사업은 사회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목적성을 되새겨 본다면 청소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역량개발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찾고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 따라서 뉴딜

사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 청소년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활동 분야의 다양한 사례와 실험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인재 양성의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은 예산의 시범사업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어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사업이 뉴딜 사업의 주요 대상과 영역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사업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뉴딜 사업이 더 빠르고 적극적인 성과를 얻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청소년 보호·복지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사례 및 제안

#### (1)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현황 및 실상

현재 한국의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는 한 개의 부처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어 한 가지의 부서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관련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라 할 수 있으나, 기존 청소년 정책의 시작인 청소년 활동·육성관련 사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영역이라 단언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일반 국민의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복지에 대한 지점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관련한 아동보육과 아동복지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주관하는 부처로 교육부에서 다루는 보호와 복지활동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은 지역의 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돌봄사업이나, 교육복지, 방과후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소년관련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다양한 보호·복지 관련 사업 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성보호 및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활동을 비롯해서 가출(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직접대상관련 청소년정책 업무를 비롯하여 전국단위에 펼쳐져 있는 방과후아

카데미 사업 등은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청소년안전망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규모는 작지만 법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년보호’활동과 경찰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랑의 교실’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와 복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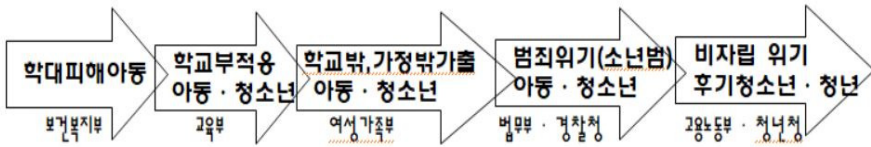


그림 III-18. 정책단위별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복지적 중요성과 필요한 업무가 있다는 사실이다. 각각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 사회체계임에도, 관련한 유사 업무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는 이로 인한 자원의 분산으로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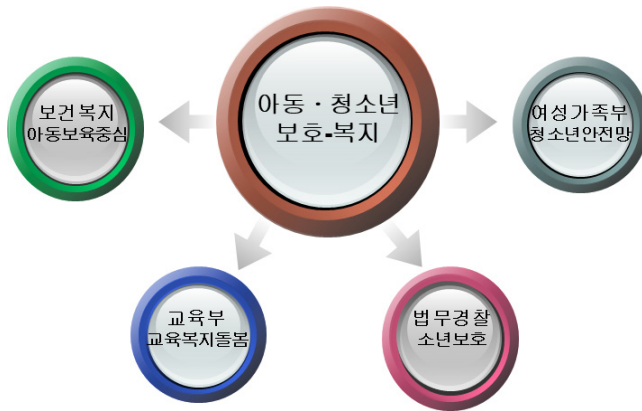


그림 III-19. 아동청소년 보호·복지 영역

그러한 시각지대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다양한 비행과 위기사항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가정밖) 청소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24만여 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추산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0), 대다수는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가출(가정밖)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기준 청소년 가출 경험률이 초등학교 2.3%, 중학생 3.1%, 고등학생 3.1%인 점을 감안하면(여성가족부, 2020), 연간 13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이기에 19세~24세 정도의 후기청소년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가출로 인한 거리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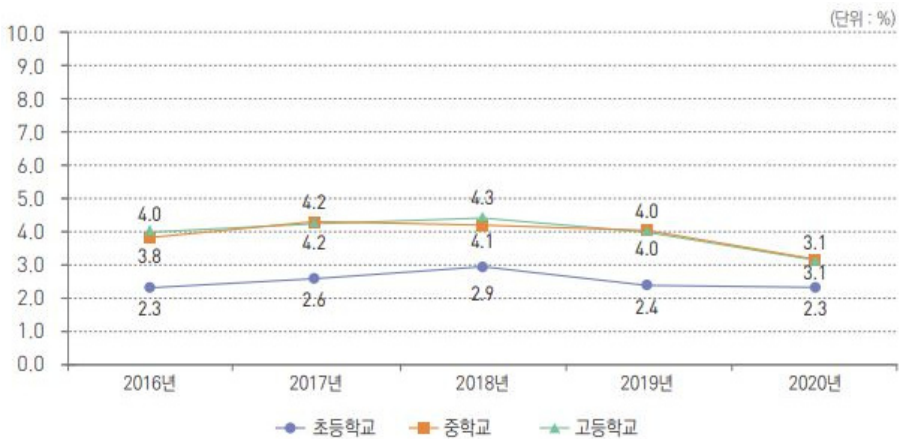


그림 III-20. 청소년 가출 경험률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백서. XVIII쪽의 <청소년 가출 경험률> 그래프를 재인용함.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 범죄, 조건만남, 익명채팅 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성매매 등 각종 유해환경 및 위기상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대 성매매피해청소년 중 상당 수의 청소년이 가출경험이 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운 숫자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보호복지 영역에 있어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의 영역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초기적 지원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보호복지영역에서의 사업 영역 확대와 추진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추진단위에서 확장하여 21세기 현재의 청소년문화와 특성에 맞는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의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급한 문제인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을 통한 사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스마트폰 중심의 생활문화 확대와 사이버공간상의 자아를 구축하는 지금 시대의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결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며, 동시에 효율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가정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뉴딜 중에서도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시도해 보겠다. 크게 초기단계의 문제 예방과 조기 개입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과 진입 후 문제의 심층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 마지막으로 보호체계 이후의 시스템 마련을 통한 중장기적 문제 해결에 이르는 3단계의 방안을 모색해 보려한다.



그림 III-21. 아동청소년 보호·복지 체계의 3단계 지원

(2) 21세기 청소년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 ‘사이버아웃리치’ 시스템 확대

① 사이버아웃리치 필요성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가출(가정밖)청소년의 위기개입 방안으로서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길거리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청소년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출 초기단계에 거리에서의 위험요소와의 만남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초로서 위기 심화의 골든타임 내의 개입을 위한 적극적 발굴과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고정형 일시쉼터와 서울시의 이동형쉼터에서의 길거리 아웃리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여러 형태의 아웃리치활동의 모델이 발전되어 왔다.

실제 초기의 고정형 일시쉼터 1개소, 이동형 일시쉼터 1개소로 시작되었던 아웃리치 전문기관의 아웃리치 활동은 상당 부분의 실적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으며, 2021년 현재는 30여개 소의 일시쉼터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의 거리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지금 현재의 시대적 변화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초기 거리 아웃리치 및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일시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 가정밖청소년 발굴을 위해 대표적인 길거리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적 만남을 기본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이 가능했으며, 가출청소년 발굴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0년도 스마트폰이 전 국민의 손에 주어진 이후 길거리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중심의 정보교류와 거리생활 유지가 시작되었으며, 익명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에서 각종 범죄로의 현상이 온라인 공간으로 전이되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 간의 학교폭력 행동까지도 사이버불링인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대두될 지경이다.

### 사이버 범죄의 꾸준한 증가

### 청소년 모바일 사용 보편화



그림 III-22. 사이버 아웃리치 필요성

핵심은 사이버상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망의 준비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상담복지개발원이나, 개별 단위 청소년쉼터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본다면, 그 준비와 대응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아웃리치’ 사업의 성패 여부는

온라인상에서의 발굴 이후 오프라인상에서의 실질적인 만남으로의 성공적인 진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게시판상담, 문의게시판 같은 방식의 사이버상담 등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의 사업 진행 방향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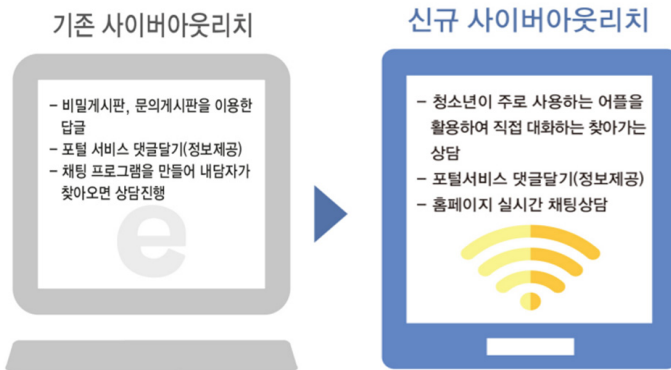


그림 III-23. 기존 및 신규 사이버아웃리치 비교

서울시의 이동청소년쉼터에서 진행되는 ‘사이버아웃리치’의 경우 이러한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자연스런 연동이 가능한 사례로서 1년 평균 100여명의 긴급구호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아웃리치의 필요성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sup>22)</sup>

첫째,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사이버 공간 청소년들은 잘못된 정보 습득으로 인한 관계망 형성(가출팸 형성) 및 다양한 위험(가출, 자살, 성매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들과 접촉함으로써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

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의 <아웃리치 실무자 안내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소년들의 올바르지 못한 다음 행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이버아웃리치를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이 형성하는 관계망 속으로 참여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에 비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적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채팅 어플, 각종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욱 선호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 및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이버아웃리치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망 속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자기개방성의 특징으로 인해 오프라인 아웃리치에서 청소년들과 라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들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 및 2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오프라인 아웃리치에 비하여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적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용이한 특징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사회보호체계 내로 통합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2차 비행을 예방하기에도 효과적이다.

## ② 사이버아웃리치의 활동 유형<sup>23)</sup>

사이버아웃리치의 활동은 다양한 사이버공간 상에서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들을 문제행동이나 비행위기 행동을 사전에 찾아내어 개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으로 크게 스마트폰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PC기반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

2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의 <아웃리치 실무자 안내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 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모바일 기반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개, 비공개 개인형 서비스가 특징이다. 위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만남이 가능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가) 혼합형

-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 온라인상에서 사진, 영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 대표 서비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이용방법
  - 성별, 지역, 나이,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개인계정 생성 가능
  -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타인 또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다양한 사람들과 동의하에 친구를 맺을 수 있으며 정보나 사진 등 개인 선택에 따라 공개 가능
  - SNS,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며 정보전달 속도가 빠르고 메시지, 댓글, 통화를 통해 소통 가능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그림 III-24. 혼합형 서비스(예시)

나) 랜덤 쪽지형

- 임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 회신이 올 경우에만 대화를 이어가는 서비스
- 대표 서비스: 사랑살랑 돛단배, 두근두근 우체통, 밤비 등
-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성별, 지역, 나이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앱에 따라 사진 공개
  - 쪽지를 보내면 익명의 사람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이 응답해야 대화가 이어지는 구조
  -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진 보내기 등 일부 기능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을 적용하는 곳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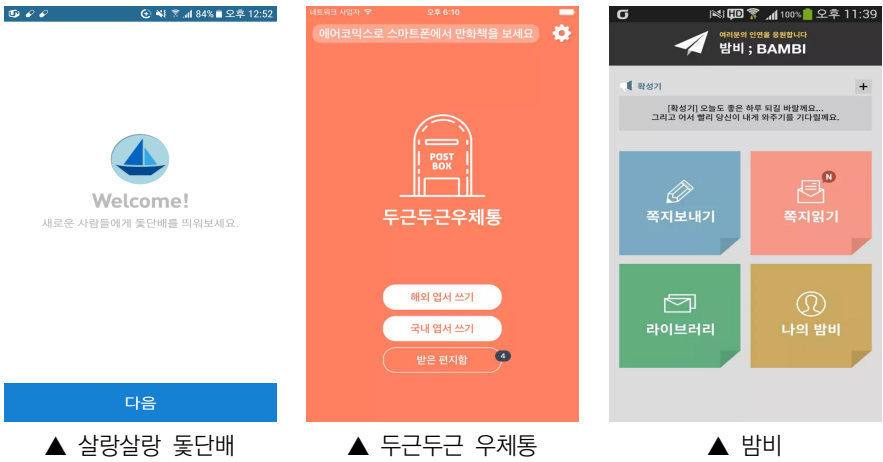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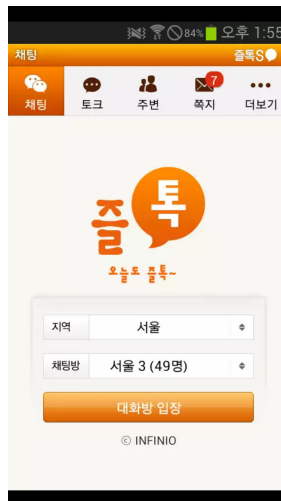


그림 Ⅲ-25. 랜덤 쪽지형 서비스(예시)

다) 익명 채팅형

- 사진과 인사말 등으로 구성된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채팅을 이어가는 서비스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 간 매칭이 보다 쉬운 구조

- 대표 서비스: 즐톡, 양톡, 심심채팅, 단팅, 랜덤채팅 Hi There, 1km 등
-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성별, 지역, 나이, 직업 등을 입력하고 프로필 사진과 사용자 아이디 설정
  - 지역, 관심사, 원하는 관계 형태 등의 조건을 중심으로 회원 검색 가능
  - 회원 리스트 중 원하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이 응답하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음
  - 최초 쪽지를 보낼 때는 몇 십원 정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차감되며 이후 대화는 무료로 가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속한 사람, 혹은 최근 로그인한 사람 등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의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함. 이 같은 포인트 구매가 주 수익원인 것으로 추정
  - 상호 마음이 맞을 경우 카카오톡 등의 아이디를 교환해 대화하거나 실제 통화로 이어짐



▲ 즐톡

그림 III-26. 익명 채팅형 서비스(예시)

## 나. PC 기반 서비스

PC 기반 채팅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풍부한 정보 제공이 특징이다.

### 가) 기관 홈페이지

기관 소개,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종류에 대한 안내, 청소년 관련정보 및 유관기관 정보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나) 커뮤니티

궁금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올리는 서비스로 가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곳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대중화된 포털사이트 카페)

### 다) PC 기반 익명 채팅

- 가가라이브 등 PC에서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채팅
- 주제를 정해 방을 여는 채팅방 서비스와 무작위 1:1 채팅이 진행되는 랜덤채팅 서비스 등으로 구분

★ **가가 랜덤 채팅**

접속자: 총 308명 (166명+142명)

랜덤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채팅 시작을 위해서는 아래의 "랜덤 채팅 시작하기" 단추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가가라이브 랜덤 채팅>](#)  
[\[NEW\] 랜덤채팅 아이폰/안드로이드 자동 지원!](#)  
[내 홈피에 채팅창 달기](#)

랜덤 채팅 시작하기

▲ 가가라이브

그림 III-27. PC 기반 익명 채팅 서비스(예시)

다.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의 한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의 위기 대응에 있어 초기단계의 접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의 확대는 현시대에 맞는 매우 적절한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아웃리치의 한계와 그 대안은 무엇인가?

사이버아웃리치는 2007년경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시기 학교밖 청소년 및 가출(가정밖)청소년 위기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버디버디’라는 커뮤니티 채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위기 개입과 채팅을 통한 가출청소년 발굴 활동이었으며, 상당부분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이버아웃리치’의 개념이 적립되었다. 게시판과 이메일 중심의 기존 ‘사이버상담’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위기청소년 발굴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이 고민을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찾아가 그들의 문제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측면에서 ‘상담’보다는 ‘아웃리치 활동’에

가까웠으며,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현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아웃리치'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도 이후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와 전국민 보급을 거치며, 사이버아웃리치는 PC 기반의 채팅활동에서 스마트폰 내의 채팅앱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발굴과 상담 등이 나름의 성과를 거둔 반면, 발굴과 연결 이후의 사후 처리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실질적인 오프라인에서의 연결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어려움 토로와 도움 요청에 적극적이었던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상의 만남을 이어가는데 있어서는 매우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현상에 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들의 주저함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오프라인으로의 만남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만남으로 이어지기 힘든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현장의 실무자들 역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 상담하여 청소년의 설득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만남의 장소가 물리적 거리의 문제로 실패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한 모델이 2015년도 이후 진행된 서울의 청소년이동쉼터 '너를위한작은별'에서 진행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부 개념의 사무실에서 사이버상담원이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오프라인의 만남은 외부 활동 중인 아웃리치 활동가들이 전담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으로 연간 100여명 이상의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가정밖) 청소년의 위기 개입을 통한 가출 예방과 기관 연계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201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2016;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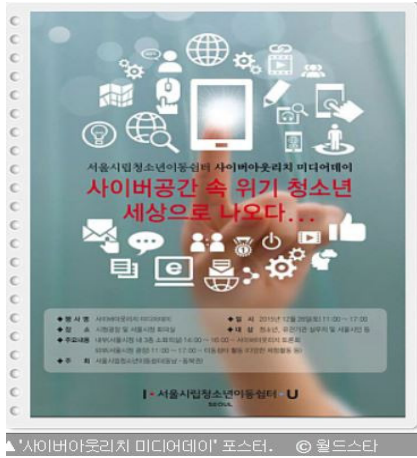


그림 III-28. 사이버아웃리치 활동: 너를위한작은별

서울시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연동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만들었으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의 주요한 한계와 문제점은 일차적으로는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의 연동 여부이며, 다음으로는 사이버공간 상의 활동에는 물리적 제한이 없으나 실질적 만남에서 지역적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활동이기에 관리되지 않는 여러 기관이 동시에 운영되면 운영기관 간 혼란과 내담자들의 혼동이 중요한 해결 사안이 될 것이다.

#### 라. 디지털뉴딜 차원에서의 사이버아웃리치 활동 활성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가정밖)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위기 대응에 있어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이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나 이를 위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난 디지털혁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측면이 디지털뉴딜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아웃리치 현장의 확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점차 커져만 가는 사이버문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인력과 조직의 규모가 갖춰져야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관련 콘텐츠의 수적 확대와 다양한 변화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따라잡기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사이버아웃리치센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시간과 인력은 365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각 기관별로 운영지원인력과 사이버상담인력 등을 감안하다면 최소 20명 이상의 인력 확보가 기본이며, 각 광역시별로 갖춰야 할 인력을 함께 생각하면 최소 300여명 가까운 규모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 기관, 청소년안전망과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특화된 영역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상에서의 만남 이후 오프라인으로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기능이 강화된다면, 기존의 청소년안전망의 보완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뉴딜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몇 가지의 보완이 이뤄진다면 아마도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가정밖) 청소년의 위기에 접근하여 2차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상담이나 오프라인 중심의 아웃리치 활동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 판단된다.

### (3) 청소년보호체계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 ‘스마트 치료형쉼터’ 지원시스템 확대

#### ① ‘치료형쉼터’ 지원체계의 현황과 필요성

앞서 언급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이 청소년위기 대응의 초기 진입 단계와 예방에 가까운 활동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언급하려는 ‘스마트 치료형쉼터’ 디지털 지원시스템 확대는 보호체계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이나 가출(가정박)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회복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보호시설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과 고민지점은 바로 다양한 심리정서적 영역에서 경계선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의 종사자들의 경우 입소생 열 명 중 세 명 정도가 심리정서적으로 장애와 정상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청소년들이라 느끼고 있으며,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법적 보호 이후 출원생들을 보호하는 법무부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 종사자들의 경우 입소생의 절반 가까이가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한 숫자에 이르는 이들이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라 할 수 있다. 경계선급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초기 발굴 시 그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대체적으로는 중장기적 생활이 이뤄지는 중장기청소년쉼터보다 진입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시(고정형)청소년쉼터나 단기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위기청소년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타 입소자와의 다툼이 증가하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물리적 싸움이나 충돌로 인해 지도자의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분노조절 장애나 자아분열 등 심리정서장애 중심의 경계선 청소년들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정신지체나 지능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역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보호 현장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중심의 인력 으로서는 관리하기 힘든 사건과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갈등 발생 시 제어하기 힘든 정도로 격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지도자와의 마찰과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 등이 드러나는 경우는 여자 지도자들이 물리적 충돌을 제어하거나 제압하기 불가능할 수 있어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들의 문제 인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 2006년 경 청소년쉼터 및 관련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이후 공식적인 정책 추진 과정을 거쳐 용인 지역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 청소년디딤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료재활센터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여러 한계를 보여준 게 현실이다. 이런 한계점은 몇 가지 사안에서 비롯되었다.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입소 인원과 지역의 한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사례와 대상들이 전국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데에 반해 용인지역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국립시설의 위치와 동시수용이 100여명이 안 되는 현실은 문제해결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또 다른 한계로 학기제 입소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호시설에서 발굴되는 대상들의 경우시기를 정할 수 없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으나, 현재 치료재활센터의 경우 몇 차례의 입소시기에 적절한 대상의 심사과정을 거쳐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정작 보호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입소시기를 맞추기가 어렵기에 입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입소 연령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치료재활센터는 학령기 입소와 학기제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기에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들이 입소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한 보호시설의 경계선 대상의 경우

18세 이후 후기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들의 경우 현재의 치료재활센터 입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한계와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보호시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 대안의 접근 방안을 디지털뉴딜이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스마트 치료형쉼터' 운영체계의 구체적 방안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밖 청소년이나 가출(가정밖) 청소년 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해결이 어려운 영역의 문제가 바로 심리정서적 문제의 경계선 급에 위치한 위기청소년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와 한계점의 핵심은 절대적인 대응체계의 부족과 지역적 한계, 운영시스템과 연령 문제 등을 얘기할 수 있다. 아마도 늘어나고 있는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에서 다룬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그 해결 대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 문제를 다룰 실질적, 직접적으로 담당할 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몇 년간 학교밖 청소년이나 가출(가정밖) 청소년 기관을 제외하고도 항상 많은 인원들이 대기할 정도로 정책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한계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 수용인원 부족과 전국에서 1개소라는 지역적 접근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어떤 지역에서라도 2시간 이내에 대상을 입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 지역에 두 번째 치료재활센터가 설립되었지만, 호남지역권이나 중부지역권에서 사례를 의뢰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중교통으로는 최소 4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3시간 이상의 접근 시간이 필요한 현실은 적절한 위기대응 체계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2시간 이내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기관이 확보된다면, 절대적 수용인원의 부족과 이로 인한 장기적 치료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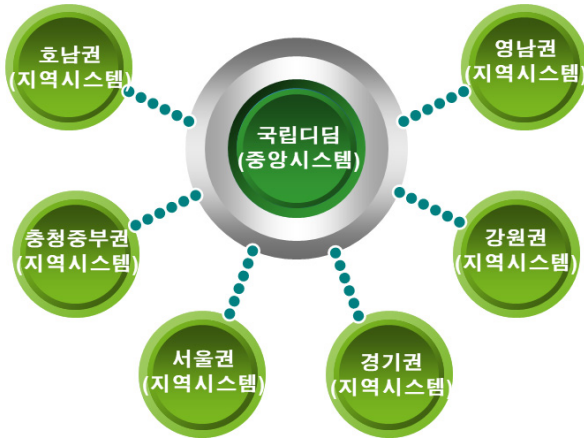


그림 Ⅲ-29. 전국 스마트 치료 지원 체계 구축

현재 청소년활동 영역의 국립청소년시설이 6개소 이상 운영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인 치료재활센터는 반드시 그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개소당 종사 인원을 100여명의 인력으로 추산했을 때 최소 600여명 이상의 전문,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보호시설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기존의 형태와 같은 치료재활센터를 구축하기에는 예산을 비롯하여 부지 확보와 공사기간, 인력확충 등 다양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만약 기존의 보호시설 등에 예산과 인력,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한다면 부족하나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존의 보호시설 중 광역시도 단위별로 1개소 정도씩을 치료형 거점센터로 선정하고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만약

여성가족부 산하의 보호시설만으로 선정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경찰청 등의 유사시설까지 후보지로 포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공간 확보 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오히려 어려운 대상을 원활하게 보호하고 치료하는 노하우와 방법적 측면의 지원 방식이 고민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치료재활센터와 거점 지역별 치료형 거점쉼터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적절한 지원방식을 확보하는 게 바로 ‘스마트 치료형쉼터’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지역별 치료형 거점쉼터의 경우는 기존 치료재활센터와는 달리 치료의 기능 보다는 보호적 측면의 접근을 강화하고 치료재활센터 입소 이전의 사정 기능과 진단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료재활센터가 문제해결을 위한 2차 병원인 종합병원급의 기관이라 한다면, 지역별 치료형 거점쉼터는 병명을 확인하고 응급한 환자를 1차적으로 만나는 마을의 1차 진료기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 청소년쉼터만이 아닌 타부처 기관 중에는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연결 가능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육시설이나 양육시설 중 규모가 상당한 시설기관들이나,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창업비전센터 등의 경우 빠른 협의가 진행된다면 이른 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데서 끝난다면 문제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기존 치료재활센터가 현재의 발달한 디지털 기술(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의 기능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대응과 역할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뒷받침하여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문제들이 혼합된 발달시기 심리정서적 부분의 문제 대상들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디지털 뉴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핵심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해본다면,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닌 경계선급 대상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치료재활센터의 지역별 확보가 필요하나, 많은 예산과 시간의 문제를 감안하여 광역 시도단위별 거점형 치료쉼터를 지정하여 보호적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치료재활센터의 디지털 바탕의 기술적 지원과 각각의 역할 분담과 전문화된 지식 경험의 공유 등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청소년보호체계 이후의 지속적 책임과 대응

##### : ‘자립지원 멘토링’시스템 구축

##### ① ‘자립지원 멘토링’ 지원체계의 현황과 필요성

이제까지 학교밖 청소년과 가출(가정밖)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초기 진입단계의 발굴 확대를 위한 ‘사이버아웃리치’와 보호체계 내의 치료 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한 ‘스마트 치료형쉼터’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그들에 대한 발굴과 치료 그 이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대안을 얘기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아동복지 영역에서는 ‘열여덟 어른’이라는 보육시설 퇴소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일반 청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봤을 때 18세 보육시설 퇴소 이후 기껏해야 몇 백만 원의 자립지원금만을 지급한 후 사회로 내보내고 자립하여 생활하라는 현재의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누구나 인지하였다는 사회적 공감대일 것이다.



## "나 사실은 고아원에서 자랐어."

내 한 마디에 그 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친구들은 저마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눈치였다.  
 잠깐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친구들은 나에게 말했다.

\* 출처: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소개 자료. <https://beautifulfund.org/campaign/#eighteen-season3>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 그림 III-30.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

우리사회의 일반의 청년세대들이 많게는 30대 초반 결혼하여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질적 자립을 준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불공평한 시작 지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은 평균 269.3만 원 이상이어야 독립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 원 가량의 소득 수준이 돼야 독립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매일경제, 2020.12.5.). 독립을 위한 적정 시기는 평균 28.1세라고 답했으나, '독립해야 할 시점은 따로 없다, 여건이 될 때'라는 응답이 32.7%라는 일반적 인식에 비취볼 때(매일경제, 2020.12.5.), 아동보육시설의 18세나 청소년복지시설의 24세 모두 현실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은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등에서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퇴소 연령이 법적 청소년 나이인 24세까지로 늦춰지는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자립지원금 조차 없이 퇴소하여 자립해야 하는 더 열악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자립지원금과 독립가구 유지를 위한 주택지원 등 물질적 지원은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적지 않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육시설과 청소년쉼터 등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예산 지원 못지않게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며,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물질적 지원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개인적 지원 네트워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의 경우는 더욱 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생활적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앞서 언급한 예산 지원 못지않게 필요하나 현재는 보호영역의 종사자들이 개인적 헌신과 관계성만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② ‘자립지원 멘토링’ 지원체계의 구체적 방법과 사례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소외계층 대상의 진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학교밖, 위기 등 우리 사회와 제도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특정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의 경우 관련분야의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교육과 슈퍼비전을 함께 진행하며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단계이기에 3~4개월의 그 정도의 짧은 기간 운영되었음에도 각 영역 대상들의 만족도와 나름의 성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제외한다면, 기존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현재 시설 내의 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시설 밖으로 퇴소한 대상들과의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현재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개인적 희생과 봉사의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발적 멘토링 과정은 실제 퇴소 이후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있다. 이런 성과 등을 바탕으로 기존 보호시설 등을 중심으로 퇴소 이후 사후관리 멘토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후관리 전담 멘토가 정례화 될 수 있다면, 아마도 퇴소 이후 1년간은 주 1회, 2년째는 월 몇 회 등 정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멘토 1인당 기간이 다른 멘티 10여명 까지도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을 감안하여 인력을 구성하고 퇴소 후 5년 정도의 멘토링 기간을 거쳐 졸업시키는 형태가 된다면, 무한대의 인력이 아닌 일정 인력 내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보다 집중적이고 원활한 멘토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링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멘토링 사업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례화 된 시스템의 안착과 멘토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슈퍼비전, 개별 단위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등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운영체계의 중심은 광역시도단위의 거점별 쉼터나 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대안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지역단위의 개별적 사업체계보다는 중앙관리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며,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른 대안들과 연계하여 방법을 고민하자면, 광역시도 단위의 거점형 쉼터를 확보하고 이곳에서 사이버 아웃리치와 치료형 쉼터 기능, 사후관리 멘토링 등을 각각 개별화한 사업체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는 인구변화의 추이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일 것이다. 사실은

줄어드는 청소년인구와 관련한 문제는 청소년 관련한 정책만이 아닌 국가적 위기 대응에 가까운 고민 지점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청소년활동과 육성 중심의 증장기적 성장과 변화의 중요성 이상으로 한명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위적으로 기존의 단순 보호와 복지 제공만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디지털뉴딜의 일자리 창출은 바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출(가정박), 학교박 청소년에 대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결론적으로 위기의 심화를 막아내고 이를 통해 2차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보호복지 분야의 모범적 대안이라 할 만한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사례는 현재의 사례 중에서 찾기는 힘들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사례보다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중에 확장과 체계화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디지털뉴딜의 성공여부는 혁신적 변화의 주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2. 해외 사례<sup>24)</sup>

### 1) 미국

2021년 3월 31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더 나은 재건 계획(the Build Back Better Plan)’을 제시한 바 있다. 더 나은 재건 계획은 취임 이전인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가시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미국 사회의 여러 경제·사회적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새로운 도약, 특히 MZ세대(millennials)로 불리는 청소년·청년들의 경제·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교육, 주거, 돌봄 등을 확대하고 중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더 나은 재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나,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더 나은 재건 계획은 1929년 대공황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된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초초거대 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부양책으로서 2021년 4월에 제시한 더 나은 재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 ② ‘미국 가족 계획(the American Families Plan)’,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미국 일자리 계획은 사실상 인프라 투자 계획이지만 명칭을 일자리 계획으로 한 배경에는 미국의 기반 산업의 낙후성이 인프라에 있음으로 보고, 1929년에 실행한 인프라 재건 사업에 버금가는 산업 인프라의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면서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산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청소년

---

24) 이 절의 1) 미국 사례는 송민경 교수(경기대학교), 2) 영국 사례는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작성하였음.

년·청년, 취약계층 및 여성, 인종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배경으로 여성의 가족부양의 부담과 취약계층의 돌봄, 보육의 부재, 주거 안정성 문제, 교육 재원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청년, 취약계층 및 여성, 소수민족 등을 위한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확대를 위한 각종 세금 공제와 더불어 가족계획 전반에 대한 지원책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021년 백악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청년들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지만,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한 시기부터 청소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경제 대공황 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2020년 만 18세부터 29세 청소년·청년들 중에 부모 집에 동거하는 비율은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절보다 높다. 또한 고등학교 학력만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우며, 취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실업의 위기로 내몰리는 청소년·청년들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청년들의 경제적 취약성과 함께 주거 독립, 아동 양육의 부담, 지속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적 위험 등으로 인해 밀레니엄 세대인 청소년·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1.3.31.).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경제 재건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으로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청년을 위해 제안된 미국 일자리 계획의 특징은 ①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낙후된 SOC 정비 및 대규모 인프라, 제조업 투자 확대, ②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Short-time compensation program), 유급병가(Emergency paid-sick leave) 확대, ③ 교육 투자 확대로서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지역 내 2년제 전문대학) 학비 면제, 유아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지원 확대, 기술훈련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미래산업 R&D 투자, ④ 안정된 주거 및 주거환경 개선(housing affordability & access)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일자리 계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성과는 1960년대 이래 약화된 미국 내 주요 기반사업을 정비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국가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빈부 격차로 인해 야기된 학력·교육·훈련의 양극화로 인해 다시 세대로 전이되는 청소년·청년들의 빈부 격차와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미국사회의 중산층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 (2) 청소년·청년을 위한 미국 일자리 사업의 세부 내용

### ① 대규모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단기간 투자보다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도로, 항만, 수로, 전기, IT 등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유통 체인, 유치원 및 돌봄센터 건립, 채용 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정책도 포함된다.

2021년 현재, 미국의 주요 공공 인프라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한 ‘New Deal’ 정책에 따라 1930년~1960년대에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 인프라의 평균 점수가 D+등급으로 평가될 정도로 매우 노후되어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크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는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4월에 발표된 미국 일자리 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 정비사업, 지역사회 인프라 정비, 돌봄산업 구축을 위해 약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기반산업 구축으로 경제 재건을 이루고자 했던 대공황 시기의 일자리 창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교통, 건설, 토목, 돌봄 산업 분야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일자리의 특성상 일정 기간 숙련된 노동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 창출은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서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 분야마다 모두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개발(workforce development)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기반을 원칙으로 실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차원의 투자 확대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 제공 차원에서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5G, 인공지능, 전기차 등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신규 R&D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양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임금, 낙후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력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산업(the care economy)을 지역사회 단위로 인프라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돌봄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이며,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낙후된 처우로 인해 종사자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산업군에 해당되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돌봄산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며 종사자들의 사회적 안전망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 배달, 식료품, 육류가공과 함께 돌봄 산업이 필수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사회 단위의 돌봄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미취학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현재 평균 5년 이상을 현재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The White

House, 2021.3.31.). 돌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든 정부는 돌봄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시킴으로써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여 여성들과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색인종, 여성,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자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돌봄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7,7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 데, 여기에는 아동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여 약 4,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지역사회 단위의 낙후된 SOC 정비,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근로 환경 개선, 케어 복지의 부활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하여 저숙련, 저학력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내 내수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헬스 산업, 케어복지 관련 산업을 신장시킴으로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변모 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케어산업 등의 산업군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원 확대는 IT나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노동 양극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저학력·저숙련·청년들이 현재 고용시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단기 일자리 문제와 의료보험 부재,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II-4. 바이든 정부의 'The American Jobs Plan' 분야 및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대중교통 정비사업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621 B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철도, 다리(bridges, roads, highways)</li> <li>• 대중교통(public transit)</li> <li>• 항만, 수로, 공항(ports, waterways, airports)</li> <li>• 철도, 항공운수(rail, freight)</li> <li>• 전기차 충전소 마련,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li> <li>• 대중교통 개선(transportation inequities) 등</li> </ul>
지역사회 인프라 정비 (Community Infrastructure) \$689 B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 물 산업(clean drinking water)</li> <li>• 방송, 디지털 산업(broadband, digital infrastructure)</li> <li>• 전력/전기(electric)</li> <li>• 주거환경(housing), 친환경 신규 주택 건설 및 상업건물 개량 (retrofitting homes and commercial building)</li> <li>• 학교, VA 병원(schools, VA hospitals)</li> <li>• R&amp;D 등 일자리 창출</li> </ul>
돌봄산업 (ElderCare) \$ 400 Bil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지역사회 기반 돌봄산업 (home/community-based care)</li> </ul>
총 투자액 \$ 2.29 Trillion	

\* 출처: The White House(2021.3.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의 내용을 정리함.

## ②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사실상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의료보험과 같은 케어복지를 부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short-time compensation program), 유급 병가(emergency paid-sick leave)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을 27개 주에서 채택한 바 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를 정부가 임금의 일부로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 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유급병가는 단기(part-time)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단기 근로자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케어’라고 불렀던 지역사회 단위 헬스케어를 부활 내지 확대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폐기하였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현재 91.5% 수준의 의료보험 가입률을 97%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의료보험을 모두 직장을 단위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취약계층에 한하여 Medicaid에 가입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었다. 따라서 중산층이지만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 프리랜서인 경우에 사실상 의료보험을 개인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며, 미국인의 약 20% 이상이 사실상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지역가입 형식으로 Medicaid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가족 단위 의료보험(HCBS, Home Care Based Service)’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HCBS 체계를 와해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직장 가입 형식으로 회귀시켰다. 이를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지역 기반 가족 단위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한다.

사실, 10대 후반부터 20대 청소년·청년들의 실업률이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직장 단위의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들은 의료보험 가입의 대상자가 아니었다. 또한 단기 알바(part-time jobs)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할 때 18세-29세 청소년·청년 중의 약 24.4%가 부모와 함께 거주한 상태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The White House, 2021.7.22.).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의 최악의 상황으로 이를

인식하고, 이들 청소년·청년들이 중산층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을 포함한 전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이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역사회 기반 가족 단위 의료보험을 확대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 보건소 등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의료·보건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 재구축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 단위로 진단 무료 검사,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표 III-5. 바이든 정부의 가정/지역단위 돌봄산업 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가정/지역단위 돌봄산업 (HCBS, Home Care Based-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어 산업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및 장애 가족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li> </ul> </li> <li>• Medicaid를 통한 장기(long-term) 돌봄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보험(HCBS) 적용 확대</li> <li>- 장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자 추적 의료보험 지원 (Money Follows the Person program) 확대</li> </ul> </li> <li>• 민간의료보험 자유 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caid를 HCBS로 확대하여 가족 단위로 의료보험회사(union) 가입 선택권을 주어 전반적인 의료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li> </ul> </li> </ul>

\* 출처: The White House(2021.3.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의 내용을 정리함.

### ③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개발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 중에서 청소년·청년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투자 계획으로 교육 투자 확대를 손꼽을 수 있다. 뉴딜정책을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도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직업교육·훈련(job training), 학교를 포함한 공공 교육시설 정비 및 신설, 인력/일자리개발(workforce development)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저소득 계층이 밀집한 지역사회에 2년제 단과대학(community

college) 지원 및 신설,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 지원 내지 면제,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건설한 일자리(good-paying jobs) 알선 및 배치 등 지원을 포함한다. 인력 개발사업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 및 낙후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졸업하기 이전에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취업을 위한 이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약 1,000억(100 billion)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비배치 인력 프로그램(Dislocated Workers Program)’과 산업부문별 훈련프로그램을 위하여 400억 달러를 투입하려고 한다. 청정에너지 산업, 제조업, 돌봄 산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청년, 여성,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청정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기간사업, 돌봄 산업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제교육·인턴(pre-apprenticeship programs)을 활용하여 훈련 이후 실제 일자리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일자리사업이 단순히 비숙련노동자를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고 이후 일자리 연계 사업이 부재하여 사실상 직업훈련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훈련의 특징은 각 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일자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훈련과 동시에 직업현장에 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일자리 훈련프로그램(comprehensive training program)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교육·훈련기관, 조합(unions), 고용주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일자리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고용 없는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산업군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군(예: 청정에너지산업, 제조업, 기반산업,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돌봄산업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여기에는 첨단기술 기반 산업의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들이 연방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에 반드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낙후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인력/일자리 개발 사업으로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증거기반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수형자, 범죄에 연루되었던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며, 장애를 지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급여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한 임금제(sub-minimum wage provision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를 폐지하고자 한다. 인턴제도나 도제, 수습과정을 활용한 정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중산층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청소년·청년들이 깃(gig) 노동자로 종사하는 비율이 현격히 늘고 있다. 깃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호출 대기 노동자,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깃 플랫폼 기업 내지 저숙련 클라우드 산업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다(글로벌이코노믹, 2021.4.30.).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업체, 대리운전, 앱 관계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 깃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에게는 기존 산업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식화된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반노조정책을 기조로 삼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들이 미국 중산층으로 합류하기 위해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조 강화가 필수조건으로 보아 「단결권보호법안(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단결권보호법안(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에 따라 깃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존의 「단체강제금지법(Right to Work Act)」에서 근로자 개인의 고용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노동조합

의 단결강제(unionship)를 금지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자 하며, 각 노동자도 다수가 서명을 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카드체크(card check)제도'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6.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개발 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인력/일자리 개발사업 (Workforc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비배치 인력 프로그램(Dislocated Workers Program) : 청정에너지사업, 제조업, 돌봄사업</li> <li>● 낙후된 지역사회 중심의 인력/일자리 개발 사업 &amp; 근거 기반 범죄예방프로그램</li> <li>● 수형자 및 범죄 연루된 청소년·청년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li> <li>● 하한 임금제(sub-minimum wage provision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폐지</li> <li>● 기존 인력/일자리사업(Project Labor, Community Workforce, local hire &amp; apprenticeships)의 통합 활용</li> </ul>
학교 교육 및 아동 돌봄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안전성 보강</li> <li>● 지역 2년제 전문대학 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li> <li>● 아동 돌봄시설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공립유치원(3세~4세 아동 대상)</li> <li>- 지역사회 기반 학교, 아동돌봄센터 등 시설 인프라 개선</li> <li>- 적정 수준의 교사-학생 비율 확보 등</li> </ul> </li> <li>● 보훈병원(Veterans Affairs hospitals) 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li> </ul>
각 노동자 (gig worker)의 노동자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결권보호법안(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 PRO Act)」 제정</li> <li>● 각 노동자(독립계약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호출 대기 노동자,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조건 개선-노동조합/단체교섭권 보장 추진</li> <li>●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추진</li> </ul>

\* 출처: The White House(2021.3.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의 내용을 정리함.

#### ④ 안정된 주거 및 주거환경 개선

미국사회의 안정된 주거 상황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자가소유(home-ownership) 비율을 매년 추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인구통계(U.S. Census) 자료를 활용하여 1960년 이후 2017년까지 보고된 만 20세 이상 34세 미만 청소년·청년의 자가소유비율을 살펴 보면, 196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는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30%대로 하향하면서 2017년도에는 34%까지 내려간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만 35세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자가소유비율은 67%를 항상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Lee, Kilduff & Mather, 2020). 중·장년층은 1980년대 이후 자가소유 비율이 꾸준히 하향한 반면, 노년층의 자가소유비율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청년의 주거 안정성이 어느 집단보다 취약한 상태이며,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취약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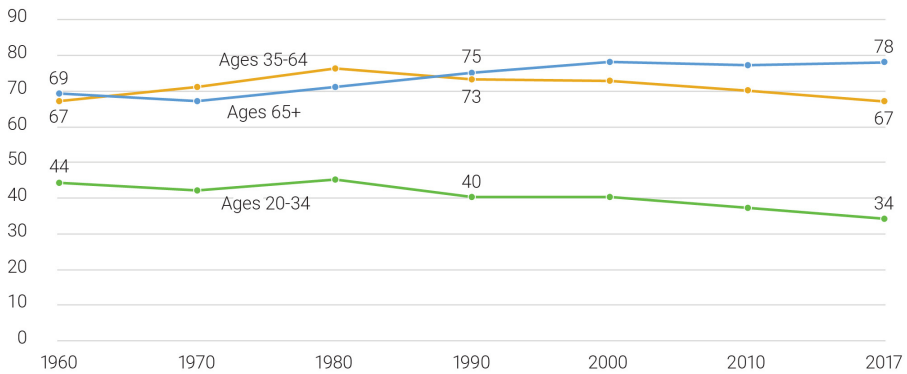


그림 III-31. 세대별 자가소유비율 추이 변화(1960~2017)

\* 출처: Lee et al.(2020). U.S. homeownership rates fall among young adults, African Americans. <FIGURE 1> 자료를 인용함.

한편, 인종별로 자가소유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백인의 자가소유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그 외 모든 인종에서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50%를 내로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임대나 집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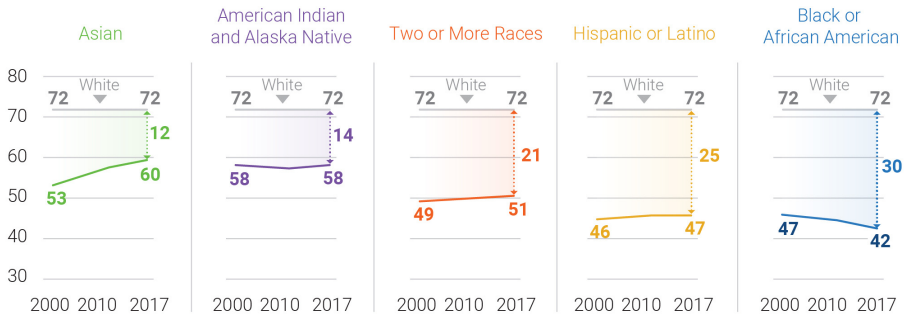


그림 Ⅲ-32. 인종 간 자가소유 비율 추이 변화(2010~2017)

\* 출처: Lee et al.(2020). U.S. homeownership rates fall among young adults, African Americans. (FIGURE 2) 자료를 인용함.

이러한 청소년·청년, 유색인종의 자가소유 비율의 현격한 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2000년 이후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이들이 향후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청년 계층의 자가소유 비율을 높여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자가소유(home-ownership)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기 부양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다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의 일부로 저소득층 임대 가족에게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가족이 20년 이상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주택을 개발하거나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낙후된 지역사회 환경과 임대주택을 계량하여 백만 명 이상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 내지 투자할 계획에 있다. 또한, 「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NHIA)」를 제정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500,0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HIA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천억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향후 5년간 집행할 예정이다.

표 III-7. 바이든 정부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연방정부 보조금 (federal subsidies) 2 billion doll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the Housing Trust Fund, the Capital Magnet Fund</li> <li>- 최하위 저소득 임대 가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함.</li> <li>- 근로자 가족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발굴, 기금 조성·지원</li> <li>- 도시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 쾌적한 주택단지로 조성</li> </ul>
법률 제정: “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NHIA)” 20 billion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자가소유(home-ownership)비율을 높이기 위해 500,0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재건축함.</li> </ul>

\* 출처: The White House(2021.7.22.). FACT SHEET: How the build back better plan will create a better future for young Americans의 내용을 정리함.

### (3) 청소년·청년을 위한 ‘미국 가족 계획(the American Families Plan)’

‘미국 가족 계획’이 왜 청소년·청년을 위한 국가 계획인지에 대하여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또 하나의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가족 계획을 설계한 배경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나 유치원, 베이비 시터(baby sitter) 등의 경비는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8세~29세 청소년·청년들의 1/4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결혼하여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아동 양육 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하다. 예컨대, 두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밀레니엄 세대 중산층 연봉의 절반을 지출해야 한다(The White House, 2021.4.28.). 따라서 밀레니엄 세대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무료 보육서비스 지원, 아동양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교사,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밀레니엄 세대인 20대 내지 30대 신혼 초기 맞벌이부부가 담당해야 하는 여러 가사 노동, 육아, 교육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이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국가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일자리 사업이 곧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이라는 수식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가족 계획이 곧 청소년·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미국 가족 계획의 여러 세부 계획안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자는 청소년·청년들이며, 이들이 결혼하여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또한 생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에서 낙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1.4.28.). 따라서 기존과 같이 미국 가족 계획을 단순히 가족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 방안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같은

선상에서 미국 가족 계획을 놓고 인프라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초대형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7월 ‘청소년·청년을 위한 더 나은 재건 계획(the Build Back Better Plan for Young Americans)’을 발표하면서 미국 일자리 계획과 더불어 미국 가족 계획을 실행하면서 기대하는 미국 청소년·청년의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1년 4월에 발표한 미국 가족 계획의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3~4세 아동을 위한 공립 보육원(universal pre-K)을 신설하고, 양질의 유치원/보육원(preschool, child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 center, Head Start 등)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최소 4년 이상의 보육자금·양육비를 지원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직접적인 보육자금·아동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 및 양육서비스의 질 관리, 아동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 급식 고급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포함된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에 소득의 1.5배에 이르는 아동 양육비의 지급분을 국가가 지불하고, 미국 50개 주의 중위소득의 1.5배 이하 중산층 가족의 소득 7%를 상회하지 않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밀레니엄 세대 중산층 가족 소득의 7% 이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의 양육비로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국가가 지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해당 가족들이 평균 14,800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아동 양육세제혜택(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을 확대하여 13세 자녀까지 연간 1자녀일 경우에는 4,000달러,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8,0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계획에 있다. 더불어 ‘아동세액공제(the Child Tax Credit)’를 6세 아동 자녀까지 3,600달러, 6세 이

상 자녀에게는 2,000~3,000달러 상당의 세액을 공제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 내용으로는 아기 기저귀 구매부터 임대료, 대출 이자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유급 가족 휴가제도(comprehensive paid-family & medical leave program)’를 도입하여 최대 12까지, 한 달에 4,000달러 상당, 주급의 2/3, 최저임금의 80% 상당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III-8. 바이든 정부의 ‘미국 가족 계획(the American Families Plan)’ 분야 및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 아동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 보육원(universal pre-K) 신설</li> <li>• 양질의 유치원/보육원(preschool, child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 center, Head Start 등)과 파트너십을 결성</li> <li>• 보육자금·아동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소득 1.5배까지)</li> <li>- 중산층: 미국 각 50개 주의 중위소득의 1.5배 이상, 소득 7% 상회 분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li> </ul> </li> <li>• 교육 및 양육서비스의 질 관리, 아동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 급식 고급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li> </ul>
세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세제혜택(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확대: 13세 자녀까지 연간 1자녀, 4,000 달러; 2자녀 이상, 8,000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li> <li>• 아동세액공제(the Child Tax Credit): 6세 아동 까지, 3,600 달러, 6세 이상, 2,000~3,000 달러 상당 세액 공제</li> </ul>
유급 가족휴가제도 (comprehensive paid-family & medical leav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12까지, 한 달에 4,000달러 상당, 주급의 2/3, 최저임금의 80% 상당 지원</li> </ul>

\* 출처: The White House(2021.4.28.).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의 내용을 정리함.

#### (4) 시사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나은 재건 계획(the Build Back Better Plan)’은 미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초초거대” 국가 주도의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한 대규모 재정 지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미국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 Job Plan)’과 함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구조 계획(the America Rescue Plan)’과 ‘미국 가족 계획(the America Family Plan)’을 2021년 4월에 발표하였다. 이 세 개의 계획으로 구성된 ‘더 나은 재건 계획’의 재정 규모는 총 5조 1,500억 달러(약 5,751조 5,200억원)에 달하고 있다(아주경제, 2021.4.21.).

더 나은 재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기반산업,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있다. 또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인력,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미국의 교육 개혁을 위한 투자 내용도 담고 있다. 즉, 미국구조계획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주기별 자금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 자금 지원 및 공립 보육원 신설, 공교육 강화, 전문대학 교육의 활성화, 직업훈련 및 진로교육의 산업 현장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이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계획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앞 절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국판 뉴딜정책이 2020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과 2021년 8월에 발표된 ‘청년특별대책’과 비교하여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판 뉴딜정책은 ‘더 나은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 재건을 위한 초대형 국가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면서 “인프라 재건 계획”이 아닌 “일자리 계획”

으로 제시하고 있다. 낙후된 도로, 항만, 지역사회 기반 시설 등을 수리하거나 최신화를 위한 국가 투자를 통해 제조업과 중공업 등의 2차 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국가가 직접 창출하겠다는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특별대책’에서 제시한 일자리 분야 정책 과제의 중심은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돕기 위한 장려금 신설,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 일부 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 등 일자리 자체를 국가주도로 창출하거나 확대하기 보다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과 해외 취업 등 기존의 산업 및 기업, 관공서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취업이나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주도로 산업군을 양성하거나 재구조화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군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미국의 뉴딜정책의 추진 방향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국가가 창출하거나 기존의 산업군을 재구조화하여 청소년기부터 관련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등을 이들이 훈련 또는 교육을 통해 습득하여 해당 산업군에 이들을 배치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정리하면, 미국의 청년 뉴딜정책은 국내 기반 제조업·중공업의 강화와 산업 인프라의 재구조화,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국의 청년 뉴딜정책은 민간기업 중심의 고용 촉진 및 취·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 모두 청년 뉴딜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특별대책에서 담아내고 있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반값 등록금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성장플랫폼 조성,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대학 원격교육의 질 제고 등(관계부처합동, 2020.12.) 고등학교 이상의 이른바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교육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뉴딜정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주 대상자는 4세

이상 7세 미만의 유치원 시기의 아동이며,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주요하다. 더불어,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교육을 무료화하여 사실상 전문대학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판 청년 뉴딜정책과 미국판 청년 뉴딜정책의 주요 표적대상이 매우 상이하며, 따라서 정책과제를 통해 기대하는 정책효과도 사실상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더 나은 재건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년특별대책에도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일자리 계획이나 교육개혁과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주거 문제를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책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먼저, 미국의 더 나은 재건 계획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자가소유(home-ownership)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고, 결혼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거 안정성과 주거 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청년들이 실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을 “청년의 위기”로 간주하고, 30대 청년의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정책 성과로 보고자 한다.

반면,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청년세대 주거 안정의 의미는 자가소유(home-ownership)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전하게 10년 이상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 즉, 소형 규모의 청년주택(청년 공유주택 포함)에 거주하거나, 전세 내지 월세로 거주하면서 소득 맞춤형 자산 형성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월세에 대한 자금을 대출 지원하거나, 부모와 별거할 경우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학 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경감,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조성, 쉐어 하우스 공급 등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종합하면, 현재 한국판 뉴딜정책과 미국판 뉴딜정책은 각 사회의 청년정책의 현황분석 및 평가 결과는 매우 유사하며, “일자리·교육·주거”라는 청년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선정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과 목적, 성과 달성을 위한 최종 지향하는 바는 매우 상이하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예산 투자 규모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정책의 시대정신과 청사진이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 모두 녹색산업의 활성화(Green New Deal) 필요성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청소년·청년세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향후 국가 재건 내지 국가 발전의 주력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매우 다르다(미국: 기반산업·제조업·국내산업 기반, 한국: 디지털, 창업), 국가주도의 산업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 한 고용 창출이나에 따라 매우 다른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2) 영국

영국의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정책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주요 공약이자 정책이었다. 뉴딜은 국가와 사회의 혁신과 재건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이후 2000년대 중반 보수당 정부에서 청소년 뉴딜을 포함한 뉴딜 정책의 내용과 정신은 계승하되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사라졌다가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시화와 팬데믹의 발생으로 영국의 부흥과 재건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노동당 정부에서 사용한 뉴딜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뉴딜 정신을 계승하고, 전 세계적인 협력과 연대의 의미가 담긴 Build Back Better라는 신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고 여기에는 원래의 뉴딜이 담고 있는 사회 재건과 부흥의 메시지가 담겨있다(HM Treasury, 2021). 이 원고에서는 청소년분야 한국형 뉴딜 대응 전략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과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과 현재 보수당 정부의 Build Back Better를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뉴딜(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개요

청소년 뉴딜(NDYP,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이하 청소년 뉴딜)은 1998년 영국 노동당 정부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청소년 뉴딜 정책이자 사업은 노동당 정부의 가장 중요한 welfare-to-work,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연계 프로그램이었다. 뉴딜은 18세에서 24세의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의무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실업급여 같은 사회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고용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여기에는 적극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Beale, Bloss & Thomas, 2008), 사실 이러한 정책에는 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뉴딜 프로그램은 일(근로) 경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훈련, 상담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며 직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참가자들에게는 진로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용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지속가능한 고용의 걸림돌에는 기초 문해와 산수능력의 부족, 약물 중독이나 의존, 범죄경력, 가출이나 노숙, 정신적 문제나 행동 장애, 신체적 장애, 책임감 부족 등이 포함된다 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

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것이 뉴딜의 주요 내용이었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1). 청소년 뉴딜정책은 1998년 1월에 소개된 'pathfinder'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1998년 4월 당시 12만 명에 이르던 장기실업 급여 대상자인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매월 만 5천명에서 2만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한 것이다(Beale et al., 2008).

뉴딜 프로그램이 시작된 첫째 1999년 7월에는 실업급여 대상 청소년이 15만 명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2001년에는 8만여 명으로 대상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2001년 말까지는 뉴딜프로그램에 참여한 누적 청소년의 숫자가 63만 8천 800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약 40%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대인 18세에서 24세 청소년의 구직수당 청구 비율도 감소하였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청소년 뉴딜은 성인대상의 뉴딜 정책의 일부로서 기존 성인대상 노동시장에 적용되던 목적을 계승하여 고용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과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방 시장경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가졌으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구직자에게 직업적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안된 사업이자 복지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Beale et al., 2008: 9)

- 실업상태인 청소년에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동시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며 직업생활에서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 실업상태의 청소년이 장기간의 고용가능성을 함양하도록 지원: 지속가능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기 위한 지원

아래의 그림은 청소년 뉴딜 정책의 개요를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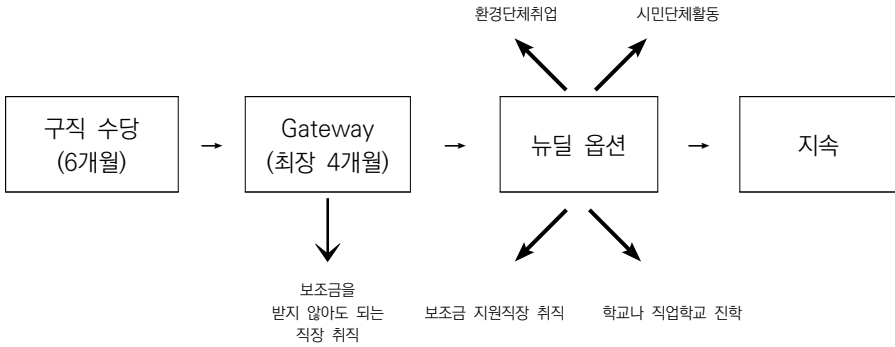


그림 III-33. 뉴딜 정책 개요

\* 출처: Reeneen(2004).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British New Deal for the Young Unemployed in Context. 474쪽 내용을 편집, 번역 후 재구성함.

## (2) 청소년 뉴딜과 노동시장의 배경

청소년 뉴딜을 탄생시킨 경제적 배경과 노동시장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뉴딜정책이 소개되던 1990년대 말 영국은 1960년대 이후 최저 고용율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는 영국에서만 현상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비슷하게 노동시장과 경제,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Reeneen, 2004: 4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18세~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이 OECD평균보다 다소 높고,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이유로 Reeneen은 영국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인 실업수당의 지급이라고 보았다(Reeneen, 2004). 영국의 실업수당의 전통은 1910년 윈스턴 처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직업소개 네트워크(the network of the labour exchanges)가 만들어졌고 1912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구직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일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세계대전과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구직수당의 효과성이 입증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0년 이후 점진적으로 2004년 기준 영국에서 지급되는 구직수당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Reeneen, 2004).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 마가렛 대처 정부가 집권한 시기에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여러 혜택이 가장 적었고, 이로 인한 경제 침체,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었다(Reeneen, 2004). 이러한 배경 하에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양질의 취업률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National Audit Office, 2002).

### (3) 뉴딜 프로그램

청소년 뉴딜은 6가지 신(new)뉴딜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시작된 시기와 예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에서 고용으로’라는 노동당 정부의 고용과 경기 부흥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이자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청소년뉴딜 사업이 별도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아래의 통합적 뉴딜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뉴딜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가지 뉴딜 프로그램의 시기와 예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9. 신(new) 뉴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작 시기	1997년~2002년 투입 예산(백만)	내용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1998년 4월	1,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의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18세~24세 청소년 대상 의무 프로그램</li> <li>- 직업훈련, 상담, 직업탐색을 제공하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직장을 연계하거나, 진학이나 복학을 위한 지원을 함</li> </ul>
The New Deal 25 plus	1998년 6월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세 이상으로서 18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프로그램</li> <li>- 대상이 다를 뿐, 지원 방식과 내용은 청소년 뉴딜과 비슷</li> </ul>
The New Deal for Lone Parents	1998년 10월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계 대출이 있는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li> <li>- 구직활동과 구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도 제공함</li> <li>- 구직과 이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li> </ul>
The New 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999년 4월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을 받는 근로가능 연령대의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li> <li>- 구직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The New Deal for Partners of the Unemployed	1999년 4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의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li> <li>- 특히 청소년 뉴딜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하며, 개인의 필요에 맞춘 훈련과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li> </ul>
The New Deal for People aged 50 plus	2000년 4월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함</li> <li>- 구직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상담 제공</li> </ul>

\* 출처: National Audit Office(2002).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National Audit Office. 32쪽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함.

#### (4) 청소년 뉴딜의 주요 특징

18세에서 24세의 구직수당을 받는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뉴딜 프로그램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졌거나, 출소자나, 모국어가 영어나 웨일즈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기초 문해나 산수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희망한다면 사업대상으로 포함이 된다. 일단 사업에 참가할 경우 참가자가 지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지원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뉴딜 사업의 3단계는 아래와 같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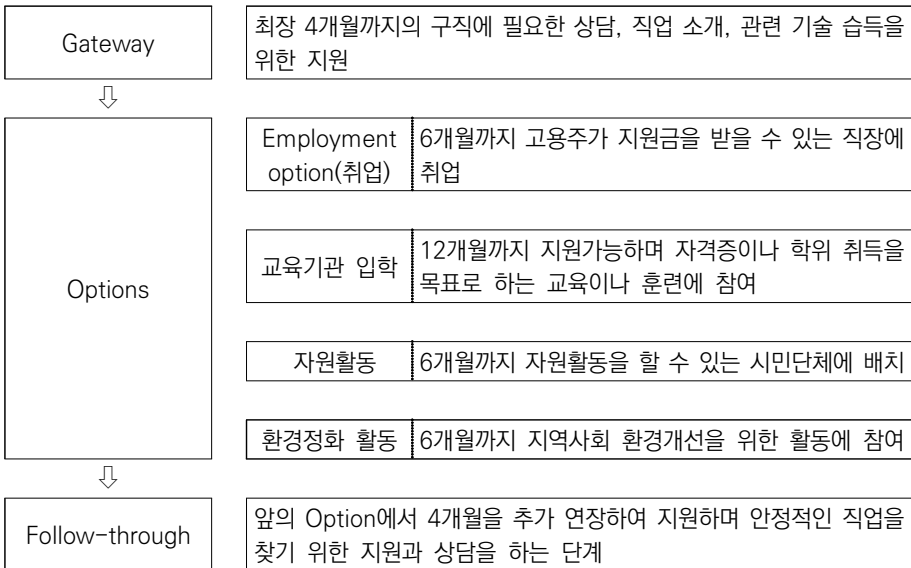


그림 III-34. 뉴딜 사업 단계

\* 출처: National Audit Office(2002).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9쪽의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25) National Audit Office(2002).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9-10쪽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하고 요약함.

### ① The Gateway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용역량을 향상시키고 구직활동을 위하여, 혹은 뉴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사(Personal Adviser: 이하 PA)의 상담 지원을 받게 된다. The Gateway는 최장 4개월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구직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Personal Adviser)로부터 지속적인 지도와 구직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PA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 없는 직장에 취업할 준비가 된 참가자 대상의 집중 직업 탐색과 구직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취직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한 참가자를 위해서는 직업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교육에서부터, 상담과 지도를 포함한 개인 맞춤형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다양한 지원에는 흔히 소프트 기술이라고 불리는 시간 지키기, 팀 워킹, 의사소통 기술 같은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며 구직활동을 위한 집중 시기에는 이러한 기초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The Gateway 취업교육 지원 기간을 마치게 되면 해당 청소년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PA와의 추가 상담과 지원을 통해 다음 단계인 Options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② Options

Options란 청소년을 각자의 능력과 선호에 따라 PA의 조력을 받아 현장으로 배치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이때 배치되는 현장은 The Gateway 단계에서 논의하고 탐색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보조금을 받는 직장, 그리고 정규학교나 직업학교로의 진학이나 복학, 자원활동 단체에서의 활동, 환경보호 단체 활동 참여이다.

진학을 제외한 3가지 근로 활동은 업무 경험과 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규학교나 직업학교에서는 근로 경험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자격증이나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Employment 취업

이 옵션은 청소년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최장 6주까지 일주일에 60파운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750파운드가 더 지급되는데 이는 청소년이 관련 업무를 배우고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훈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이 훈련 비용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하는 훈련이어야 하며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참여하는 훈련에 지급된다.

#### 나. 교육기관 진학

고용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최장 12개월 동안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교육학원에 등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청소년은 직업구직 수당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지원금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 다. 자원활동

이 활동은 6개월까지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활동을 전제로 하고 참가하는 개인이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교육적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역시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직업구직 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관련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재학할 경우에는 400파운드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이 옵션에서도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 옵션과 마찬가지로 역시 750파운드가 추가로 더 지급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청소년이 훈련에 참가하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에 해당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훈련프로그램 역시 자격증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환경개선 활동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기여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자신의 고용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이다. 청소년이 받게 되는 보수와 권리는 위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다.

#### ④ Follow-through

이전의 3단계를 모두 이수하고도 여전히 구직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를 이수해야 하는 청소년이 있다. 이 단계는 이전의 단계에서 얻은 기술과 혜택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여러 평가를 통해 PA와의 집중 상담과 지원이 동반된다. 이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이 단계에서도 구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이 여전히 구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6개월이 추가로 지원되며 역시 구직수당도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종료 후에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The Gateway를 시작해야 한다.

위의 주요 단계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딜의 PA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내 여러 형태의 적절한 지원을 파악하고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제공되는 훈련프로그램이 공인된 자격증 취득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 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직을 하려는 청소년 참가자가 모든 단계와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성인 구직수당 청구자에게 적용되는 같은 직업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이유로 중도에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경우에는 13주 이내에 다시 실업수당을 재청구할 수 있으며, 하차하던 그 단계에서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5) 청소년 뉴딜의 성과

2001년 10월말까지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의 수는 60만 명이 넘으며, 이중 18%는 한번 이상 참가하였다. 기참가자가 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뉴딜 프로그램 종료 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구직 상태가 된지 6개월 이상인 경우이다.

구직 활동 이후 취업을 할 때 최소한의 조건은 더 이상 구직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이자 2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직장이어야 한다. 정부의 예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1년 기준 지속 취업률도 78%나 되었다. 이 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의 유지 취업률이 72%,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직장에의 취업이 6%가 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프로그램 이후 유지취업율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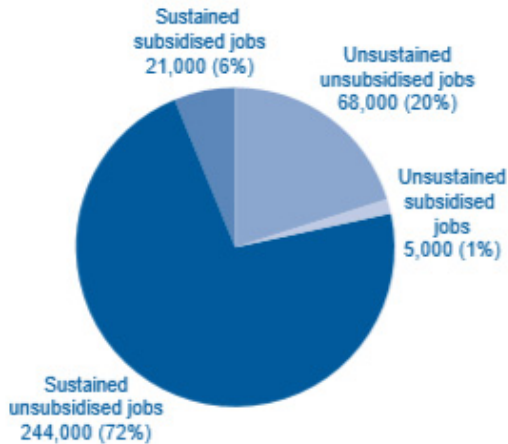


그림 III-35. 2001년 기준 뉴딜 참가자 유지 취업률

\* 출처: National Audit Office(2002).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14쪽의 [그림 7]을 인용함.

## (6) 코로나 이후 ‘Build Back Better’

청소년 뉴딜이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일과 복지를 연계한 정책이라면 현재 영국의 Build Back Better는 보수당 정부의 복지를 포함한 국가 재건 정책으로 노동당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개혁과 사회 혁신 정책을 계승하는 보수당 입장의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의 하나였던 경제 회생을 위한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정책의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도 ‘Build Back Better’ 정책이 소개되었다. 2020년 6월 30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을 재건하고 경제적 회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뉴딜정책을 발표한 것이다<sup>26)</sup>.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던 경제위기와 영국의 현안을 극복하고 이전의 경제적 부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서 노동당 정부가 시행하던 뉴딜정책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또 영국의 Build Back Better가 미국의 영향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위기에 Covid-19이라는 팬데믹의 발생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재건을 강구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Building Back Better는 닥쳐올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을 의미한다<sup>27)</sup>. 이 표현은 2015년 유엔의 제3차 재난위기감소 컨퍼런스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2020년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의 위기와 변화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구상하고자 보리스 총리에 의해 2021년 3월 Building Back Better라는 정책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HM Treasury, 2021). 더 나아가 2021년 영국에서 개최

---

26) A New Deal for Britain 보도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a-new-deal-for-britain>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27) 위키피디아 Building Back Better 정의. [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_Back\\_Better](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_Back_Better)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된 G7 정상 회담에서 국가차원의 Build Back Better를 넘어 전 세계 차원의 팬데믹 이후의 재건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의제가 공동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Build Back Better World는 질 높은 공동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영역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금을 조성하며, 기후위기 대응, 건강증진, 디지털 테크놀로지 확대, 성평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sup>28)</sup>.

Build Back Better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를 변형하여 구성한 것으로 즉 실크로드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제창한 것으로 육로와 해로의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 중국의 외교정책이자 경제정책이다. 물론 이는 중국 중심의 발전이며 중국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주장에 따르면 일대일로 정책이 전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한다고 하며 전 세계 GDP의 29%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9)</sup>.

---

28) 위키피디아 Build Back Better World 정의.

[https://en.wikipedia.org/wiki/Build\\_Back\\_Better\\_World](https://en.wikipedia.org/wiki/Build_Back_Better_World)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29) 위키피디아 Build Back Better 정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8C%80%EC%9D%BC%EB%A1%9C>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① Build Back Better 개요

아래의 그림은 영국의 2021년 발표된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Build Back Better의 개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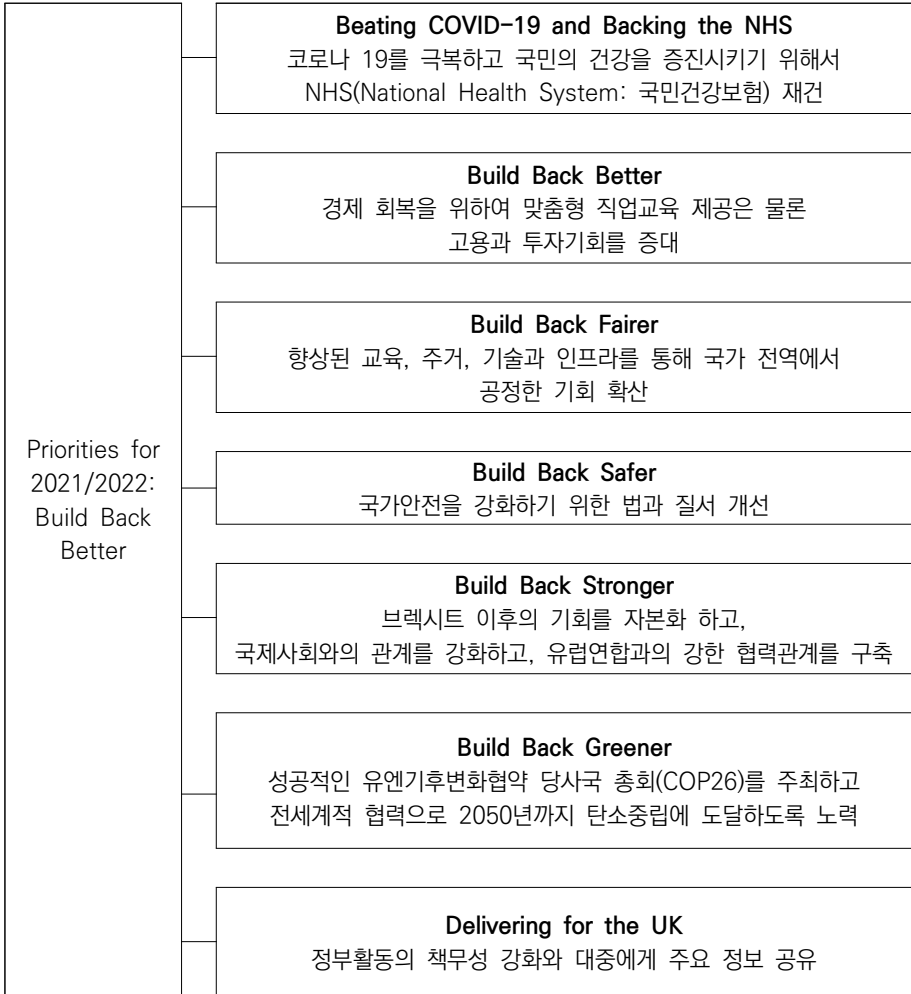


그림 III-36.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Build Back Better

\* 출처: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Build Back Better 자료.  
<https://communication-plan.gcs.civilservice.gov.uk/our-priorities/#pm-priorities> 에서 2021년 8월 29일 인출한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② Build Back Better 정책의 3대 중점 과제

Build Back Better의 3대 중점과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0. Build Back Better의 3대 중점과제

영역	내용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도로, 철도, 도시 개발 등을 위한 1000억 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단기 경제활동 촉진과 장기 생산성 증대 장려</li> <li>• 지역사회 투자를 위해 UK-wide Levelling Up Fund, UK Shared Prosperity Fund, Towns Fund, High Street Fund를 통한 기회 제공</li> <li>•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Ten Point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 지원</li> <li>• 산소중립을 위한 민간 투자 지원 촉진으로 지자체와 민간영역 인프라 구축 강화, 이를 위한 개발협력 구축</li> </u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세 의무교육이 종료된 청소년 대상 기술교육제도 혁신을 통한 시장 맞춤형 고급 기술 습득 지원 및 고급 기술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li> <li>• 평생학습 체제 강화 및 참여 확대</li> <li>• 견습제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고용주의 참여 확대 및 고용주의 견습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li> </ul>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미래지향적 고도성장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li> <li>• 혁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고도성장 캠페인 지원,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3억 7천 5백만 파운드의 미래 펀드 확보</li> <li>• 혁신 지원을 위한 법체제 개편</li> <li>• 영국의 고도성장과 혁신적 비즈니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주도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인적자원을 개발</li> <li>•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을 위한 훈련 지원, 디지털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유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과 비즈니스 혁신 지원</li> </ul>

\* 출처: HM Treasury(2021).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13쪽의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하고 재구성함.

위의 3대 중점전략의 제시와 더불어 제시된 3개 영역에서의 세부 성장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1. Build Back Better의 3대 중점과제의 세부 성장 목표 및 내용**

목표	내용
모든 영역에서의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도로, 철도, 도시 개발 등을 위한 1000억 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단기 경제활동 촉진과 장기 생산성 증대 장려</li> <li>• 지역사회 투자를 위해 UK-wide Levelling Up Fund, UK Shared Prosperity Fund, Towns Fund, High Street Fund를 통한 기회 제공</li> <li>•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Ten Point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 지원</li> <li>• 산소중립을 위한 민간 투자 지원 촉진으로 지자체와 민간영역 인프라 구축 강화, 이를 위한 개발협력 구축</li> </ul>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세 의무교육이 종료된 청소년 대상 기술교육제도 혁신을 통한 시장 맞춤형 고급 기술 습득 지원 및 고급 기술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li> <li>• 평생학습 체제 강화 및 참여 확대</li> <li>• 견습제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고용주의 참여 확대 및 고용주의 견습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li> </ul>
글로벌 영국에 대한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미래지향적 고도성장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li> <li>• 혁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고도성장 캠페인 지원,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3억 7천 5백만 파운드의 미래 펀드 확보</li> <li>• 혁신 지원을 위한 법체제 개편</li> <li>• 영국의 고도성장과 혁신적 비즈니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주도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인적자원을 개발</li> <li>•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을 위한 훈련 지원, 디지털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유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과 비즈니스 혁신 지원</li> </ul>

\* 출처: HM Treasury(2021).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14쪽의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하고 재구성함.

### ③ 청소년 대상 Build Back Better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정책과 달리 보수당 정부의 Build Back Better는 대상별로 정책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주제와 영역, 중점 사업별로 우선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사업의 특성상 청소년과 청년이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Build Back Better, Build Back Fairer이며, 이 영역에서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고용과 교육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sup>30)</sup>. 이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Plan for Jobs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고용율 증대와 직업 기회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국의 노동시장 수준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자는 것으로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CJRS)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고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영국 정부는 코로나로 직업을 잃게 된 경우, 직업을 다시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직업센터 지원 확대, 직업상담사 2배 확대 배치, 직업센터 운영 예산 확대 지원, 3개월 이상 실직자 대상의 서비스 지원 강화
- Kickstart scheme: 2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창업 및 구직 지원 및 청소년 고용업체 보조금 지원
- Restart programme(재취업):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 대상의 정기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29억 파운드 지원
- 고용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개발 지원 확대와, 인턴 및 훈련제도, 견습제도 확대 운영, 현장학습 확대 운영 지원, 산학연계 지원 등의 확대

---

30)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Build Back Better 자료.

<https://communication-plan.gcs.civilservice.gov.uk/our-priorities/#pm-priorities> 에서 2021년 8월 29일 인출.

이상의 지원은 단기간 내에 고용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역량을 강화하고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 나. 직업교육 개혁

장기적인 경제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통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16-19세 대상의 기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6억 9천 1백만 파운드를 기존의 관련 예산에 추가하였다. 이외에 성인 대상의 기술교육에는 3억 7천 5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교육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외에도 16세 이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학업 지속을 위해 15억 파운드를 향후 6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관련 시설과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에도 2억 7천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추가로 2억 6천 8백만 파운드를 확보할 예정이다(HM Treasury, 2021: 46). 직업 및 기술교육 관련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위해서도 8천 3백만 파운드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HM Treasury, 2021: 46) 그 어느 때보다도 영국이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시사점

영국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의 관련 정책 및 사업 구상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영국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은 18세에서 24세의 구직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청년들의 경우에

도 여전히 구직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영국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25플러스 뉴딜 프로그램을 통하여 25세 이후 성인들이 이직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직업이 필요한 전 세대에게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직업이 필요한 세대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므로, 세대발달 차원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부주도하에 구직활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맞춤형 고용역량과 기술, 일자리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Build Back Better에서도 구직활동을 위한 청장년 세대 모두에게 관련 활동과 교육,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업과 고용능력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영국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을 통한 시사점은 전 세대를 아우름과 동시에 개인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6세 이하의 아동을 두고 있으며 가계 대출이 있는 부모들에게 이들의 이직과 구직을 지원하며, 이런 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도 매우 필요한 지원이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50세 이후의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세대와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 맞춤형, 특히 청소년과 청년세대 맞춤형 뉴딜 고용 정책 및 직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복지와 교육영역과도 연계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 청소년뉴딜은 기존에 조건 없이 제공하던 구직수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구직수당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구직수당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직업훈련,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복지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실업수당, 청년

수당 같은 복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및 청년수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사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과 대상도 확대하여 구직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될 수 있다.



## ○ — 제4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1.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3. 시사점



## 1.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 1) 개요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정책 평가 및 신규 과제 개발을 위해 청소년 정책 현장 청소년지도자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전문가 패널단에 속해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였다. 현재 청소년전문가 패널단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자는 총 1,460명이며, 이 중 무작위로 50%를 목표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719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남성이 286명(39.8%), 여성이 433명(60.2%)이었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3년제 포함) 28명(3.9%), 대졸(4년제) 336명(46.8%), 대학원 석사졸업 299명(41.6%), 대학원 박사졸업 55명(7.7%)이었고, 청소년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394명(54.8%), 보호·복지·상담시설 종사자 199명(27.7%), 청소년 단체 종사자 126명(17.5%)이었고, 지역별로는 대도시(광역시 이상) 345명(48%), 중소도시 263명(36.6%), 농산어촌

31) 이 장은 성은모 교수와 좌동훈 연구위원이 함께 작성하였음.

111명(15.4%)이었으며, 경력별로는 1년~5년 178명(24.8%), 6년~10년 200명(28%), 11년~20년 253명(35.4%), 21년 이상 83명(11.6%)이었다.

표 IV-1. 한국판 뉴딜 관련 설문조사 개요: 청소년지도자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청소년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표집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패널단 청소년지도자 1,460명	
표본수	현장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총 719명	
표집방법	목적적 표집	
조사시기	2021년 7월~8월 실시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진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온라인 회의, 2021.4.15.)을 통하여 조사의 방향과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온라인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도구 수정안을 만들었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다시 청소년분야 전문가 5명과 타 분야전문가 5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도구 검토를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2021.4.26.)을 실시하였다.

서면 자문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안한 과제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청소년지도자 대상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부록 1. 참조).

표 IV-2.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비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정책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총 2문항 4점 척도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관련성과 중요성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관련 세부과제, 그린 뉴딜 관련 세부과제, 안전망 관련 세부과제에 대한 관련성 정도와 중요성 정도	총 3문항 관련성과 중요성 각각 4점 척도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방안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총 4문항 동의 정도 4점 척도
배경문항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전공여부, 소지 자격증, 시설유형, 거주지, 청소년분야 근무경력	

조사도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성과 중요도, 한국판 뉴딜 세부정책사업에 대한 청소년사업 현장 대응전략 방안, 배경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 분석(t-검증과 F-검증)과 교육요구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심의<sup>32)</sup>받았다.

32) 본 조사는 2021년 5월 28일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2105-HR-고유-012)을 받았다.

## 2) 조사결과

### (1)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과 필요성

#### ①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준별로 사례 수와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과 [그림 IV-1]과 같다.

표 IV-3.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719	100.0
전혀 모른다	148	20.6
잘 모르는 편이다	441	61.3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25	17.4
아주 잘 알고 있다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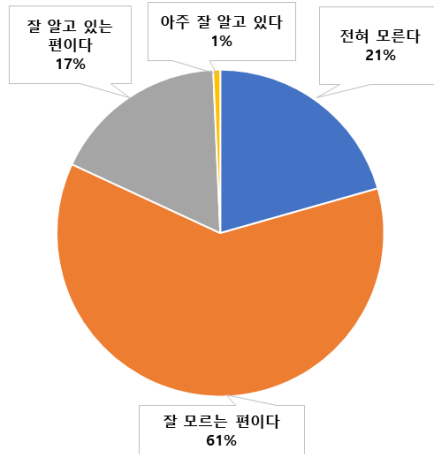


그림 IV-1.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분포

<표 IV-3>과 [그림 IV-1]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719명 중 '전혀 모른다' 사례수 148명(20.6%), '잘 모르는 편이다' 사례수 441명(61.3%),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는 사례수 125명(17.4%),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다’가 사례수 5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판 뉴딜’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한 청소년지도자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에 대하여 응답자 중 18% 정도만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82%가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정도가 청소년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변인은 성별, 학력, 시설유형, 거주지, 경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지도 인식의 기초통계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1.98	0.64	
성별	남자	286	2.13	0.65	26.21**
	여자	433	1.88	0.61	
학력	전문대 졸(a)	28	1.75	0.52	5.44** d>c>b>a
	대학(4년제) 졸(b)	336	1.91	0.64	
	석사 졸(c)	299	2.05	0.63	
	박사 졸(d)	55	2.18	0.6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2.03	0.65	3.61* a>c>b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1.88	0.60	
	청소년 단체(c)	126	1.98	0.63	
거주지	대도시(a)	345	2.02	0.64	1.75
	중소도시(b)	263	1.96	0.61	
	농산어촌(c)	111	1.90	0.69	
경력	1년~5년 이하(a)	178	1.83	0.59	9.09** d>b,c>a
	6년~10년 이하(b)	200	1.96	0.61	
	11년~20년 이하(c)	253	2.02	0.66	
	21년 이상(d)	83	2.25	0.64	

\* p<.05, \*\* p<.01

〈표 IV-4〉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13(SD=.65), 여자 평균은 1.88(SD=.6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F=26.21$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박사졸업자 평균은 2.18(SD=.67), 석사졸업자 평균은 2.05(SD=.63), 4년제 졸업자 평균은 1.91(SD=.64),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1.75(SD=.52)로 나타났으며,  $F=5.44$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박사졸업자가 가장 높고, 석사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2.03(SD=.65),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1.88(SD=.60), 청소년 단체 평균은 1.98(SD=.63)으로 나타났으며,  $F=3.61$ ,  $p<.05$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고, 청소년 단체, 보호·복지·상담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02(SD=.64), 중소도시 평균은 1.96(SD=.61), 농산어촌 평균은 1.90(SD=.69)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1.83(SD=.59), 6년~10년 이하 평균은 1.96(SD=.6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2.02(SD=.66), 21년 이상 평균은 2.25(SD=.64)로 나타났으며,  $F=9.0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경력자,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한국판 뉴딜’의 하위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필요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

형 뉴딜'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 현장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성 인식에 관하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그림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5.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성 분석

한국판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디지털 뉴딜	719	3.45	0.54
그린 뉴딜	719	3.46	0.60
안전망 강화	719	3.56	0.53
지역균형 뉴딜	719	3.39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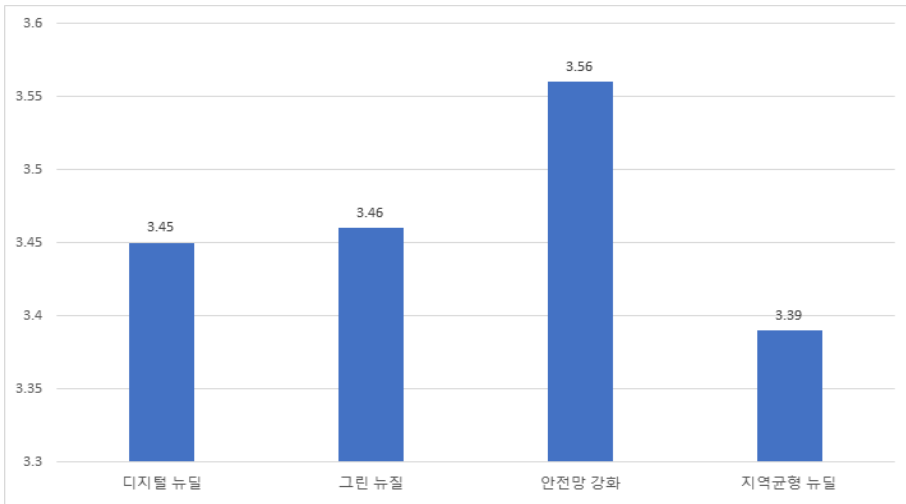


그림 IV-2.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성 인식

<표 IV-5>과 [그림 IV-2]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디지털 뉴딜'의 평균은 3.45(SD=.54)로 나타났으며, '그린 뉴딜' 평균은 3.46(SD=.60)로 나타났으며, '안전망 강화' 평균은 3.56(SD=.53)로 나타났으며, '지역균형 뉴딜' 평균은 3.39(SD=.62)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에서는 ‘안전망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지도자들은 ‘한국판 뉴딜’에의 하위분야 중 청소년정책현장에서의 대응전략으로 ‘안전망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영역별로 청소년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디지털 뉴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5	0.54	
성별	남자	286	3.41	0.55	1.53
	여자	433	3.48	0.53	
학력	전문대 졸(a)	28	3.39	0.69	1.69
	대학(4년제) 졸(b)	336	3.41	0.53	
	석사 졸(c)	299	3.48	0.54	
	박사 졸(d)	55	3.56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8	0.53	1.30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2	0.54	
	청소년 단체(c)	126	3.40	0.57	
거주지	대도시(a)	345	3.43	0.56	.76
	중소도시(b)	263	3.48	0.53	
	농산어촌(c)	111	3.42	0.5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0	0.55	4.55** d>a,b,c
	6년~10년 이하(b)	200	3.45	0.55	
	11년~20년 이하(c)	253	3.43	0.53	
	21년 이상(d)	83	3.65	0.48	

\*\* p<.01

〈표 IV-6〉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1(SD=.55), 여자 평균은 3.48(SD=.53)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9(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1(SD=.53), 석사졸업자 평균은 3.48(SD=.54), 박사졸업자 평균은 3.56(SD=.50)로 박사졸업자가 높았고, 석사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8(SD=.5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2(SD=.54),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0(SD=.57)으로 활동시설이 높았고, 보호·복지·상담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3(SD=.56), 중소도시 평균은 3.48(SD=.53), 농산어촌 평균은 3.42(SD=.51)로 중소도시가 높았고, 대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0(SD=.55),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5(SD=.55),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3(SD=.53), 21년 이상 평균은 3.65(SD=.48)로 나타났으며,  $F=4.55$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밖에 1년~5년 이하,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경력자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관한 차이 분석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그린 뉴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6	0.60	
성별	남자	286	3.39	0.65	6.41**
	여자	433	3.50	0.56	
학력	전문대 졸(a)	28	3.18	0.67	2.79* d>b,c>a
	대학(4년제) 졸(b)	336	3.44	0.57	
	석사 졸(c)	299	3.48	0.62	
	박사 졸(d)	55	3.56	0.6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8	0.53	.99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2	0.54	
	청소년 단체(c)	126	3.40	0.57	
거주지	대도시(a)	345	3.44	0.60	.27
	중소도시(b)	263	3.47	0.59	
	농산어촌(c)	111	3.48	0.6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34	0.64	4.45** d>c>b>a
	6년~10년 이하(b)	200	3.43	0.61	
	11년~20년 이하(c)	253	3.52	0.57	
	21년 이상(d)	83	3.58	0.52	

\* p<.05, \*\* p<.01

〈표 IV-7〉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9(SD=.65), 여자 평균은 3.50(SD=.56)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F=6.4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18(SD=.67),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4(SD=.57), 석사졸업자 평균은 3.48(SD=.62), 박사졸업자 평균은 3.56(SD=.60)로 나타났고, F=2.79,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박사졸업자가 높았고, 4년제 졸업자와 석사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8(SD=.5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2(SD=.54),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0(SD=.57)으로 활동시설이 높았고, 보호·복지·상담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4(SD=.60), 중소도시 평균은 3.47(SD=.59), 농산어촌 평균은 3.48(SD=.62)로 농산어촌이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34(SD=.6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3(SD=.6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2(SD=.57), 21년 이상 평균은 3.58(SD=.52)로 나타났으며,  $F=4.45$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고, 11년~20년 이하, 6년~1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관한 차이 분석결과 <표 IV-8>과 같다.

표 IV-8.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안전망 강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6	0.53	
성별	남자	286	3.53	0.53	1.03
	여자	433	3.57	0.54	
학력	전문대 졸(a)	28	3.14	0.65	10.54** d>c>b>a
	대학(4년제) 졸(b)	336	3.50	0.54	
	석사 졸(c)	299	3.63	0.50	
	박사 졸(d)	55	3.71	0.46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9	0.54	6.52** b>c>a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6	0.49	
	청소년 단체(c)	126	3.59	0.57	
거주지	대도시(a)	345	3.54	0.55	.35
	중소도시(b)	263	3.57	0.52	
	농산어촌(c)	111	3.58	0.53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6	0.57	3.06* b,c,d>a
	6년~10년 이하(b)	200	3.57	0.53	
	11년~20년 이하(c)	253	3.60	0.51	
	21년 이상(d)	83	3.60	0.52	

\* p<.05, \*\* p<.01

〈표 IV-8〉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3(SD=.53), 여자 평균은 3.57(SD=.54)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14(SD=.6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0(SD=.54), 석사졸업자 평균은 3.63(SD=.50), 박사졸업자 평균은 3.71(SD=.46)로 나타났고, F=10.54,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박사졸업자가 가장 높았고, 석사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9(SD=.54),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66(SD=.49),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9(SD=.57)으로 나타났고,  $F=6.52$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보호·복지·상담 시설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4(SD=.55), 중소도시 평균은 3.57(SD=.52), 농산어촌 평균은 3.58(SD=.53)로 농산어촌이 높았고,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6(SD=.57),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7(SD=.5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0(SD=.51), 21년 이상 평균은 3.60(SD=.52)으로 나타났으며,  $F=3.06$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6년~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21년 이상은 1년~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관한 차이 분석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필요성 결과분석: 지역균형 뉴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39	0.62	
성별	남자	286	3.37	0.64	.78
	여자	433	3.41	0.61	
학력	전문대 졸(a)	28	2.96	0.64	6.88** d>b,c>a
	대학(4년제) 졸(b)	336	3.35	0.64	
	석사 졸(c)	299	3.44	0.58	
	박사 졸(d)	55	3.55	0.5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8	0.60	.10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1	0.62	
	청소년 단체(c)	126	3.40	0.68	
거주지	대도시(a)	345	3.34	0.61	2.03
	중소도시(b)	263	3.44	0.62	
	농산어촌(c)	111	3.41	0.6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28	0.66	2.65* b,c,d>a
	6년~10년 이하(b)	200	3.44	0.61	
	11년~20년 이하(c)	253	3.43	0.58	
	21년 이상(d)	83	3.43	0.61	

\* p<.05, \*\* p<.01

〈표 IV-9〉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7(SD=.64), 여자 평균은 3.41(SD=.61)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2.96(SD=.6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5(SD=.64), 석사졸업자 평균은 3.44(SD=.58), 박사졸업자 평균은 3.55(SD=.57)로 나타났고, F=6.88,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박사졸업자가 가장 높았고, 석사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8(SD=.60),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1(SD=.62),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0(SD=.68)으로 보호·복지·상담시설이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 단체, 활동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4(SD=.61), 중소도시 평균은 3.44(SD=.62), 농산어촌 평균은 3.41(SD=.62)로 중소도시가 높았고, 농산어촌,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28(SD=.66),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4(SD=.6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3(SD=.58), 21년 이상 평균은 3.43(SD=.61)으로 나타났으며,  $F=2.65$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6년~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21년 이상은 1년~5년 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한국판 뉴딜’과 분야별 세부과제 관한 인식

‘한국판 뉴딜’과 분야별 세부과제에 관한 인식에 관하여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부분야별 세부과제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변인은 성별, 학력, 시설유형, 거주지, 경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①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 인식

#### ㉠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별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V-10>과 [그림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10.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디지털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719	3.14	0.78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719	3.47	0.67
비대면 산업 육성	719	3.08	0.77
SOC 디지털화	719	2.96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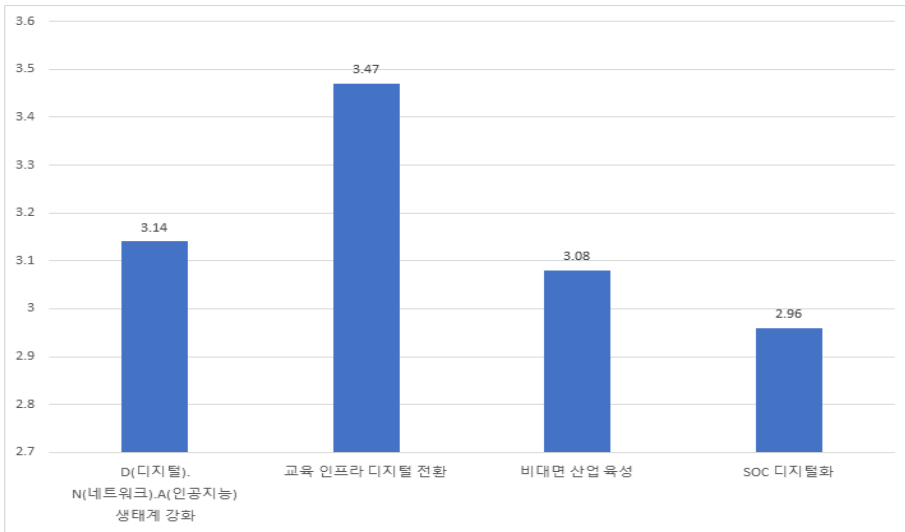


그림 IV-3.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표 IV-10〉과 [그림 IV-3]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관련성 분석에서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의 평균은 3.14(SD=.78),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평균은 3.47(SD=.67), ‘비대면 산업 육성’의 평균은 3.08(SD=.77), ‘SOC 디지털화’의 평균은 2.96(SD=.77)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관련성 분석에서는 ‘교육 인프라

라 디지털 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가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14	0.78	
성별	남자	286	3.11	0.80	.71
	여자	433	3.16	0.76	
학력	전문대 졸(a)	28	2.82	0.90	2.51
	대학(4년제) 졸(b)	336	3.14	0.77	
	석사 졸(c)	299	3.19	0.76	
	박사 졸(d)	55	3.02	0.8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22	0.75	4.34** a>c>b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04	0.79	
	청소년 단체(c)	126	3.07	0.81	
거주지	대도시(a)	345	3.13	0.79	.25
	중소도시(b)	263	3.14	0.78	
	농산어촌(c)	111	3.19	0.7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2.99	0.80	3.03* b,c>d>a
	6년~10년 이하(b)	200	3.20	0.76	
	11년~20년 이하(c)	253	3.19	0.76	
	21년 이상(d)	83	3.18	0.78	

\* p<.05, \*\* p<.01

〈표 IV-11〉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11(SD=.80), 여자 평균은 3.16(SD=.76)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2.82(SD=.90),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14(SD=.77), 석사졸업자 평균은 3.19(SD=.76), 박사졸업자 평균은 3.02(SD=.83)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업자, 박사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22(SD=.75),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04(SD=.79), 청소년 단체 평균은 3.07(SD=.81)로 나타났으며,  $F=4.34$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 단체, 보호·복지·상담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13(SD=.79), 중소도시 평균은 3.14(SD=.78), 농산어촌 평균은 3.19(SD=.71)로 농산어촌이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2.99(SD=.80), 6년~10년 이하 평균은 3.20(SD=.7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19(SD=.76), 21년 이상 평균은 3.18(SD=.78)으로 나타났으며,  $F=3.03$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는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21년 이상,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7	0.67	
성별	남자	286	3.46	0.70	.03
	여자	433	3.47	0.66	
학력	전문대 졸(a)	28	3.36	0.73	1.58
	대학(4년제) 졸(b)	336	3.43	0.67	
	석사 졸(c)	299	3.53	0.67	
	박사 졸(d)	55	3.40	0.68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9	0.64	.93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5	0.71	
	청소년 단체(c)	126	3.40	0.71	
거주지	대도시(a)	345	3.49	0.67	.41
	중소도시(b)	263	3.45	0.69	
	농산어촌(c)	111	3.43	0.64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37	0.74	2.01
	6년~10년 이하(b)	200	3.48	0.63	
	11년~20년 이하(c)	253	3.53	0.64	
	21년 이상(d)	83	3.47	0.72	

〈표 IV-12〉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6(SD=.70), 여자 평균은 3.47(SD=.66)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6(SD=.73),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3(SD=.67), 석사졸업자 평균은 3.53(SD=.67), 박사졸업자 평균은 3.40(SD=.68)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업자, 박사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9(SD=.64),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5(SD=.7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0(SD=.71)으로 활동시설

이 높게 나타났고, 보호·복지·상담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9(SD=.67), 중소도시 평균은 3.45(SD=.69), 농산어촌 평균은 3.43(SD=.64)로 대도시가 높았고,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37(SD=.7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8(SD=.6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3(SD=.64), 21년 이상 평균은 3.47(SD=.72)로 11년~20년 이하가 높았고, 6년~10년 이하, 21년 이상,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비대면 산업 육성’이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 분석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비대면 산업 육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08	0.77	
성별	남자	286	3.03	0.79	1.98
	여자	433	3.12	0.76	
학력	전문대 졸(a)	28	2.79	0.79	1.49
	대학(4년제) 졸(b)	336	3.09	0.73	
	석사 졸(c)	299	3.10	0.83	
	박사 졸(d)	55	3.13	0.75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09	0.76	1.98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14	0.77	
	청소년 단체(c)	126	2.97	0.81	
거주지	대도시(a)	345	3.09	0.78	.00
	중소도시(b)	263	3.08	0.80	
	농산어촌(c)	111	3.08	0.68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02	0.83	1.47
	6년~10년 이하(b)	200	3.18	0.70	
	11년~20년 이하(c)	253	3.06	0.78	
	21년 이상(d)	83	3.07	0.79	

〈표 IV-13〉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03(SD=.79), 여자 평균은 3.12(SD=.76)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2.79(SD=.7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09(SD=.73), 석사졸업자 평균은 3.10(SD=.83), 박사졸업자 평균은 3.13(SD=.75)로 박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석사 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09(SD=.76),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14(SD=.77), 청소년 단체 평균은 2.97(SD=.81)으로 보호·복

지·상담시설이 높게 나타났고,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09(SD=.78), 중소도시 평균은 3.08(SD=.80), 농산어촌 평균은 3.08(SD=.68)로 대도시가 높았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02(SD=.83), 6년~10년 이하 평균은 3.18(SD=.70),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06(SD=.78), 21년 이상 평균은 3.07(SD=.79)으로 6년~10년 이하가 높았고, 21년 이상,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SOC 디지털화’가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SOC 디지털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2.96	0.77	
성별	남자	286	2.97	0.78	.04
	여자	433	2.95	0.77	
학력	전문대 졸(a)	28	2.64	0.68	1.70
	대학(4년제) 졸(b)	336	2.96	0.76	
	석사 졸(c)	299	2.98	0.79	
	박사 졸(d)	55	2.93	0.7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2.97	0.76	.65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2.98	0.78	
	청소년 단체(c)	126	2.89	0.80	
거주지	대도시(a)	345	2.98	0.74	.34
	중소도시(b)	263	2.93	0.83	
	농산어촌(c)	111	2.95	0.76	
경력	1년~5년 이하(a)	178	2.95	0.80	.87
	6년~10년 이하(b)	200	2.90	0.76	
	11년~20년 이하(c)	253	2.98	0.76	
	21년 이상(d)	83	3.05	0.78	

〈표 IV-14〉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97(SD=.78), 여자 평균은 2.95(SD=.77)로 남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2.64(SD=.68), 4년제 졸업자 평균은 2.96(SD=.76), 석사졸업자 평균은 2.98(SD=.79), 박사졸업자 평균은 2.93(SD=.74)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업자, 박사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2.97(SD=.76),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2.98(SD=.78), 청소년 단체 평균은 2.89(SD=.80)로 보호·복지·

상담시설이 높게 나타났고,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98(SD=.74), 중소도시 평균은 2.93(SD=.83), 농산어촌 평균은 2.95(SD=.76)로 대도시가 높았고, 농산어촌, 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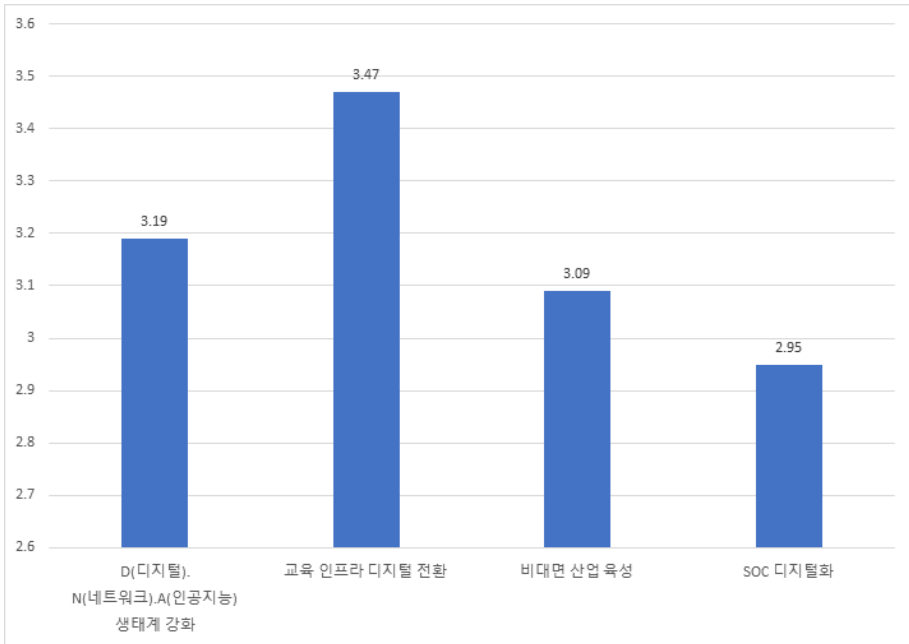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2.95(SD=.80), 6년~10년 이하 평균은 2.90(SD=.7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2.98(SD=.76), 21년 이상 평균은 3.05(SD=.78)으로 21년 이상이 높았고,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6년~10년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별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5>와 [그림 IV-4]와 같다.

표 IV-15.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결과

디지털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719	3.19	0.7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719	3.47	0.67
비대면 산업 육성	719	3.09	0.79
SOC 디지털화	719	2.95	0.80



**그림 IV-4.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표 IV-15〉와 [그림 IV-4]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서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의 평균은 3.19(SD=.7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평균은 3.47(SD=.67), ‘비대면 산업 육성’의 평균은 3.09(SD=.79), ‘SOC 디지털화’의 평균은 2.95(SD=.80)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가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19	0.72	
성별	남자	286	3.22	0.73	1.05
	여자	433	3.16	0.72	
학력	전문대 졸(a)	28	3.25	0.75	1.43
	대학(4년제) 졸(b)	336	3.43	0.67	
	석사 졸(c)	299	3.53	0.66	
	박사 졸(d)	55	3.44	0.6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26	0.70	4.78** a)c>b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07	0.74	
	청소년 단체(c)	126	3.16	0.75	
거주지	대도시(a)	345	3.19	0.73	.52
	중소도시(b)	263	3.16	0.73	
	농산어촌(c)	111	3.24	0.66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05	0.78	2.88* c,d>a,b
	6년~10년 이하(b)	200	3.21	0.73	
	11년~20년 이하(c)	253	3.23	0.68	
	21년 이상(d)	83	3.28	0.67	

\* p<.05, \*\* p<.01

<표 IV-1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2(SD=.73), 여자 평균은 3.16(SD=.72)로 남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5(SD=.7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3(SD=.67), 석사졸업자 평균은 3.53(SD=.66), 박사졸업자 평균은

3.44(SD=.63)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박사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26(SD=.70),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07(SD=.74), 청소년 단체 평균은 3.16(SD=.75)으로 나타났으며,  $F=4.78$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 단체, 보호·복지·상담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19(SD=.73), 중소도시 평균은 3.16(SD=.73), 농산어촌 평균은 3.24(SD=.66)로 농산어촌이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05(SD=.78), 6년~10년 이하 평균은 3.21(SD=.7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23(SD=.68), 21년 이상 평균은 3.28(SD=.67)로 나타났으며,  $F=2.88$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11년~20년 이하와 21년 이상은 1년~5년 이하와 6년~10년 이하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7	0.67	
성별	남자	286	3.50	0.64	1.14
	여자	433	3.45	0.68	
학력	전문대 졸(a)	28	3.25	0.75	2.15
	대학(4년제) 졸(b)	336	3.43	0.67	
	석사 졸(c)	299	3.53	0.66	
	박사 졸(d)	55	3.44	0.6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9	0.62	.68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5	0.71	
	청소년 단체(c)	126	3.42	0.73	
거주지	대도시(a)	345	3.48	0.67	.76
	중소도시(b)	263	3.49	0.65	
	농산어촌(c)	111	3.40	0.69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38	0.74	1.91
	6년~10년 이하(b)	200	3.45	0.66	
	11년~20년 이하(c)	253	3.51	0.63	
	21년 이상(d)	83	3.54	0.63	

〈표 IV-17〉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0(SD=.64), 여자 평균은 3.45(SD=.68)로 남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5(SD=.7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3(SD=.67), 석사졸업자 평균은 3.53(SD=.66), 박사졸업자 평균은 3.44(SD=.63)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박사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9(SD=.62),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5(SD=.7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2(SD=.73)으로 활동시설이 높았고, 보호·복지·상담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8(SD=.67), 중소도시 평균은 3.49(SD=.65), 농산어촌 평균은 3.40(SD=.69)로 중소도시가 높았고, 대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38(SD=.7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5(SD=.6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1(SD=.63), 21년 이상 평균은 3.54(SD=.63)로 21년 이상이 높았고, 11년~20년 이하, 6년~1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비대면 산업 육성’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비대면 산업 육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09	0.79	
성별	남자	286	3.05	0.79	1.35
	여자	433	3.12	0.79	
학력	전문대 졸(a)	28	2.82	0.77	1.51
	대학(4년제) 졸(b)	336	3.07	0.78	
	석사 졸(c)	299	3.14	0.81	
	박사 졸(d)	55	3.13	0.7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09	0.79	1.24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16	0.79	
	청소년 단체(c)	126	3.02	0.79	
거주지	대도시(a)	345	3.08	0.81	.19
	중소도시(b)	263	3.12	0.77	
	농산어촌(c)	111	3.07	0.76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04	0.84	.62
	6년~10년 이하(b)	200	3.14	0.76	
	11년~20년 이하(c)	253	3.08	0.77	
	21년 이상(d)	83	3.13	0.81	

〈표 IV-18〉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05(SD=.79), 여자 평균은 3.12(SD=.79)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2.82(SD=.77),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07(SD=.78), 석사졸업자 평균은 3.14(SD=.81), 박사졸업자 평균은 3.13(SD=.77)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박사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09(SD=.79),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16(SD=.79), 청소년 단체 평균은 3.02(SD=.79)로 보호·복지·

상담시설이 높게 나타났고,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08(SD=.81), 중소도시 평균은 3.12(SD=.77), 농산어촌 평균은 3.07(SD=.76)로 중소도시가 높았고, 대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04(SD=.8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14(SD=.7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08(SD=.77), 21년 이상 평균은 3.13(SD=.81)으로 21년 이상이 높았고, 6년~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SOC디지털화’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SOC디지털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2.95	0.80	
성별	남자	286	2.99	0.81	.83
	여자	433	2.93	0.79	
학력	전문대 졸(a)	28	2.57	0.74	2.77* c>b,d)a
	대학(4년제) 졸(b)	336	2.94	0.79	
	석사 졸(c)	299	3.01	0.79	
	박사 졸(d)	55	2.91	0.82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2.95	0.80	.79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2.99	0.78	
	청소년 단체(c)	126	2.88	0.81	
거주지	대도시(a)	345	2.98	0.78	.70
	중소도시(b)	263	2.95	0.83	
	농산어촌(c)	111	2.87	0.76	
경력	1년~5년 이하(a)	178	2.90	0.85	1.20
	6년~10년 이하(b)	200	2.91	0.80	
	11년~20년 이하(c)	253	2.97	0.75	
	21년 이상(d)	83	3.08	0.78	

\*:  $p < .05$

〈표 IV-19〉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99(SD=.81), 여자 평균은 2.93(SD=.79)로 남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2.57(SD=.7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2.94(SD=.79), 석사졸업자 평균은 3.01(SD=.79), 박사졸업자 평균은 2.91(SD=.82)로 나타났으며,  $F=2.77$ ,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박사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2.95(SD=.80),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2.99(SD=.78), 청소년 단체 평균은 2.88(SD=.8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98(SD=.78), 중소도시 평균은 2.95(SD=.83), 농산어촌 평균은 2.87(SD=.76)로 대도시가 높았고,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2.90(SD=.85), 6년~10년 이하 평균은 2.91(SD=.80), 11년~20년 이하 평균은 2.97(SD=.75), 21년 이상 평균은 3.08(SD=.7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㊸ 디지털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 분석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별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0>과 같고,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IV-5]와 [그림 IV-6]을 제시하였다.

표 IV-20. 디지털 뉴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차이 분석

디지털 뉴딜 세부 분야	관련성		중요성		t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3.14	.78	3.19	.72	-2.26*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47	.67	3.47	.67	0.00
비대면 산업 육성	3.09	.77	3.10	.79	-.58
SOC 디지털화	3.00	.77	3.00	.80	.30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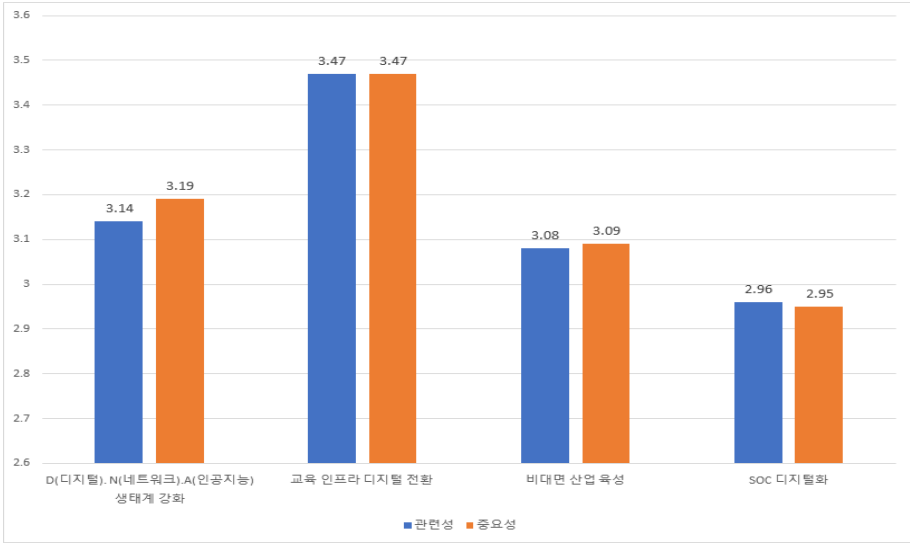


그림 IV-5. 디지털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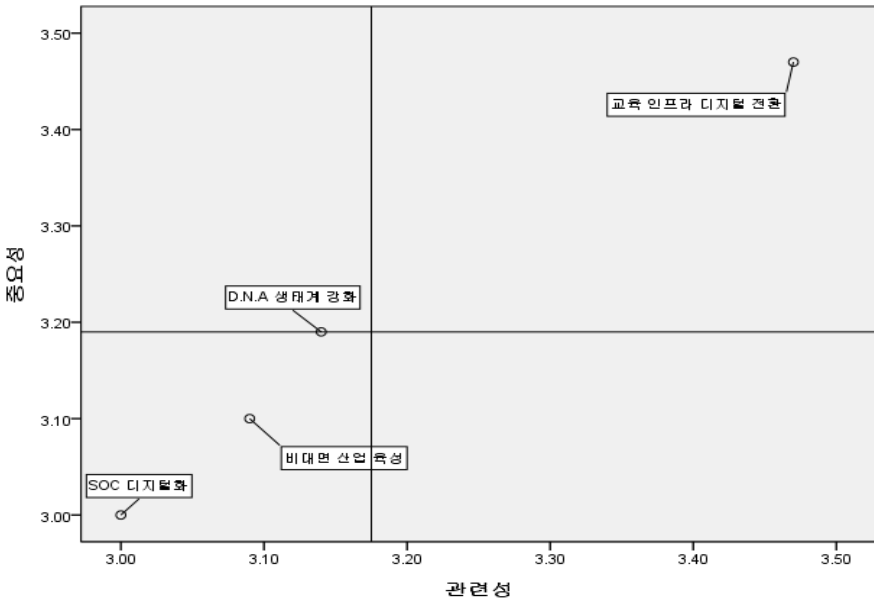


그림 IV-6. 디지털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매트릭스 분석

〈표 IV-20〉과 〈그림 IV-5〉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결과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는 관련성 평균 3.14(SD=.78), 중요성 평균 3.19(SD=.72),  $t=-2.26$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관련성과 중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련성과 중요도와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IV-6〉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자들은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분야’ 세부과제 중 제1사분면에 있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다. 제2사분면에서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3사분면의 ‘비대면 산업 육성’보다 ‘SOC 디지털화’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디지털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는 청소년 분야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 인식
- ② 그린 뉴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1〉과 〈그림 IV-7〉과 같다.

표 IV-21. 그린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719	3.39	0.70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719	3.24	0.76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719	3.27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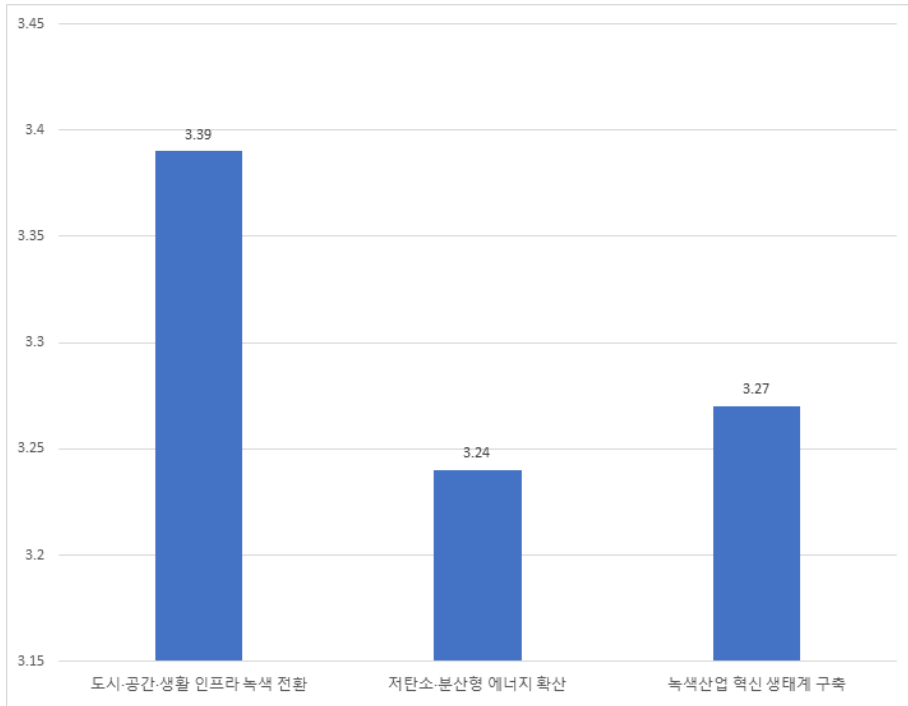


그림 IV-7.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표 IV-21〉과 [그림 IV-7]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 관련성 분석에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평균은 3.39(SD=.70),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평균은 3.24(SD=.76),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평균은 3.27(SD=.78)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

제 관련성 분석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39	0.70	
성별	남자	286	3.39	0.71	.00
	여자	433	3.39	0.70	
학력	전문대 졸(a)	28	3.25	0.80	.46
	대학(4년제) 졸(b)	336	3.38	0.68	
	석사 졸(c)	299	3.41	0.72	
	박사 졸(d)	55	3.38	0.7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4	0.65	2.26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34	0.71	
	청소년 단체(c)	126	3.31	0.83	
거주지	대도시(a)	345	3.38	0.70	1.50
	중소도시(b)	263	3.43	0.70	
	농산어촌(c)	111	3.30	0.7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20	0.78	6.05** c>d>a,b
	6년~10년 이하(b)	200	3.41	0.63	
	11년~20년 이하(c)	253	3.46	0.69	
	21년 이상(d)	83	3.51	0.67	

\*\* p<.01

〈표 IV-22〉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9(SD=.71), 여자 평균은 3.39(SD=.70)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5(SD=.80),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8(SD=.68), 석사졸업자 평균은 3.41(SD=.72), 박사졸업자 평균은 3.38(SD=.73)로 석사졸업자가 높게 나타났고, 4년제 졸업자, 박사졸업자는 동일하게, 전문대 졸업자는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4(SD=.65),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34(SD=.7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31(SD=.83)로 활동시설이 높게 나타났고, 보호·복지·상담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8(SD=.70), 중소도시 평균은 3.43(SD=.70), 농산어촌 평균은 3.30(SD=.71)로 중소도시가 높았고, 대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20(SD=.78),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1(SD=.6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6(SD=.69), 21년 이상 평균은 3.51(SD=.67)로 나타났으며,  $F=6.05$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11년~20년 이하가 가장 높았고, 21년 이상, 1년~5년 이하와 6년~10년 이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24	0.76	
성별	남자	286	3.23	0.79	.04
	여자	433	3.24	0.74	
학력	전문대 졸(a)	28	3.11	0.83	1.61
	대학(4년제) 졸(b)	336	3.30	0.73	
	석사 졸(c)	299	3.20	0.78	
	박사 졸(d)	55	3.13	0.7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2	0.68	5.15** a>c>b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12	0.82	
	청소년 단체(c)	126	3.18	0.85	
거주지	대도시(a)	345	3.23	0.76	.07
	중소도시(b)	263	3.25	0.78	
	농산어촌(c)	111	3.23	0.7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06	0.84	4.50** c,d>a,b
	6년~10년 이하(b)	200	3.27	0.72	
	11년~20년 이하(c)	253	3.30	0.73	
	21년 이상(d)	83	3.35	0.71	

\*\* p<.01

〈표 IV-23〉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3(SD=.79), 여자 평균은 3.24(SD=.74)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11(SD=.83),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0(SD=.73), 석사졸업자 평균은 3.20(SD=.78), 박사졸업자 평균은 3.13(SD=.7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2(SD=.68),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12(SD=.82), 청소년 단체 평균은 3.18(SD=.85)로, F=5.1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

고, 청소년 단체, 보호·복지·상담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23(SD=.76), 중소도시 평균은 3.25(SD=.78), 농산어촌 평균은 3.23(SD=.71)로 중소도시가 높았고, 대도시, 농산어촌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06(SD=.8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27(SD=.72),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30(SD=.73), 21년 이상 평균은 3.35(SD=.71)로 나타났으며,  $F=4.50$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11년~20년 이하와 21년 이상은 1년~5년 이하와 6년~10년 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27	0.78	
성별	남자	286	3.28	0.78	.06
	여자	433	3.27	0.79	
학력	전문대 졸(a)	28	3.14	0.80	1.07
	대학(4년제) 졸(b)	336	3.30	0.76	
	석사 졸(c)	299	3.27	0.79	
	박사 졸(d)	55	3.13	0.8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5	0.73	3.98* a)b>c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19	0.83	
	청소년 단체(c)	126	3.17	0.85	
거주지	대도시(a)	345	3.27	0.79	.09
	중소도시(b)	263	3.28	0.78	
	농산어촌(c)	111	3.24	0.77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06	0.89	6.92** d>b,c>a
	6년~10년 이하(b)	200	3.30	0.74	
	11년~20년 이하(c)	253	3.34	0.74	
	21년 이상(d)	83	3.46	0.67	

\* p<.05, \*\* p<.01

〈표 IV-2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8(SD=.78), 여자 평균은 3.27(SD=.79)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14(SD=.80),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0(SD=.76), 석사졸업자 평균은 3.27(SD=.79), 박사졸업자 평균은 3.13(SD=.8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5(SD=.7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19(SD=.83), 청소년 단체 평균은 3.17(SD=.85)로, F=3.95,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

고, 보호·복지·상담시설, 청소년 단체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27(SD=.79), 중소도시 평균은 3.28(SD=.78), 농산어촌 평균은 3.24(SD=.7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06(SD=.89), 6년~10년 이하 평균은 3.30(SD=.74),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34(SD=.74), 21년 이상 평균은 3.46(SD=.67)으로 나타났으며,  $F=6.92$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린 뉴딜의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V-25>와 [그림 IV-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25. 그린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결과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719	3.41	0.69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719	3.25	0.76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719	3.33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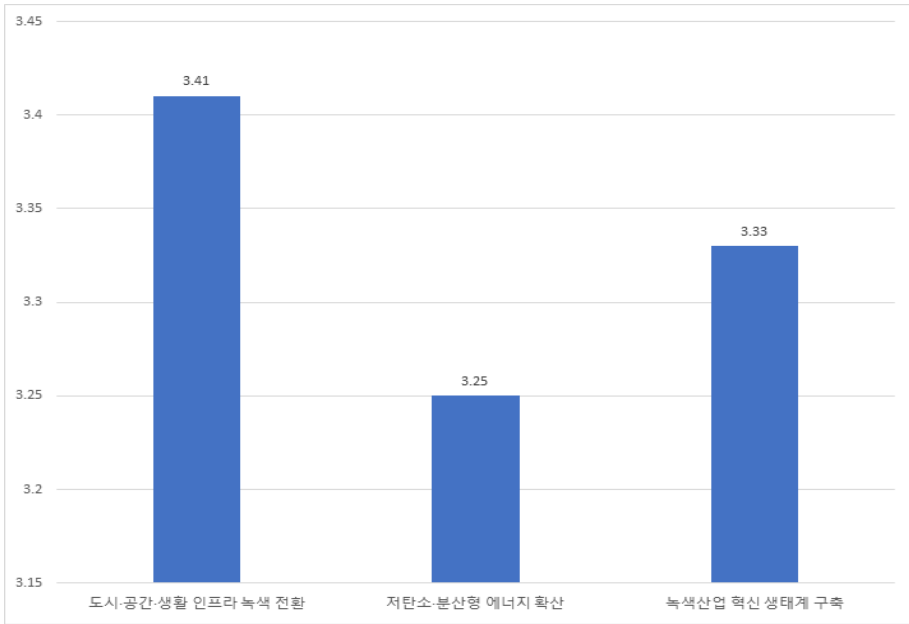


그림 IV-8. 그린 뉴딜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표 IV-25〉과 [그림 IV-8]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평균은 3.41( $SD=.69$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평균은 3.25( $SD=.76$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평균은 3.33( $SD=.73$ )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분야’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1	0.69	
성별	남자	286	3.43	0.69	.22
	여자	433	3.40	0.69	
학력	전문대 졸(a)	28	3.21	0.83	.99
	대학(4년제) 졸(b)	336	3.40	0.66	
	석사 졸(c)	299	3.44	0.71	
	박사 졸(d)	55	3.38	0.68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7	0.62	3.09* a>b,c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34	0.73	
	청소년 단체(c)	126	3.35	0.82	
거주지	대도시(a)	345	3.37	0.70	2.21
	중소도시(b)	263	3.48	0.67	
	농산어촌(c)	111	3.37	0.7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25	0.77	4.40** d>b,c>a
	6년~10년 이하(b)	200	3.45	0.64	
	11년~20년 이하(c)	253	3.45	0.67	
	21년 이상(d)	83	3.52	0.61	

\*  $p < .05$ , \*\*  $p < .01$

〈표 IV-2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3(SD=.69), 여자 평균은 3.40(SD=.69)로 남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1(SD=.83),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0(SD=.66), 석사졸업자 평균은 3.44(SD=.71), 박사졸업자 평균은 3.38(SD=.6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7(SD=.62), 보호·복지·

상담시설 평균은 3.34(SD=.73), 청소년 단체 평균은 3.35(SD=.82)로 나타났으며,  $F=3.09$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 단체, 보호·복지·상담시설은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7(SD=.70), 중소도시 평균은 3.48(SD=.67), 농산어촌 평균은 3.37(SD=.71)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25(SD=.77),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5(SD=.64),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5(SD=.67), 21년 이상 평균은 3.52(SD=.61)으로 나타났으며,  $F=4.40$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25	0.76	
성별	남자	286	3.24	0.78	.08
	여자	433	3.25	0.75	
학력	전문대 졸(a)	28	3.00	0.82	1.14
	대학(4년제) 졸(b)	336	3.27	0.75	
	석사 졸(c)	299	3.24	0.77	
	박사 졸(d)	55	3.27	0.7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0	0.71	2.61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16	0.81	
	청소년 단체(c)	126	3.21	0.81	
거주지	대도시(a)	345	3.23	0.78	.28
	중소도시(b)	263	3.26	0.74	
	농산어촌(c)	111	3.28	0.7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08	0.83	4.94** d>b,c>a
	6년~10년 이하(b)	200	3.29	0.73	
	11년~20년 이하(c)	253	3.27	0.74	
	21년 이상(d)	83	3.43	0.67	

\*\* p<.01

〈표 IV-27〉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4(SD=.78), 여자 평균은 3.25(SD=.75)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00(SD=.82),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27(SD=.75), 석사졸업자 평균은 3.24(SD=.77), 박사졸업자 평균은 3.27(SD=.7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0(SD=.71),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16(SD=.8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21(SD=.81)로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23(SD=.78), 중소도시 평균은 3.26(SD=.74), 농산어촌 평균은 3.28(SD=.75)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08(SD=.83), 6년~10년 이하 평균은 3.29(SD=.7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27(SD=.74), 21년 이상 평균은 3.43(SD=.67)으로 나타났으며,  $F=4.94$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표 IV-28.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33	0.73	
성별	남자	286	3.32	0.75	.07
	여자	433	3.33	0.72	
학력	전문대 졸(a)	28	3.00	0.86	2.17
	대학(4년제) 졸(b)	336	3.32	0.71	
	석사 졸(c)	299	3.36	0.74	
	박사 졸(d)	55	3.29	0.7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9	0.67	3.34* b,c>a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25	0.78	
	청소년 단체(c)	126	3.25	0.82	
거주지	대도시(a)	345	3.33	0.73	.04
	중소도시(b)	263	3.32	0.74	
	농산어촌(c)	111	3.34	0.7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15	0.82	5.70** d>b,c>a
	6년~10년 이하(b)	200	3.35	0.73	
	11년~20년 이하(c)	253	3.38	0.68	
	21년 이상(d)	83	3.49	0.61	

\* p<.05, \*\* p<.01

〈표 IV-28〉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2(SD=.75), 여자 평균은 3.33(SD=.72)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00(SD=.86),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2(SD=.71), 석사졸업자 평균은 3.36(SD=.74), 박사졸업자 평균은 3.29(SD=.7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9(SD=.67),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25(SD=.7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25(SD=.82)로 나타났으

며,  $F=3.34$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복지·상담시설과 청소년 단체가 활동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3(SD=.73)$ , 중소도시 평균은  $3.32(SD=.74)$ , 농산어촌 평균은  $3.34(SD=.72)$ 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15(SD=.82)$ , 6년~10년 이하 평균은  $3.35(SD=.73)$ ,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38(SD=.68)$ , 21년 이상 평균은  $3.49(SD=.61)$ 로 나타났으며,  $F=5.70$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㉔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 분석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세부 분야’ 세부과제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IV-9]와 [그림 IV-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29.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분석

그린 뉴딜 세부 분야	관련성		중요성		t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3.39	.70	3.41	.69	-1.54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24	.76	3.25	.76	-.6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27	.78	3.33	.73	-3.20**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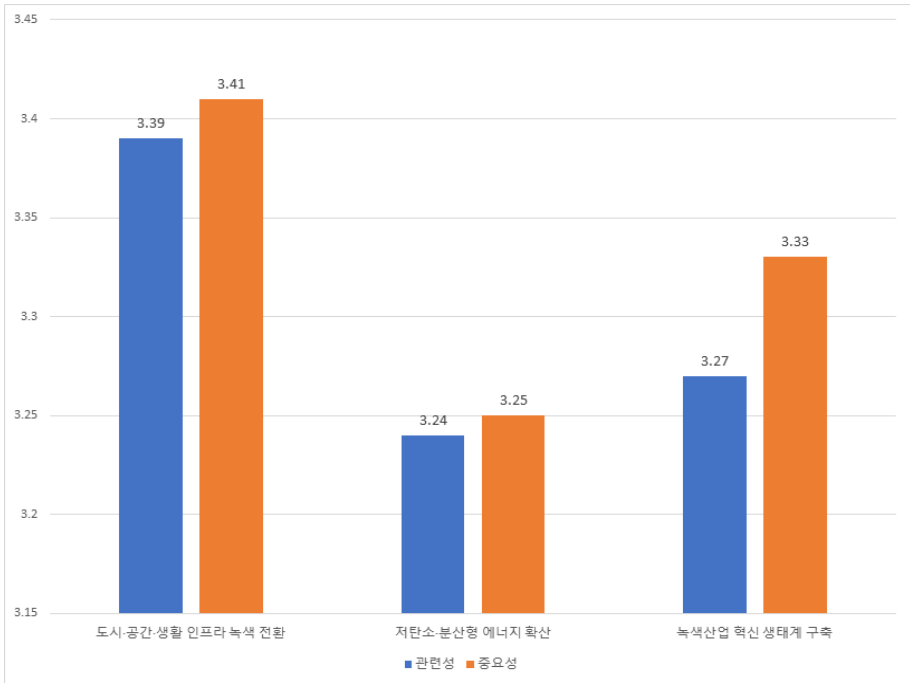


그림 IV-9.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비교·분석

〈표 IV-29〉와 [그림 IV-9]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세부 분야’ 세부과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관련성 평균 3.27(SD=.78), 중요성 평균 3.33(SD=.73)로  $t=-3.20$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관련성과 중요성의 비교·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린 뉴딜 세부 분야’ 세부과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에 대해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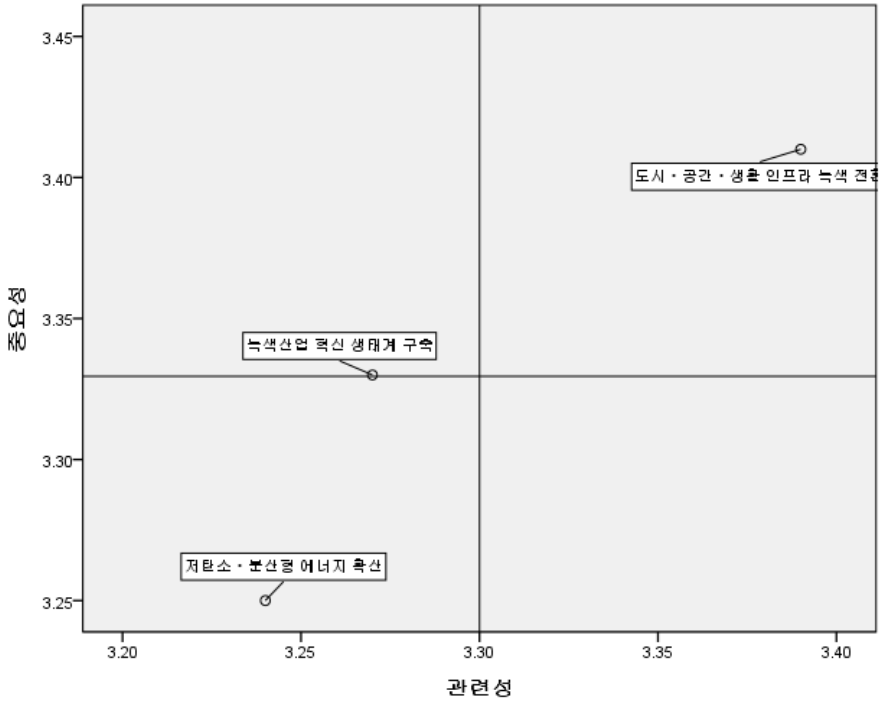


그림 IV-10. 그린 뉴딜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매트릭스 분석

[그림 IV-10]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자들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세부 분야’ 세부과제 중 제1사분면에 있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였다. 제2사분면에 있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제3사분면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분야의 세부과제 인식

㉠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별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0>과 [그림 IV-11]과 같다.

표 IV-30.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고용사회 안전망	719	3.45	0.68
사람투자	719	3.40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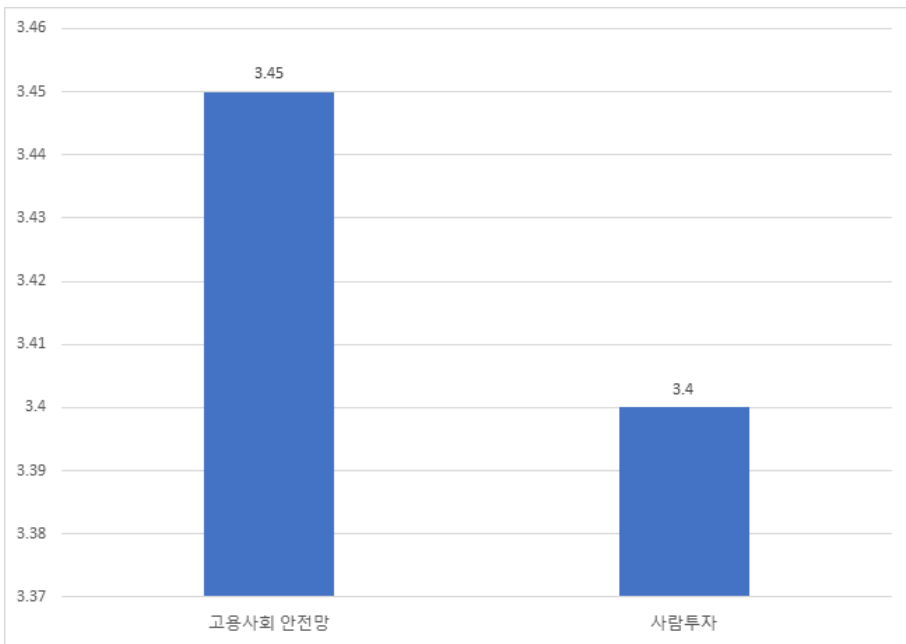


그림 IV-11.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분석

〈표 IV-30〉과 [그림 IV-11]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서 ‘고용사회 안전망’의 평균은 3.45(SD=.68), ‘사람투자’의 평균은 3.40(SD=.68)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관련성 분석에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사람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중 ‘고용사회 안전망’이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고용사회 안전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5	0.68	
성별	남자	286	3.42	0.67	1.00
	여자	433	3.47	0.68	
학력	전문대 졸(a)	28	3.21	0.69	2.34
	대학(4년제) 졸(b)	336	3.41	0.65	
	석사 졸(c)	299	3.51	0.71	
	박사 졸(d)	55	3.49	0.6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8	0.68	6.87** b>c>a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0	0.64	
	청소년 단체(c)	126	3.43	0.70	
거주지	대도시(a)	345	3.46	0.68	.23
	중소도시(b)	263	3.45	0.66	
	농산어촌(c)	111	3.41	0.7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38	0.74	.94
	6년~10년 이하(b)	200	3.47	0.65	
	11년~20년 이하(c)	253	3.49	0.63	
	21년 이상(d)	83	3.42	0.72	

\*\* p<.01

〈표 IV-3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2(SD=.67), 여자 평균은 3.47(SD=.68)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1(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1(SD=.65), 석사졸업자 평균은 3.51(SD=.71),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6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8(SD=.68),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60(SD=.64),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3(SD=.70)으로 나타났으며,  $F=6.87$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보호·복지·상담시설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단체, 활동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6(SD=.68), 중소도시 평균은 3.45(SD=.66), 농산어촌 평균은 3.41(SD=.7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38(SD=.7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7(SD=.65),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9(SD=.63), 21년 이상 평균은 3.42(SD=.7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중 ‘사람투자’가 청소년 분야와 관련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표 IV-32.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관련성 결과분석: 사람투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0	0.68	
성별	남자	286	3.39	0.68	.02
	여자	433	3.40	0.68	
학력	전문대 졸(a)	28	3.21	0.74	2.13
	대학(4년제) 졸(b)	336	3.35	0.67	
	석사 졸(c)	299	3.44	0.69	
	박사 졸(d)	55	3.51	0.6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36	0.65	1.99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7	0.67	
	청소년 단체(c)	126	3.40	0.76	
거주지	대도시(a)	345	3.41	0.68	2.38
	중소도시(b)	263	3.43	0.64	
	농산어촌(c)	111	3.27	0.7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25	0.72	4.11** d>b,c>a
	6년~10년 이하(b)	200	3.42	0.68	
	11년~20년 이하(c)	253	3.44	0.64	
	21년 이상(d)	83	3.51	0.65	

\*\* p<.01

〈표 IV-32〉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9(SD=.68), 여자 평균은 3.40(SD=.68)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1(SD=.7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5(SD=.67), 석사졸업자 평균은 3.44(SD=.69), 박사졸업자 평균은 3.51(SD=.6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36(SD=.65),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7(SD=.67),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0(SD=.76)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1(SD=.68), 중소도시 평균은 3.43(SD=.64), 농산어촌 평균은 3.27(SD=.7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25(SD=.72),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2(SD=.68),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4(SD=.64), 21년 이상 평균은 3.51(SD=.65)로 나타났으며,  $F=4.11$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는 1년~5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중요성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별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3>과 [그림 IV-12]와 같다.

**표 IV-33.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결과**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고용사회 안전망	719	3.52	0.62
사람투자	719	3.43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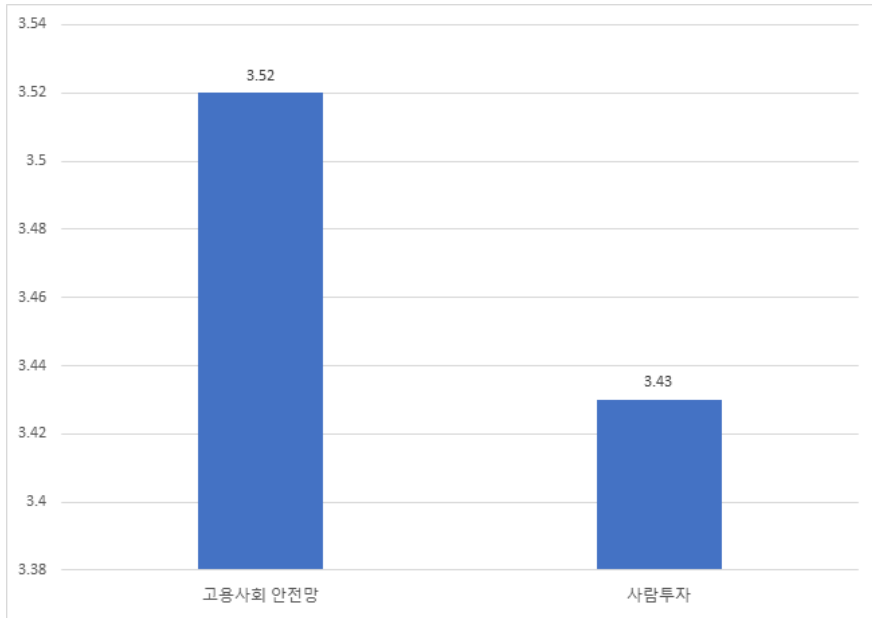


그림 IV-12.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분석

〈표 IV-33〉과 [그림 IV-12]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서 ‘고용사회 안전망’의 평균은 3.52(SD=.62), ‘사람투자’의 평균은 3.43(SD=.69)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중요성 분석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이 ‘고용사회 안전망’이 ‘사람투자’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중 ‘고용사회 안전망’이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표 IV-34.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고용사회 안전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2	0.62	
성별	남자	286	3.50	0.62	.43
	여자	433	3.53	0.62	
학력	전문대 졸(a)	28	3.32	0.55	3.72** c,d>a,b
	대학(4년제) 졸(b)	336	3.46	0.63	
	석사 졸(c)	299	3.58	0.63	
	박사 졸(d)	55	3.64	0.52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5	0.63	6.91** b>c>a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5	0.58	
	청소년 단체(c)	126	3.51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4	0.59	.69
	중소도시(b)	263	3.52	0.61	
	농산어촌(c)	111	3.46	0.7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9	0.67	.18
	6년~10년 이하(b)	200	3.54	0.61	
	11년~20년 이하(c)	253	3.52	0.59	
	21년 이상(d)	83	3.51	0.65	

\*\* p<.01

〈표 IV-3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0(SD=.62), 여자 평균은 3.53(SD=.62)로 여자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2(SD=.5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6(SD=.63), 석사졸업자 평균은 3.58(SD=.63), 박사졸업자 평균은 3.64(SD=.52)로 나타났으며, F=3.7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석사졸업자와 박사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5(SD=.6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65(SD=.5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1(SD=.6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4(SD=.59), 중소도시 평균은 3.52(SD=.61), 농산어촌 평균은 3.46(SD=.72)로 대도시가 높았고,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9(SD=.67),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4(SD=.6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2(SD=.59), 21년 이상 평균은 3.51(SD=.65)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의 하위분야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중 '사람투자'의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성 정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표 IV-35. 한국판 뉴딜에 세부과제의 인식 중요성 결과분석: 사람투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3	0.69	
성별	남자	286	3.42	0.69	.09
	여자	433	3.44	0.69	
학력	전문대 졸(a)	28	3.25	0.75	4.91** d>c>b>a
	대학(4년제) 졸(b)	336	3.35	0.72	
	석사 졸(c)	299	3.49	0.66	
	박사 졸(d)	55	3.65	0.52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0	0.68	1.29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9	0.67	
	청소년 단체(c)	126	3.46	0.73	
거주지	대도시(a)	345	3.45	0.67	1.93
	중소도시(b)	263	3.46	0.65	
	농산어촌(c)	111	3.32	0.8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28	0.76	4.39** d>b,c>a
	6년~10년 이하(b)	200	3.47	0.70	
	11년~20년 이하(c)	253	3.47	0.64	
	21년 이상(d)	83	3.57	0.59	

\*\* p<.01

〈표 IV-3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2(SD=.69), 여자 평균은 3.44(SD=.6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5(SD=.7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35(SD=.72), 석사졸업자 평균은 3.49(SD=.66), 박사졸업자 평균은 3.65(SD=.52)로 나타났으며, F=4.9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박사졸업자가 가장 높았고, 석사졸업자,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0(SD=.68), 보호·복지·

상답시설 평균은 3.49(SD=.67),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6(SD=.73)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5(SD=.67), 중소도시 평균은 3.46(SD=.65), 농산어촌 평균은 3.32(SD=.81)로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농산어촌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28(SD=.76),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7(SD=.70),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7(SD=.64), 21년 이상 평균은 3.57(SD=.59)로 나타났으며,  $F=4.3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는 1년~5년 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㊸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 분석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별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대응표본 t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IV-13]과 [그림 IV-14]를 제시하였다.

표 IV-36.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분석

안전망 강화 세부 분야	관련성		중요성		t 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고용사회 안전망	3.45	.68	3.52	.62	-4.06**
사람투자	3.40	.68	3.43	.69	-2.05*

\*  $p<.05$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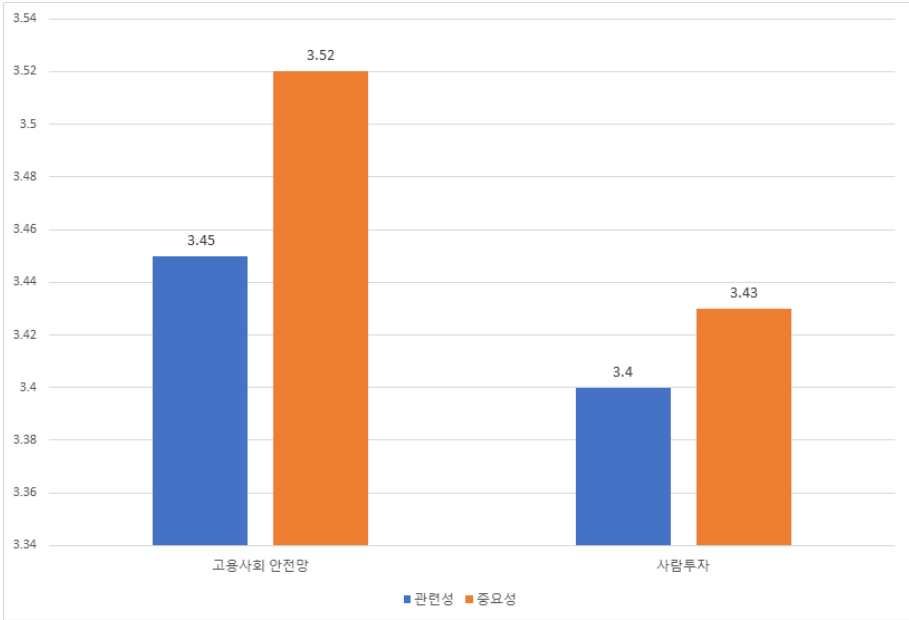


그림 IV-13.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 비교·분석

〈표 IV-36〉과 [그림 IV-13]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비교결과 ‘고용사회 안전망’의 관련성 평균 3.45(SD=.68), 중요성 평균 3.52(SD=.62),  $t=-4.06$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투자’의 관련성 평균 3.40(SD=.68), 중요성 평균 3.43(SD=.69),  $t=-2.05$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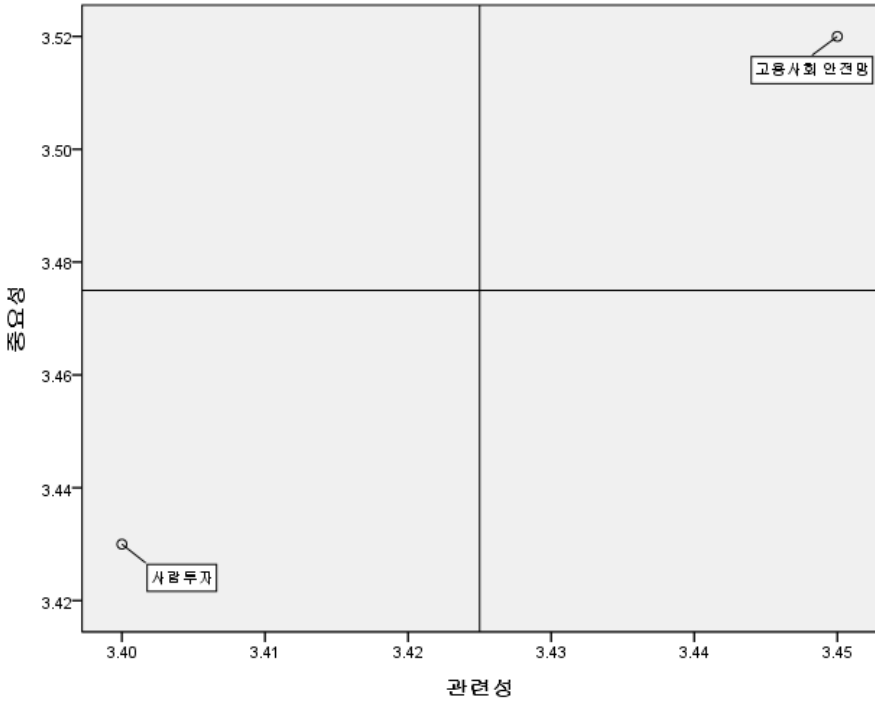


그림 IV-14.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의 매트릭스 분석

[그림 IV-14]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자들은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 중 제1사분면에 있는 '고용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아주 높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제3사분면의 '사람투자'는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별 청소년사업 현장 대응전략 방안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 사업 현장의 대응 전략 방안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그린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 방안’으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시키기 위하여 D.N.A(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7>과 [그림 IV-15]와 같다.

표 IV-37.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디지털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19	3.52	0.56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719	3.43	0.57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719	3.51	0.5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719	3.51	0.59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719	3.51	0.58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719	3.54	0.57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719	3.58	0.56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719	3.56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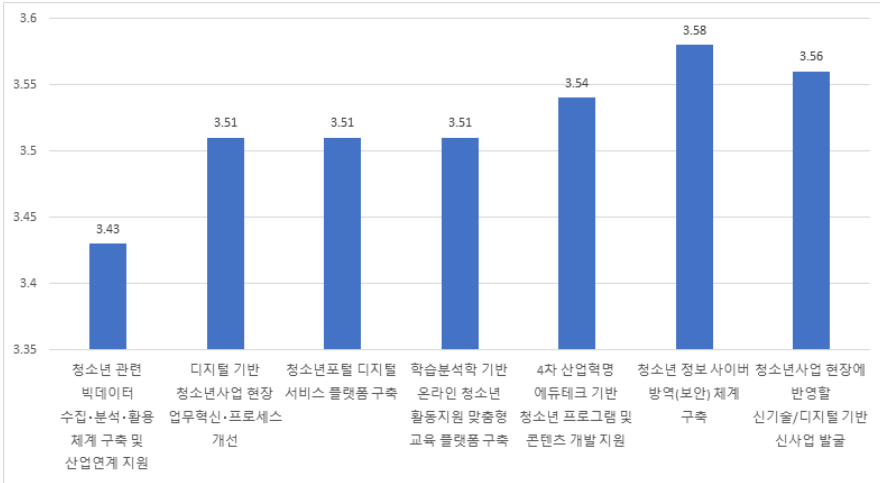


그림 IV-15.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표 IV-37〉과 [그림 IV-15]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의 평균은 3.43(SD=.57),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의 평균은 3.51(SD=.5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평균은 3.51(SD=.59),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의 평균은 3.51(SD=.58),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의 평균은 3.54(SD=.57),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의 평균은 3.58(SD=.56),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의 평균은 3.56(SD=.54)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이 ‘디지털 뉴딜’의 여러 대응 전략 방안 중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표 IV-38.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3	0.57	
성별	남자	286	3.44	0.61	.11
	여자	433	3.42	0.54	
학력	전문대 졸(a)	28	3.07	0.81	4.31**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42	0.57	
	석사 졸(c)	299	3.47	0.54	
	박사 졸(d)	55	3.42	0.5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9	0.56	6.36** a)c>b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33	0.57	
	청소년 단체(c)	126	3.38	0.59	
거주지	대도시(a)	345	3.45	0.55	.76
	중소도시(b)	263	3.43	0.59	
	농산어촌(c)	111	3.37	0.60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0	0.61	2.44
	6년~10년 이하(b)	200	3.44	0.54	
	11년~20년 이하(c)	253	3.39	0.58	
	21년 이상(d)	83	3.58	0.52	

\*\* p<.01

<표 IV-38>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4(SD=.61), 여자 평균은 3.42(SD=.54)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07(SD=.81), 4년제 졸업

자 평균은 3.42(SD=.57), 석사졸업자 평균은 3.47(SD=.54), 박사졸업자 평균은 3.42(SD=.53)로 나타났으며,  $F=4.31$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 석사졸업자, 박사졸업자는 전문대 졸업자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9(SD=.56),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33(SD=.57), 청소년 단체 평균은 3.38(SD=.59)으로 나타났으며,  $F=6.36$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 단체, 보호·복지·상담시설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5(SD=.55), 중소도시 평균은 3.43(SD=.59), 농산어촌 평균은 3.37(SD=.60)로 대도시가 높았고, 중소도시, 농산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0(SD=.61), 6년~10년 이하 평균은 3.44(SD=.54),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39(SD=.58), 21년 이상 평균은 3.58(SD=.5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9>와 같다.

표 IV-39.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1	0.53	
성별	남자	286	3.53	0.55	.51
	여자	433	3.50	0.52	
학력	전문대 졸(a)	28	3.32	0.72	2.06
	대학(4년제) 졸(b)	336	3.50	0.54	
	석사 졸(c)	299	3.55	0.51	
	박사 졸(d)	55	3.45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7	0.51	6.39** a)b,c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5	0.53	
	청소년 단체(c)	126	3.41	0.58	
거주지	대도시(a)	345	3.52	0.53	.63
	중소도시(b)	263	3.51	0.53	
	농산어촌(c)	111	3.46	0.5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9	0.57	1.17
	6년~10년 이하(b)	200	3.54	0.51	
	11년~20년 이하(c)	253	3.48	0.53	
	21년 이상(d)	83	3.59	0.49	

\*\* p<.01

〈표 IV-39〉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3(SD=.55), 여자 평균은 3.50(SD=.52)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2(SD=.72),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0(SD=.54), 석사졸업자 평균은 3.55(SD=.51), 박사졸업자 평균은 3.45(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7(SD=.51),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5(SD=.53),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1(SD=.58)으로 나타났으

며,  $F=6.3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 단체와 보호·복지·상담시설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2(SD=.53), 중소도시 평균은 3.51(SD=.53), 농산어촌 평균은 3.46(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9(SD=.57),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4(SD=.5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8(SD=.53), 21년 이상 평균은 3.59(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0>과 같다.

표 IV-40.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1	0.59	
성별	남자	286	3.50	0.64	.26
	여자	433	3.52	0.56	
학력	전문대 졸(a)	28	3.32	0.82	1.48
	대학(4년제) 졸(b)	336	3.49	0.60	
	석사 졸(c)	299	3.55	0.56	
	박사 졸(d)	55	3.49	0.5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5	0.58	2.04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6	0.58	
	청소년 단체(c)	126	3.46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5	0.58	4.14* a,b>c
	중소도시(b)	263	3.51	0.57	
	농산어촌(c)	111	3.37	0.63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6	0.64	1.52
	6년~10년 이하(b)	200	3.52	0.58	
	11년~20년 이하(c)	253	3.50	0.58	
	21년 이상(d)	83	3.63	0.51	

\* p<.05

〈표 IV-4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0(SD=.64), 여자 평균은 3.52(SD=.56)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2(SD=.82),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9(SD=.60), 석사졸업자 평균은 3.55(SD=.56),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5(SD=.58),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6(SD=.5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6(SD=.6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5(SD=.58), 중소도시 평균은 3.51(SD=.57), 농산어촌 평균은 3.37(SD=.63)로 나타났으며,  $F=4.14$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산어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6(SD=.6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2(SD=.58),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0(SD=.58), 21년 이상 평균은 3.63(SD=.51)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표 IV-41.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1	0.58	
성별	남자	286	3.48	0.61	1.86
	여자	433	3.54	0.56	
학력	전문대 졸(a)	28	3.36	0.73	2.12
	대학(4년제) 졸(b)	336	3.47	0.60	
	석사 졸(c)	299	3.57	0.54	
	박사 졸(d)	55	3.51	0.5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4	0.56	1.33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8	0.60	
	청소년 단체(c)	126	3.46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0	0.58	.09
	중소도시(b)	263	3.51	0.60	
	농산어촌(c)	111	3.53	0.5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50	0.62	.86
	6년~10년 이하(b)	200	3.52	0.57	
	11년~20년 이하(c)	253	3.49	0.58	
	21년 이상(d)	83	3.60	0.52	

〈표 IV-4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8(SD=.61), 여자 평균은 3.54(SD=.56)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6(SD=.73),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7(SD=.60), 석사졸업자 평균은 3.57(SD=.54), 박사졸업자 평균은 3.51(SD=.5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4(SD=.56),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8(SD=.60),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6(SD=.6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0(SD=.58), 중소도시 평균

은 3.51(SD=.60), 농산어촌 평균은 3.53(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50(SD=.62),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2(SD=.57),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9(SD=.58), 21년 이상 평균은 3.60(SD=.5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2>와 같다.

**표 IV-4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4	0.57	
성별	남자	286	3.50	0.61	2.13
	여자	433	3.56	0.55	
학력	전문대 졸(a)	28	3.39	0.83	1.29
	대학(4년제) 졸(b)	336	3.52	0.58	
	석사 졸(c)	299	3.58	0.54	
	박사 졸(d)	55	3.51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9	0.54	3.71* a>b,c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5	0.59	
	청소년 단체(c)	126	3.52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4	0.58	.00
	중소도시(b)	263	3.54	0.58	
	농산어촌(c)	111	3.54	0.54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9	0.65	.72
	6년~10년 이하(b)	200	3.55	0.56	
	11년~20년 이하(c)	253	3.54	0.55	
	21년 이상(d)	83	3.60	0.52	

\* p<.05

〈표 IV-42〉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0(SD=.61), 여자 평균은 3.56(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9(SD=.83),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2(SD=.58), 석사졸업자 평균은 3.58(SD=.54), 박사졸업자 평균은 3.51(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9(SD=.54),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5(SD=.59),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2(SD=.62)로 나타났으며,  $F=3.71$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보호·복지·상담시설과 청소년단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4(SD=.58), 중소도시 평균은 3.54(SD=.58), 농산어촌 평균은 3.54(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9(SD=.65),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5(SD=.5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4(SD=.55), 21년 이상 평균은 3.60(SD=.5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3〉과 같다.

표 IV-43.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8	0.56	
성별	남자	286	3.51	0.61	8.07**
	여자	433	3.63	0.51	
학력	전문대 졸(a)	28	3.50	0.75	1.85
	대학(4년제) 졸(b)	336	3.54	0.57	
	석사 졸(c)	299	3.64	0.52	
	박사 졸(d)	55	3.56	0.5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9	0.53	.86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0	0.55	
	청소년 단체(c)	126	3.52	0.64	
거주지	대도시(a)	345	3.55	0.59	1.59
	중소도시(b)	263	3.60	0.53	
	농산어촌(c)	111	3.65	0.50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57	0.59	.36
	6년~10년 이하(b)	200	3.60	0.54	
	11년~20년 이하(c)	253	3.57	0.56	
	21년 이상(d)	83	3.63	0.51	

\*\* p<.01

〈표 IV-43〉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1(SD=.61)이고, 여자 평균은 3.63(SD=.51)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F=8.07,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0(SD=.7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4(SD=.57), 석사졸업자 평균은 3.64(SD=.52), 박사졸업자 평균은 3.56(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9(SD=.5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60(SD=.55),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2(SD=.64)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5(SD=.59), 중소도시 평균은 3.60(SD=.53), 농산어촌 평균은 3.65(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57(SD=.59),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0(SD=.54),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7(SD=.56), 21년 이상 평균은 3.63(SD=.51)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4>와 같다.

**표 IV-44.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6	0.54	
성별	남자	286	3.53	0.58	1.77
	여자	433	3.59	0.52	
학력	전문대 졸(a)	28	3.43	0.69	1.62
	대학(4년제) 졸(b)	336	3.53	0.55	
	석사 졸(c)	299	3.60	0.53	
	박사 졸(d)	55	3.62	0.49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3	0.51	6.77** a>b,c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8	0.58	
	청소년 단체(c)	126	3.48	0.55	
거주지	대도시(a)	345	3.57	0.56	.11
	중소도시(b)	263	3.56	0.53	
	농산어촌(c)	111	3.55	0.5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52	0.59	.89
	6년~10년 이하(b)	200	3.56	0.54	
	11년~20년 이하(c)	253	3.57	0.53	
	21년 이상(d)	83	3.64	0.48	

\*\* p<.01

〈표 IV-4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3(SD=.58), 여자 평균은 3.59(SD=.52)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43(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3(SD=.55), 석사졸업자 평균은 3.60(SD=.53), 박사졸업자 평균은 3.62(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3(SD=.51),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8(SD=.5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8(SD=.55)으로 나타났으며,  $F=6.77$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활동시설이 보호·복지·상담시설과 청소년 단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7(SD=.56), 중소도시 평균은 3.56(SD=.53), 농산어촌 평균은 3.55(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52(SD=.59),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6(SD=.54),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7(SD=.53), 21년 이상 평균은 3.64(SD=.4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②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5〉와 [그림 IV-16]과 같다.

표 IV-45.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19	3.52	0.56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719	3.48	0.55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719	3.44	0.61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719	3.50	0.59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719	3.55	0.57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719	3.58	0.55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719	3.56	0.5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719	3.55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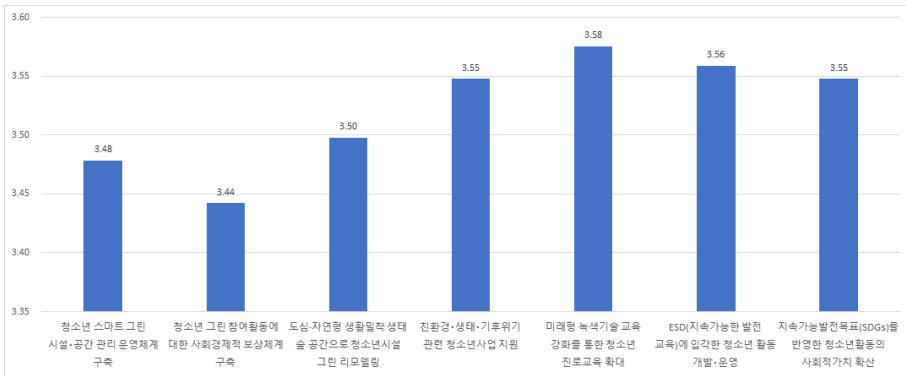


그림 IV-16.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표 IV-45〉와 [그림 IV-16]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의 평균은 3.48(SD=.55),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의 평균은 3.44(SD=.61),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의 평균은 3.50(SD=.59),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의 평균은 3.55(SD=.57),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의 평균은 3.58(SD=.55),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의 평균은 3.56(SD=.5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

등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평균은 3.55(SD=.54)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이 '그린 뉴딜 분야'의 여러 대응 전략 방안 중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6>과 같다.

표 IV-46.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8	0.55	
성별	남자	286	3.43	0.57	4.32*
	여자	433	3.51	0.52	
학력	전문대 졸(a)	28	3.29	0.71	1.43
	대학(4년제) 졸(b)	336	3.47	0.54	
	석사 졸(c)	299	3.51	0.54	
	박사 졸(d)	55	3.47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1	0.51	1.74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6	0.56	
	청소년 단체(c)	126	3.41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0	0.55	.62
	중소도시(b)	263	3.45	0.56	
	농산어촌(c)	111	3.47	0.5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1	0.62	2.11
	6년~10년 이하(b)	200	3.53	0.51	
	11년~20년 이하(c)	253	3.45	0.53	
	21년 이상(d)	83	3.55	0.50	

\* p<.05

〈표 IV-4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3(SD=.57), 여자 평균은 3.51(SD=.52)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F=4.32$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9(SD=.71),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7(SD=.54), 석사졸업자 평균은 3.51(SD=.54), 박사졸업자 평균은 3.47(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1(SD=.51),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6(SD=.56),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1(SD=.62)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0(SD=.55), 중소도시 평균은 3.45(SD=.56), 농산어촌 평균은 3.47(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1(SD=.62),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3(SD=.5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5(SD=.53), 21년 이상 평균은 3.55(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7〉과 같다.

표 IV-47.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44	0.61	
성별	남자	286	3.43	0.63	.31
	여자	433	3.45	0.60	
학력	전문대 졸(a)	28	3.21	0.69	1.77
	대학(4년제) 졸(b)	336	3.48	0.59	
	석사 졸(c)	299	3.44	0.62	
	박사 졸(d)	55	3.40	0.49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49	0.58	2.39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39	0.61	
	청소년 단체(c)	126	3.38	0.69	
거주지	대도시(a)	345	3.44	0.61	.00
	중소도시(b)	263	3.44	0.64	
	농산어촌(c)	111	3.44	0.53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0	0.69	1.36
	6년~10년 이하(b)	200	3.51	0.55	
	11년~20년 이하(c)	253	3.41	0.60	
	21년 이상(d)	83	3.46	0.61	

〈표 IV-47〉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3(SD=.63), 여자 평균은 3.45(SD=.6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1(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8(SD=.59), 석사졸업자 평균은 3.44(SD=.62), 박사졸업자 평균은 3.40(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49(SD=.58),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39(SD=.6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38(SD=.6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44(SD=.61), 중소도시 평균은 3.44(SD=.64), 농산어촌 평균은 3.44(SD=.5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0(SD=.69),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1(SD=.55),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1(SD=.60), 21년 이상 평균은 3.46(SD=.61)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8>과 같다.

**표 IV-48.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0	0.59	
성별	남자	286	3.48	0.63	.69
	여자	433	3.51	0.56	
학력	전문대 졸(a)	28	3.29	0.76	1.59
	대학(4년제) 졸(b)	336	3.49	0.57	
	석사 졸(c)	299	3.53	0.57	
	박사 졸(d)	55	3.49	0.5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3	0.57	.96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6	0.58	
	청소년 단체(c)	126	3.47	0.64	
거주지	대도시(a)	345	3.51	0.55	.44
	중소도시(b)	263	3.50	0.64	
	농산어촌(c)	111	3.45	0.57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7	0.63	1.21
	6년~10년 이하(b)	200	3.51	0.56	
	11년~20년 이하(c)	253	3.47	0.58	
	21년 이상(d)	83	3.60	0.58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8(SD=.63), 여자 평균은 3.51(SD=.56)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9(SD=.76),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49(SD=.57), 석사졸업자 평균은 3.53(SD=.57),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5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3(SD=.57),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6(SD=.5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7(SD=.64)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1(SD=.55), 중소도시 평균은 3.50(SD=.64), 농산어촌 평균은 3.45(SD=.5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7(SD=.63),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1(SD=.5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47(SD=.58), 21년 이상 평균은 3.60(SD=.58)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9>와 같다.

표 IV-49.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5	0.57	
성별	남자	286	3.53	0.61	.58
	여자	433	3.56	0.55	
학력	전문대 졸(a)	28	3.21	0.74	3.72**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56	0.56	
	석사 졸(c)	299	3.58	0.56	
	박사 졸(d)	55	3.49	0.5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8	0.53	1.75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0	0.57	
	청소년 단체(c)	126	3.52	0.68	
거주지	대도시(a)	345	3.57	0.55	1.07
	중소도시(b)	263	3.55	0.58	
	농산어촌(c)	111	3.48	0.62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3	0.65	4.53** d>b,c)a
	6년~10년 이하(b)	200	3.57	0.55	
	11년~20년 이하(c)	253	3.57	0.55	
	21년 이상(d)	83	3.69	0.47	

\*\* p<.01

〈표 IV-49〉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3(SD=.61), 여자 평균은 3.56(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1(SD=.7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6(SD=.56), 석사졸업자 평균은 3.58(SD=.56),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54)로 나타났으며, F=3.7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와 석사 졸업자가 높고, 박사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8(SD=.53), 보호·복지·

상담시설 평균은 3.50(SD=.57),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2(SD=.68)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7(SD=.55), 중소도시 평균은 3.55(SD=.58), 농산어촌 평균은 3.48(SD=.6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3(SD=.65),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7(SD=.55),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7(SD=.55), 21년 이상 평균은 3.69(SD=.47)으로 나타났으며,  $F=4.53$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0>과 같다.

표 IV-50.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8	0.55	
성별	남자	286	3.55	0.59	1.12
	여자	433	3.59	0.53	
학력	전문대 졸(a)	28	3.29	0.76	4.00** c,b>d)a
	대학(4년제) 졸(b)	336	3.57	0.54	
	석사 졸(c)	299	3.63	0.53	
	박사 졸(d)	55	3.49	0.5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8	0.55	.01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7	0.54	
	청소년 단체(c)	126	3.57	0.60	
거주지	대도시(a)	345	3.57	0.56	.64
	중소도시(b)	263	3.60	0.54	
	농산어촌(c)	111	3.54	0.5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8	0.61	3.13* d>b,c)a
	6년~10년 이하(b)	200	3.59	0.53	
	11년~20년 이하(c)	253	3.59	0.53	
	21년 이상(d)	83	3.69	0.52	

\* p<.05, \*\* p<.01

〈표 IV-5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5(SD=.59), 여자 평균은 3.59(SD=.5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9(SD=.76),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7(SD=.54), 석사졸업자 평균은 3.63(SD=.53),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57)로 나타났으며, F=4.00,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와 석사졸업자와 가장 높고, 박사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8(SD=.55), 보호·복지·

상답시설 평균은 3.57(SD=.54),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7(SD=.6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7(SD=.56), 중소도시 평균은 3.60(SD=.54), 농산어촌 평균은 3.54(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8(SD=.61),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9(SD=.5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9(SD=.53), 21년 이상 평균은 3.69(SD=.52)로 나타났으며,  $F=3.13$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1>과 같다.

표 IV-51.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6	0.53	
성별	남자	286	3.52	0.55	2.92
	여자	433	3.59	0.52	
학력	전문대 졸(a)	28	3.29	0.71	3.26*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56	0.53	
	석사 졸(c)	299	3.60	0.51	
	박사 졸(d)	55	3.49	0.5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0	0.52	2.79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9	0.55	
	청소년 단체(c)	126	3.56	0.54	
거주지	대도시(a)	345	3.56	0.54	1.04
	중소도시(b)	263	3.58	0.52	
	농산어촌(c)	111	3.50	0.54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8	0.58	2.00
	6년~10년 이하(b)	200	3.58	0.51	
	11년~20년 이하(c)	253	3.57	0.52	
	21년 이상(d)	83	3.63	0.49	

\*  $p < .05$

〈표 IV-5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2(SD=.55), 여자 평균은 3.59(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29(SD=.71),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6(SD=.53), 석사졸업자 평균은 3.60(SD=.51),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54)로 나타났으며,  $F=3.26$ ,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와 석사졸업자와 가장 높고, 박사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0(SD=.52), 보호·복지·

상답시설 평균은 3.49(SD=.55),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6(SD=.54)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6(SD=.54), 중소도시 평균은 3.58(SD=.52), 농산어촌 평균은 3.50(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8(SD=.58),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8(SD=.5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7(SD=.52), 21년 이상 평균은 3.63(SD=.49)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2>와 같다.

표 IV-5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5	0.54	
성별	남자	286	3.54	0.56	.06
	여자	433	3.55	0.53	
학력	전문대 졸(a)	28	3.32	0.72	2.45
	대학(4년제) 졸(b)	336	3.54	0.54	
	석사 졸(c)	299	3.59	0.53	
	박사 졸(d)	55	3.49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7	0.54	1.73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49	0.55	
	청소년 단체(c)	126	3.57	0.54	
거주지	대도시(a)	345	3.54	0.55	2.74
	중소도시(b)	263	3.59	0.51	
	농산어촌(c)	111	3.45	0.5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51	0.56	1.91
	6년~10년 이하(b)	200	3.52	0.57	
	11년~20년 이하(c)	253	3.56	0.52	
	21년 이상(d)	83	3.66	0.48	

〈표 IV-52〉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4(SD=.56), 여자 평균은 3.55(SD=.5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2(SD=.72),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4(SD=.54), 석사졸업자 평균은 3.59(SD=.53), 박사졸업자 평균은 3.49(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7(SD=.54),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49(SD=.55),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7(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4(SD=.55), 중소도시 평균

은 3.59(SD=.51), 농산어촌 평균은 3.45(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51(SD=.56),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2(SD=.57),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6(SD=.52), 21년 이상 평균은 3.66(SD=.48)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③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혁신에 따른 실업 불안, 소득격차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3>과 [그림 IV-17]과 같다.

표 IV-53.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안전망 강화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19	3.66	0.51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719	3.56	0.5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719	3.75	0.45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719	3.59	0.56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719	3.75	0.47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719	3.74	0.4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일자리, 주거 등)	719	3.65	0.52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719	3.61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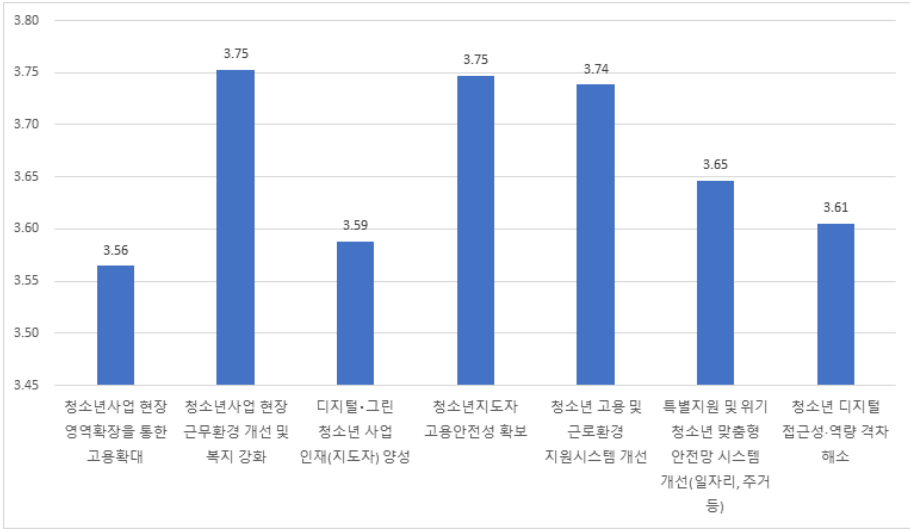


그림 IV-17.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표 IV-53〉과 [그림 IV-17]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의 평균은 3.56(SD=.5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의 평균은 3.75(SD=.45),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의 평균은 3.59(SD=.56),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의 평균은 3.75(SD=.47),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의 평균은 3.74(SD=.4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의 평균은 3.65(SD=.52),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의 평균은 3.61(SD=.53)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와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가 ‘안전망 강화 분야’의 여러 대응 전략 방안 중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4>와 같다.

표 IV-5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6	0.55	
성별	남자	286	3.53	0.60	1.36
	여자	433	3.58	0.52	
학력	전문대 졸(a)	28	3.32	0.72	2.02
	대학(4년제) 졸(b)	336	3.58	0.56	
	석사 졸(c)	299	3.56	0.54	
	박사 졸(d)	55	3.60	0.49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9	0.53	1.46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6	0.56	
	청소년 단체(c)	126	3.49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9	0.53	.83
	중소도시(b)	263	3.56	0.59	
	농산어촌(c)	111	3.51	0.54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51	0.66	1.21
	6년~10년 이하(b)	200	3.60	0.50	
	11년~20년 이하(c)	253	3.59	0.52	
	21년 이상(d)	83	3.53	0.53	

<표 IV-5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3(SD=.60), 여자 평균은 3.58(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2(SD=.72),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8(SD=.56), 석사졸업자 평균은 3.56(SD=.54), 박사졸업자 평균은 3.60(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9(SD=.5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56(SD=.56),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9(SD=.6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9(SD=.53), 중소도시 평균은 3.56(SD=.59), 농산어촌 평균은 3.51(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51(SD=.66),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0(SD=.50),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9(SD=.52), 21년 이상 평균은 3.53(SD=.53)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5>와 같다.

표 IV-5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75	0.45	
성별	남자	286	3.74	0.48	.29
	여자	433	3.76	0.44	
학력	전문대 졸(a)	28	3.50	0.75	3.64**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75	0.44	
	석사 졸(c)	299	3.79	0.42	
	박사 졸(d)	55	3.71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76	0.44	1.67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78	0.42	
	청소년 단체(c)	126	3.69	0.53	
거주지	대도시(a)	345	3.76	0.45	1.48
	중소도시(b)	263	3.77	0.44	
	농산어촌(c)	111	3.68	0.49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7	0.53	3.19* b,c>a,d
	6년~10년 이하(b)	200	3.77	0.42	
	11년~20년 이하(c)	253	3.80	0.41	
	21년 이상(d)	83	3.75	0.46	

\* p<.05, \*\* p<.01

〈표 IV-5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74(SD=.48), 여자 평균은 3.76(SD=.4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0(SD=.75),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75(SD=.44), 석사졸업자 평균은 3.79(SD=.42), 박사졸업자 평균은 3.71(SD=.50)로 나타났으며, F=3.64,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와 석사 졸업자가 가장 높고, 박사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76(SD=.44), 보호·복지·

상담시설 평균은 3.78(SD=.42),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9(SD=.53)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76(SD=.45), 중소도시 평균은 3.77(SD=.44), 농산어촌 평균은 3.68(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7(SD=.53), 6년~10년 이하 평균은 3.77(SD=.42),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80(SD=.41), 21년 이상 평균은 3.75(SD=.46)로 나타났으며,  $F=3.19$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가 1년~5년 이하와 21년 이상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6>과 같다.

표 IV-56.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9	0.56	
성별	남자	286	3.54	0.58	3.83*
	여자	433	3.62	0.54	
학력	전문대 졸(a)	28	3.43	0.74	1.26
	대학(4년제) 졸(b)	336	3.57	0.58	
	석사 졸(c)	299	3.62	0.52	
	박사 졸(d)	55	3.62	0.49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2	0.53	2.51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9	0.56	
	청소년 단체(c)	126	3.49	0.62	
거주지	대도시(a)	345	3.58	0.56	1.15
	중소도시(b)	263	3.62	0.56	
	농산어촌(c)	111	3.53	0.5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9	0.65	2.56* d>b,c>a
	6년~10년 이하(b)	200	3.62	0.52	
	11년~20년 이하(c)	253	3.60	0.54	
	21년 이상(d)	83	3.67	0.47	

\* p<.05

〈표 IV-5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4(SD=.58), 여자 평균은 3.62(SD=.5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F=3.83,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43(SD=.7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7(SD=.58), 석사졸업자 평균은 3.62(SD=.52), 박사졸업자 평균은 3.62(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2(SD=.5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59(SD=.56),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9(SD=.62)로 나타났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8(SD=.56), 중소도시 평균은 3.62(SD=.56), 농산어촌 평균은 3.53(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9(SD=.65),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2(SD=.52),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0(SD=.54), 21년 이상 평균은 3.67(SD=.47)로 나타났으며,  $F=2.56$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7>과 같다.

표 IV-57.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75	0.47	
성별	남자	286	3.74	0.49	.07
	여자	433	3.75	0.45	
학력	전문대 졸(a)	28	3.57	0.74	2.16
	대학(4년제) 졸(b)	336	3.73	0.48	
	석사 졸(c)	299	3.78	0.42	
	박사 졸(d)	55	3.76	0.4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76	0.45	2.34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77	0.44	
	청소년 단체(c)	126	3.67	0.55	
거주지	대도시(a)	345	3.74	0.48	.91
	중소도시(b)	263	3.78	0.44	
	농산어촌(c)	111	3.71	0.47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6	0.56	3.45* d>b,c>a
	6년~10년 이하(b)	200	3.76	0.44	
	11년~20년 이하(c)	253	3.77	0.43	
	21년 이상(d)	83	3.83	0.38	

\* p<.05

〈표 IV-57〉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74(SD=.49), 여자 평균은 3.75(SD=.4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7(SD=.7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73(SD=.48), 석사졸업자 평균은 3.78(SD=.42), 박사졸업자 평균은 3.76(SD=.4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76(SD=.45),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77(SD=.44),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7(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74(SD=.48), 중소도시 평균은 3.78(SD=.44), 농산어촌 평균은 3.71(SD=.4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6(SD=.56), 6년~10년 이하 평균은 3.76(SD=.44),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77(SD=.43), 21년 이상 평균은 3.83(SD=.38)으로 나타났으며,  $F=3.45$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1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6년~10년 이하와 11년~20년 이하, 1년~5년 이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8>과 같다.

표 IV-58.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74	0.46	
성별	남자	286	3.73	0.48	.04
	여자	433	3.74	0.45	
학력	전문대 졸(a)	28	3.46	0.74	3.71**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73	0.46	
	석사 졸(c)	299	3.77	0.43	
	박사 졸(d)	55	3.76	0.4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2	0.53	1.54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73	0.48	
	청소년 단체(c)	126	3.60	0.57	
거주지	대도시(a)	345	3.75	0.46	2.47
	중소도시(b)	263	3.76	0.45	
	농산어촌(c)	111	3.65	0.50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70	0.52	1.11
	6년~10년 이하(b)	200	3.73	0.47	
	11년~20년 이하(c)	253	3.76	0.44	
	21년 이상(d)	83	3.80	0.41	

\*\* p<.01

〈표 IV-58〉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73(SD=.48), 여자 평균은 3.74(SD=.4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46(SD=.74),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73(SD=.46), 석사졸업자 평균은 3.77(SD=.43), 박사졸업자 평균은 3.76(SD=.43)로 나타났으며, F=3.7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 석사 졸업자, 박사졸업자 보다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2(SD=.53), 보호·복지·

상담시설 평균은 3.73(SD=.4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0(SD=.57)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75(SD=.46), 중소도시 평균은 3.76(SD=.45), 농산어촌 평균은 3.65(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70(SD=.52), 6년~10년 이하 평균은 3.73(SD=.47),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76(SD=.44), 21년 이상 평균은 3.80(SD=.41)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9>와 같다.

표 IV-59.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65	0.52	
성별	남자	286	3.63	0.54	.76
	여자	433	3.66	0.51	
학력	전문대 졸(a)	28	3.36	0.78	3.20*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64	0.52	
	석사 졸(c)	299	3.68	0.50	
	박사 졸(d)	55	3.65	0.48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2	0.53	3.87* b)a,c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73	0.48	
	청소년 단체(c)	126	3.60	0.57	
거주지	대도시(a)	345	3.68	0.52	1.94
	중소도시(b)	263	3.64	0.53	
	농산어촌(c)	111	3.57	0.53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3	0.55	.50
	6년~10년 이하(b)	200	3.69	0.48	
	11년~20년 이하(c)	253	3.64	0.54	
	21년 이상(d)	83	3.63	0.53	

\*  $p < .05$

〈표 IV-59〉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63(SD=.54), 여자 평균은 3.66(SD=.5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6(SD=.78),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64(SD=.52), 석사졸업자 평균은 3.68(SD=.50), 박사졸업자 평균은 3.65(SD=.48)로 나타났으며,  $F=3.20$ ,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 석사 졸업자, 박사졸업자 보다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2(SD=.53), 보호·복지·

상담시설 평균은 3.73(SD=.4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0(SD=.57)으로 나타났으며,  $F=3.87$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보호·복지·상담시설이 활동시설과 청소년시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68(SD=.52), 중소도시 평균은 3.64(SD=.53), 농산어촌 평균은 3.57(SD=.5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3(SD=.55),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9(SD=.48),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4(SD=.54), 21년 이상 평균은 3.63(SD=.53)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0>과 같다.

표 IV-60.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61	0.53	
성별	남자	286	3.57	0.56	2.49
	여자	433	3.63	0.52	
학력	전문대 졸(a)	28	3.32	0.77	3.07* b,c)d)a
	대학(4년제) 졸(b)	336	3.61	0.53	
	석사 졸(c)	299	3.63	0.50	
	박사 졸(d)	55	3.56	0.50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4	0.50	2.82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0	0.53	
	청소년 단체(c)	126	3.51	0.63	
거주지	대도시(a)	345	3.63	0.51	1.06
	중소도시(b)	263	3.58	0.56	
	농산어촌(c)	111	3.57	0.55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0	0.60	.31
	6년~10년 이하(b)	200	3.64	0.49	
	11년~20년 이하(c)	253	3.59	0.53	
	21년 이상(d)	83	3.60	0.49	

\*  $p < .05$

〈표 IV-6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7(SD=.56), 여자 평균은 3.63(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2(SD=.77),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61(SD=.53), 석사졸업자 평균은 3.63(SD=.50), 박사졸업자 평균은 3.56(SD=.50)로 나타났으며,  $F=3.07$ ,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년제 졸업자와 석사 졸업자가 가장 높았고, 박사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4(SD=.50), 보호·복지·

상답시설 평균은 3.60(SD=.53),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1(SD=.63)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63(SD=.51), 중소도시 평균은 3.58(SD=.56), 농산어촌 평균은 3.57(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0(SD=.60),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4(SD=.49),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9(SD=.53), 21년 이상 평균은 3.60(SD=.49)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④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1>과 [그림 IV-18]과 같다.

표 IV-61.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지역균형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19	3.63	0.52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719	3.64	0.54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719	3.67	0.5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719	3.70	0.48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	719	3.63	0.52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719	3.63	0.52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719	3.52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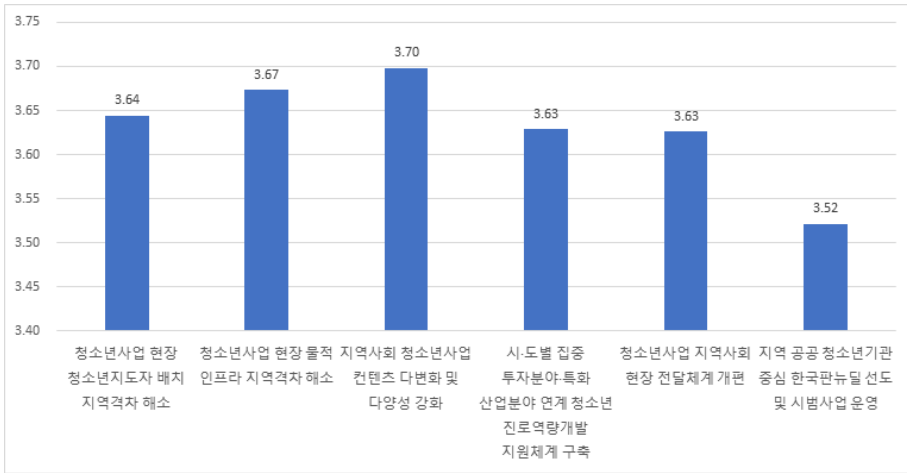


그림 IV-18.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표 IV-61〉과 [그림 IV-18]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의 평균은 3.64(SD=.54),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의 평균은 3.67(SD=.5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의 평균은 3.70(SD=.48),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의 평균은 3.63(SD=.52),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의 평균은 3.63(SD=.52),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의 평균은 3.52(SD=.58)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중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여러 대응 전략 방안 중 중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2>와 같다.

표 IV-62.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64	0.54	
성별	남자	286	3.66	0.54	.47
	여자	433	3.63	0.54	
학력	전문대 졸(a)	28	3.54	0.69	1.60
	대학(4년제) 졸(b)	336	3.68	0.50	
	석사 졸(c)	299	3.62	0.56	
	박사 졸(d)	55	3.56	0.54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70	0.47	5.35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7	0.61	
	청소년 단체(c)	126	3.57	0.60	
거주지	대도시(a)	345	3.64	0.53	.12
	중소도시(b)	263	3.64	0.55	
	농산어촌(c)	111	3.67	0.54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5	0.56	.28
	6년~10년 이하(b)	200	3.67	0.53	
	11년~20년 이하(c)	253	3.62	0.53	
	21년 이상(d)	83	3.64	0.51	

<표 IV-62>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66(SD=.54), 여자 평균은 3.63(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4(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68(SD=.50), 석사졸업자 평균은 3.62(SD=.56), 박사졸업자 평균은 3.56(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70(SD=.47),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57(SD=.6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7(SD=.6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64(SD=.53), 중소도시 평균은 3.64(SD=.55), 농산어촌 평균은 3.67(SD=.5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5(SD=.56),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7(SD=.53),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2(SD=.53), 21년 이상 평균은 3.64(SD=.5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3>과 같다.

표 IV-63.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67	0.51	
성별	남자	286	3.66	0.54	.14
	여자	433	3.68	0.50	
학력	전문대 졸(a)	28	3.54	0.69	1.55
	대학(4년제) 졸(b)	336	3.70	0.48	
	석사 졸(c)	299	3.67	0.52	
	박사 졸(d)	55	3.58	0.5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8	0.49	.43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8	0.51	
	청소년 단체(c)	126	3.63	0.57	
거주지	대도시(a)	345	3.67	0.50	.82
	중소도시(b)	263	3.66	0.54	
	농산어촌(c)	111	3.73	0.47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4	0.55	1.29
	6년~10년 이하(b)	200	3.73	0.45	
	11년~20년 이하(c)	253	3.68	0.53	
	21년 이상(d)	83	3.61	0.51	

〈표 IV-63〉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66(SD=.54), 여자 평균은 3.68(SD=.5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4(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70(SD=.48), 석사졸업자 평균은 3.67(SD=.52), 박사졸업자 평균은 3.58(SD=.5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8(SD=.49),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68(SD=.51),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3(SD=.57)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67(SD=.50), 중소도시 평균은 3.66(SD=.54), 농산어촌 평균은 3.73(SD=.4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4(SD=.55), 6년~10년 이하 평균은 3.73(SD=.45),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8(SD=.53), 21년 이상 평균은 3.61(SD=.5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4>와 같다.

**표 IV-64.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70	0.48	
성별	남자	286	3.67	0.52	1.49
	여자	433	3.72	0.45	
학력	전문대 졸(a)	28	3.50	0.69	1.75
	대학(4년제) 졸(b)	336	3.71	0.46	
	석사 졸(c)	299	3.71	0.48	
	박사 졸(d)	55	3.67	0.4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71	0.47	.36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70	0.48	
	청소년 단체(c)	126	3.67	0.52	
거주지	대도시(a)	345	3.73	0.47	1.30
	중소도시(b)	263	3.67	0.50	
	농산어촌(c)	111	3.68	0.49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7	0.52	.29
	6년~10년 이하(b)	200	3.71	0.46	
	11년~20년 이하(c)	253	3.71	0.48	
	21년 이상(d)	83	3.71	0.46	

〈표 IV-6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67(SD=.52), 여자 평균은 3.72(SD=.4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0(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71(SD=.46), 석사졸업자 평균은 3.71(SD=.48), 박사졸업자 평균은 3.67(SD=.4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71(SD=.47),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70(SD=.4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7(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73(SD=.47), 중소도시 평균은 3.67(SD=.50), 농산어촌 평균은 3.68(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7(SD=.52), 6년~10년 이하 평균은 3.71(SD=.46),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71(SD=.48), 21년 이상 평균은 3.71(SD=.46)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5〉와 같다.

표 IV-65.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63	0.52	
성별	남자	286	3.58	0.56	3.53
	여자	433	3.66	0.49	
학력	전문대 졸(a)	28	3.46	0.69	1.34
	대학(4년제) 졸(b)	336	3.62	0.52	
	석사 졸(c)	299	3.66	0.50	
	박사 졸(d)	55	3.62	0.53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3	0.53	.23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64	0.48	
	청소년 단체(c)	126	3.60	0.54	
거주지	대도시(a)	345	3.62	0.54	.40
	중소도시(b)	263	3.65	0.50	
	농산어촌(c)	111	3.60	0.5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59	0.57	.57
	6년~10년 이하(b)	200	3.66	0.50	
	11년~20년 이하(c)	253	3.63	0.51	
	21년 이상(d)	83	3.63	0.51	

〈표 IV-6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58(SD=.56), 여자 평균은 3.66(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46(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62(SD=.52), 석사졸업자 평균은 3.66(SD=.50), 박사졸업자 평균은 3.62(SD=.5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3(SD=.53),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64(SD=.48), 청소년 단체 평균은 3.60(SD=.54)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62(SD=.54), 중소도시 평균은 3.65(SD=.50), 농산어촌 평균은 3.60(SD=.5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59(SD=.57),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6(SD=.50),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3(SD=.51), 21년 이상 평균은 3.63(SD=.51)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6>과 같다.

표 IV-66.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63	0.52	
성별	남자	286	3.62	0.55	.19
	여자	433	3.63	0.50	
학력	전문대 졸(a)	28	3.50	0.69	.65
	대학(4년제) 졸(b)	336	3.64	0.50	
	석사 졸(c)	299	3.62	0.53	
	박사 졸(d)	55	3.64	0.49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65	0.50	1.36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9	0.52	
	청소년 단체(c)	126	3.59	0.58	
거주지	대도시(a)	345	3.63	0.52	.04
	중소도시(b)	263	3.63	0.52	
	농산어촌(c)	111	3.61	0.51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61	0.54	.58
	6년~10년 이하(b)	200	3.66	0.51	
	11년~20년 이하(c)	253	3.60	0.52	
	21년 이상(d)	83	3.66	0.50	

〈표 IV-6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62(SD=.55), 여자 평균은 3.63(SD=.5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50(SD=.69),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64(SD=.50), 석사졸업자 평균은 3.62(SD=.53), 박사졸업자 평균은 3.64(SD=.4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65(SD=.50),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59(SD=.52), 청소년 단체 평균은 3.59(SD=.5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63(SD=.52), 중소도시 평균은 3.63(SD=.52), 농산어촌 평균은 3.61(SD=.5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61(SD=.54), 6년~10년 이하 평균은 3.66(SD=.51),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60(SD=.52), 21년 이상 평균은 3.66(SD=.50)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67〉과 같다.

표 IV-67.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719	3.52	0.58	
성별	남자	286	3.46	0.62	5.74*
	여자	433	3.56	0.55	
학력	전문대 졸(a)	28	3.36	0.68	.91
	대학(4년제) 졸(b)	336	3.54	0.58	
	석사 졸(c)	299	3.52	0.57	
	박사 졸(d)	55	3.51	0.57	
시설유형	활동시설(a)	394	3.56	0.55	2.34
	보호·복지·상담시설(b)	199	3.51	0.56	
	청소년 단체(c)	126	3.43	0.69	
거주지	대도시(a)	345	3.51	0.58	.27
	중소도시(b)	263	3.52	0.59	
	농산어촌(c)	111	3.56	0.57	
경력	1년~5년 이하(a)	178	3.47	0.62	.86
	6년~10년 이하(b)	200	3.56	0.55	
	11년~20년 이하(c)	253	3.52	0.59	
	21년 이상(d)	83	3.54	0.55	

\* p<.05

〈표 IV-67〉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46(SD=.62), 여자 평균은 3.56(SD=.55)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F=5.74,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 평균은 3.36(SD=.68), 4년제 졸업자 평균은 3.54(SD=.58), 석사졸업자 평균은 3.52(SD=.57), 박사졸업자 평균은 3.51(SD=.5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시설 평균은 3.56(SD=.55), 보호·복지·상담시설 평균은 3.51(SD=.56), 청소년 단체 평균은 3.43(SD=.69)으로 나타났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1(SD=.58), 중소도시 평균은 3.52(SD=.59), 농산어촌 평균은 3.56(SD=.57)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년~5년 이하 평균은 3.47(SD=.62), 6년~10년 이하 평균은 3.56(SD=.55), 11년~20년 이하 평균은 3.52(SD=.59), 21년 이상 평균은 3.54(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1) 개요

청소년지도자와 더불어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 시설 및 기관에서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총 348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동아리 활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인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남성 130명(37.4%), 여성 218명(62.6%)이었고,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재학 4명(1.1%), 중학교 재학 53명(15.2%), 고등학교 재학 200명(57.5%), 대학교 재학 82명

(23.6%), 홈스쿨링 및 취업준비 청소년 6명(1.7%)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광역시) 162명(46.6%), 중소도시 121명(34.8%), 농산어촌 65명(18.7%)이었다.

표 IV-68. 한국판 뉴딜 관련 설문조사 개요: 청소년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과 동아리 활동 청소년	
표집틀	청소년 기관 내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과 동아리활동 소속 청소년	
표본수	총 348명	
표집방법	목적적 표집	
조사시기	2021년 7월~8월 실시	

조사도구는 앞서 청소년지도자용 조사도구를 현장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직접 응답하게 하여 보다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판 뉴딜 관련한 설문 내용이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지도자용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검토 과정을 거쳐,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예시, 단어 및 용어를 변경하였다(부록2. 참조).

표 IV-69.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비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정책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총 2문항 4점 척도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관련성과 중요성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관련 세부과제, 그린 뉴딜 관련 세부과제, 안전망 관련 세부과제에 대한 관련성과 중요성	총 3문항 관련성과 중요성 각각 4점 척도
배경문항	성별, 출생년도, 학력, 거주지, 청소년활동 참여분야, 청소년 분야 활동 경력	

조사 내용은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 정책에서의 대응전략 관련성과 중요성, 배경문항 등이다. 조사결과 분석에는 역시 기초통계분석(t-검증, F-검증), 교육요구도 분석, 그리고 요인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연구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청소년에게 설문할 내용이 설문 대상자가 응답할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노출되는 우려에 대한 대비 등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심의<sup>33)</sup> 받았다.

## 2) 조사결과

### (1) ‘한국판 뉴딜’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

#### ①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한국판 뉴딜’에 관하여 청소년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0>와 [그림 IV-19]와 같다.

표 IV-70.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48	100.0
전혀 모른다	127	36.5
잘 모르는 편이다	134	38.5
잘 알고 있는 편이다	78	22.4
아주 잘 알고 있다	9	2.6

33) 본 조사는 2021년 8월 2일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2105-HR-고유-012)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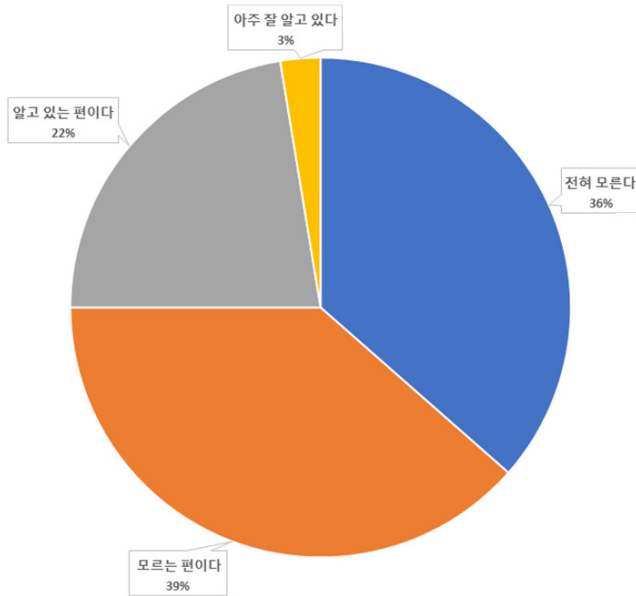


그림 IV-19.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분포

〈표 IV-70〉과 [그림 IV-19]에 의하면, 청소년의 전체 응답자 348명 중 ‘전혀 모른다’에 응답한 청소년은 127명(36.5%), ‘잘 모르는 편이다’ 134명(38.5%), ‘잘 알고 있는 편이다’ 78명(22.4%), 그리고 ‘아주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청소년은 9명(2.6%)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판 뉴딜’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한 청소년 중 75%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히 25% 정도의 청소년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정도가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변인은 성별, 학력, 거주지,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IV-71〉과 같다.

표 IV-71.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1.91	0.83	
성별	남자	130	2.15	0.91	17.52**
	여자	218	1.77	0.75	
학력	초등학교(a)	4	1.75	0.50	4.54** (e)d)c)a/f )b)
	중학교(b)	53	1.49	0.67	
	고등학교(c)	200	1.93	0.84	
	대학교(d)	82	2.13	0.81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33	0.82	
	기타(f)	3	1.67	0.58	
거주지	대도시(a)	162	1.95	0.84	1.44
	중소도시(b)	121	1.94	0.84	
	농산어촌(c)	65	1.75	0.77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1.71	0.74	10.19** (b)c)a)
	청특+청참위(b)	123	2.16	0.89	
	동아리 등(c)	89	1.87	0.79	

\* p<.05, \*\* p<.01

\* 주: 이하 표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관련하여 다음의 축약어를 사용함. 청소년운영위원회(청운위), 청소년특별회의(청특),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표 IV-71〉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15(SD=.91), 여자 평균은 1.77(SD=.75)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F=17.5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1.75(SD=.50), 중학교 평균은 1.49(SD=.67), 고등학교 평균은 1.93(SD=.84), 대학교 평균은 2.13(SD=.81),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33(SD=.82), 기타 평균은 1.67(SD=.58)로 나타났으며, F=4.54,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홈스쿨링·취업준비 중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기타, 중학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1.95(SD=.84), 중소도시 평균은 1.94(SD=.84), 농산어촌 평균은 1.75(SD=.7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1.71(SD=.74), 청특+청참위 평균은 2.16(SD=.89), 동아리 등의 평균은 1.87(SD=.79)로 나타났으며,  $F=10.1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청특+청참위가 가장 높았고, 동아리 등, 청운위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②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필요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성 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2>와 [그림 IV-20]과 같다.

표 IV-72.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필요성 분석

한국판 뉴딜 하위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디지털 뉴딜	348	3.25	0.59
그린 뉴딜	348	3.49	0.60
안전망 강화	348	3.47	0.63
지역균형 뉴딜	348	3.32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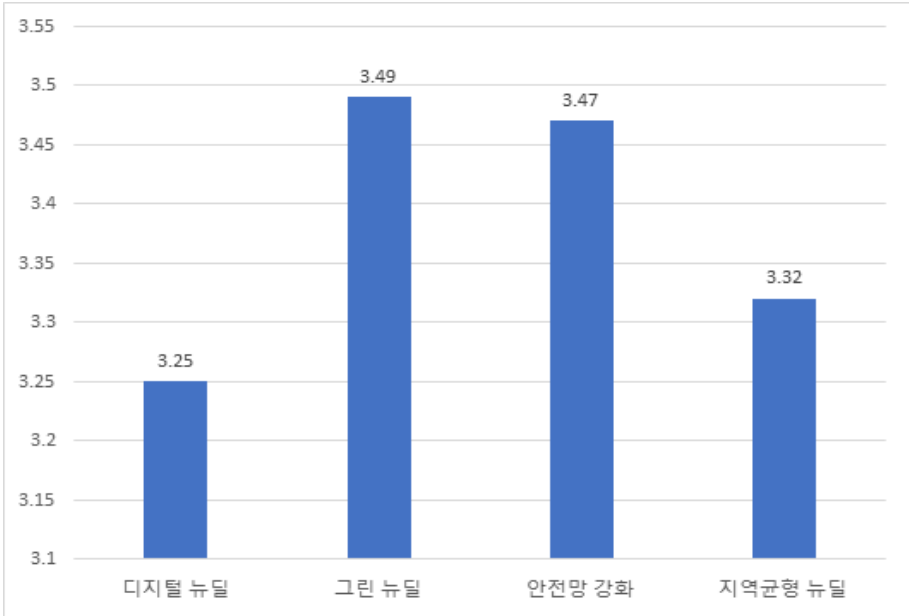


그림 IV-20.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필요성 인식

〈표 IV-72〉와 [그림 IV-20]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디지털 뉴딜’의 평균은 3.25(SD=.59), ‘그린 뉴딜’ 평균은 3.49(SD=.60), ‘안전망 강화’ 평균은 3.47(SD=.63),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평균은 3.32(SD=.63)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성 인식에서는 ‘그린 뉴딜’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디지털 뉴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한국판 뉴딜’에의 하위분야 중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그린 뉴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보고자 차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3〉과 같다.

표 IV-73.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디지털 뉴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3.25	0.59	
성별	남자	130	3.25	0.69	0.00
	여자	218	3.25	0.52	
학력	초등학교(a)	4	3.25	0.50	1.86
	중학교(b)	53	3.15	0.57	
	고등학교(c)	200	3.28	0.56	
	대학교(d)	82	3.30	0.64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67	0.82	
	기타(f)	3	3.00	0.00	
거주지	대도시(a)	162	3.31	0.61	1.43
	중소도시(b)	121	3.21	0.57	
	농산어촌(c)	65	3.18	0.56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3.20	0.56	6.34** (b>a>c)
	청특+청참위(b)	123	3.40	0.61	
	동아리 등(c)	89	3.13	0.57	

\*\* p<.01

〈표 IV-73〉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5(SD=.69), 여자 평균은 3.25(SD=.5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3.25(SD=.50), 중학교 평균은 3.15(SD=.57), 고등학교 평균은 3.28(SD=.56), 대학교 평균은 3.30(SD=.64),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67(SD=.82), 기타 평균은 3.00(SD=.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1(SD=.61), 중소도시 평균은 3.21(SD=.57), 농산어촌 평균은 3.18(SD=.56)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3.20(SD=.56),

청특+청참위 평균은 3.40(SD=.61), 동아리 등의 평균은 3.13(SD=.57)로 나타났으며,  $F=6.34$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청특+청참위가 가장 높았고, 청운위, 동아리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보기로 차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4>와 같다.

표 IV-74.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그린 뉴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3.49	0.60	
성별	남자	130	3.38	0.71	7.19**
	여자	218	3.56	0.53	
학력	초등학교(a)	4	3.75	0.50	0.28
	중학교(b)	53	3.49	0.50	
	고등학교(c)	200	3.47	0.63	
	대학교(d)	82	3.52	0.59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50	0.84	
	기타(f)	3	3.33	0.58	
거주지	대도시(a)	162	3.53	0.60	2.06
	중소도시(b)	121	3.50	0.56	
	농산어촌(c)	65	3.35	0.67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3.43	0.63	1.42
	청특+청참위(b)	123	3.55	0.62	
	동아리 등(c)	89	3.49	0.55	

\*\*  $p<.01$

<표 IV-7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8(SD=.71), 여자 평균은 3.56(SD=.53)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F=7.19$ ,  $p<.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3.75(SD=.50), 중학교 평균은 3.49(SD=.50), 고등학교 평균은 3.47(SD=.63), 대학교 평균은 3.52(SD=.59),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50(SD=.84), 기타 평균은 3.33(SD=.5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3(SD=.60), 중소도시 평균은 3.50(SD=.56), 농산어촌 평균은 3.35(SD=.6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3.43(SD=.63), 청특+청참위 평균은 3.55(SD=.62), 동아리 등의 평균은 3.49(SD=.5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보고자 차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5>과 같다.

표 IV-75.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안전망 강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3.47	0.63	
성별	남자	130	3.34	0.75	8.97**
	여자	218	3.55	0.53	
학력	초등학교(a)	4	3.50	0.58	0.68
	중학교(b)	53	3.40	0.49	
	고등학교(c)	200	3.52	0.63	
	대학교(d)	82	3.39	0.72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50	0.84	
	기타(f)	3	3.33	0.58	
거주지	대도시(a)	162	3.55	0.60	3.23* (a/b)c
	중소도시(b)	121	3.44	0.67	
	농산어촌(c)	65	3.32	0.62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3.49	0.60	2.76
	청특+청참위(b)	123	3.54	0.67	
	동아리 등(c)	89	3.34	0.62	

\*  $p < .05$ , \*\*  $p < .01$

〈표 IV-7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34(SD=.75), 여자 평균은 3.55(SD=.53)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F=8.97$ ,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3.50(SD=.58), 중학교 평균은 3.40(SD=.49), 고등학교 평균은 3.52(SD=.63), 대학교 평균은 3.39(SD=.72),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50(SD=.84), 기타 평균은 3.33(SD=.58)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55(SD=.60), 중소도시 평균은 3.44(SD=.67), 농산어촌 평균은 3.32(SD=.62)로 나타났으며,  $F=3.23$ ,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

시, 농산어촌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3.49(SD=.60), 청특+청참위 평균은 3.54(SD=.67), 동아리 등의 평균은 3.34(SD=.6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보고자 차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76>과 같다.

표 IV-76.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결과분석: 지역균형 뉴딜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3.32	0.63	
성별	남자	130	3.22	0.75	5.15*
	여자	218	3.38	0.54	
학력	초등학교(a)	4	3.25	0.50	2.18
	중학교(b)	53	3.26	0.52	
	고등학교(c)	200	3.41	0.57	
	대학교(d)	82	3.16	0.79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50	0.84	
	기타(f)	3	3.00	0.00	
거주지	대도시(a)	162	3.36	0.62	0.54
	중소도시(b)	121	3.28	0.64	
	농산어촌(c)	65	3.31	0.66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3.35	0.55	1.42
	청특+청참위(b)	123	3.36	0.71	
	동아리 등(c)	89	3.22	0.62	

\* p<.05

<표 IV-76>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2(SD=.75), 여자 평균은 3.38(SD=.54)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F=5.15,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3.25(SD=.50), 중학교 평균은 3.26(SD=.52), 고등학교 평균은 3.41(SD=.57), 대학교 평균은 3.16(SD=.79),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50(SD=.84), 기타 평균은 3.00(SD=.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6(SD=.62), 중소도시 평균은 3.28(SD=.64), 농산어촌 평균은 3.31(SD=.66)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3.35(SD=.55), 청특+청참위 평균은 3.36(SD=.71), 동아리 등의 평균은 3.22(SD=.6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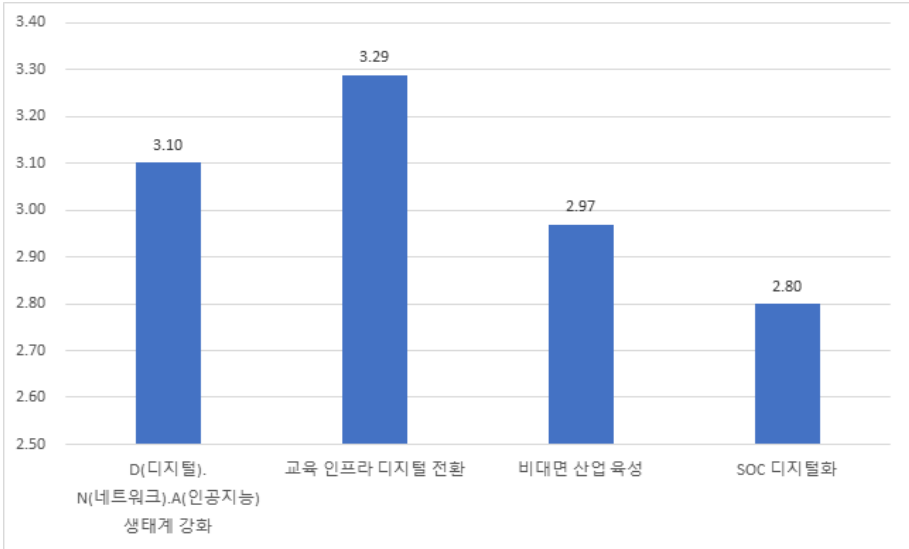
## (2) ‘한국판 뉴딜’과 분야별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 ①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를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77>과 [그림 IV-21]과 같다.

표 IV-77.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디지털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348	3.10	0.73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48	3.29	0.73
비대면 산업 육성	348	2.97	0.75
SOC 디지털화	348	2.80	0.81



**그림 IV-21.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표 IV-77〉과 [그림 IV-21]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인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의 평균은 3.10(SD=.73),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평균은 3.29(SD=.73), ‘비대면 산업 육성’ 평균은 2.97(SD=.75), ‘SOC 디지털화’ 평균은 2.80(SD=.81)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가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한국판 뉴딜’에의 하위분야인 ‘디지털 뉴딜’에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일상과 관련성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78〉과 같다.

표 IV-78.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3.10	0.73	
성별	남자	130	3.17	0.79	1.83
	여자	218	3.06	0.69	
학력	초등학교(a)	4	2.50	0.58	1.46
	중학교(b)	53	2.92	0.70	
	고등학교(c)	200	3.13	0.71	
	대학교(d)	82	3.17	0.78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00	0.89	
	기타(f)	3	3.33	0.58	
거주지	대도시(a)	162	3.10	0.76	2.07
	중소도시(b)	121	3.18	0.71	
	농산어촌(c)	65	2.95	0.69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3.08	0.70	4.28* (b>a>c)
	청특+청참위(b)	123	3.24	0.77	
	동아리 등(c)	89	2.94	0.70	

\*  $p < .05$

〈표 IV-78〉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17(SD=.79), 여자 평균은 3.06(SD=.6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50(SD=.58), 중학교 평균은 2.92(SD=.70), 고등학교 평균은 3.13(SD=.71), 대학교 평균은 3.17(SD=.78),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00(SD=.89), 기타 평균은 3.33(SD=.5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10(SD=.76), 중소도시 평균

은 3.18(SD=.71), 농산어촌 평균은 2.95(SD=.6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3.08(SD=.70), 청특+청참위 평균은 3.24(SD=.77), 동아리 등의 평균은 2.94(SD=.70)로 나타났으며,  $F=4.28$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청특+청참위가 가장 높았고, 청운위, 동아리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79>와 같다.

**표 IV-79.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의 관련성: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3.29	0.73	
성별	남자	130	3.29	0.73	0.01
	여자	218	3.28	0.73	
학력	초등학교(a)	4	2.50	0.58	3.41** (f>c>d)>b>e >a)
	중학교(b)	53	3.04	0.62	
	고등학교(c)	200	3.35	0.73	
	대학교(d)	82	3.34	0.72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00	1.10	
	기타(f)	3	4.00	0.00	
거주지	대도시(a)	162	3.35	0.75	1.02
	중소도시(b)	121	3.25	0.74	
	농산어촌(c)	65	3.22	0.62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3.27	0.72	2.47
	청특+청참위(b)	123	3.39	0.72	
	동아리 등(c)	89	3.17	0.73	

\*\*  $p<.01$

〈표 IV-79〉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29(SD=.73), 여자 평균은 3.28(SD=.7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50(SD=.58), 중학교 평균은 3.04(SD=.62), 고등학교 평균은 3.35(SD=.73), 대학교 평균은 3.34(SD=.72),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00(SD=1.10), 기타 평균은 4.00(SD=.00)로 나타났으며,  $F=3.41$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기타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초등학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35(SD=.75), 중소도시 평균은 3.25(SD=.74), 농산어촌 평균은 3.22(SD=.6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3.27(SD=.72), 청특+청참위 평균은 3.39(SD=.72), 동아리 등의 평균은 3.17(SD=.73)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㉔ ‘비대면 산업 육성’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비대면 산업 육성’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0〉과 같다.

표 IV-80. 디지털 뉴딜 세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비대면 산업 육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97	0.75	
성별	남자	130	2.98	0.75	0.10
	여자	218	2.96	0.75	
학력	초등학교(a)	4	2.50	1.00	1.43
	중학교(b)	53	2.85	0.63	
	고등학교(c)	200	3.02	0.77	
	대학교(d)	82	2.99	0.71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67	1.03	
	기타(f)	3	2.33	0.58	
거주지	대도시(a)	162	2.99	0.79	0.31
	중소도시(b)	121	2.97	0.72	
	농산어촌(c)	65	2.91	0.68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93	0.71	0.90
	청특+청참위(b)	123	3.04	0.82	
	동아리 등(c)	89	2.92	0.68	

〈표 IV-80〉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98(SD=.75), 여자 평균은 2.96(SD=.7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50(SD=1.00), 중학교 평균은 2.85(SD=.63), 고등학교 평균은 3.02(SD=.77), 대학교 평균은 2.99(SD=.71),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67(SD=1.03), 기타 평균은 2.33(SD=.5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99(SD=.79), 중소도시 평균은 2.97(SD=.72), 농산어촌 평균은 2.91(SD=.6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93(SD=.71),

청특+청참위 평균은 3.04(SD=.82), 동아리 등의 평균은 2.92(SD=.6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㊸ ‘SOC 디지털화’와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중 ‘SOC 디지털화’와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1>과 같다.

표 IV-81.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SOC 디지털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80	0.81	
성별	남자	130	2.85	0.83	0.96
	여자	218	2.77	0.79	
학력	초등학교(a)	4	2.25	0.50	0.65
	중학교(b)	53	2.77	0.70	
	고등학교(c)	200	2.82	0.83	
	대학교(d)	82	2.83	0.81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67	1.03	
	기타(f)	3	2.33	0.58	
거주지	대도시(a)	162	2.80	0.86	0.00
	중소도시(b)	121	2.80	0.79	
	농산어촌(c)	65	2.80	0.69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79	0.75	0.03
	청특+청참위(b)	123	2.81	0.87	
	동아리 등(c)	89	2.79	0.80	

<표 IV-8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85(SD=.83), 여자 평균은 2.77(SD=.7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25(SD=.50), 중학교 평균은 2.77(SD=.70), 고등학교 평균은 2.82(SD=.83), 대학교 평균은 2.83(SD=.81),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67(SD=1.03), 기타 평균은 2.33(SD=.58)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80(SD=.86), 중소도시 평균은 2.80(SD=.79), 농산어촌 평균은 2.80(SD=.6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79(SD=.75), 청특+청참위 평균은 2.81(SD=.87), 동아리 등의 평균은 2.79(SD=.8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①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를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82>와 [그림 IV-22]와 같다.

**표 IV-82. 그린 뉴딜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348	2.96	0.78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48	2.89	0.8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48	2.93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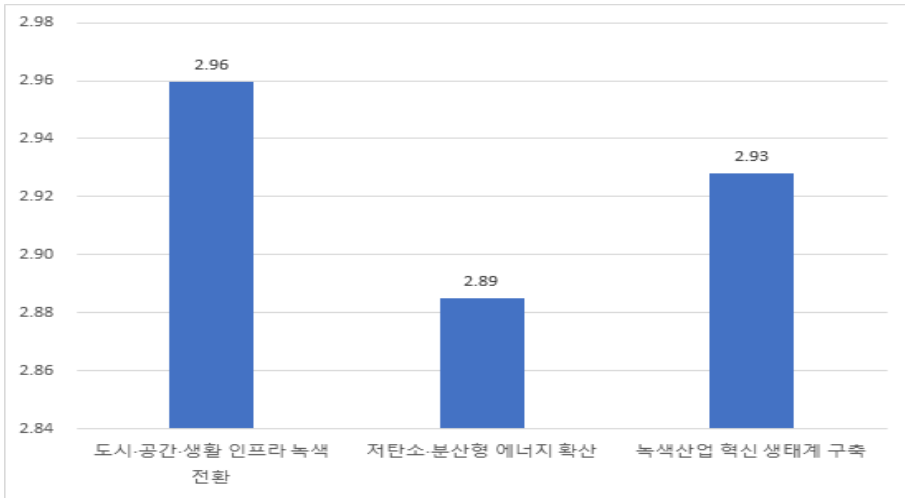


그림 IV-22. 그린 뉴딜과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표 IV-82〉와 [그림 IV-22]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평균은 2.96(SD=.78),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평균은 2.89(SD=.8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평균은 2.93(SD=.81)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가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3〉과 같다.

표 IV-83.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96	0.78	
성별	남자	130	2.93	0.83	0.29
	여자	218	2.98	0.75	
학력	초등학교(a)	4	2.75	0.96	0.09
	중학교(b)	53	2.96	0.73	
	고등학교(c)	200	2.97	0.77	
	대학교(d)	82	2.96	0.87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83	0.75	
	기타(f)	3	3.00	0.00	
거주지	대도시(a)	162	2.99	0.82	0.52
	중소도시(b)	121	2.96	0.79	
	농산어촌(c)	65	2.88	0.67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90	0.77	1.50
	청특+청참위(b)	123	3.06	0.83	
	동아리 등(c)	89	2.92	0.71	

〈표 IV-83〉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93(SD=.83), 여자 평균은 2.98(SD=.75)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75(SD=.96), 중학교 평균은 2.96(SD=.73), 고등학교 평균은 2.97(SD=.77), 대학교 평균은 2.96(SD=.87),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83(SD=.75), 기타 평균은 3.00(SD=.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99(SD=.82), 중소도시 평균은 2.96(SD=.79), 농산어촌 평균은 2.88(SD=.67)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90(SD=.77), 청특+청참위 평균은 3.06(SD=.83), 동아리 등의 평균은 2.92(SD=.7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4>와 같다.

**표 IV-84.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의 관련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89	0.81	
성별	남자	130	2.92	0.81	0.46
	여자	218	2.86	0.80	
학력	초등학교(a)	4	2.75	0.96	0.41
	중학교(b)	53	2.79	0.72	
	고등학교(c)	200	2.89	0.78	
	대학교(d)	82	2.96	0.91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67	0.82	
	기타(f)	3	3.00	1.00	
거주지	대도시(a)	162	2.93	0.84	0.45
	중소도시(b)	121	2.83	0.81	
	농산어촌(c)	65	2.88	0.72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76	0.80	3.08* (b>c>a)
	청특+청참위(b)	123	3.00	0.83	
	동아리 등(c)	89	2.92	0.76	

\* p<.05

<표 IV-8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92(SD=.81), 여자 평균은 2.86(SD=.8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75(SD=.96), 중학교 평균은 2.79(SD=.72), 고등학교 평균은 2.89(SD=.78), 대학교 평균은 2.96(SD=.91),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67(SD=.82), 기타 평균은 3.00(SD=1.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93(SD=.84), 중소도시 평균은 2.83(SD=.81), 농산어촌 평균은 2.88(SD=.7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76(SD=.80), 청특+청참위 평균은 3.00(SD=.83), 동아리 등의 평균은 2.92(SD=.76)로 나타났으며,  $F=3.08$ ,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청특+청참위가 가장 높았고, 동아리 등, 청운위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중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5>와 같다.

표 IV-85.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93	0.81	
성별	남자	130	2.94	0.85	0.03
	여자	218	2.92	0.79	
학력	초등학교(a)	4	2.50	1.00	0.54
	중학교(b)	53	2.91	0.69	
	고등학교(c)	200	2.92	0.81	
	대학교(d)	82	3.01	0.90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2.67	0.82	
	기타(f)	3	3.00	1.00	
거주지	대도시(a)	162	2.96	0.84	0.38
	중소도시(b)	121	2.88	0.82	
	농산어촌(c)	65	2.95	0.72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83	0.79	2.17
	청특+청참위(b)	123	3.04	0.87	
	동아리 등(c)	89	2.92	0.74	

〈표 IV-8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2.94(SD=.85), 여자 평균은 2.92(SD=.7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50(SD=1.00), 중학교 평균은 2.91(SD=.69), 고등학교 평균은 2.92(SD=.81), 대학교 평균은 3.01(SD=.90),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2.67(SD=.82), 기타 평균은 3.00(SD=1.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2.96(SD=.84), 중소도시 평균은 2.88(SD=.82), 농산어촌 평균은 2.95(SD=.72)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83(SD=.79), 청특+청참위 평균은 3.04(SD=.87), 동아리 등의 평균은 2.92(SD=.74)로 나타났

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①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를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86>과 [그림 IV-23]과 같다.

표 IV-86.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그린 뉴딜 분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고용사회 안전망	348	2.97	0.82
사람투자	348	2.99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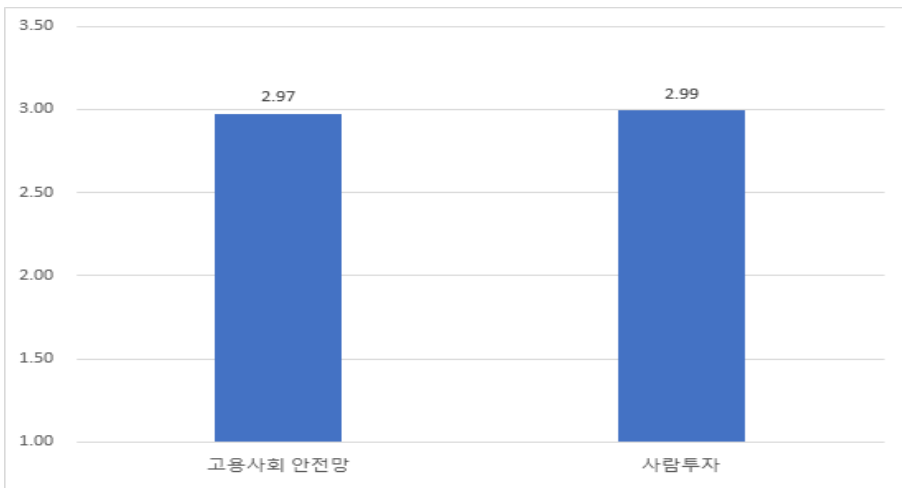


그림 IV-23.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와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 분석

<표 IV-86>과 [그림 IV-23]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중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인 ‘고용사회 안전망’의 평균은 2.97(SD=.82), ‘사람투자’ 평균은 2.99(SD=.80)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인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가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고용사회 안전망’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중 ‘고용사회 안전망’과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7>과 같다.

**표 IV-87.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의 관련성: 고용사회 안전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97	0.82	
성별	남자	130	3.02	0.80	0.82
	여자	218	2.94	0.84	
학력	초등학교(a)	4	2.50	1.00	0.99
	중학교(b)	53	2.79	0.72	
	고등학교(c)	200	2.99	0.82	
	대학교(d)	82	3.05	0.89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17	0.75	
	기타(f)	3	3.00	1.00	
거주지	대도시(a)	162	3.01	0.87	1.73
	중소도시(b)	121	3.01	0.81	
	농산어촌(c)	65	2.80	0.71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88	0.79	8.09** (b)>a>c)
	청특+청참위(b)	123	3.20	0.81	
	동아리 등(c)	89	2.80	0.83	

\*\* p<.01

<표 IV-87>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02(SD=.80), 여자 평균은 2.94(SD=.84)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50(SD=1.00), 중학교 평균은 2.79(SD=.72), 고등학교 평균은 2.99(SD=.82), 대학교 평균은 3.05(SD=.89),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17(SD=.75), 기타 평균은 3.00(SD=1.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01(SD=.87), 중소도시 평균은 3.01(SD=.81), 농산어촌 평균은 2.80(SD=.71)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88(SD=.79), 청특+청참위 평균은 3.20(SD=.81), 동아리 등의 평균은 2.80(SD=.83)로 나타났으며,  $F=8.0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청특+청참위가 가장 높았고, 청운위, 동아리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람투자'와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중 '사람투자'와 청소년 일상과 관련성에 관한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88>과 같다.

**표 IV-88.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의 관련성: 사람투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값
전체		348	2.99	0.80	
성별	남자	130	3.07	0.81	1.96
	여자	218	2.94	0.80	
학력	초등학교(a)	4	2.75	0.96	0.10
	중학교(b)	53	2.98	0.66	
	고등학교(c)	200	2.99	0.85	
	대학교(d)	82	3.02	0.80	
	홈스쿨링, 취업준비 중(e)	6	3.00	0.63	
	기타(f)	3	3.00	0.00	
거주지	대도시(a)	162	3.04	0.82	1.98
	중소도시(b)	121	3.02	0.77	
	농산어촌(c)	65	2.82	0.79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	청운위(a)	136	2.85	0.78	7.02** (b)>(c)a)
	청특+청참위(b)	123	3.20	0.81	
	동아리 등(c)	89	2.91	0.76	

\*\* :  $p<.01$

〈표 IV-88〉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은 3.07(SD=.81), 여자 평균은 2.94(SD=.8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평균은 2.75(SD=.96), 중학교 평균은 2.98(SD=.66), 고등학교 평균은 2.99(SD=.85), 대학교 평균은 3.02(SD=.80), 홈스쿨링·취업준비 중 평균은 3.00(SD=.63), 기타 평균은 3.00(SD=.00)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평균은 3.04(SD=.82), 중소도시 평균은 3.02(SD=.77), 농산어촌 평균은 2.82(SD=.79)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 참여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운위 평균은 2.85(SD=.78), 청특+청참위 평균은 3.20(SD=.81), 동아리 등의 평균은 2.91(SD=.76)로 나타났으며,  $F=7.02$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청특+청참위가 가장 높았고, 동아리 등 청운위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 분석

‘한국판 뉴딜’에 대한 느낌이나 떠오르는 생각과 ‘미래직업’과 관련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를 한 쌍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 분석 결과는 〈표 IV-89〉와 같다.

표 IV-89.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들 태도와 가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01	희망적인	3 2 1 0 -1 -2 -3	절망적인	1.59	1.24
02	가능한	3 2 1 0 -1 -2 -3	불가능한	1.32	1.28
03	도약하는	3 2 1 0 -1 -2 -3	머물러 있는	1.34	1.54
04	새로운	3 2 1 0 -1 -2 -3	새롭지 않은	1.65	1.39
05	명확한	3 2 1 0 -1 -2 -3	불명확한	.55	1.51
06	변화하는	3 2 1 0 -1 -2 -3	변화하지 않는	1.61	1.30
07	계획적인	3 2 1 0 -1 -2 -3	비계획적인	1.44	1.26
08	역동적인	3 2 1 0 -1 -2 -3	정적인	1.12	1.33
09	유용한	3 2 1 0 -1 -2 -3	유용하지 않은	1.61	1.32
10	의미 있는	3 2 1 0 -1 -2 -3	의미 없는	1.81	1.28
11	조급한	3 2 1 0 -1 -2 -3	느긋한	.28	1.36
12	현실적인	3 2 1 0 -1 -2 -3	비현실적인	.73	1.35
13	흥미진진한	3 2 1 0 -1 -2 -3	따분한	1.18	1.33
14	편안한	3 2 1 0 -1 -2 -3	불편한	.80	1.21
15	믿을 수 있는	3 2 1 0 -1 -2 -3	믿을 수 없는	.78	1.34
16	빠른	3 2 1 0 -1 -2 -3	느린	.70	1.43
17	매력 있는	3 2 1 0 -1 -2 -3	매력 없는	1.16	1.29
18	개방적인	3 2 1 0 -1 -2 -3	폐쇄적인	1.25	1.30
19	현대적인	3 2 1 0 -1 -2 -3	전통적인	1.80	1.27
20	적극적인	3 2 1 0 -1 -2 -3	소극적인	1.44	1.31
21	구체적인	3 2 1 0 -1 -2 -3	추상적인	.99	1.56
22	쉬운	3 2 1 0 -1 -2 -3	어려운	-.49	1.54
23	도움이 되는	3 2 1 0 -1 -2 -3	도움이 되지 않는	1.58	1.31
24	가치 있는	3 2 1 0 -1 -2 -3	가치 없는	1.79	1.24
25	화려한	3 2 1 0 -1 -2 -3	소박한	.75	1.25
전체				1.15	1.34

— : 항목별 평균, ..... : 전체 평균

〈표 IV-89〉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 관련 전체 평균은 1.15(SD=1.34)로 나타났으며, 평균의 범위는 -.49(어려운, SD=1.54)~1.81(의미

있는, SD=1.2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현대적인’, ‘가치 있는’, ‘새로운’, ‘유용한’, ‘변화하는’, ‘희망적인’, ‘도움이 되는’, ‘계획적인’, ‘적극적인’, ‘도약하는’ 등의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를 보였다. 한편, ‘불명확한’, ‘느긋한’, ‘비현실적인’, ‘불편한’, ‘믿을 수 없는’, ‘느린’, ‘추상적인’, ‘어려운’, 그리고 ‘소박한’ 등의 태도와 가치를 보여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측면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25개 문항을 바탕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태도와 가치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해당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문항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KMO-Bartlet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949, Bartlett 검증 = 5750.899,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문항이 요인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90>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IV-90.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요인 1 (의미 있는 변화)	요인 2 (개방적 매력)	요인 3 (현실적 어려움)	요인 4 (역동적 변화)
10	의미 있는	.756	.361	.166	-.039
06	변화하는	.733	.234	.230	.263
03	도약하는	.726	-.004	.263	.212
24	가치 있는	.720	.463	.095	-.001
09	유용한	.670	.387	.356	.040
23	도움이 되는	.667	.510	.229	.051
04	새로운	.656	.180	.062	.251

번호	문항	요인 1 (의미 있는 변화)	요인 2 (개방적 매력)	요인 3 (현실적 어려움)	요인 4 (역동적 변화)
02	가능한	.631	.044	.568	-.065
19	현대적인	.626	.523	-.088	.180
01	희망적인	.623	.383	.274	-.021
20	적극적인	.551	.403	.073	.475
07	계획적인	.520	.209	.308	.230
18	개방적인	.342	.689	.099	.280
14	편안한	.115	.688	.432	.013
17	매력 있는	.374	.684	.204	.174
13	흥미진진한	.420	.634	.195	.201
25	화려한	.055	.495	.106	.494
22	어려운	-.090	.117	.825	.052
05	명확한	.469	.110	.648	.121
12	현실적인	.320	.188	.591	.028
15	믿을 수 있는	.365	.410	.575	.102
21	구체적인	.478	.176	.490	.237
11	조급한	-.001	-.029	-.054	.750
16	빠른	.215	.372	.217	.615
08	역동적인	.492	.260	.204	.547
	고유치	11.709	1.845	1.440	1.129
	설명변량	46.837	7.381	5.759	4.518
	누적변량	46.837	54.219	59.978	64.496
	KMO		.949		
	Bartlett's Test		5750.899		
	유의수준		.000		

〈표 IV-90〉에 의하면, 4개 요인의 누적변량은 64.496으로 나타났으며, 제1요인의 설명변량은 46.837, 제2요인은 7.381, 제3요인은 5.759, 그리고 제4요인은 4.518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요인 1은 의미 있는 변화,

요인 2는 개방적 매력, 요인 3은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요인 4는 역동적 변화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520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변화하는’, ‘도약하는’, ‘가치 있는’, ‘유용한’,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능한’, ‘현대적인’, ‘희망적인’, ‘적극적인’, ‘계획적인’ 등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서는 .495를 기준으로 ‘개방적인’, ‘편안한’, ‘흥미진진한’, ‘화려한’ 등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방적 매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서는 .490을 기준으로 ‘어려운’, ‘명확한’, ‘현실적인’,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등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현실적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에서는 .547을 기준으로 ‘조급한’, ‘빠른’, ‘역동적인’ 등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역동적 변화’로 명명하였다.

####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에 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분석

##### ① 미래직업군에 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향후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관련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을 선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의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V-91>과 [그림 IV-24]와 같다.

표 IV-91.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에 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직업군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로봇	44	12.6	27	7.8	31	8.9
에너지	22	6.3	51	14.7	45	12.9
바이오	48	13.8	39	11.2	34	9.8
<b>연결(네트워크)</b>	47	13.5	<b>54</b>	<b>15.5</b>	40	11.5
안전	30	8.6	35	10.1	35	10.1
<b>놀이</b>	<b>66</b>	<b>19.0</b>	44	12.6	41	11.8
건강	42	12.1	40	11.5	44	12.6
<b>의식주</b>	16	4.6	26	7.5	<b>46</b>	<b>13.2</b>
디자인	33	9.5	32	9.2	32	9.2
합계	348	100.0	348	100.0	3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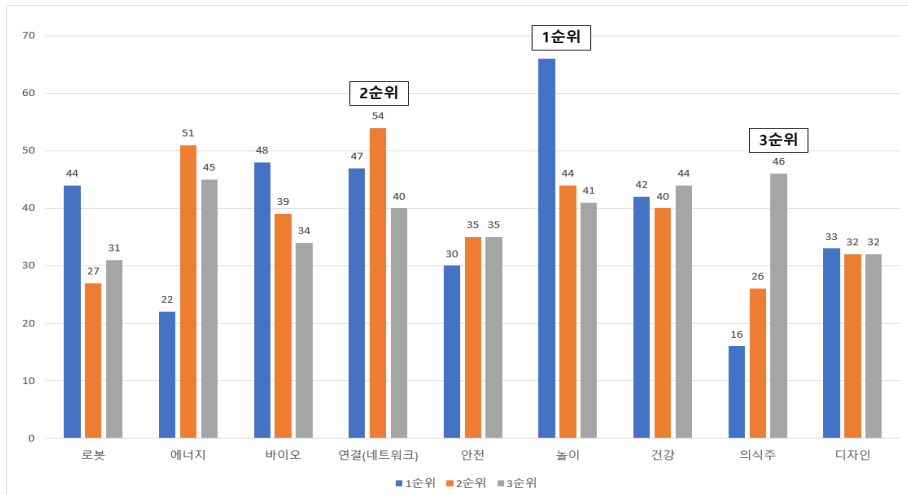


그림 IV-2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에 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

〈표 IV-91〉과 [그림 IV-24]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미래직업군 1순위로 놀이(66명, 19%), 2순위는 연결(네트워크)(54명, 15.5%), 3순위는 의식주(46명, 13.2%) 등의 직업군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미래직업군 선택에 따른 청소년들의 미래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을 9개의 직업군으로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선택한 직업군 안에서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 ‘로봇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로봇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2>과 [그림 IV-25]와 같다.

표 IV-92. 로봇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로봇	로봇공학자	20	5.7
	<b>인공지능전문가</b>	<b>47</b>	<b>13.5</b>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14	4.0
	드론 전문가	13	3.7
	로봇윤리학자	8	2.3
	소계	102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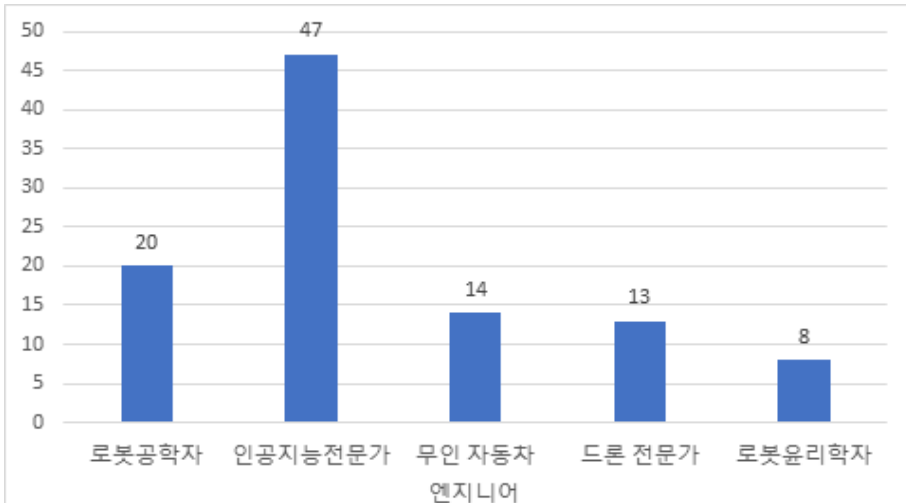


그림 IV-25. 로봇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로봇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안공지능 전문가’ 빈도가 47(13.5%)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로봇공학자’ 빈도가 20(5.7%),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빈도가 14(4.0%), ‘드론 전문가’ 빈도가 13(3.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봇 윤리학자’는 빈도 8(2.3%)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에너지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에너지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 결과는 <표 IV-93>과 [그림 IV-26]과 같다.

표 IV-93. 에너지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61	17.5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38	10.9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13	3.7
	해양에너지 기술자	6	1.7
	소계	11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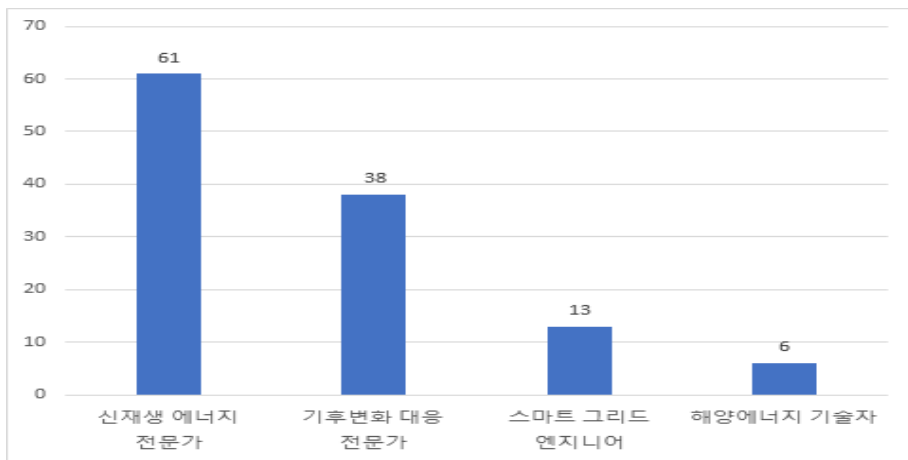


그림 IV-26. 에너지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에너지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빈도가 61(17.5%)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빈도가 38(10.9%),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빈도가 13(3.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에너지 기술자’는 빈도 6(1.7%)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㊸ ‘바이오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바이오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는 <표 IV-94>와 [그림 IV-27]과 같다.

표 IV-94. 바이오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바이오	생명공학자	34	9.8
	<b>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가</b>	<b>56</b>	<b>16.1</b>
	생물정보 분석가	9	2.6
	생체인식 전문가	22	6.3
	소계	121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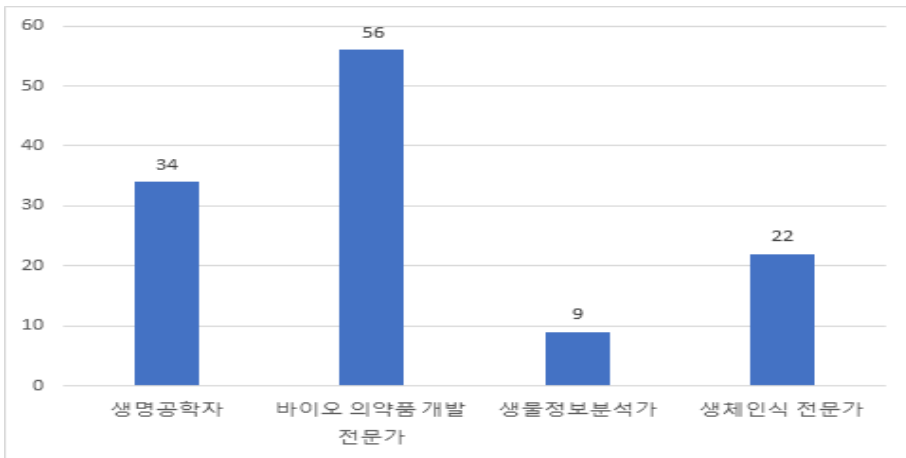


그림 IV-27. 바이오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바이오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가’ 빈도가 56(16.1%)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자’ 빈도가 34(9.8%), ‘생체인식 전문가’ 빈도가 22(6.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물정보 분석가’는 빈도 9(2.6%)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㊸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를 <표 IV-95>와 [그림 IV-28]과 같다.

표 IV-95.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연결(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전문가	27	7.8
	사이버 평판 관리자	8	2.3
	클라우드 펀딩 전문가	10	2.9
	<b>빅데이터 전문가</b>	<b>76</b>	<b>21.8</b>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7	2.0
	항공우주공학자	13	3.7
	소계	141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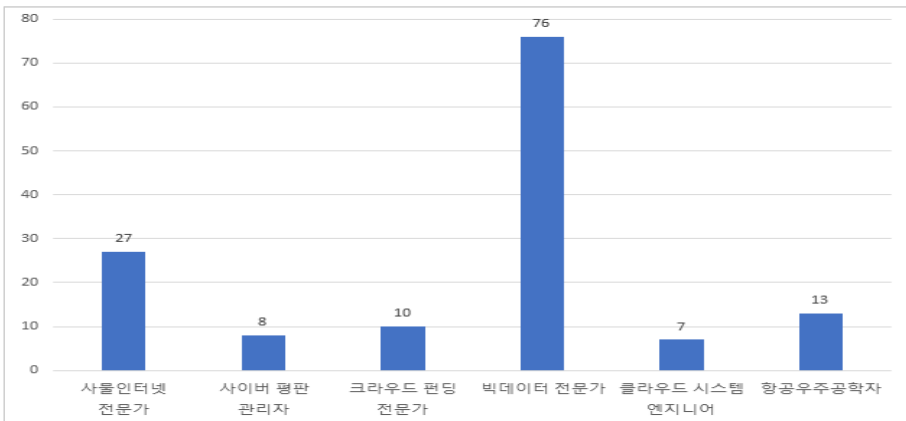


그림 IV-28.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전문가’ 빈도가 76(21.8%)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물인터넷 전문가’ 빈도가 27(7.8%), ‘항공우주공학자’ 빈도가 13(3.7%), ‘클라우드 펀딩 전문가’ 빈도가 10(2.9%)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 평판 전문가’ 빈도가 8(2.3%)와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빈도가 7(2.0%)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㊸ ‘안전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안전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는 <표 IV-96>과 [그림 IV-29]와 같다.

표 IV-96. 안전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안전	정보보호 전문가	34	9.8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	4.0
	블록체인 전문가	16	4.6
	스마트 재난 관리 전문가	23	6.6
	지식 재산 전문가	13	3.7
	소계	100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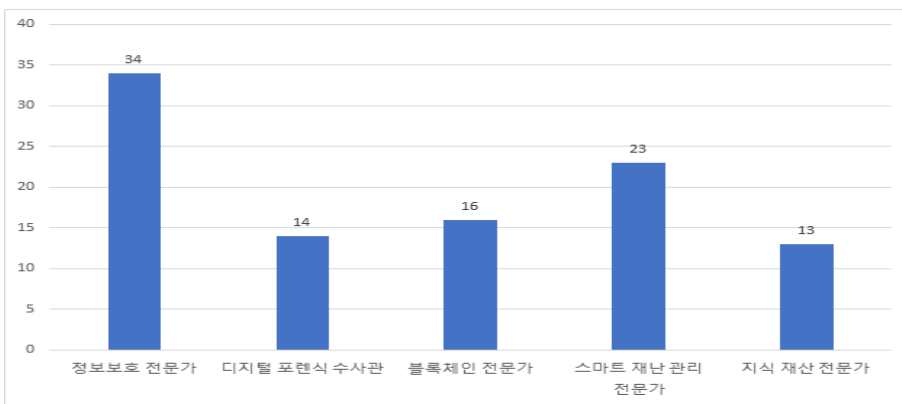


그림 IV-29. 안전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안전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정보보호 전문가’ 빈도가 34(9.8%)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재난 관리 전문가’ 빈도가 23(6.6%), ‘블록체인 전문가’ 빈도가 16(4.6%),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빈도가 14(4.0%), ‘지식 재산 전문가’ 빈도가 13(3.7%) 순으로 나타났다.

㉞ ‘놀이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놀이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는 <표 IV-97>과 [그림 IV-30]과 같다.

표 IV-97. 놀이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놀이	게임 기획자	25	7.2
	<b>문화 콘텐츠 전문가</b>	<b>37</b>	<b>10.6</b>
	드론 콘텐츠 전문가	1	0.3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21	6.0
	게임방송 프로듀서	11	3.2
	디지털 큐레이터	8	2.3
	반려동물 훈련·상담사	17	4.9
	해양 레저 전문가	2	0.6
	여행 기획자	19	5.5
	스포츠 심리 상담원	10	2.9
	소계	151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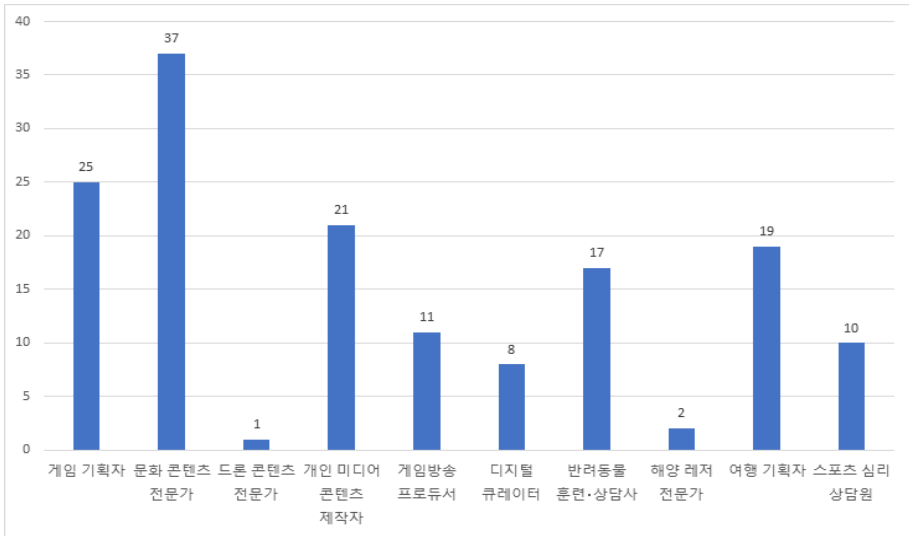


그림 IV-30. 놀이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놀이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문화 콘텐츠 전문가’ 빈도가 37(10.6%)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게임 기획자’ 빈도가 25(7.2%),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빈도가 21(6.0%), ‘여행 기획자’ 빈도가 19(5.5%), ‘반려동물 훈련 상담사’ 빈도가 17(4.9%), ‘게임 방송 프로듀서’ 빈도가 11(3.2%), ‘스포츠 심리 상담원’ 빈도가 10(2.9%), ‘디지털 큐레이터’ 빈도가 8(2.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 레저 전문가’ 빈도가 2(0.6%)와 ‘드론 콘텐츠 전문가’ 빈도가 1(0.3%)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건강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건강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는 <표 IV-98>과 [그림 IV-31]과 같다.

표 IV-98. 건강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건강	의료기기 개발전문가	43	12.4
	노인 전문 간호사	28	8.0
	헬스케어 컨설턴트	21	6.0
	노년 플래너	19	5.5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15	4.3
	소계	126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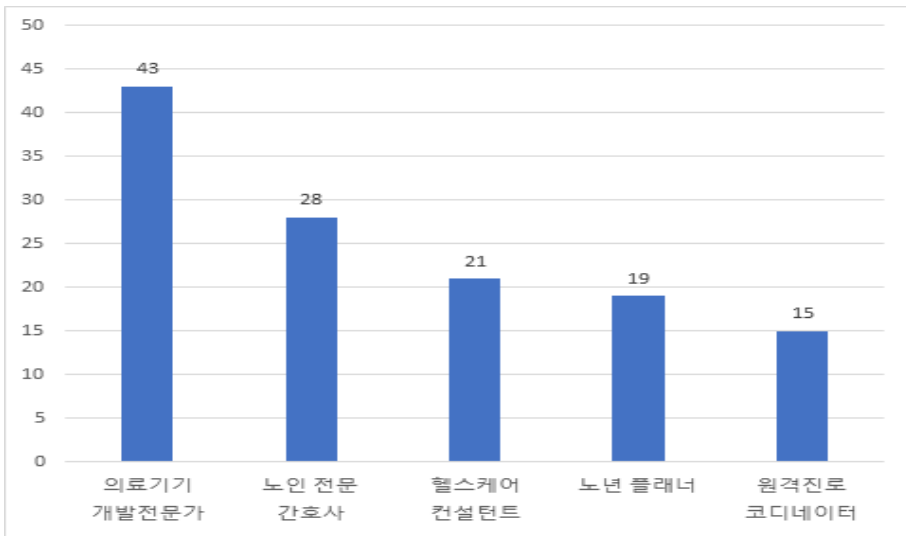


그림 IV-31. 건강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건강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의료기기 개발 전문가’ 빈도가 43(12.4%)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인 전문 간호사’ 빈도가 28(8.0%), ‘헬스케어 컨설턴트’ 빈도가 21(6.0%), ‘노년 플래너’ 빈도가 19(5.5%),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빈도가 15(4.3%) 순으로 나타났다.

◎ ‘의식주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의식주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는 <표 IV-99>와 [그림 IV-32]와 같다.

표 IV-99. 의식주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의식주	스마트 의류 개발자	18	5.2
	스마트 팜 구축가	11	3.2
	정밀 농업기술자	5	1.4
	곤충 음식 개발자·조리사	11	3.2
	스마트 도시 전문가	17	4.9
	<b>도시 재생 전문가</b>	<b>26</b>	<b>7.5</b>
	소계	88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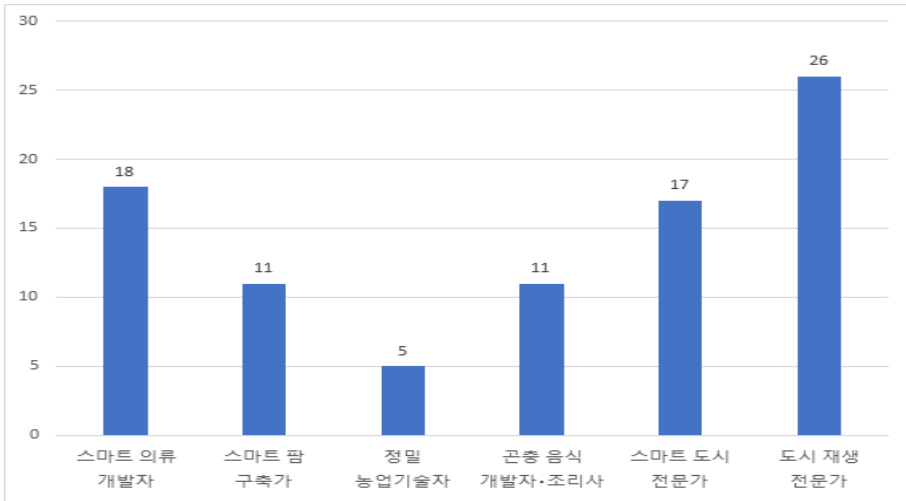


그림 IV-32. 의식주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의식주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도시 재생 전문가’ 빈도가 26(7.5%)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의류 개발자’ 빈도가

18(5.2%), ‘스마트 도시 전문가’ 빈도가 17(4.9%), ‘곤충 음식 개발자, 조리사’와 ‘스마트 팜 구축가’ 빈도가 11(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밀 농업기술자’ 빈도가 5(1.4%)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㉔ ‘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군 중 ‘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직업 선호도조사 분석결과는 <표 IV-100>과 [그림 IV-33]과 같다.

표 IV-100. 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직업군	직업	빈도	%
디자인	캐릭터 디자이너	34	9.8
	UX 디자인 컨설턴트	15	4.3
	가상현실 전문가	21	6.0
	홀로그램 전문가	8	2.3
	3D 프린팅 전문가	19	5.5
	소계	97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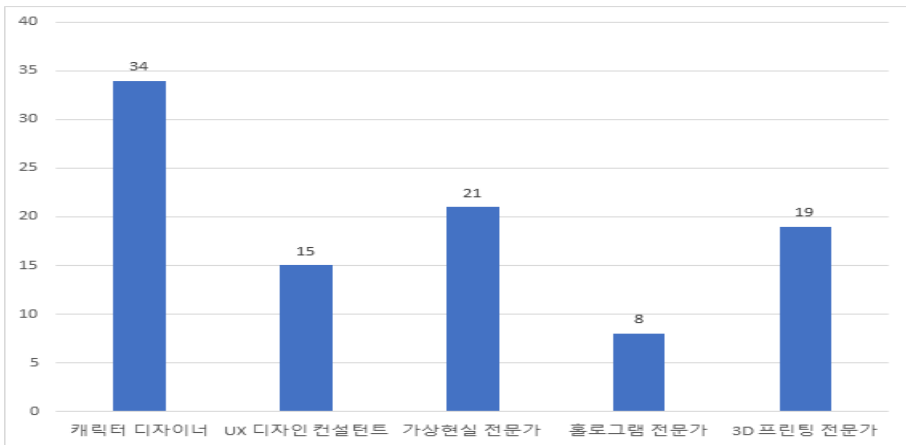


그림 IV-33. 디자인 직업군에 대한 청소년들의 미래선호 직업

‘디자인 직업군’에 있어 선호하는 직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캐릭터 디자이너’ 빈도가 34(9.8%)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상현실 전문가’ 빈도가 21(6.02%), ‘3D 프린팅 전문가’ 빈도가 19(5.5%), ‘UX 디자인 컨설턴트’ 빈도가 15(4.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홀로그램 전문가’ 빈도가 8(2.3%)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3. 시사점

#### 1)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설문결과와 시사점

첫째, 청소년지도자에게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분야에서도 ‘청소년 뉴딜 정책’과 같이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정책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82%정도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청소년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전망 강화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과 같은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분야에서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청소년 분야에서도 대응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인 ‘청소년 뉴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분야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청소년 뉴딜 정책’의 필요성 인식의 개선에 있어 청소년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경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학력은 석사와 박사 졸업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경력에 있어서는 6년 이상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뉴딜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때 청소년지도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에 있어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DNA 생태계 강화’와 관련된 ‘청소년 뉴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의 관련성과 중요성에 있어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DNA 생태계 강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활동 정책이기에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교육환경 개선이 관련성과 중요성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DNA 생태계 강화’ 과제도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정책이 청소년분야에도 도입되어야하는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DNA 생태계 강화’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정책이기에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해당 뉴딜 정책이 청소년 분야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세부과제에 있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청소년 뉴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 시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시설이 많고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있어 청소년 시설 유형 중 활동시설 종사자의 청소년지도자들이 관련성과 중요성에 있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을 마련할 때 해당 시설 종사자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세부과제에 있어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와 관련된 '청소년 뉴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망 강화'는 다른 뉴딜 정책보다 청소년분야에서 가장 필요하게 인식하는 분야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체가 고용 및 사회 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과제에 따른 청소년 분야의 대응 정책과제 마련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시설 유형 중 '보호·복지·상담시설'에서 가장 높은 관련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도 정책을 개발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 분야의 대응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의 청소년 활동 지원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지원'과 관련된 폭넓은 정책과제가 종합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특히,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지원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플랫폼의 개념이 단순히 포털사이트와 같이 자료 제공 기능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 그리고 청소년 관계자들이 '청소년 활동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창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이때 청소년들의 활동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교육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활동과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복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

여섯째,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 분야의 대응전략으로는 '미래형 녹색 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그리고 '친환경 및 스마트 그린 관련 청소년 시설 공간 구축'등의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된 진로교육의 확대는 다른 정책과제보다 최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이때 지속가능한 발전교육과 연계된 청소년 활동이 개발되고 운영된다면 보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시설의 스마트 그린 공간 설계'와 같은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 분야의 대응전략으로는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디지털·그린 분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고용안전성 확보', 그리고 '청소년 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확보와 양성, 그리고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또한 '안전망 뉴딜' 분야에서 마련해야 할 대응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된 청소년 분야의 대응전략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콘텐츠의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지역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청소년 사업 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의 균형적 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와 산업이 집중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와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미래인재인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다변화하여 다양성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된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업 현장의 인적자원과 물리적 자원의 균형적 배치와 배분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을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 대응전략을 청소년계가 어떠한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청소년 뉴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판 뉴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 설문결과의 시사점

첫째, 청소년과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 및 ‘청소년 뉴딜’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77% 정도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에게 해당 정책과제가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특별위원회 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홈스쿨링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청소년이 관심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뒷받침 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한국판 뉴딜’이나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으로써 ‘청소년 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련성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교육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한국판 뉴딜’에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위해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그린 뉴딜’이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한다는 ‘안전망 강화’가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아마도 이는 최근 자연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미래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디지털 뉴딜’에서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이 높은 과제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이며,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뉴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청소년들이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 분야의 필요 정책을 발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의 융합학습환경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주요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는 청소년들의 현재 교육적 상황과 미래에 진로 및 직업 세계와 연동되어 있는 듯하다.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반적 사회 시스템 개발을 위한 아젠다 발굴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그린 뉴딜’에서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이 높은 과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며,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뉴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그린 뉴딜’이었는데, 실제적 관련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세부과제의 성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라기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환경조성, 인프라 구축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련성의 정도가 낮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중요한 과제이며, 미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청소년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안전망 강화’에서 청소년 일상과 관련이 높은 과제는 ‘사람투자’와 ‘고용사회 안전망’이며,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뉴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람투자’는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미래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체제의 개편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미래인재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청소년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실제적인 ‘청소년 뉴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가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긍정적 요소는 강화시키고 부정적 요소는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가장 높은 인식은 ‘의미 있는 변화’라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도약하고, 가치 있고,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한국판 뉴딜’이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태도와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해당 과제들이 상당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과제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제의 의미만 부여하고, 표면적인 정

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이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 의미의 가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 또는 제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과 대응하여 ‘청소년 뉴딜’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직업군과 연계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직업군 1순위로 ‘놀이 직업군’, 2순위로 ‘연결(네트워크) 직업군’ 그리고 3순위로 ‘의식 직업군’을 선호하였다. 1순위 ‘놀이 직업군’에서는 ‘문화 콘텐츠 전문가’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이 ‘게임 기획자’,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여행 기획자’, ‘반려동물 훈련 및 상담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연결(네트워크) 직업군’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이 ‘사물인터넷 전문가’, 그리고 ‘항공우주 공학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의식주 직업군’에서는 ‘도시 재생 전문가’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이 ‘스마트 의류 개발자’, ‘스마트 도시 전문가’, 그리고 ‘스마트 팜과 곤충 음식 개발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와 같은 직업군의 선호도는 최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는 이러한 직업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다 더 선호하는 직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뉴딜’ 관련 정책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직업선호도를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뉴딜’ 정책을 발굴한다고 하였을 때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과 요구도, 그리고 선호 직업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다면, 보다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친화 뉴딜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제5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의 도출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델파이조사는 청소년분야 현장과 학계 그리고 청소년 외 분야의 전문가 각각 5명,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델파이조사 참가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1. 델파이조사 참가 전문가

구분	전문가	소속기관
청소년분야 현장	김○○ 김○○ 전○○ 고○○ 장○○	민간 단체 기관 시설 기관
청소년분야 학계	유○○ 이○○ 조○○ 김○○ 김○○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청소년외 분야	최○○ 이○○ 임○○ 이○○ 박○○	연구원-법제 연구원-직업 연구원-과학 연구원-산업 연구원-환경

34) 이 장은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남화성 전략개발팀장이 함께 작성하였음.

## 2) 조사 기간과 절차

1차 델파이 조사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대응전략에 관한 중요도와 추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21년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대응전략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3차 델파이 조사는 2021년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도출된 대응전략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각 중점 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관련 사례 등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는 모두 전자우편을 통한 발송 및 회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V-2. 델파이 조사의 기간과 절차

조사	목적 및 내용	기 간
1차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대응전략에 관한 중요도 및 추가의견 파악	2021. 8. 31.(화) ~ 9. 6.(월)
2차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대응전략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 공유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조사	2021. 9. 7.(화) ~ 9. 15.(수)
3차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도출된 대응전략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최종 확인 및 각 중점 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관련 사례 의견 조사	2021. 9. 16.(목) ~ 9. 24.(금)

1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한국판 뉴딜의 분야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개 뉴딜의 세부 분야별 과제의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정도에 관한 기초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뉴딜 분야별 청소년분야 대응 전략 과제에 관한 중요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중요도 인식은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별 청소년 분야 관련성 및 중요성 정도 인식은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뉴딜 분야별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은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회수된 내용을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우선순위 등의 통계치를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의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1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중요도를 다시 점수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합의된 최종 평균값과 표준편차,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한국판 뉴딜 분야별 청소년분야 대응 전략 과제로서의 추진 방향, 주요 사례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분석기준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서는 양적 분석이 가능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하도록 한 후,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시하였다. 양적 분석으로는 조사결과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n-CVR) 분석을 통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도출된 내용이 타당하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해당 문항의 내용이 타당하

다고 본다(장성구, 권치순, 2014).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최소값 이상의 CVR 값을 가진 문항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Lawshe, 1975; 장성구, 권치순, 2014: 10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15명인 경우 문항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CVR 값 기준인 0.49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비율 값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파악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 합의도 및 수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성구와 권치순(2014)이 제시한 전문가 패널의 합의도 0.75이상, 수렴도 0~0.5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2. 조사결과

### 1) 1차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한국판 뉴딜 분야별 중요도와 청소년 분야 관련성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은 다음과 표와 같이 나타났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의 경우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대면 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인 0.4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 디지털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0.4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도출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어서 그린 뉴딜의 세부 분야에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내용만이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과 중요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망 강화의 세부 분야에서는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 2개 세부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분야 관련성과 중요성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에 있어 안전망 강화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V-3.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별 청소년분야 관련성·중요성 인식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디지털 뉴딜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3.07	0.59	0.73	3.40	0.67	1.00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73	0.80	0.87	3.93	0.26	1.00
	비대면 산업 육성	2.93	0.88	<u>0.47</u>	3.13	0.64	0.73
	SOC 디지털화	2.47	0.74	<u>-0.07</u>	2.67	0.72	<u>0.07</u>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3.20	0.68	0.73	3.40	0.63	0.87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60	0.83	<u>-0.20</u>	3.13	0.83	<u>0.47</u>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80	0.86	<u>0.07</u>	3.07	0.80	<u>0.47</u>
안전망 강화	고용사회 안전망	3.53	0.52	1.00	3.73	0.46	1.00
	사람투자	3.73	0.70	0.73	3.80	0.41	1.00

이어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제시된 7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값인 0.4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응전략의 순위를 살펴보면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어서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분야의 신규 서비스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4.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디지털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디지털 뉴딜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6.60	0.51	1.00	2
2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6.13	0.99	0.87	6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증·참여기록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6.67	0.49	1.00	1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청소년 활동 Data를 수집 및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예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과정 피드백 제공 등)	6.20	0.77	1.00	4
5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VR/AR/MR, IoT & Wearable 기반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6.60	0.51	1.00	2
6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5.53	1.19	0.47	7
7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비대면 청소년사업 인프라(시설·설비) 구축,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6.20	0.94	1.00	4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제시된 7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값인 0.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응전략의 순위는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어서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ESD에 입각한 청소년활동 개발·운영이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그린 뉴딜과 청소년 활동과의 연계 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공간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 또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으로써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V-5.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그린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그린 뉴딜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6.27	0.70	1.00	2
2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5.47	0.92	0.73	7
3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5.73	0.83	0.87	6
4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6.27	0.88	0.87	2
5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6.60	0.63	1.00	1
6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6.27	0.80	1.00	2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6.13	1.06	0.73	5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제시된 7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값인 0.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응전략의 순위는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어서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는 청소년에 관한 직접적인 안전망 강화의 측면과 더불어 청소년사업 현장을 운영해 나가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6.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안전망 강화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안전망 강화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6.20	0.77	1.00	4
2	청소년사업 현장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6.07	0.70	1.00	5
3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6.53	0.52	1.00	2
4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5.80	0.86	0.87	7
5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5.93	0.80	1.00	6
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6.67	0.49	1.00	1
7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6.40	0.83	0.87	3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제시된 6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값인 0.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응전략의 순위는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어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지역간 청소년사업 현장의 서비스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7.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안전망 강화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편차	CVR	순위
1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6.13	0.92	0.87	2
2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6.07	0.88	0.87	4
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6.27	0.80	1.00	1
4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6.13	0.99	0.87	2
5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5.87	0.92	0.87	6
6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5.93	0.88	0.87	5

## 2)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분야별 대응전략의 중요도를 공유하고 전문가별 응답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합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제시된 7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 비율은 기준값인 0.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의 순위를 살펴보면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상위 중요도를 나타내었던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V-8.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디지털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디지털 뉴딜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6.80	0.41	1.00	1
2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5.73	0.70	1.00	6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증·참여기록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6.67	0.49	1.00	3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청소년 활동 Data를 수집 및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예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과정 피드백 제공 등)	6.13	0.64	1.00	4
5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VR/AR/MR, IoT & Wearable 기반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6.73	0.46	1.00	2
6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5.13	0.92	0.60	7
7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비대면 청소년사업 인프라(시설·설비) 구축,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6.13	0.52	1.00	4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제시된 7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의 경우에는 내용타당도 비율이 기준값인 0.49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의 순위는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어서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ESD에 입각한 청소년활동 개발·운영이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델파이 조사의 순위와 2차 델파이 조사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로서 그린뉴딜 분야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V-9.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그린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그린 뉴딜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5.87	0.74	0.87	4
2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4.87	0.83	0.47	7
3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5.27	0.70	0.73	6
4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6.07	0.70	1.00	2
5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6.53	0.64	1.00	1
6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6.07	0.80	0.87	2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5.87	0.99	0.73	4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7개 대응전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값인 0.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의 순위 또한 1차 델파이조사와 마찬가지로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어서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안전망 강화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안전망 강화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6.00	0.65	1.00	4
2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5.73	0.80	0.87	5
3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6.67	0.49	1.00	2
4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5.33	0.72	0.73	7
5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5.60	0.63	0.87	6
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6.80	0.41	1.00	1
7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6.33	0.49	1.00	3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제시된 6개 대응전략 모두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 비율도 기준값인 0.49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의 순위 또한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어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1.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전략의 중요도 인식

	안전망 강화 관련 대응전략	중요도 인식			
		평균	표준 편차	CVR	순위
1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6.07	0.80	0.87	3
2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6.07	0.59	1.00	3
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6.47	0.64	1.00	1
4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6.20	0.68	1.00	2
5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5.33	0.82	0.73	6
6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5.73	0.80	1.00	5

### 3) 3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분야의 대응전략 방안의 중요도를 공유하고 분야별 상위 4~5개로 추려진 각 대응전략에 관한 전문가의 추가 의견이나 주요 사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분야별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 분야의 전략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청소년의 소비나 생활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관련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등의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나 메타버스 활용,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기후위기나 환경보호 등을 주제로 한 단순 체험이 아닌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건립되거나 노후된 청소년시설들을 친환경 시설·공간으로 재구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적·제도적·사업적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함께 제시되었다.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의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독립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의 주거 안전망 등 청년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안전망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 현장이 청소년 진로와 관련하여 디지털·그린 분야의 직업훈련에 더하여 관련 진로에 관한 정보나 체험, 학습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청소년사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현장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대응전략 중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 운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연관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제시되어 이를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입각한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및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정리하였다.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와 관련한 지원방안 등을 시·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지역의 청소년사업 현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와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및 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로 정리하였다.



# ○ — 제6장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 1. 전략수립 과정
- 2. 한국판 뉴딜 분야별 대응전략



## 1. 전략수립 과정

### 1) 개요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전략이다. 이 연구는 2020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여건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관련성과 대응 필요성을 파악하고, 청소년분야의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과 방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분야의 혁신 방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2021년 한국판 뉴딜 2.0에서 휴먼 뉴딜로 개편), 지역균형 뉴딜의 4개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청소년정책·사업 분야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성이 높은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35) 이 장은 최창욱 선임연구위원, 좌동훈 연구위원, 성은모 교수, 남화성 전략개발팀장이 함께 작성하였음.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수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b>연구설계 단계</b>	연구 설계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세부 실행계획 수립
자료수집/ 문헌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용 검토 ▷한국판 뉴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수집·분석 ▷청소년정책 혁신 관련 선행연구 자료 수집·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설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
<b>조사 단계</b>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 청소년분야 내·외부 한국판뉴딜 대응 사례 분석 ▷해외 청소년분야 관련 뉴딜 관련사례 분석
사례조사 /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도구 개발	⇒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한국판 뉴딜과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성, 중요도 ▷한국판 뉴딜 각 분야에 대한 청소년사업 현장 대응전략 방안 등
	설문조사 진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전문가 패널단 719명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348명
<b>구체화 단계</b>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한국판 뉴딜 및 청소년분야 관련성, 중요도,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의 인식 파악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들의 태도·가치분석, 관련 직업 선호도 분석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우선순위 도출	전문가 델파이조사	⇒	▷청소년분야 현장, 학계 및 외부 정책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분석 진행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의 중요도 우선순위 합의 도출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검토의견 청취
<b>정책과제 도출 단계</b>	전문가 자문회의/ 콜로키움	⇒	▷ 한국판 뉴딜 4개 분야별 대응전략 과제 도출 ▷ 각 대응전략의 추진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제안

그림 VI-1. 연구의 수행 절차

## 2) 주요 분석결과

### (1)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의 대응전략의 필요성

연구 수행절차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2020년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각 분야가 정부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5개 주요 분야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청소년정책 혁신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시기별 청소년정책의 변화 방향이 어떻게 전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의 의미가 단지 기존의 청소년정책·사업 현장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실효성 있는 통합적·맞춤형 접근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대안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국내·외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사례 분석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별 내용과 청소년정책·사업 현장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들을 탐색하고, 미국과 영국의 청소년분야 관련 뉴딜 정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청소년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 사례와 청소년활동 분야의 코딩·로봇 등 디지털 기술활용, 녹색·환경 실천 청소년활동 사례와, 청소년보호·복지 분야의 사이버 아웃리치, 자립지원 사업 사례 등이 한국판 뉴딜 각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례들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대표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과 사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청소년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기존의 활동, 보호·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을 넘어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는 청소년·청년의 고용과 자립의 문제와 관련한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 청소년정책·사업의 구조와 틀을 넘어 청소년분야가 사회발전과 혁신의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인재 양성 및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해외 청소년분야 관련 뉴딜정책의 사례로서 2021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계획(the Build Back Better Plan)’,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뉴딜 사례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을 위한 인프라 투자,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민관협력에 기초한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에 비해 국가 주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의 사례 또한 18세 이상 청소년·청년의 고용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지원,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의 이직과 구직 지원, 구직수당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에서 청소년·청년 세대의 취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국내 사례 분석에서의 시사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4개 분야별로 청소년·청년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

된 청소년정책·사업 대응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 (3) 청소년·청소년전문가의 한국판 뉴딜 관련 인식 설문조사

다음으로는 청소년 348명과 청소년지도자 719명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성, 중요도 및 대응 전략의 주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시사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대응전략을 고려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판 뉴딜 각 분야별 내용 중 일부는 청소년분야와 높은 관련성과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분야 뉴딜 정책과 연계한 청소년분야의 대응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분야의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청소년은 그린 뉴딜과 안전망 분야의 대응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모두가 공통적으로 높은 필요성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그린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분야에 관련된 대응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 인식, 청소년의 미래 선호 직업군 응답 결과를 고려하여 청소년 중심, 청소년 친화적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도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도출

한편, 청소년정책·사업 현장, 학계 그리고 청소년 이외의 정책 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추진된 델파이 조사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 분야의 세부 내용과 청소년분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을 확인하고,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판 뉴딜 각 분야별로 4~5개의 대응 전략을 선정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의 4개 분야별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사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이 17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뉴딜 분야	대응전략
디지털 뉴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li> <li>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li> <li>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li> <li>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li> <li>5.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li> </ol>
그린 뉴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li> <li>2.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li> <li>3.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li> <li>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입각한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및 사회적 가치 확산</li> </ol>
안전망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li> <li>2.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li> <li>3.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li> <li>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li> <li>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li> </ol>
지역균형 뉴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li> <li>2.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li> <li>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및 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li> </ol>

그림 VI-2. 정책방안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 2. 한국판 뉴딜 분야별 대응전략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미래 경제전략 변화를 담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청소년이 안전한 여건에서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미래 전략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의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공동의 정책 고객을 공유하고 있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와 같은 영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를 드러내고 있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타 부처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여성의 고용 촉진이나 아동 돌봄 등과 같은 영역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정책·사업 분야 또한 한국판 뉴딜의 전략과 방향에 발맞춘 미래 청소년정책·사업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청소년분야가 우리 사회의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연구 절차를 통해 사회·경제 혁신과 청소년정책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분야의 한국판 뉴딜 주요 대응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히 발전해 나가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분야를 우리 사회·경제의 주요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융·복합 산업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는 과거 청소년 시설·단체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배치 등 청소년정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장에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분야와의 관련성은 일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복지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도구적 측면으로 디지털 기술분야를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의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중심축이 디지털 분야로 이동해 나가는 상황은 청소년분야 정책과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 분야와 융합되어감으로써, 청소년분야 정책·사업의 과정과 결과 전반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여 미래 우리 사회의 주요 산업 관계 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청소년분야 디지털 뉴딜 대응전략은 ①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②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③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④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⑤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의 5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최근 우리 사회의 일상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로 꾸준히 생산·축적·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일 활용하는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이나 위치정보 등의 개인

정보는 개인의 활용 동의 하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의 데이터는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상권 분석이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되고, 온라인 쇼핑물의 상품 배송이나 배달음식 주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등 우리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산업 효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에 관련된 빅데이터의 생산·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앞서 살펴 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공 데이터 공개와 같이 청소년분야 정책·사업 현장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자료로서 시범적으로 수집되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관련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본적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는 실제 청소년분야 정책과 사업의 고객인 청소년의 일상생활 관련 데이터와 연계될 때 비로소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통신사의 청소년 고객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분석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여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시간 대에 위기 청소년 아웃리치 서비스나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시간대의 청소년이 주로 검색하는 내용에 관련된 청소년정책·사업 정보를 맞춤형 광고 형태로 제공하는 일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청소년분야 빅데이터센터로 선정되어 공공데이터 수집·개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는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를 통해 빅데이터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관련한 안정적인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조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빅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관한 어려움, 통신사를 비롯한 기업·민간 데이터 구입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청소년분야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있어서의 핵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나 연계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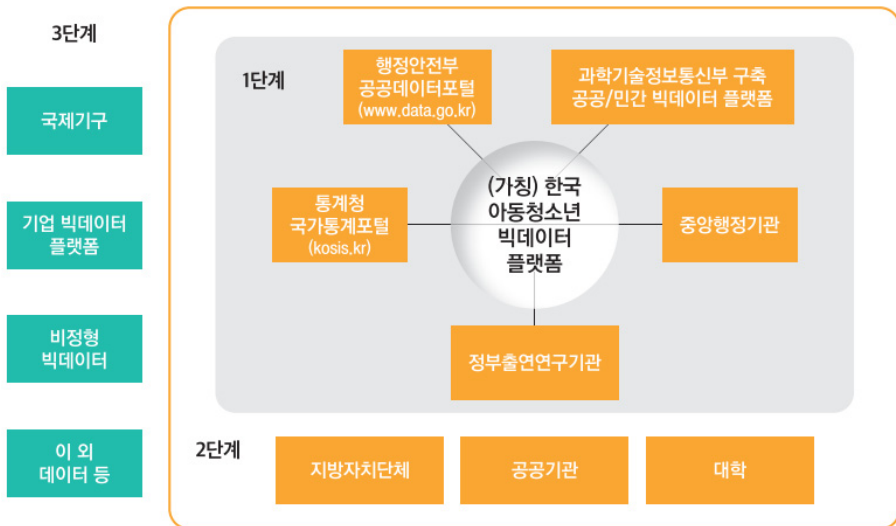


그림 VI-3.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

\* 출처: 서정아(202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4쪽의 그림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를 인용함.

서정아, 성운숙, 송태민(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통계 DB 데이터를 '(가칭)아동·청소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필요시에 관련 데이터 제공 주체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모델을 위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청소년분야 각 현장과 민간 산업분야의 빅데이터 수집·제공 가능 업체 간의 수월한 연계를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방안 사례와 보급 등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청소년사업 현장인 청소년시설·단체 단위에서 기업 등 민간 산업분야 빅데이터 구입·활용 등을 위한 소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 청소년분야가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분야의 대응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다.

## (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학교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향후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원격교육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학습 지원에 관한 관심이 공교육과 사교육계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전통적 기존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등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백

정열, 2018). 이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나 사이버대학·강좌 등 e-Learning으로 지칭되어 온 전달식 시청각교육을 넘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실이 아닌 온라인 상의 메타버스(metaverse) 기반 학습공간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 수준 등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 과정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가고, 교수자는 개개인의 학습 기록이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과정 및 진도, 난이도의 조정이나 진행을 지원하는 등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고시를 위한 연구와 정책 협의 과정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 방향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등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온라인 교과서 도입 등의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VI-4.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방향

\* 출처: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10쪽의 그림을 인용함.

이러한 변화는 학교 교육과의 밀접한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사업 현장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의 다양한 일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지역사회·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하여 청소년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연구와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져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분야 현장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기존의 청소년활동·보호·복지로 구성되어 온 청소년육성 프레임에서 청소년시설·단체에 방문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을 이끌고 지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청소년시설·단체 차원에서 코딩, 로봇, VR, 드론, 3D프린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 활용 콘텐츠를 도입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관련 기자재 및 교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외부 민간업체에 강의·실습을 위탁하거나 단기적인 체험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콘텐츠를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단체 대부분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자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청소년분야가 아닌 타 부처의 공모에 참여하여 마련하고 있는 점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청소년분야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확산과 활성화에 다소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분야 디지털 뉴딜 대응전략으로서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운영에 에듀테크를 도입하여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운영되어온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프로그램들에 접목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에듀테크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대학과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집단형·내방형 사업에 중심을 두어 온 청소년 분야 사업 프로그램들이 개인·소집단형, 온라인 융합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에듀테크 기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마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소년사업 현장 사업 구조의 개편을 통하여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도달 범위를 넓히는 것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디지털 뉴딜 분야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과제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의 구축·개방·연계를 확대하고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국민 누구나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 분야의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는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https://www.youth.go.kr/youth/>)’과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https://www.cyber1388.kr:447/>)를 들 수 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은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하여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시작된 청소년분야의 대표적인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활동 프로그램, 봉사활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의 청소년활동 참여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와 청소년을 위한 각종 활동, 복지, 보호 지원 전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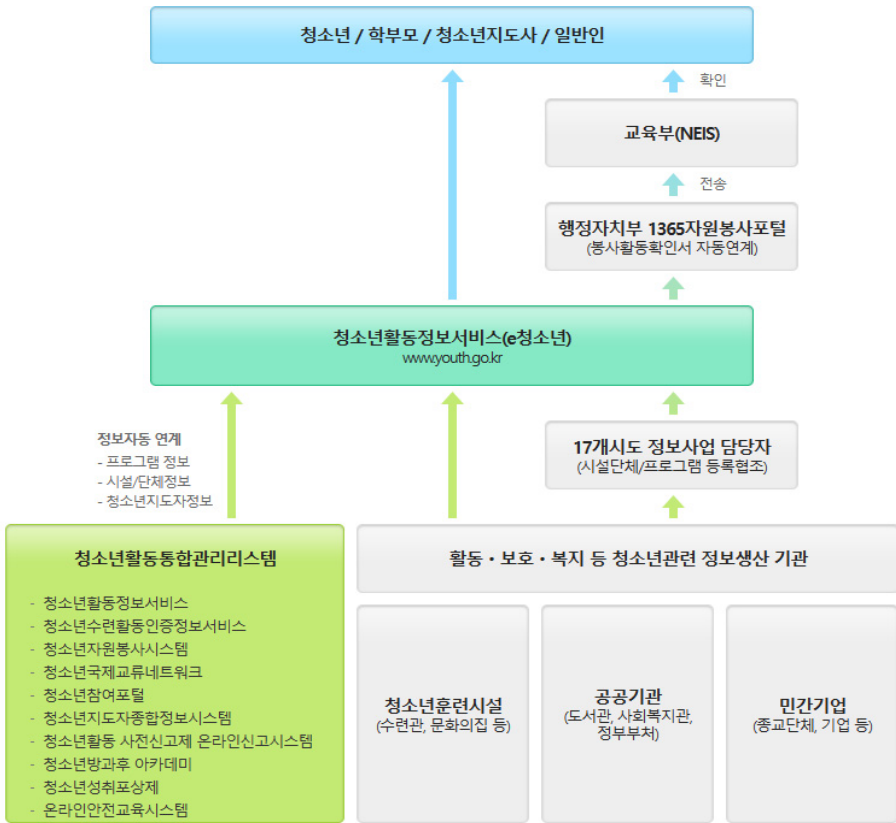


그림 VI-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서비스 구성도

\* 출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jsessionid=1zcva0171R5gYcopam9mKYgrPNqVRB9eT2EI9HedfwppqRi1pTdx12fQKalEiGC2.youth-was02\\_servlet\\_kywaYouth?curMenuSn=undefined](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jsessionid=1zcva0171R5gYcopam9mKYgrPNqVRB9eT2EI9HedfwppqRi1pTdx12fQKalEiGC2.youth-was02_servlet_kywaYouth?curMenuSn=undefined) 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사이버상담 기능을 중심에 두고 청소년 상담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온라인 상담, 웹 심리검사, 카드뉴스 및 미디어 자료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청 안전Dream과 연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학대, 학교폭력,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한 온라인 신고 접수를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상담복지포털 ‘채움’(http://cheum.hi1318.or.kr/)에서는 도내 지역별, 유형별 상담복지 및 안전망 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유형별 서비스    우리동네 청소년안전망    맞춤서비스 검색    알림마당

**<비대면 심리검사 지원>**  
코로나 블루, 심 채우기

시작: 2021.09.03(금) - 선착순 마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만 14세 ~ 만 24세 청소년  
검사: MDT(심격유동검사)  
신청: 채움 - 이벤트 - 코로나 블루, 심 채우기 공지사항 참고

궁금한 청소년 상담복지를 검색해보세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검색

유형별 서비스	긴급복지지원	가족문제	가정 밖(가출)	경제적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체육·활동	법률	성 문제
	심리정서	의료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신건강	학교폭력	학교 밖(학업중단)	학업진로	상담신청·별심리검사

공지사항    상담도서관    이벤트    +

**공지사항**

- **홍라벨 프로젝트 6**    2021-10-13
- [이벤트 공지 - 진행] 슬기로운 채움...    2021-10-06
- **홍라벨 프로젝트5**    2021-09-06
- [깜짝 이벤트] <비대면 심리검사 자...    2021-09-03
- **홍라벨 프로젝트 4탄**    2021-07-16

**나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검색**

성별    대상    거주지역    가구(개인)특성    관심유형

검색하기    바로가기

**우리동네 청소년안전망**

내가 사는 우리동네 가장 가까운 청소년안전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그림 VI-6.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상담복지포털 ‘채움’ 홈페이지

\* 출처: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상담복지포털 ‘채움’. http://cheum.hi1318.or.kr/ 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이러한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정보제공 서비스는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청소년 포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공되는 정보들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라기보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일방향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로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모바일 인증 절차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https://www.gov.kr/)의 경우에는 인증 절차를 거친 로그인을 통해 가족/건강, 연금, 세금, 자동차, 병역, 주택/복지, 생활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국가건강검진 정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조회 등과 같이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거나 상황에 맞춰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표출하여 제시하는 상호작용적 정보 제공 방식을 띄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분야 디지털 뉴딜 대응전략으로서의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은 청소년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추천하여 표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파편화 되어 있는 청소년 개인 관련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서 통합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의 개인별 인증수련활동, 봉사활동 참여기록과 교육부 종합교육행

정정보서비스시스템 ‘나이스’(NEIS),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청소년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시대의 청소년 포털로서 정책·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에 이어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과 활동 지원 기능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도 중요한 대응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 정보들은 청소년의 개인별·집단별 흥미와 관심사, 진로 희망 등을 담은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틀을 마련하여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사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컨설팅은 해당 학습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학습 집중도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진도, 학습시간, 문항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정답률과 오답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강좌를 추천하거나 반복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해당 내용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청소년 분야 사례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인력 온라인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러닝 과정을 들 수 있다. 청소년지도인력 온라인 연수원에서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관심 분야를 사전에 설정하여 관련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참여하여 수료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과정들의 데이터를 지

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어 향후 이를 분석한 개인 특성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분야 교육·학습 참여 또한 위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청소년활동을 통한 역량 증진이나 학습 지원, 성취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 개개인이 맞춤형 활동·교육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습과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사업의 확산이나 도달범위 확대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활동과 교육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청소년 개인별 활동 기록이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온라인시스템(<http://survey.kywa.or.kr>)의 기록들은 향후 지속적인 분석과 활용을 통해 청소년 개인별 흥미, 관심사, 역량 특성 등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교육을 추천하고 해당 성과를 관리하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청소년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5)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앞서 제시된 청소년분야 디지털 뉴딜 대응전략 들은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사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청소년사업 현장은 청소년과 학교 교육과정, 사회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주제와 분야, 운영방식 등을 혁신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앞서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일부 지역의 청소년시설·단체만이 빅데이터나 코딩,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활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사이버상담, 온라인 상담복지 정보제공 포털 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이나 개별 청소년시설·기관·단체 차원에만 맡겨져야 할 과제는 아니며,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 위한 청소년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국가·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대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sup>36)</s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분석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와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지역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생 청소년 핵심역량분석 교육데이터 구축’을 주제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과 청소년 활동기록 데이터 12만 건을 분석·구축을 통한 역량분석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와 청소년사업 현장의 의미 있는 도전과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사업 현장이 디지털 뉴딜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업 현장의 적극적인 도전을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청소년시설·단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

---

3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소개 자료. <https://blog.naver.com/waglos/222221207212>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및 교육강좌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태블릿PC, 3D프린터 등의 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를 보급하는 등의 기존의 방식과 수준을 넘어서는 청소년사업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2)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저탄소·녹색 산업에 기반한 미래 사회·경제 전략과 정책·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는 저탄소·녹색 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환경보호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역에서는 청소년사업 현장의 중요한 분야인 청소년 시설들에 태양열 활용,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등 소극적 차원에서 그린 뉴딜 분야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저탄소·녹색 산업 분야는 청소년분야 정책과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의 저탄소·녹색 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실천해 나갈 시민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초기 단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한 청소년분야 그린 뉴딜 대응전략은 ①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②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③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④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입각한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의 4개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그린 뉴딜 관련 청소년 분야 대응 전략의 첫 번째 내용인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교육 확대는 청소년시설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교육·강좌, 학교밖 청소년센터 진로·취업지원 등의 과정과 미래형 녹색기술 관련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들의 미래 선호직업군을 살펴보면, 미래형 녹색기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이오 직업군과 에너지 직업군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청소년분야의 녹색기술 관련 내용이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이나 캠페인활동, 교과와 연계한 교육·강좌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형 녹색기술 관련 진로·직업과 연계하는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환경부에서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의 4개 정책영역을 제시하였다(환경부, 2020). 그리고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모든 학생과 시민의 환경학습을 위한 포용적 환경교육, 부처 간 협력 및 학교-사회 협력을 통한 융합형 환경교육,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협력·관리·정비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의 5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환경부, 2020).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후변화,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아우르는 미래 사회·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반영한 교육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면서(교육부, 2021.4.) 범교과 영역이나 지역사회 연계 교과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학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b>비전</b>	<b>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b>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li> <li>·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li> </ul>	
<b>영역</b>	<b>추진 과제</b>	
1	<b>환경교육 기반 구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li> <li>2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제고</li> <li>3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li>4 기후변화·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li> <li>5 미래형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li> </ol>
2	<b>학교 환경교육 활성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li> <li>2 시·도 단위별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li> <li>3 학교급별 환경교육 실행 지원 제고</li> <li>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li> </ol>
3	<b>사회 환경교육 강화</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li> <li>2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li> <li>3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보장</li> </ol>
4	<b>환경교육 협력 확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육 유관 기관 협업 강화</li> <li>2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li> <li>3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li> </ol>
	<b>추진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과 시민의 환경학습을 위한 포용적 환경교육</li> <li>· 부처 간 협력 및 학교-사회 협력을 통한 융합형 환경교육</li> <li>·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li> <li>·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li> <li>· 협력·관리·정비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li> </ul>

그림 VI-7.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체계 및 목표

\* 출처: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18쪽의 그림을 인용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센터나 서울 강북청소년센터의 네이처드림센터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기후위기 주제 프로젝트 방식의 진로·직업체험, 서울시영등포환경교

육센터의 자유학년제 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들을 발전시켜 ‘청소년 기후-환경 전문가 양성과정’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에 각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진로·직업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자 환경교육으로서 학교-사회 협력을 통한 융합형 환경교육,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하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녹색기술 관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자가 미래형 녹색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환경부의 제3차 환경교육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범교과·교과 연계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과제로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환경부, 2020). 이는 청소년사업 현장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기후위기나 환경재난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 부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환경, 생태 등을 주제로 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진로체험의 분야를 현재의 직업군에서 미래의 직업군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교과나 창의적체험 활동 등과 연계한 미래형 녹색기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위의 미래형 녹색기술 분야 진로교육의 확대는 결국 청소년사업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즉, 초기의 청소년들은 친환경·생태·기후위기 분야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면서 녹색 기술 분야에 관한 흥미와 관심,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중기의 청소년들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녹색 기술 관련 분야에 관한 실천을 경험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에는 본격적으로 미래형 녹색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사업에서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주제들은 대체로 초기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 태도 형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점을 확장하여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기 청소년들의 미래형 녹색기술 관련분야 실천 경험과 전문 지식·기술 습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사례 분석에서 검토한 서울 강북청소년센터의 네이처드림센터의 플턴 프로젝트나 서울시영등포환경교육센터의 생태 텃밭 조성, 성북청소년센터의 에코그린디자인,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도시텃밭 공작소와 같은 사업들은 청소년들이 친환경·생태·기후위기를 주제로 녹색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이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이자 실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청소년사업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전국의 청소년사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사업 공모에 환경 실천 분야를 포함하거나, 친환경·생태·기후 위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여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2019년 부천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한 ‘미세먼지 커뮤니티 맵핑’과 같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환경, 생태 등의 이슈를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일 또한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경인일보, 2019.9.3.). 이와 관련하여,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개인의 환경교육 경험이 진학, 취업, 전문경력 인증 등으로 연결되도록 그 이력을 관리하는 ‘환경학습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사업 분야 또한 친환경·생태·기후위기와 관련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청소년동아리나 모임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 (3)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그린 뉴딜 분야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주요 3대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제시되고 있다<sup>37)</sup>.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분야의 중요한 인프라인 청소년시설의 상당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건립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 분야와 청소년분야의 높은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7) 알아두면 좋은 환경 상식 자료. <https://blog.naver.com/aycomhub/222592873366>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교육분야에서는 2020년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을 미래 교육과정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저탄소·에너지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친환경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0). 또한, 교육부에서 2019년부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생 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 원칙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넘어선 학생 중심의 새로운 미래학교 공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UNN, 2020.7.17.). 특히, 학교시설의 노후화 증가에 대응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18.5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UNN, 2020.7.17.),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적극적인 학교 교육 공간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건립되기 시작하여 30여년의 기간을 거친 시설의 노후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분야의 시설들 또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 뉴딜과 관련한 청소년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나 스마트 리모델링과 같은 청소년분야의 대응 전략이나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립 이후 26년이 지난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사례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그린 뉴딜을 청소년 시설·공간의 혁신 기회로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기술과 설계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리모델링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시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신축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저탄소·에너지 절약 등 녹색 전환 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친환경 소재 이용 기능보강, 태양광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서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 가칭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계획’을 제시하면서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 친화적으로 재단장하여 기후·환경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제시하였다(환경부, 2020).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도 단위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첫 사업으로 강서구 가양동 소재 폐교인 공진중학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환경부, 2020). 이 사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에 기초한 접근을 통해 공공시설의 녹색 전환을 시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은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청소년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하고, 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청소년시설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도 실현 가능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와 청소년사업 현장, 학계가 참여하여 미래형 청소년 시설·공간의 구축과 운영·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확산할 수 있는 ‘미래형 청소년 시설·환경 TF’를 구성하고 신규 청소년시설의 녹색 기술 활용, 기존 청소년시설의 녹색 전환과 적용, 운영·관리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 또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입각한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유엔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 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으로 지정하였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 이어서 2015년 제70차 유엔 정상회담에서는 정부 및 시민사회가 더불어 노력해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제정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교육 및 훈련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림 VI-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 우리가 궁금한 10가지 질문하기. 10쪽의 그림을 인용함.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지속가능발전포털, 2020: 1).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단계별 체계성을 기초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환경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연계하여 사고와 행동양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지속가능발전포털, 2020: 1).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프로젝트 목록에서는 전체 96개 공식 프로젝트 중 2011년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의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와 2017년 국립청소년농업생명센터의 '비밀의 화원', 한국청소년진흥재단의 '영동·옥천·보은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 2019년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산울림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2020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드림꾸러미 프로젝트',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Right! Rights!」'의 6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21년 현재까지의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순히 환경이나 생태 관련 교육만을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 및 에너지, 생물다양성, 지역개발 및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친환경, 생태, 기후위기 등 녹색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단순한 교육강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교육 참가자들의 기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즉,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참가자 개인의 경험 증가나 역량 증진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실질적 기여로 이어짐으로써 청소년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사업 분야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입각한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일은 청소년사업이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 역량강화와 같이 학교 교육을 보조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의 주체이자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투자로써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고 확산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청소년사업 현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정보와 내용을 확산하고, 청소년사업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사업 현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적극 반영한 청소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사업 분야를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 혁신과 발전의 주요 투자 대상 분야로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분야가 한국판 뉴딜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연관 분야로써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불안, 소득격차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통해 미래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분야는 청소년에 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학교밖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안전망이나 청소년 돌봄,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으로 지칭되는 청소년수련활동

에 관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의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따른 청소년 분야의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과 관련성이 부족한 분야로 간주되어 투자우선순위에서 뒤쳐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분야 안전망 강화 대응전략은 ①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②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③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④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 ⑤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의 5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청소년안전망은 2005년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추진되어 온 청소년 분야 보호·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를 소관부처로 중앙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상담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유기적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의 개선과 혁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의 주요 내용을 고려한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 개선은 기존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중심의 청소년안전망을 청소년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과 분야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자산이자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된 위기는 청소년 개인적 측면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넘어 교육, 돌봄, 사회·경제적 자립 등 사회적 조건의 영역으로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줄어든 일자리나 학습·돌봄 격차 등의 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영역이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이나 단기적인 생활 지원을 넘어 개인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통해 개선되어야 할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9월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의 하나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9.7.).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타부처 및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수급정보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정확한 사례 개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를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 통합콜센터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9.7.). 이러한 대응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부분에서 지향하고 있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현행	개선
발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부처별로 위기청소년 지원</li> <li>☞ 발굴 누락, 서비스 연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통합 및 연계</li> <li>☞ 조기 발굴, 실시간 서비스 연계</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가정상태 등 중복 정보 요구</li> <li>■ 타 기관 서비스 이력 확인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상담 단축 및 신속 개입</li> <li>■ 서비스 중복해소 및 맞춤형 지원</li> </ul>

그림 VI-9.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2021)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9.7.).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발표. 3쪽의 그림을 인용함.

이러한 접근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기청소년 청소년 지원체계의 대상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의 유형과 범위는 교육이나 돌봄, 고용 등 사회적 차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 또한 개인별 상담복지 서비스를 넘어 교육·돌봄격차 개선, 주거안전망 보장, 진로·진학·취업·훈련 지원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역은 교육, 보건복지, 고용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일은 청소년 분야 안전망 강화 대응전략으로서 청소년 맞춤형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 (2)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여 안전망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대 전환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는 안전망 강화 영역을 ‘휴먼 뉴딜’로 확대하여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혁신과 체질개선은 결국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없이는 효과적으로 이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분야 인력 양성 체계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한 청소년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보수교육, 전문연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성 과정은

청소년활동·상담·복지·보호 등 각 분야에서 운영되어온 청소년사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무 역량을 길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녹색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청소년사업 관련 전문연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디지털·그린 청소년사업은 대체로 외부 전문기관이나 인력을 초빙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지도자는 코디네이터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따른 디지털·녹색 전환이 진행되는 미래의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지도자 양성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청소년사업이나 그린(생태, 환경, 기후위기 등) 청소년사업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직무교육과 연수 과정에서도 디지털·그린 관련 청소년사업의 사례들을 다루는 것을 넘어 청소년지도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분야나 그린 분야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디지털·그린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사업 분야 대응전략의 내용과 더불어 청소년의 디지털·그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청소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양성한 전문 인력들이 관련 청소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로 성장하여 청소년사업 현장에 유입됨으로써 한국판 뉴딜 안전망 분야의 일자리 창출 영역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매우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원격 학습이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개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성을 바라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ICT 친숙도 설문' 부분을 보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조사대상국 31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습을 위해 학생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정도는 29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2020.4.19.).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기반 학습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용의 어려움, 맞춤형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 수준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분야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은 청소년사업 현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기관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시설 내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PC실이나 태블릿 PC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 접속환경 또한 공공시설로서 wifi 접속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도 있지만, wifi 접속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시설들도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메타버스나 온라인·비대면 디지털 활동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현장도 존재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청소년사업이 펼쳐지는 청소년시설·공간이나 단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 디지털 정보, 경험 및 역량 격차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응하는 청소년분야의 전략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청소년사업 현장의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현장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청소년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기기 보급과 같은 단순 접근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과 청소년활동, 상담복지, 학습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같은 대응도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2021년 디지털 뉴딜 교육분야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활용, 국립대 ICT 고도화 사업 등의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분야 역시 한국판 뉴딜 각 분야의 내용이 지역이나 청소년사업 현장이 처한 환경 여건에 따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사업 현장의 디지털 환경은 단순히 전자결재나 문서 관리 등의 업무용 용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주지하고, 현황 파악과 관련 투자 방안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

기존의 청소년사업 현장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정의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등의 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활동시설, 보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배치나 청소년사업 기획·운영 지원, 효과성 평가 등과 같은 관리체계가 공고하게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시대의 청소년사업 현장은 디지털과 그린을 주제로 청소년이 이용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와 온라인의 다양한 영역들이 청소년사업 현장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주체적 참여를 통해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과 역량을 익히는 학교나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실천을 전개하는 사회의 시민단체, 청소년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디지털·그린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새로운 청소년사업 현장은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사업 현장의 영역 확장을 통한 고용 확대는 청소년사업 현장이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사회경제적 대 전환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청소년분야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사업 현장의 개념과 역할을 확장하고, 청소년사업 전문가로 양성되어온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있는 다양한 지역, 공간, 시간에 디지털과 그린을 주제로 한 일들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사업의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청소년 관계법령의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청소년사업의 영역을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사회 전환과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대된 청소년사업 영역에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되어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지도자 배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최소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청소년사업 현장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현장이 디지털·그린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그린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장, 신규 고용시장으로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청소년사업 현장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한국판 뉴딜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업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의 고용사회 안전망의 세부 과제 중에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사업 현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안전사고나 위험을 예방하는 산재예방 시스템이나 육아휴직 보장, 장시간 근로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의 제도적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권고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모니터링이나 정확한 현황 조사에 기초한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근로관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주40시간 근무제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 배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동반자 등 정부 지원 사업 중 정규직 전환 필요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시설 위탁 법인 변경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급여 권고안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사안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같은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들이 안정적인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혁신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한국판 뉴딜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열악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한국판 뉴딜 각 분야 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청소년분야의 대응이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통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청소년사업 현장은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된 청소년지도자의 일터이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의 실천 현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2+1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각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과 관련한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지역균형 뉴딜은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청소년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그 틀을 형성하여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사업을 펼쳐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청소년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출연하여 청소년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청소년시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청소년시설·공간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보호·복지 영역을 넘어 지방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지역 소재 기업,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들을 꾸려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별로 점차 그 특색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분야 상황은 청소년사업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청소년이 제공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서비스나 사업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분야의 지역균형 뉴딜 대응전략은 지역별 청소년분야 정책·사업이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역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청소년분야 지역균형 뉴딜 대응전략은 ①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②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및 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의 3개 전략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청소년분야의 청소년사업 콘텐츠는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이나 사회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거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들이 단기적이거나 표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의 환경이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사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전국 각지의 청소년시설·단체에서는 유행하는 가수·댄스 오디션 방식을 차용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고,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놀이와 게임을 차용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둘 뿐, 지역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교육·체험이나 진로·직업 관련 상담, 취업 연계 등의 콘텐츠나 서비스들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 차원의 대응전략은 유행에 따른

확산이 아닌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사업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딩공작소 사업은 지역 소재 IT업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이나 산업체가 존재하고, 해당 기업·산업체와 충분한 기간 동안의 소통과 논의가 지속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청소년사업 현장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거나 지역에 소통·협력 가능한 기업·산업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의 다변화와 다양화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균형 뉴딜 분야 대응 전략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먼저,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청소년사업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우수 청소년사업 공모시 지역 특성화나 기관 특성화 공모 분야를 마련하여 3~5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 위주의 집중 지원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사업 현장이 지역사회의 기업이나 산업체, 기관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체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기여나 기부를 기업·산업체의 성과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시설·단체가 기부금을 활용하여 청소년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은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 (2)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특성화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의 대응전략으로서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나 특화 산업분야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지역에서 투자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사업 현장의 결과가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지역 청소년의 성장 결과물이 지역 청소년의 지역 기업 취업이나 지역사회 경제활동 참여, 지역사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진로와 진학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시작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자유학기제나 진로직업체험과 같은 진로탐색 과정을 교육과정에서 점차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청소년의 진로역량개발이나 진로·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은 전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이나 인기 있는 직업군 또는 새로운 직업군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이 실제 청소년의 진로나 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행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단기적인 체험에 그치는 수준에서 청소년들은 해당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놀이나 재미를 위한 시간으로 소비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지역의 취업률 제고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효용성을 우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진로역량개발이나 진로·직업체험과 같은 사업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특화산업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초기 단계로서의 청소년의 진로역량개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다 유효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급격한 인구감소와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산업, 문화 등을 주제로 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투자에는 해당 경제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 단계의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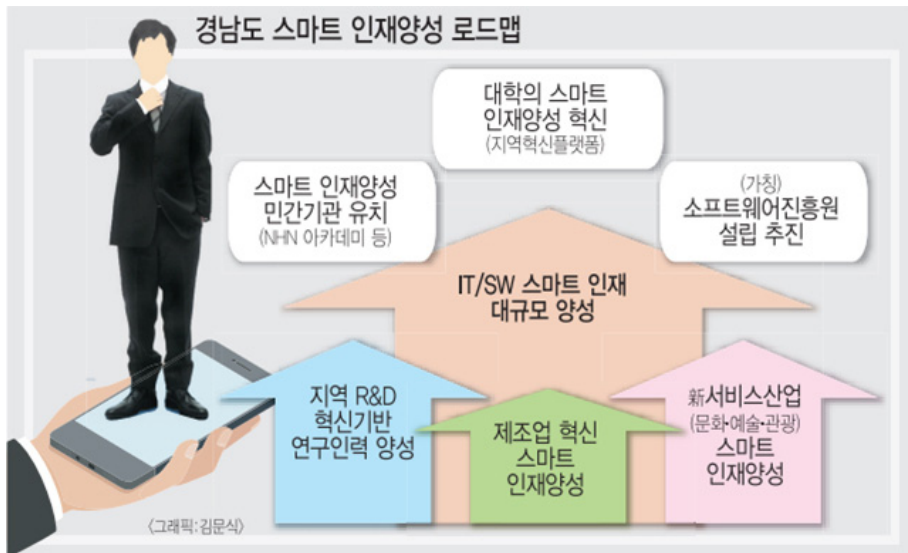


그림 VI-10. 경상남도 스마트 인재양성 로드맵

\* 출처: 경남신문(2021.3.7.). [창간75주년 특집] 3대 '지사 중점과제' 진단 (2) 스마트 인재 양성.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no=1345903> 에서 2021년 10월 16일 인출.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분야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 인재 양성의 초기 단계로서 그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적극 투자하고 있는 산업 및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 및 산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해당 산업 분야에 관한 진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진로 역량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청소년 등 중기-후기 청소년들이 각종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역 집중투자분야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분야가 청소년분야에 대한 투자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분야가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등의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 주요 투자처로서 역할 한다는 투자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한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및 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

지역균형 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는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사업 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는 주로 수도권·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격차는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차이로 이어져 지역별 청소년의 사업 참여기회나 지원의 차이로 이어져 지역별 투자의 격차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한국판 뉴딜

에서 지향하는 정책 목표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실현하고, 청소년들이 대전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은 전국 청소년사업 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일 또한 중요한 대응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사업 현장의 청소년지도자 배치는 결국 청소년지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체계는 해당 지역에 청소년지도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 해당 지역에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사업 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는 단지 청소년 시설을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인프라보다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순위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사업 현장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청소년사업 현장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의 배치기준을 청소년 인구나 지역 특성 등을 기준으로 재정립하거나 청소년사업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설립 기준과 관련하여 지역 인구와 관련된 설립 기준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다형’과 같이 소규모 청소년공간들을 지역사회 곳곳에 배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관계부처합동, 2018)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공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또한 시설 규모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인구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례들은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배치 격차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sup>38)</sup>.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서 2년간 연 24,000만원 내외의 임금 지원, 주거, 교통, 복지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지역에 정착 지원, 마케팅, 문서작성 등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은 지역 기업에서 비대면·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 지원, 비대면·디지털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청소년분야 현장은 지역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정착지원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자 배치가 부족한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청소년사업 현

---

38)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개 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장 청소년지도자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다소 경감하면서도 청소년지도자 배치 격차 해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현장의 청소년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근 청소년지도자 이외에도 청소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청소년지도자 또는 시간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도입될 필요도 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청소년시설·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인적자원을 청소년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자원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의 '청소년동반자' 사업과 같이 청소년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청소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간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배치·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년사업 인적자원 배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청소년사업 분야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디지털·그린 전환에 대응해 나가는 사회경제적 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높이는 일에 기여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그 존재 의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기정훈, 조덕호(2020). COVID-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 교육뉴딜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4), 27-41.
-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이용교, 길은배, 전명기, 정효진(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연구보고(수시과제) 09-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최정원, 변금선, 이종원, 이민정, 정지희(2019).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5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선재, 유형정, 권정은, 이승필, 도지훈, 여성울(2020). **기술-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의 플랫폼화 방안 연구** (기관-2020-037). 충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정주(2020).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건설이슈포커스**, 2020(11), 1-30.
- 박동일(2018). **기후행동 일상화를 위한 실천적 교육방안의 필요성 연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진빈(2004). [특별기고] 꺾여진 개혁의 날개: 뉴딜과 그의 적들. **역사비평**, 2004(11), 172-190.
- 백정열(2018). **에듀테크의 기술 및 콘텐츠 동향. 정보통신기술센터 주간기술동향**, 2018.7.18. 대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서울성북청소년센터(2021). **내부자료**.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201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운영보고서. 내부자료.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2016).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운영보고서. 내부자료.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2017).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운영보고서. 내부자료.
- 서정아(202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블루노트 이슈&정책.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성윤숙, 송태민(2020).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  
보고 20-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내부자료.
- 시립강북청소년센터(2020). 2020 플턴 결과자료집. 내부자료.
- 시립강북청소년센터(2020.11.24.). 2020년 강북구 진로교사 간담회.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오재학(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뉴딜과 교통부문의 도전. 월간교통,  
2020(6), 2-4.
- 이경상, 박선영, 조남익(2014).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미래  
청소년정책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전망 (연구보고 14-R03). 세종: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광호(2008).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에 대한 제언: 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지지 체계의 재설계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연구, 10(2), 49-72.
- 이광호(201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사업의 진화와 청소년활동 사업 새판  
짜기의 방향 모색. 청소년학연구, 18(10), 253-269.
- 이광호, 송지은(2016). 경기침체기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청소년사업 재구조화 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3(7), 221-251.
- 이희찬(2020). 한국판 뉴딜과 관광산업의 전략적 연계 방향. 한국관광정책, 81,  
12-21.

장성구, 권치순(2014). 델파이 기법을 통한 초등과학 영재수업의 목적과 담당교사의 수업전문성 설정.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7(1), 99-109.

차정섭(2005).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청소년 육성과 보호 패러다임에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93-21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 **내부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내부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아웃리치 실무자 안내서**. 내부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사례 워크숍 자료집** (워크숍 자료집 15-S3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내부자료**.

Beale, I., Bloss, C., & Thomas, A.(2008). *The Longer-term impact of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HM Treasury(2021).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Her Majesty Stationery Office.

Lawshe, C.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Reeneen, J.V.(2004).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 British New Deal for the Young Unemployed in Contex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NN(2020.7.17.). **교육부, 18조 규모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2450>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s://www.>

- 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064 에서 2021년 8월 30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081>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https://2030.  
go.kr/board/1/boardView?nttId=1090](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Id=1090)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2021.7.14.).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https://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89](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89)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 교육부(2020).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https://policy.nl.go.kr/search  
/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00253798&kwd=](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00253798&kwd=)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https://hrstpolicy.  
re.kr/kistep/kr/policy/policyPlanKorDetail.html?board\\_seq=45913&  
board\\_class=BOARD01&rootId=2003000&menuId=2003102](https://hrstpolicy.re.kr/kistep/kr/policy/policyPlanKorDetail.html?board_seq=45913&board_class=BOARD01&rootId=2003000&menuId=2003102)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 교육부(2021.4.).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https://www.  
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m=02&boardSeq  
=84176](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m=02&boardSeq=84176)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9.7.).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발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806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63)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  
우리가 궁금한 10가지 질문하기. [https://www.unesco.or.kr/assets/data/  
report/f6ivTBhMqTXYJvWvraD53lz6w6mhdQ\\_1538616288\\_2.pdf](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f6ivTBhMqTXYJvWvraD53lz6w6mhdQ_1538616288_2.pdf)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지속가능발전포털(2020).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안내서 모음집**.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 3호. <http://ncsd.go.kr/education?content=1&post=2433>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환경부(20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opfPj1D4cI+VktSebq5Te6n9.mehome1?pagerOffset=7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7634](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opfPj1D4cI+VktSebq5Te6n9.mehome1?pagerOffset=7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7634)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NewsWire(2021.7.2.).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제2회 유스해커톤 대회 개최**.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6487>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ZDNet Korea(2021.4.7.). **넷마울·웹젠·넥슨, 개발자 꿈꾸는 학생에 지원 지속 눈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18445>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경남신문(2021.3.7.). **[창간75주년 특집] 3대 ‘지사 중점과제’ 진단 (2) 스마트 인재 양성**.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45903> 에서 2021년 10월 16일 인출.

경인일보(2019.9.3.). **부천시, 송내고 학생과 미세먼지 커뮤니티 매핑**.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903010000935>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글로벌이코노믹(2021.4.30.). **월시 美 노동장관 ‘기그 노동자’도 노동법상 보호 받는 ‘종업원’**.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43010223041929a1f309431\\_1&ssk=g0000000&md=20210430103134\\_R](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43010223041929a1f309431_1&ssk=g0000000&md=20210430103134_R) 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뉴스시스(2019.6.17.). 웹젠, 올해 청소년 교육지원 목표… “스스로 사고하는 인재 육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617\\_0000682763&cID=13001&pID=13000](https://newsis.com/view/?id=NISX20190617_0000682763&cID=13001&pID=13000)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매일경제(2020.12.5.). 20·30세대가 생각하는 경제적 독립.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51634/> 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서울특별시(2020.11.4.).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도 꿈꾸는 청소년들 로봇대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223>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아시아경제(2021.2.15.). 성료된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온라인 자료집 공개 예정. <https://cm.asiae.co.kr/article/2021021511120166908>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아주경제(2021.4.21.). 바이든표 3600조 ‘초초거대’ 부양책 탄생하나... ‘미국 가족 계획’ 발표 임박.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2143858153>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조선일보(2020.4.19.). IT 강국 맞아? 충격적인 디지털 교육의 민낯 드러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7/2020041703190.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7/2020041703190.html) 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Lee, A., Kilduff, L., & Mather, M. (2020). *U.S. homeownership rates fall among young adults, African Americans*. <https://www.prb.org/resources/u-s-homeownership-rates-fall-among-young-adults-african-americans/> 에서 2021년 7월 1일 인출.

National Audit Office(2002).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170207052351/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02/02/0102639.pdf> 에서 2021년 8월 22일 인출.

The White House(2021.3.31.).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The White House(2021.4.28.).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the-american-families-plan/>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The White House(2021.7.22.). *FACT SHEET: How the build back better plan will create a better future for young American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7/22/fact-sheet-how-the-build-back-better-plan-will-create-a-better-future-for-young-americans/> 에서 2021년 8월 8일 인출.

A New Deal for Britain 보도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a-new-deal-for-britain>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https://blog.naver.com/saltlux1979/222033512227> 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Prime Minister's Priorities for 2021/2022: Build Back Better 자료. <https://communication-plan.gcs.civilservice.gov.uk/our-priorities/#pm-priorities> 에서 2021년 8월 29일 인출.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상담복지포털 '채움' 자료. <http://cheum.hi1318.or.kr/> 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https://www.data.go.kr/data/15076411/fileData.do>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자료. <http://www.knewdeal.go.kr/front/cardnews/cardNewsDetail.do?cardno=101> 에서 2021년 2월 1일 인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소개 자료. <https://blog.naver.com/waglos/222221207212>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디지털 뉴딜 소개 자료. <https://digital.go.kr/front/intro/introMain.do>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디지털 뉴딜 자료. <https://digital.go.kr/front/main/main.do> 에서 9월 13일 인출.

복지로 청소년특별지원 소개 자료.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자료. <https://www.snyouth.or.kr/ytyouth/index.do>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자료. <http://www.pgyouth.or.kr/>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성남시복지이음정보센터 공식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snbokjinet/222380393527>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성남시청소년재단 빅데이터 플랫폼 자료. <https://snyouthbigta.datadriven.kr/>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자료. <https://www.snyouth.or.kr/main.do>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시립강북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nanna.seoul.kr/main.kr> 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시립노원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www.andyouth.or.kr/kr/index.php> 에서 2021년 9월 2일 인출.

시립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www.mullaeyouth.or.kr> 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시립성북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s://www.sbyouth.or.kr/web/home> 에서 2021년 8월 29일 인출.

시립창동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자료. <http://www.cdyouth.or.kr/>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소개 자료. <https://beautifulfund.org/campaign/#eighteen-season3>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알아두면 좋은 환경 상식 자료. <https://blog.naver.com/aycomhub/222592873366> 에서 2021년 9월 9일 인출.

위키피디아 Build Back Better World 정의. [https://en.wikipedia.org/wiki/Build\\_Back\\_Better\\_World](https://en.wikipedia.org/wiki/Build_Back_Better_World)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위키피디아 Build Back Better 정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8C%80%EC%9D%BC%EB%A1%9C>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위키피디아 Building Back Better 정의. [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_Back\\_Better](https://en.wikipedia.org/wiki/Building_Back_Better) 에서 2021년 8월 26일 인출.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 자료. <https://blog.naver.com/innosociallab/221851345526> 에서 2021년 9월 3일 인출.

청소년코딩공작소 with 웹젠 홈페이지 자료. <https://www.webzen.co.kr>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자료.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jsessionid=1zcva0171R5gYcopam9mKYgrPNqVRB9eT2EI9HedfwvpqRi1pTdx12fQKaIEiGC2.youth-was02\\_servlet\\_kywaYouth?curMenuSn=undefined](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jsessionid=1zcva0171R5gYcopam9mKYgrPNqVRB9eT2EI9HedfwvpqRi1pTdx12fQKaIEiGC2.youth-was02_servlet_kywaYouth?curMenuSn=undefined) 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통합 데이터 지도 구성 정보 자료. <https://www.bigdata-map.kr>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체험정보 빅데이터센터 자료. [https://www.bigdata-culture.kr/bigdata/user/data\\_market/agency/detail.do?id=kywa\\_org](https://www.bigdata-culture.kr/bigdata/user/data_market/agency/detail.do?id=kywa_org) 에서 2021년 9월 13일 인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소개 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 — 부 록



---

# 부록

---

## 1. 청소년지도자용 설문지

## 연구 참여 설명문 - 전문가용

### 연구과제명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기존 청소년정책을 분석하며,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청소년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청소년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청소년지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연구 참여 대상자의 통의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한 웹조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인식,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청소년 분야와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에 대한 관련성 정도와 중요성 정도,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동의정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3자(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귀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지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며, 청소년 현장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지도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전공여부, 소지자격증, 종사하는 시설유형, 거주지, 청소년분야 근무경력관련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최창욱 , 전화번호 : 044-415-2238

공동연구자 : 작동훈 , 전화번호 : 044-415-2216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써 귀하의 권익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전공여부, 소지자격증, 종사하는 시설유형, 거주지, 청소년분야 근무경력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정책방향, 추진과제

1. 다음은 '한국판 뉴딜'에 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1-1. 귀하께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르는 편이다.
- ③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④ 아주 잘 알고 있다.

1-2. 다음에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 현장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판 뉴딜 분야		청소년사업 현장에서의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 · Digital Network AI 생태계 강화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①	②	③	④
그린 뉴딜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①	②	③	④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일자리 창출 · 고용사회 안전망 · 사람투자	①	②	③	④
지역균형 뉴딜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①	②	③	④

II. 다음은 '한국판 뉴딜'과 분야별 세부과제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II-1.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5점 척도상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디지털 뉴딜	1.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비대면 산업 육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SOC 디지털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II-2.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5점 척도상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그린 뉴딜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III-3.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5점 척도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안전망 강화	8. 고용사회 안전망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사람투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III.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문항입니다.

III-1.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시키기 위하여 D.N.A (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①	②	③	④
2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①	②	③	④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증·참여기록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①	②	③	④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청소년 활동 Data를 수집 및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예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과정 피드백 제공 등)	①	②	③	④
5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VR/AR/MR, IoT & Wearable 기반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6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7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비대면 청소년사업 인프라(시설·설비) 구축,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①	②	③	④
8	기타 : ( )	①	②	③	④

III-2.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그린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2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3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①	②	③	④
4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5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6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①	②	③	④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①	②	③	④
	기타 : ( )	①	②	③	④

III-3.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혁신에 따른 실업 불안, 소득격차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대응전략 방안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①	②	③	④
2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①	②	③	④
3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①	②	③	④
4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①	②	③	④
5	청소년 고용 및 근로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①	②	③	④
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①	②	③	④
7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8	기타 : ( )	①	②	③	④

III-4.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 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분야 대응전략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2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①	②	③	④
4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 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11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12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①	②	③	④
13	기타 : ( )	①	②	③	④

IV.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년도	(    )년 생 (예: 1973년 → 197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3년제포함)                    ③ 대졸(4년제) ④ 대학원 석사출업            ⑤ 대학원 박사출업                    ⑥ 기타(                    ) ※ 재학 및 수료 중인 경우에는 졸업 기준으로 최종학력 기재
전공여부	① 청소년관련학과            ② 교육관련학과                    ③ 사회복지관련학과 ④ 상담·심리관련학과            ⑤ 기타(                    )
소지 자격증 (복수응답)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① 보유 - (    )급    ② 미보유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① 보유 - (    )급    ② 미보유
중사하는 시설유형	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청소년단체 ④ 청소년활동시설            ⑤ 청소년복지·보호시설            ⑥ 기타(                    )
거주지	① 대도시(광역시 이상)            ② 중소도시                    ③ 농산어촌
청소년분야 근무경력	① 현 직장 근무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② 전체 청소년 분야 근무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 2. 청소년용 설문지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본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기존 청소년정책을 분석하며,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청소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 동아리 소속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연구 참여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한 웹조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청소년 분야와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에 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3자(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에게는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정보는 성별, 출생년도, 학력, 거주지, 현재 청소년활동 참여분야, 청소년분야 활동 경력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최창욱, 전화번호: 044-415-2238  
공동연구자: 좌동훈, 전화번호: 044-415-2216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44-415-2244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성별, 출생년도, 학력, 거주지, 현재 청소년활동 참여분야, 청소년분야 활동 경력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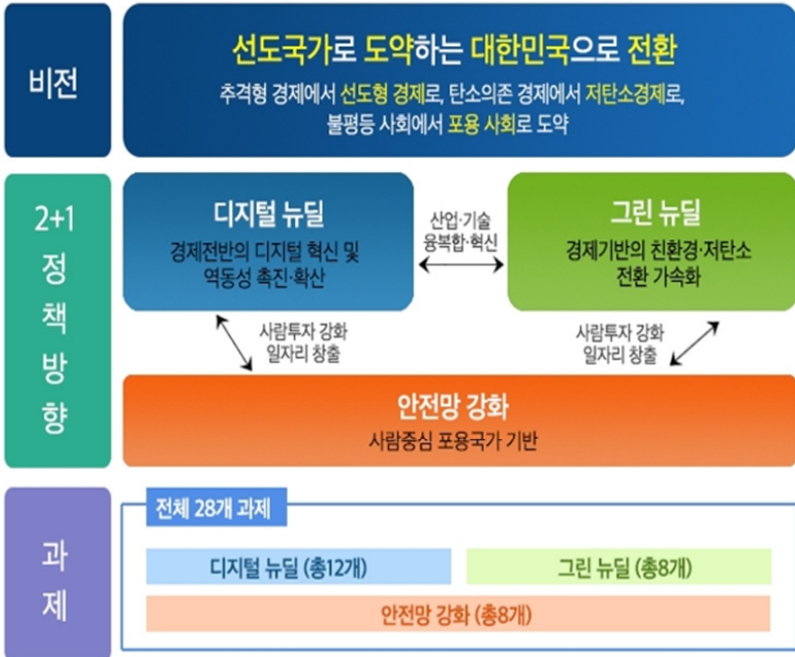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으로,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정책방향, 추진과제



※ 한국판 뉴딜 대표적인 추진 예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시작 -

-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
- 미래학교 사업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
- 미래학교는 4대 핵심요소인 ①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③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바탕으로,
-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용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이바지

**I. 다음은 '한국판 뉴딜'에 관한 귀하의 인식과 필요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I-1.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알고 있는 편이다      ④ 아주 잘 알고 있다

I-2. 다음에 제시된 한국판 뉴딜의 하위분야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판 뉴딜 하위분야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 하위분야의 필요한 정도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b>디지털 뉴딜</b>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활성화	①	②	③	④
<b>그린 뉴딜</b>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①	②	③	④
<b>안전망 강화(휴먼 뉴딜)</b>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	①	②	③	④
<b>지역균형 뉴딜</b>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을 새롭고(New), 균형적으로(Balanced) 발전	①	②	③	④

**II. 다음은 '한국판 뉴딜'과 분야별 세부과제에 관한 청소년 일상과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II-1.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의 일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하위분야 및 세부과제		청소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성 정도는?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디지털 뉴딜	<b>1.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b>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의 데이터·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활용·융합 - 예시: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케이-사이버(K-Cyber) 방역체계 구축 등	①	②	③	④
	<b>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b>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 예시: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무선망, 스마트기기) 조성,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	①	②	③	④
	<b>3. 비대면 산업 육성</b> 의료·군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비대면 산업 성장 토대 마련 - 예시: 스마트 의료 및 안전진료, 건강관리 돌봄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①	②	③	④
	<b>4. SOC* 디지털화</b>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업단지·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향상 - 예시: 교통, 물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이 아닌 인프라 확대, 관리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	①	②	③	④

II-2.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의 일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하위분야 및 세부과제		청소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성 정도는?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그린 뉴딜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예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등	①	②	③	④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예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 분산형 에너지 대형 발전소 근처에서 한 번에 전력을 생산해 전달하는 대신, 소규모 발전 설비를 분산하여 곳곳에 배치하는 방식	①	②	③	④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예사: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의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	①	②	③	④

II-3.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의 일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하위분야 및 세부과제		청소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안전망 강화(휴먼뉴딜)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성 정도는?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8. 고용사회 안전망 - 예사: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	①	②	③	④
	9. 사람투자 - 예사: 디지털·그린 인재(인공지능·소프트웨어, 녹색 융합기술 핵심 인재) 양성,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①	②	③	④

III. 다음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느낌이나 떠오르는 생각과 '미래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항입니다.

III-1. 다음은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를 한 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느낌이나 떠오르는 생각과 가까운 번호에  
 ✓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③	②	①	④	①	②	③	
맛있다	○	●	○	○	○	○	○	맛없다
좋아한다	○	○	○	○	○	○	○	싫어한다

	③	②	①	④	①	②	③	
희망적인	○	○	○	○	○	○	○	절망적인
가능한	○	○	○	○	○	○	○	불가능한
도약하는	○	○	○	○	○	○	○	머물러 있는
새로운	○	○	○	○	○	○	○	새롭지 않은
명확한	○	○	○	○	○	○	○	불명확한
변화하는	○	○	○	○	○	○	○	변화하지 않는
계획적인	○	○	○	○	○	○	○	비계획적인
역동적인	○	○	○	○	○	○	○	정적인
유용한	○	○	○	○	○	○	○	유용하지 않은
의미 있는	○	○	○	○	○	○	○	의미 없는
조급한	○	○	○	○	○	○	○	느긋한
현실적인	○	○	○	○	○	○	○	비현실적인
흥미진진한	○	○	○	○	○	○	○	따분한
편안한	○	○	○	○	○	○	○	불편한
믿을 수 있는	○	○	○	○	○	○	○	믿을 수 없는
빠른	○	○	○	○	○	○	○	느린
매력있는	○	○	○	○	○	○	○	매력없는
개방적인	○	○	○	○	○	○	○	폐쇄적인
현대적인	○	○	○	○	○	○	○	전통적인
적극적인	○	○	○	○	○	○	○	소극적인
구체적인	○	○	○	○	○	○	○	추상적인
쉬운	○	○	○	○	○	○	○	어려운
도움이 되는	○	○	○	○	○	○	○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 있는	○	○	○	○	○	○	○	가치 없는
화려한	○	○	○	○	○	○	○	소박한

III-2. 청소년 여러분들이 향후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관련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을 선정하여 아래의 표에 제시했습니다. 선정된 미래직업군 중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순위 ( )                      ② 2순위 ( )                      ③ 3순위 ( )

번호	직업군	예시 직업
1)	로봇	로봇공학자, 인공지능전문가,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드론 전문가, 로봇윤리학자
2)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해양에너지 기술자
3)	바이오	생명공학자,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가, 생물정보분석가, 생체인식 전문가
4)	연결(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전문가, 사이버 평판 관리자, 클라우드 펀딩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항공우주공학자
5)	안전	정보보호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블록체인 전문가, 스마트 재난 관리 전문가, 지식 재산 전문가
6)	놀이	게임 기획자, 문화 콘텐츠 전문가, 드론 콘텐츠 전문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게임방송 프로듀서, 디지털 큐레이터, 반려동물 훈련상담사, 해양 레저 전문가, 여행 기획자, 스포츠 심리 상담원
7)	건강	의료기기 개발전문가, 노인 전문 간호사, 헬스케어 컨설턴트, 노년 플래너,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8)	의식주	스마트 의류 개발자, 스마트 팜 구축자, 정밀 농업기술자, 곤충 음식 개발자·조리사, 스마트 도시 전문가, 도시 재생 전문가
9)	디자인	캐릭터 디자이너, UX 디자인 컨설턴트, 가상현실 전문가, 홀로그램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III-2-1. III-2 문항에서 응답한 직업군 안에서 선호하는 직업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2 문항에서	직업
1) <u>로봇</u> 을 선택한 경우	① 로봇공학자
	② 인공지능전문가
	③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④ 드론 전문가
	⑤ 로봇윤리학자
2) <u>에너지</u> 를 선택한 경우	①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②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③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④ 해양에너지 기술자
3) <u>바이오</u> 를 선택한 경우	① 생명공학자
	②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가
	③ 생물정보분석가
	④ 생체인식 전문가
4) <u>연결(네트워크)</u> 을 선택한 경우	① 사물인터넷 전문가
	② 사이버 평판 관리자
	③ 클라우드 펀딩 전문가
	④ 빅데이터 전문가
	⑤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
	⑥ 항공우주공학자
5) <u>안전</u> 을 선택한 경우	① 정보보호 전문가
	②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③ 블록체인 전문가
	④ 스마트 재난 관리 전문가

Ⅲ-2 문항에서	직업
6) <u>놀이</u> 를 선택한 경우	⑤ 지식 재산 전문가
	① 게임 기획자
	② 문화 콘텐츠 전문가
	③ 드론 콘텐츠 전문가
	④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⑤ 게임방송 프로듀서
	⑥ 디지털 큐레이터
	⑦ 반려동물 훈련상담사
	⑧ 해양 레저 전문가
	⑨ 여행 기획자
⑩ 스포츠 심리 상담원	
7) <u>건강</u> 을 선택한 경우	① 의료기기 개발전문가
	② 노인 전문 간호사
	③ 헬스케어 컨설턴트
	④ 노년 플래너
	⑤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8) <u>의식주</u> 를 선택한 경우	① 스마트 의류 개발자
	② 스마트 팜 구축가
	③ 정밀 농업기술자
	④ 곤충 음식 개발자조리사
	⑤ 스마트 도시 전문가
	⑥ 도시 재생 전문가
9) <u>디자인</u> 을 선택한 경우	① 캐릭터 디자이너
	② UX 디자인 컨설턴트
	③ 가상현실 전문가
	④ 홀로그램 전문가
	⑤ 3D 프린팅 전문가

IV.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출생년도	( )년 생 (예: 2005년 → 2005)		
학력	① 초등학교 재학 ④ 대학교 재학	② 중학교 재학 ⑤ 홈스쿨링, 취업 준비 중 ⑥ 기타( )	③ 고등학교 재학
가주지	① 대도시(서울 및 5대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산어촌
현재 청소년활동 참여분야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④ 청소년 동아리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⑤ 기타( )	③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분야 활동경력	청소년 분야 활동경력: ____ 년 ____ 개월 (※ 참여기구, 동아리 활동 경력 합산)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질문지(1, 2, 3차)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제1차 델파이조사

안녕하십니까?

델파이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 창출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조사가 진행됩니다.

- 1차 : 전문가자문회의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합된 대응전략의 중요도 및 추가의견 조사(~9/6 예정)
- 2차 :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 합의를출(~9/15 예정)
- 3차 : 우선순위 최종점검 및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 의견취합(~9/24 예정)

이번 제1차 델파이조사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정리하여 제2차 델파이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044-415-2238)】

1. 다음은 '한국판 뉴딜'과 분야별 세부과제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1-1.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디지털 뉴딜	1. D(디지털), 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비대면 산업 육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SOC 디지털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그린 뉴딜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인적자본 강화 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각각의 세부과제가 청소년 분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세부 분야		청소년 분야와의 관련성 정도				청소년 분야에서의 중요성 정도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매우낮다	낮다	높다	매우높다
안전망	8. 고용사회 안전망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강화	9. 사람투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II.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문항입니다.

II-1.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시키기 위하여 D.N.A (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중요도						
		매우낮음	← →					매우높음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증·참여기록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청소년 활동 Data를 수집 및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예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과정 피드백 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VR/AR/MR, IoT & Wearable 기반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비대면 청소년사업 인프라(시설·설비) 구축,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의견								

II-2.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그린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중요도						
		매우낮음			매우높음			
1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도심·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의견								

II-3.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혁신에 따른 실업 불안, 소득격차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구분	안전망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중요도						
		매우낮음			매우높음			
1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고용 및 근무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의견								

II-4.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중요도						
		매우낮음			매우높음			
1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 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추가 의견								

♡ 감사합니다. ♡

##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 창출』 제2차 델파이조사

안녕하십니까?

델파이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 창출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조사가 진행됩니다.

- 1차 : 전문가자문회의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합된 대응전략의 중요도 및 추가의견 조사(~9/6 완료)
- 2차 :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 합의도출(~9/15 예정)
- 3차 : 우선순위 최종점검 및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 의견취합(~9/24 예정)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분석 결과(평균, 순위, 표준편차 등)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중요도 순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분석 결과를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귀하께서 판단하신 각 전략별 중요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잘 정리하여 3차 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044-415-2238)】

1.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시키기 위하여 D.N.A (Data·Network·AI)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한국판 뉴딜' 분야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중요도 (2차 응답)						
		본인 응답	전체평균 (표준편차)	순위	매우낮음 ← → 매우높음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디지털 기반 청소년사업 현장 업무혁신프로세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증·참여기록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청소년 활동 Data를 수집 및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예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과정 피드백 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VR/AR/MR, IoT & Wearable 기반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정보 사이버 방역(보안)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비대면 청소년사업 인프라(시설·설비) 구축,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고											

※ 본인응답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답변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1-2.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그린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그린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중요도 (2차 응답)						
		1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순위	매우낮음 ← → 매우높음						
1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 그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도시·자연형 생활밀착 생태 숲 공간으로 청소년시설 그린 리모델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고											

※ 본인응답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답변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1-3.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혁신에 따른 실업 불안, 소득격차 등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안전망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중요도 (2차 응답)						
		본인 응답	평균 (표준편차)	순위	매우낮음 ← → 매우높음						
1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지도자 고용안전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고용 및 근무환경 지원시스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고											

※ 본인응답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답변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1-4.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청소년계의 대응전략 방안들의 중요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구분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중요도 (2차 응답)						
		본인 응답	평균 (표준편차)	순위	매우낮음 ← → 매우높음						
1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사업 지역사회 현장 전달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역 공공 청소년기관 중심 한국판뉴딜 선도 및 시범사업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1
비고											

※ 본인응답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답변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 감사합니다. ♡

##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 창출』 제3차 델파이조사

안녕하십니까?

델파이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분야 한국판뉴딜 대응전략 창출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조사가 진행됩니다.

- 1차 : 전문가자문회의 현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취합된 대응전략의 중요도 및 추가의견 조사(~9/6 완료)
- 2차 : 중요도와 우선순위 결과 합의도출(~9/15 예정)
- 3차 : 우선순위 최종점검 및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 의견취합(~9/24 예정)

1차 2차 델파이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번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방향, 방법) 등에 관한 의견과 관련 도움자료, 도움 되는 정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결과는 잘 정리하여 과제별 전략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044-415-2238)】

1. 다음은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아래의 내용은 ‘한국판 뉴딜’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을 1,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9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가로 포함되거나 강조되어야 할 대응전략,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검토의견에 작성해 주십시오.

분야	순위	대응 전략
디지털 뉴딜 (5)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5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그린 뉴딜 (5)	1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2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3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4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안전망 강화 (5)	1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
	2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3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역량 격차 해소
	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지역 균형 뉴딜 (4)	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2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3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4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검토의견		

II.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각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문항입니다.

II-1.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대응전략에 대한 추진방향 및 방법에 관한 의견이나, 참고 사례 등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2차 조사 분석결과	
		전체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체평균 (표준편차)	순위
1	청소년 관련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산업연계 지원				
의견					
2	4차 산업혁명 에듀테크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지원 (VR/AR/MR, IoT & Wearable 기반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신기술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의견					
3	청소년포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증 참여기록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의견					
4	학습분석학 기반 온라인 청소년 활동지원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청소년 활동 Data를 수집 및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예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과정 피드백 제공 등)				
의견					
5	청소년사업 현장에 반영할 신기술/디지털 기반 신사업 발굴 (비대면 청소년사업 인프라(시설·설비) 구축,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의견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II-2.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대응전략에 대한 추진방향 및 방법에 관한 의견이나, 참고 사례 등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그린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2차 조사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미래형 녹색기술 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 확대				
의견					
2	친환경생태기후위기 관련 청소년사업 지원				
의견					
3	ESD(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 개발운영				
의견					
4	청소년 스마트 그린 시설공간 관리 운영체계 구축				
의견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의견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II-3.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대응전략에 대한 추진방향 및 방법에 관한 의견이나, 참고 사례 등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전망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2차 조사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특별지원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시스템 개선(일자리, 주거 등)				
의견					
2	디지털그린 청소년 사업 인재(지도자) 양성				
의견					
3	청소년 디지털 접근성 역량 격차 해소				
의견					
4	청소년사업 현장 영역확장을 통한 고용확대				
의견					
5	청소년사업 현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의견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II-4.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사업 현장의 대응전략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대응전략에 대한 추진방향 및 방법에 관한 의견이나, 참고 사례 등의 자료가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대응전략	1차 조사 분석결과		2차 조사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의견					
2	시·도별 집중 투자분야 특화 산업분야 연계 청소년 진로역량개발 지원체계 구축				
의견					
3	청소년사업 현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역격차 해소				
의견					
4	청소년사업 현장 물적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				
의견					

※ 평균(표준편차), 순위 : 전체 참가자(15인)의 응답 평균 및 전략별 순위

♡ 감사합니다.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을 찾아보고,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4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콜로키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분야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분야,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 분야,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청소년 보호 사업 분야로 5영역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를 통해서 기관별, 지자체별 대응상황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위기 예방 사업들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뉴딜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분야 적용사례 및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관련성과 중요성, 선호직업 등을 알아보았으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서는 대응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리하여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기존 청소년정책·사업의 구조와 틀을 넘어 청소년분야가 사회 발전과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자 사회적 인재 양성 및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세부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 5가지, 그린 뉴딜 4가지, 안전망 강화 5가지, 지역균형 뉴딜 3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1) investigate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imulate radical economic and social reformation, and 2) develop the groundwork to implement the Korean New Deal with a strategy focused on the youth.

In order to design a strategy for the new initiative for youth by focusing on four key area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conducted case studies, and held a survey with youth leaders and teenagers. In addition, a Delphi survey, a colloquium, an advisory conference with experts, and working-level meetings on policy research were held.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had been dealt with, the government's youth policy was examined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the general management and adjustment of youth policy, the promotion of youth participation and prioritized projects, youth activities and safety projects, youth welfare projects, and youth protection projects.

To study the cases in Korea, the responses of each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create jobs for youth, and crisis prevention projects were examined. As for overseas

cases, the New De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re analyzed, and cases and programs for youth were explored.

During the survey, youth leaders and teenagers' perception, relevance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and their preferred occupation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elphi survey, the response strategies were prioritized, and 17 response strategies were derived in four area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opinions on the direction, strategies, and cases of each key task.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a detailed strategy was developed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asks to transform and expand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into a new engine of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going beyond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youth policy and projects to create a platform for nurturing talent and creating values for the society.

The strategy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consists of 17 tasks in four areas. This study presented five Digital New Deal programs, four Green New Deal programs, five Reinforced Safety Net programs, and thre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규·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연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한지형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  
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  
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 연구개발적립금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운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규·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 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 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 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유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닛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

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 (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 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 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21-R09

---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17-6



연구보고 21-R09

#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17-6